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1

백두청년회 산하 백두산편집부

김일성장군의 노래

보통속도로

작사 리찬, 작곡 김원균

1. 장 백 - 산 줄 기 줄기 피 어 린 자 욱
암 - 록 강 굽 이 굽이 피 어린 자 - 욱
오 늘 도자 유조 선 꽃 다 발 우 에 력 력 히비 쳐주는
거 룩 한 자욱 아 ——— (후렴) 그 이름 도 그 리운 우
리 의 장 군 아 —— 그 이 름
도 빛 나는 김 일 성 장 군

2.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 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후렴)

3.로동자대중에겐 해방의 은인
민주의 새 조선엔 위대한 태양
20개 정강우에 모두다 뭉쳐
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온다
(후렴)

김정일장군의 노래

장중하고 폭 넓게 (♩=102) 작사 신운호, 작곡 설명순

1. 백 두 산 줄 기 내 려 금 수 강 산 삼 천 리

장 군 님 높 이 모 신 환 호 성 울 려 가 네 태 양

의 위 업 빛 내 신 인 – 민 의 령 도 자 만

세 만 세 김 – 정 일 장 군

2.대지의 천만 꽃도 그 사랑을 전하고
동서해 푸른 물도 그 업적 노래하네
주체의 락원 가꾸신 행복의 창조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3.강철의 담력으로 사회주의 지키여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상에 떨치시네
자주의 기치 높이 든 정의의 수호자
만세 만세 김정일장군

머리말

무릇 인생 말년에 자기의 한 생을 회고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회로운 일이다. 걸어온 행로가 같지 않고 보고 듣고 느낀 생활 체험이 천차만별이라 사람들은 서로 다른 심경으로 지나온 나날들을 더듬어 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평범한 인간으로서, 근대 이후 세계정치에서 언제나 두드러졌던 한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한 정치가로서 나는 깊은 추억과 잊을 수 없는 회포속에 자신의 한 생을 돌이켜보게 된다.

민족수난의 비운이 칠칠히 드리웠던 망국초엽에 태어났고 격변하는 내외정세의 소용돌이속에서 생의 첫 걸음을 떼어야 했던 나는 어린 시절부터 조국과 운명을 같이하고 겨레와 더불어 희로애락을 나누는 길을 걷게 되었으며 바로 그 길에서 어언 팔순에 이르렀다.

인류의 생활에 미증유의 대 흔적을 남기고 세계의 정치지도에 괄목할 변화를 일으켰던 20세기와 더불어 흘러온 나의 한 생은 그대로 우리 조국과 민족이 걸어온 역사의 축도이다.

그 길에는 물론 기쁨과 성공만이 있은 것이 아니였다. 거기에는 뼈를 에이는 슬픔과 희생도 있었고 심한 우여곡절과 난관도 많았다. 투쟁의 길에는 벗도 동지도 많았지만 앞길을 막아서는 사람 또한 적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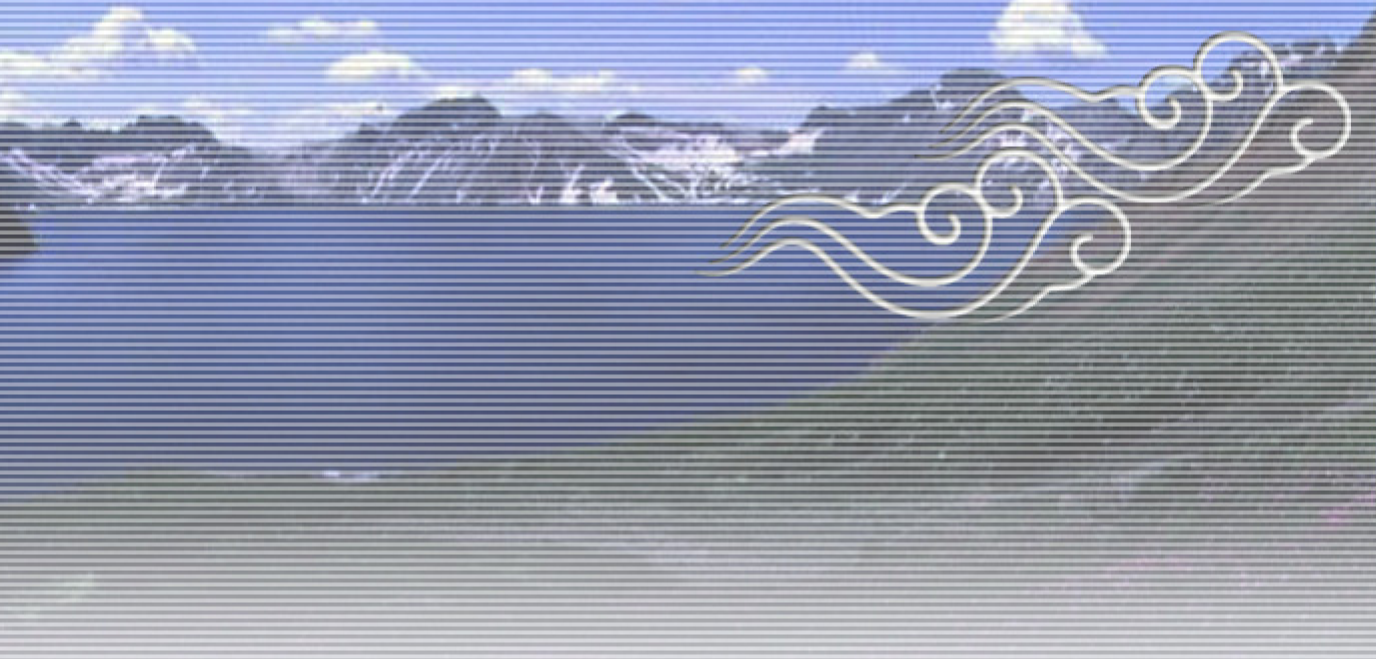
애국의 넋은 10대의 그 시절에 나로 하여금 길림시가의 포석 위에서 배일의 함성을 외치게 했고 적들의 추적을 피하는 아슬아슬한 지하투쟁도 체험하게 했다. 항일의 기치 높이 백두밀림에서 풍찬노숙하며 광복의 그날을 믿어 눈보라 만리, 혈전 만리를 헤쳐야 했고 수십 수백 배나 되는 강적과 맞서 힘겹게 고군분투해야 했다. 해방은 됐어도 분열된 조국의 운명을 건지려 몇 밤을 지샜고 인민의 나라를 세우고 지키던 나날에는 또다시 형언할 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뚫고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나는 이 길에서 한 번도 물러서거나 주저앉지 않았다.

파란만장의 인생항로에서 내가 키를 잃지 않고 꿋꿋이 살고 싸워나갈 수 있은 것은 오로지 동지들과 인민들이 나를 진심으로 믿고 도와준 덕이였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믿고 그 힘에 의거할 데 대한 주체의 원리야말로 내가 가장 숭상하는 정치적 신앙이며 바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한 생을 인민을 위하여 바치게 한 생활의 본령이였다.

일찌이 양친을 여읜 나는 어려서부터 동지들의 사랑과 기대속에 한 생을 보냈다.



나는 수천수만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의 혈로를 헤쳐왔고 그 과정에 생사를 같이 하는 동지와 조직의 귀중함을 뼈에 사무치게 체득했다.

아직은 조국광복을 기약할 수 없었던 20년대 화전의 언덕에서 나를 믿어주고 따르던 ≪ㅌ·ㄷ≫의 첫 동지들로부터 적의 흉탄을 한 가슴으로 막아서고 우리를 대신하여 웃으며 단두대에 올라섰던 그 잊을 수 없는 동지들이 해방된 조국땅에 오지 못한 채 이역의 산하에 고귀한 영령으로 잠들고 있다. 투쟁의 첫 걸음을 달리 떼었어도 종당에는 우리와 한길을 걸었던 수많은 애국지사들도 오늘은 우리 곁에 없다.

우리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 우리 조국이 융성번영하며 만민이 그 최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바로 이날을 위해 자기 일신을 초개와 같이 바쳤던 동지들의 생각이 더더욱 간절하고 잊을 수 없는 그 모습들이 삼삼히 갈마들어 잠 못 이루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원래 나는 회고록을 쓸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명망 높은 정치가들과 저명한 문인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나의 한 생이 사람들에게 고귀한 교훈을 남길 것이라고 하면서 회고록을 쓸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서두르지 않았다.

이제는 **김정일**조직비서가 나의 사업을 많이 대신해주어 어느 정도 짬을 얻게 되었다. 세대가 바뀌어 혁명의 노투사들도 하나 둘 가고 새로 자란 세대가 우리 혁명의 중진으로 되었다. 그들에게 민족과 더불어 한 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한 문제들과 선열들이 오늘을 위해 어떻게 자기 청춘을 바쳤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나의 의무로 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 대로 한두 줄씩 적어 놓게 되었다.

나는 나의 한 생이 결코 남달리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한 생이며 인민과 더불어 지나온 한 생이었다고 자부하는 것으로 만족할 뿐이다.

나는 나의 글이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면 천하를 얻고 백 번 승리하며 인민을 멀리하고 그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 번 패한다는 진리, 생과 투쟁의 교훈을 후세에 남기게 되기를 바란다.

먼저 간 선열들의 명복을 빌면서
1992년 4월 묘향산에서



차 례

1장 비운이 드리운 나라

2장 잊을수 없는 화전

3장 길림시절

제1장



비운이 드리운 나라

우리가정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독립만세의 메아리
타향에서 타향으로
압록강의 노래
나의 어머니
유산

■ 시기 : 1912. 4 ~ 192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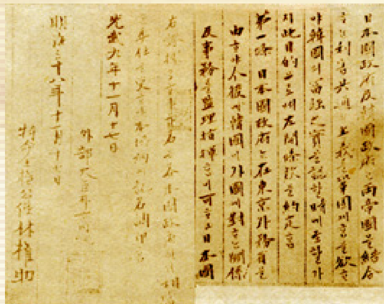
1. 우리 가정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일가

나의 생애는 조선의 근대역사에서 민족수난의 비극이 가장 암담하게 중첩되던 1910년대로부터 시작되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나라는 벌써 일본의 독점적인 식민지가 되었다. 황제의 통치권은 ≪한일합병≫조약과 함께 일본천황에게로 모조리 넘어갔고 이 나라 백성들은 ≪총독제령≫에 따라 움직이는 현대판노예가 되었다. 유구한 역사와 풍요한 자연부원과 수려한 산천경개를 자랑하는 이 강토는 일본제군화와 대포바퀴밑에서 짓이겨졌다.

민중은 국권을 강탈당한 슬픔과 분노에 치를 떨었다. ≪시일야방성대곡≫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 있던 이 땅의 초야와 지붕밑에서 수많은 충신들과 유생들이 망국의 한을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름없는 백성까지도 칠성판에 오른 국운을 통탄하며 죽음으로써 치욕의 ≪한일합병≫에 대답하였다.



고종황제의 수표와 국새날인도 없이 날조된 ≪을사5조약≫

우리 나라에는 경찰들과 일반문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학교 훈도들까지 금테를 두른 양복을 입고 정모를 쓰고 칼을 차고 다니는 야만적인 헌병경찰제도가 수립되었다. 천황의 칙령에 따라 총독은 조선에서 육해군의 통솔권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귀와 입을 틀어막고 수족을 얽어맬 수 있는 무제한한 권한을 가지였다. 조선사람들이 만들

어놓은 모든 정치단체들과 학술단체들은 해산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조선의 애국자들은 구류장과 감옥에서 연덩어리가 달린 소가죽채찍에 얻어맞았다. 도꾸가와막부시대의 고문방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형리들이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조선사람의 살을 마구 지지였다.

날마다 쏟아져나오는 ≪총독제령≫에 의해 조선사람의 흰옷마저 먹물을 들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현해탄을 건너온 일본의 재벌들은 무슨 ≪회사령≫이니, 조사령이니 하는 법령들의 그늘밑에서 우리 조국의 보화와 재부들을 무데기로 실어갔다.

나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지난날 식민지로 있었던 나라들을 적지 않게 보았지만 다른 민족의 말과 성까지 빼앗고 밥그릇까지 약탈해간 그렇게 지독한 제국주의는 보지 못하였다.


감옥으로 변한 나라

당시의 조선은 말그대로 사람 못살 생지옥이었다. 조선사람들은 살아도 죽은목숨과 같았다. ≪… 일본은 모든 새로운 발명들과 순전한 아세아식고문을 결합시킨 전대미문의 야수성으로 조선을 약탈하고 있으며 그를 계속 약탈하기 위하여 싸울 것이다.≫라고 한 레닌의 지적은 아주 타당하고 정확한 것이다.

내가 성장하던 그 시기는 다른 대륙들에서도 식민지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각축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때였다. 내가 태어난 그 해에도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는 복잡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바로 그 해에 미해병대가 온두라스에 상륙하였다. 프랑스는 모로크를 자기의 보호국으로 만들었고 이탈리아는 터어키의 로토스섬을 점령하였다.

국내에서는 ≪토지조사령≫이 발표되어 민심을 뒤숭숭하게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나는 어수선한 동란의 시대에 태어나 불우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 이러한 시대상은 나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한테 우리 나라의 망국사를 들은 다음부터 봉건통치배들을 몹시 원망하였으며 피눈물을 머금고 나라의 자주권을 찾는 일에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남들이 군함과 기차를 타고 세계를 돌아칠 때 우리 나라의 봉건통치배들은 갓쓰고 당나귀타고 음풍영월로 수백 년 세월을 헛되게 보냈다. 그러다가 동서방의 침략세력이 함대를 끌고 접어들자 그렇게도 완고하게 닫아매였던 쇄국의 문을 열어놓았다. 봉건왕조는 외세가 마음대로 농락하는 이권쟁탈의 흥정판으로 되었다.

역대로 사대주의를 일삼아오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때에조차 큰 나라들의 조종밑에 당파싸움만 하였다. 그러다나니 오늘 친일파가 득세하면 일본군대가 왕궁을 지키고 내일 친로파가 득세하면 러시아군대가 임금을 호위하고 모레 친청파가 득세하면 청나라 군대가 대궐의 파수를 서는 판이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비가 궁궐안에서 외국테러단의 칼에 맞아죽고 (1895년 ≪을미사변≫) 왕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 공사관에 가서 1년동안이나 갇혀있는가 하면 (1896년 ≪아


반일구국의 기치를 든 의병들

관파천≫) 임금의 당아버지가 외국에 납치되어가서 귀양살이를 하여도 오히려 사죄를 해야 되는 판국이었다.

왕궁을 지키는 것도 남의 나라 군대에 맡겼으니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고 돌보겠는가.

무변광대한 이 세계에서 가정이란 하나의 작은 물방울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방울도 세계의 한 부분이며 세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조선을 망국의 비운속에 몰아넣은 근대역사의 파도는 우리 가정에도 사정없이 쓸어들었다. 하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은 그 위협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민족과 더불어 울고 웃으면서 폭풍속에 아낌없이 몸을 내던지였다.


할머니 이보익

우리 가문은 김계상할아버지대에 살길을 찾아 전라북도 전주에서 북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만경대에 뿌리를 내린 것은 증조할아버지(김응우)대부터였다. 증조할아버지는 원래 평양 중성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농사를 지었는데 생활이 너무도 구차하여 평양에 사는 지주 리평택의 묘지를 보아주기로 하고 산당집을 한 채 얻어가지고 1860년대에 만경대로 이사해왔다.

만경대는 산천경개가 매우 아름다운 고장이다. 우리 집 옆에 있는 산을 남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마루에 올라가 대동강쪽을 굽어보면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 같다. 타고장의 부자들과 벼슬아치들이 만경대일대의 산들을 경쟁적으로 사가지고 조상의 묘를 많이 쓴것도 이 일대의 아름다움을 탐냈기 때문이었다. 만경대에는 평안감사의 묘도 있었다.

대대로 소작살이를 하다나니 우리 집안은 매우 어렵게 살았다. 그런데다가 3대를 두고 외독자로 내려오던 우리 가문이 할아버지(김보현)대에 와서는 아들딸 6형제를 보게 되어 열명 가까운 대식구로 불어났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나 자손들의 입에 풀칠이라도 시켜보려고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다. 남들이 다 자는 이른새벽에도 쉬지 않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진거름을 모았다. 밤이 되면 등잔불밑에서 새끼를 꼬고 짚신을 삼고 멍석을 틀었다.

할머니(이보익)도 밤마다 물레질을 하였다.

어머니(강반석)는 삼촌어머니(현양신)와 고모들(김구일녀, 김형실, 김형복)을 데리고 낮에는 밭에서 종일 김을 매고 밤에는 무명낳이를 하였다.

집사정이 하도 어려우니 큰삼촌(김형록)은 9살에 천자를 좀 배우고는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지었다.

온 가정이 달라붙어 기를 쓰고 일했지만 늘 죽도 변변히 우리지 못하였다. 껍질도 벗기지 않은 수수로 타개죽을 쑤어먹군 하였는데 목안이 깔깔해서 넘어가지 않던 일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니 과일이나 고기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한번은 내 목에 화기가 났는데 그때 할머니가 어디서 돼지고기를 얻어왔다. 그 고기를 먹고 화기가 뚝 떨어졌다. 그 후부터 나는 고기를 먹고싶으면 화기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였다.

내가 만경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낼 때 우리 할머니는 늘 집에 시계가 없는 것을 한탄하였다. 할머니는 물욕이 없는 분이었지만 남의 집에 걸려있는 벽시계만은 몹시 부러워하였다. 우리 이웃에 벽시계가 있는 집이 한집 있었다.

할머니가 그 집 벽시계를 부러워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 아버지가 숭실중학교를 다닐 때부터였다고 한다. 집에 시계가 없었으므로 할머니는 매번 쪽잠을 주무시다

가 첫새벽에 일어나 어림짐작으로 시간을 가늠하고는 서둘러 조반을 짓군 하였다. 만경대에서 숭실중학교까지 30리길이니 조반을 일찍 짓지 않으면 지각을 할 수 있었다.

어떤 날은 한밤중에 밥을 지어놓고도 등교시간이 되였는지 안되였는지 알 수 없어 몇 시간씩 잠을 못자고 부뚜막에서 동창만 바라볼 때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뒤집에 가서 몇 시나 되였는지 알아보구 오렴.≫하고 분부하였다.

어머니는 뒤집에 가서도 주인을 깨우기 미안하여 뜨락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타리밖에 쪼그리고앉아 시계종이 땡땡소리를 낼 때까지 기다리군 하였다. 그러다가 시계종이 울리면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시간을 알려드리군 하였다.


할아버지 김보현

내가 팔도구에서 살다가 고향에 돌아오니 삼촌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런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큰아버지가 먼길을 통학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는데 성주는 칠골외가에 가있게 된다니 학교가 가까워서 좋겠다고 하였다.

우리 집에서는 해방될 때까지 할머니가 그렇게도 부러워하던 벽시계를 끝내 사다 걸지 못하였다.

우리 집안사람들은 비록 죽물을 우리며 가난하게 살았지만 혈육이나 이웃간에 서로 도와주고 받들어주는 마음이 극진하였다.

≪돈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인덕이 없으면 살 수 없느니라.≫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늘 이런 훈계를 하였다. 이것이 곧 우리 가정의 철학이기도 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새것에 민감하고 향학열이 높았다.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우면서도 늘 정규학교에 가고싶어하였다.

≪헤이그밀사사건≫이 있은 그 해 여름 슬매부락에서는 순화, 추자, 칠골, 신흥 네 개 학교의 학생들이 모여서 연합운동회를 하였다. 아버지는 그날 순화학교 선수로 운동회에 참가하여 철봉, 씨름, 달리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종목에서 우승을 하였다. 그런데 높이뛰기에서만은 첫자리를 다른 학교 선수에게 빼앗기였다. 가름대에 머리태가 걸리는 바람에 실수를 하였기 때문이였다.

운동회가 끝난 다음 아버지는 학교뒤산에 올라가 그 머리태를 뭉청 잘라버리였다. 수백년을 두고 내려오는 낡은 인습을 무시하고 부모의 허락도 없이 머리태를 잘라버린다는 것이 그 때로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였다.

할아버지는 큰 변이 났다고 야단을 하였다. 원래 우리 집안 사람들이 대가 셌다.

아버지는 그날 할아버지가 무서워 집에도 못들어오고 울바자밖에서 서성거리였는데 증조할머니가 뒤문으로 데려다가 밥을 주었다고 한다. 증조할머니는 우리 아버지를 장손으로서 각별히 사랑하였다. 아버지는 자신이 숭실중학교에 들어갈 수 있은 것도 증조할머니의 덕이라고 늘 말씀하였다. 증조할머니가 보현할아버지를 설복하여 아버지를 신식학교에 다닐수 있게 해주었다. 봉건이 심했던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할아버지네 세대는 신식학교를 별


해방전 만경대



샤먼호 사건당시 김응우선생님을 선두로 한 만경대인민들의 투쟁

로 달가와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숭실중학교에 입학한 것은 나라가 망한 이듬해(1911년) 봄이었다. 당시는 개화의 첫 시기여서 양반들도 학교공부를 하는 사람이 얼마 없었다. 우리 집 같이 타개죽도 변변히 먹지 못하는 집에서 자손들을 중학교에까지 보낸다는 것은 대단히 힘에 부치는 일이었다.

그 당시 숭실중학교의 월사금이 2원이었다고 한다. 그 2원을 벌려고 어머니는 순화강에 나가 가막조개까지 주어다 팔았다. 할아버지는 참외를 심고 할머니는 열무농사를 하고 열다섯 살밖에 안되었던 큰삼촌조차도 형님의 학비를 보탠다고 짚신삼이를 하였다.

아버지자신도 학비를 벌려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는 학교당국이 운영하는 실습장에서 해가 질녘까지 고된 노동을 하였다. 그런 후에 학교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책을 읽다가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와 한두 시간 쪽잠에 들었다가는 다시 학교로 가군 하였다.

이처럼 우리 가정은 그 당시 조선의 어느 농촌, 어느 고을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소박하고 평범한 가정이었다. 남들보다 별로 표가 나는 것도 없고 특이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가난한 가정이였다.

그렇지만 조국과 겨레를 위한 일이라면 누구나 아낌없이 몸을 내대였다.

증조할아버지는 남의 묘를 봐주는 산당지기였으나 나라와 향토를 열렬히 사랑하는 분이었다.

미제침략선 ≪샤만≫호가 대동강을 거슬러올라와 두루섬에 정박하고 있을 때 증조할아버지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집집에 있는 바줄을 다 모아 강건너 곤유섬과 만경봉사이에 겹겹이 건너지르고 돌을 굴리면서 해적선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샤만≫호가 양각도밑에까지 기여들어 대포와 총을 쏘아대면서 시민들을 살해하고 재물들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겁탈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는 마을사람들을 데리고 그달음으로 평양성에 들어갔다. 그때 성안사람들은 관군과 함께 나무단을 가득 실은 매생이 여러 척을 연결시켜 불을 지르고 ≪샤만≫호쪽으로 띄워내려보내여 배도 해적들도 모조리 수장해버리었는데 증조할아버지도 여기서 한몫 단단히 하였다고 한다.

≪샤만≫호가 격침된 다음에는 미체침략자들이 또 군함 ≪쉐난도아≫호를 끌고 대동강하구에까지 기여들어 살인, 방화, 약탈을 감행하였다. 만경대인민들은 ≪쉐난도아≫호가 침입하였을 때에도 의병을 뭇고 조국방위에 한 사람같이 궐기하였

다.

우리 할아버지는 늘 ≪남자는 전장에서 적과 싸우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면서 집안식구들이 모두 나라를 위해 떳떳이 살도록 교양하였으며 자손들을 혁명투쟁에 아낌없이 내세웠다.

할머니도 자식들에게 대바르고 굳세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주었다.

한때 일본사람들이 나에 대한 ≪귀순≫공작을 하느라고 엄동설한에 할머니를 데려다가 만주산야로 끌고 다니면서 별고생을 다 시킨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 할머니는 적들을 노복처럼 호령하면서 혁명가의 어머니, 혁명가의 할머니답게 굳세고 당당하게 처신하였다.

나의 외할아버지(강돈욱)는 고향마을에 사립학교를 세우고 청소년들을 공부시키면서 일생을 후대교육과 독립운동에 바쳐온 열렬한 애국자, 교육자의 한 사람이었으며 맏외삼촌(강진석)도 일찍부터 독립운동에 나선 애국자였다.



강돈욱
외할아버지

아버지는 내가 어려서부터 애국의 넋을 깊이 간직하도록 꾸준히 교양하였으며 그런 지향과 념원으로부터 내 이름도 나라의 기둥이 되라는 의미에서 ≪성주≫라고 지어주었다.

아버지는 숭실중학교에 다닐 때 두 동생을 데리고 집오래에 삼형제를 상징하여 백양나무 세 그루를 심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만경대에는 백양나무라는 것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날 두 동생에게 백양나무는 빨리 자라는 나무라고 하면서 우리 형제들도 그와 같이 씩씩하게 자라 나라를 독립시키고 잘 살아보자고 말씀하였다.

그 후에 아버지는 혁명을 위하여 만경대를 떠났고 뒤따라 작은삼촌(김형권)도 싸움의 길에 나섰다.

만경대고향집에는 큰삼촌 한 분만 남았지만 백양나무는 세 그루 다 잘 자라 큰 나무가 되었다. 그 그늘이 지경을 넘어 지주의 밭에까지 드리워지게 되었다. 지주는 밭에 그늘이 지면 소출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남의 집 백양나무를 사정없이 찍어버리었다. 그래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무도한 세월이었다.

나라가 해방된 다음 집에 와서 그 말을 들으니 돌아가신 아버지의 깨끗한 꿈이 생각나서 참으로 분하였다.

분한 일이 어찌 그뿐이었겠는가.

우리 고향집앞에는 내가 어린 시절에 동무들을 데리고 자주 올라가 놀던 들메나무가 여러 그루 있었다. 역시 20년만에 집에 돌아와보니 그 중 집 가까이 있던 들메나무가 보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큰삼촌이 그 나무를 찍어버렸다고 하였다. 듣고보니 거기에도 기막힌 사연이 있었다.

우리 집을 감시하느라고 대평주재소순사들이 늘 당번을 섰다. 대평과 만경대는 좀 떨어져있었으므로 여름에는 그 들메나무밑이 그자들의 출장소 같이 되었다. 그 그늘에 앉아 심심하면 동네사람들을 불러다 문초도 하고 부채질을 하며 낮잠도 잤다. 어떤 때에는 닭을 잡아다가 술추렴도 하고 할아버지나 큰삼촌에게 행패질도 하였다.

하루는 그렇게도 무던하던 큰삼촌이 도끼를 둘러메고 나와 단숨에 그 나무를 찍어버렸는데 할아버지는 말릴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 하였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나도 쓸쓸하게 웃었다.

혁명하는 자손들을 두다나니 우리 조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그처럼 모진 시련과 박해속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절개를 굽히지 않고 꿋꿋하게

잘 싸웠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왜정말기에 창씨개명을 강요하였지만 나의 조부모님들은 거기에도 용하지 않았다. 우리 고향에서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지 않고 끝까지 버티여낸 것은 우리 집 하나밖에 없었다.

그밖의 사람들은 다 성을 고치였다. 성을 고치지 않으면 일본관청이 도시에서 배급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가기가 곤란하였다.

형록삼촌은 창시개명에 응하지 않는다고 매도 여러 번 맞았고 주재소의 호출도 여러 번 받았다.


삼촌 김형권동지

순사가 나서서 ≪오늘부터 너는 김형록이 아니다. 네 이름이 뭐냐?≫하고 물으면 삼촌은 ≪김형록이외다.≫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순사가 달려들어 귀뺨을 때리었다.

≪다시 말해봐. 이름이 뭐야?≫하고 또 물어도 변함없이 ≪김형록이외다.≫하고 대답하였다.

순사는 처음보다 더 아프게 따귀를 쳤다. 김형록이라는 대답 한마디에 주먹이 한 대씩 안겨졌지만 삼촌은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그때 할아버지는 삼촌에게 이름을 일본말로 고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지금 성주가 왜놈들과 싸우고 있는데 네가 이름을 일본말로 고치면 되겠느냐, 맞아죽으면 맞아죽었지 절대로 이름을 일본말로 고쳐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였다.

이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하직하고 고향을 떠날 때는 모두들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오겠다면서 씩씩하게 사립문을 나섰다.

그러나 그들가운데서 조국으로 돌아온 것은 나 하나뿐이였다.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쳐온 아버지는 이역에서 32살에 세상을 떠났다. 남자의 나이 32살이면 한창시절이였다. 장례가 끝난 다음 고향에서 할머니가 들어와 무송 양지촌에 있는 아버지의 묘앞에서 목놓아울던 일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다.

6년 후에는 또 어머니가 안도에서 독립의 날을 보지 못하고 돌아갔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유격대에 들어가 총을 잡고 싸우던 동생 철주마저 전사하였다. 전장에서 싸우다 죽었으므로 동생은 유해조차 건지지 못하였다.


무송시절의
철주동생

몇 해 후에는 마포형무소에서 장기형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던 작은삼촌이 모진 고문 끝에 옥사하였다. 그때 우리 집에서는 시신을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고도 돈이 없어 찾아오지 못하였다. 그래서 작은삼촌의 유골은 마포형무소 공동묘지에 묻히었다.

끌끌하신 자손들이 스무 해 사이에 다들 이렇게 낯선 산천에 한줌 흙으로 뿔뿔이 흩어져 널리었다.

해방이 되어 고향에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사립문밖에서 나를 부둥켜안고 ≪아버지, 어머니는 어데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같이 오면 못쓴다더냐!≫하며 내 가슴을 두드리었다.

할머니의 심정이 그처럼 비통할진대 만리타향에 무주고혼이 되어 누워있는 선친들의 유해마저 모시지 못하고 고향집 사립문에 홀몸으로 들어선 내 마음이야 어떠했겠는가.

나는 그때부터 남의 집 사립문에 들어설 적마다 이 사립문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은 몇 이며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얼마일가 하는 생각을 하군 하였다. 이 나라의 모든 사립문들에는 눈물에 젖은 이별의 사연이 있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 혈육들에 대한 목메인 그리움과 뼈를 에이는 상실의 아픔이 있다. 수천수만을 헤아리는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과 형제자매들이 조국광복의 제단에 생명을 바치였다. 우리 민족이 피와 눈물과 한숨의 바다를 넘어 포연탄우를 헤치며 조국을 찾는데는 실로 서른여섯 해라는 기나긴 세월이 걸리였다. 그것은 너무나도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혈전의 서른여섯 해였다. 그러나 그런 혈전과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의 조국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기는 지금도 치욕스러운 노예살이가 계속되는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세기로 되였을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생 농사밖에 모르고 살아온 촌늙은이들이였지만 진정을 말하건대 나는 그분들의 견결한 혁명정신에 탄복하였고 거기서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

말이 쉽지 자식들을 키워 고스란히 혁명의 길에 내세우고 그에 뒤따르는 갖은 고초와 시련을 묵묵히 견디면서 자손들의 뒤를 꾸준히 받쳐준다는 것이 한두 번의 전투나 몇 년간의 감옥살이에 비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일가가 당한 이러한 불행과 고초는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이 당한 불행과 고초의 한 축도에 지나지 않는다. 수십수백 만의 조선사람들이 일제의 학정밑에서 굶어죽고 얼어죽고 불타죽고 맞아죽었다.

나라가 망하면 산천도 사람도 결코 편안할 수가 없다. 망한 나라의 지붕밑에서는 나라를 판 값으로 호의호식하는 매국노들도 발편잠을 자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은 설사 살아있어도 상가집 개만 못하고 산천은 설사 지경이 남아있어도 제 모습을 보존하기 어렵다.

이런 이치를 먼저 깨닫는 사람을 선각자라고 하며 와신상담하면서 나라의 비운을 가시려고 애쓰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하며 제 한몸을 불태워 진리를 밝히고 만민을 불러일으켜 불의의 세상을 뒤집어엎는 사람을 혁명가라고 한다.

나의 아버지는 우리 나라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의 한 사람으로서 1894년 7월 10일에 만경대에서 탄생하여 1926년 6월 5일 망국의 심야에 한을 품고 돌아갈 때까지 일생을 혁명에 바친 분이였다.

나는 아버지 김형직의 맏아들로 망국 이태후인 임자년(1912년) 4월 15일에 만경대에서 태어났다.



만경대 고향집

2. 아버지와 조선국민회


아버지 김형직

나의 아버지는 ≪지원≫의 뜻을 일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집에는 물론, 순화학교와 명신학교 등 이르는 곳마다에 ≪지원≫이라는 두 글자를 붓글씨로 큼직하게 써붙이였다.

지금도 아버지의 필적이 더러 남아있지만 아버지는 붓글씨를 괜찮게 썼다.

당시는 서예를 숭상하던 때여서 명사나 명필들의 글을 받아 족자나 현액, 병풍을 만드는 것을 하나의 멋으로 알았다. 나도 철이 없을 때에는 그것을 일반서예로 생각하였다.

아버지는 그 글씨에 어떤 표구도 하지 않고 그저 눈에 잘 띄우는 곳에 붙여두었다.

내가 철이 들자 아버지는 나에게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려면 큰 뜻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지원≫이란 문자그대로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뜻을 원대하게 가지라고 가르친다고 해서 별로 특이할 것은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높은 이상과 포부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지원≫의 사상은 개인의 영달이나 입신양명을 염두에 둔 세속적인 인생교훈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참된 보람과 행복을 찾는 혁명적 인생관이며 대를 이어가며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광복을 이룩해야 한다는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이다.

아버지는 왜 큰 뜻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사와도 같은 것이였다.

…우리 조선은 원래 국력이 막강한 나라였다. 무예가 발달하여 싸움에서 패한 적이 별로 없고 일찍부터 문화가 개화하여 그 빛이 바다건너 일본땅에까지 비쳐갔다. 그런데 그렇게도 강성하던 나라가 이조 500년의 썩은 정치로 일조에 망국의 비운을 들쓰게 되였다.

네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 왜놈들이 총칼로 우리 나라를 먹어버리였다. 왜적들에게 국권을 팔아먹은 역신들을 ≪을사오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역신들도 조선의 얼만은 팔아넘길 수 없었다.

의병들이 창을 들고 ≪왜별복국≫을 부르짖었다. 독립군은 화승대로 이 땅에 침노한 원쑤들을 쓸어눕히였다. 때로는 인민봉기의 만세함성과 돌팔매질로 이르는 곳마다에서 왜적을 치고 사람마다 울부짖어 인류의 양심과 세계의 정의에 호소하

였다.

최익현은 대마도로 잡혀갔어도 원쑤들의 음식을 먹지 않고 단식으로 순국하였다. 이준은 제국주의열강대표들의 면전에서 스스로 배를 갈라 우리 민족의 진정한 독립정신을 보여주었고 안중근은 하얼빈역두에서 이등박문을 격살하고 독립만세를 웨쳐 조선사람의 기개를 과시하였다.

환갑이 넘은 강우규노인까지도 사이또총독의 면전에 폭탄을 던지였다. 리재명은 망국의 한을 풀려고 단도로 이완용을 찔렀다.

민영환, 이범진, 홍범식과 같은 애국충신들은 자결로써 국권수호를 호소하였다.

한때는 우리 민족이 국채보상운동이라는 눈물겨운 운동까지 벌이었다. 국채란 러일전쟁후 일본에서 꾸어다 쓰고 갚지 못한 1,300만원의 빚을 말한다. 이 빚을 갚으려고 온 나라 남자들이 담배를 끊었다. 고종황제까지도 단연으로써 이 운동에 합세하였다. 여자들은 반찬값을 아끼고 패물을 내놓았다. 혼수감을 바치는 처녀들도 있었다. 부자집의 상노와 침모, 떡장사, 나물장사, 짚신장사까지도 나라의 빚을 갚느라고 땀에 절은 푼전들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독립을 보존하지 못하였다.

문제는 나라를 찾겠다는 한마음한뜻으로 온 나라 인민을 불러일으켜 원쑤를 쳐물리칠 만큼 힘을 키우는 것이다. 마음만 굳게 먹으면 힘을 기를 수 있고 힘만 기르면 능히 강적을 물리칠 수 있다.

온 나라 백성들을 깨우치고 불러일으켜야만 국권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 일은 하루이틀에 성취할 수 없다. 그래서 뜻을 멀리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나의 손목을 잡고 만경봉에 오르내릴 때부터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애국주의사상으로 일관되어있었다.

아버지는 언제인가 할아버지, 할머니앞에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다.



아버님으로부터 혁명주의교양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나라를 독립시키지 못할 바에야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내몸이 찢기여 가루가 될지언정 일본놈들과 싸워이겨야 하겠습니다.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성취하여야 합니다.≫

후날 삼사 년이면 끝장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항일무장투쟁이 장기전으로 넘어갈 때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상기했고 해방 후에는 북과 남으로 갈라져 상반되는 길을 걷고 있은 민족분열의 장구한 비극을 체험하면서 그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뜻에 새삼스럽게 숙연한 생각을 금치 못하였다.


오동진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아버지가 품고계시던 ≪지원≫의 사상과 신념, 조국광복에 대한 사상과 지향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집형편이 그처럼 어려운 때에 아버지가 강심을 품고 숭실중학교에 들어간 것도 바로 ≪지원≫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

갑오개혁 후 을사조약이 체결되기까지의 10년 남짓한 기간은 우리 나라에서 내정개혁의 파도를 타고 때늦게나마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세우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던 때였다. 신교육의 봉화를 들고 서울에서 배제학당이요, 이화학당이요, 육영공원이요 하는 학교들이 설립되어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배워주고 있을 때 서선지방에서 미국선교사들이 전도사업의 일환으로 세운 학교가 바로 숭실중학교이다.

숭실중학교는 전국적 판도에서 학생들을 모집하였다. 신학문을 숭상하는 청년들이 이 학교를 많이 지망하였다. 역사, 대수, 기하, 물리, 위생학, 생리학, 체육, 음악과 같은 숭실중학교의 현대적인 교과목들은 나라의 후진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조류에 발을 맞춰나가고 싶어하는 청년들의 관심을 끌었다.

우리 아버지도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이 학교에 다니었다고 말씀하였다. 4서5경을 비롯하여 서당에서 힘들게 배우는 구학문은 아버지의 비위에 맞지 않았다.

선교사들이 내세운 교육목적과의 관계없이 숭실중학교에서는 후날 독립운동선상에서 큰 활약을 한 이름있는 애국인사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상해임시정부 의정원의 초대부의장을 거쳐 의장식을 역임한 바 있는 손정도도 이 학교 출신이었고 임정말기에 국무의원으로 활동한 차리석도 이 학교 졸업생이었으며 재능있는 애국시인 윤동주도 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중퇴한 사람이었다.

강양욱선생도 숭실학교의 전문반을 다닌분이였다. 당시는 이 전문반을 숭실전문학교라고 불렀다. 숭실중학교란 숭실학교안에 있는 중학반을 말한다. 숭실학교에서 반일독립운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은 이 학교를 배일사상의 책원지라고 하였다.


평양숭실중학교

≪글을 배워도 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기술을 배워도 조선을 위하여 배우며 하늘을 믿어도 조선의 하늘을 믿어야 한다.≫

아버지는 이런 사상으로 학우들을 깨우쳐주면서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묶어세웠다.

아버지의 지도밑에 숭실중학교에는 독서회와 일심친목회가 조직되었다. 이 단체들은 학생들을 반일사상으로 교양하는 한편 평양과 그 주변 일대에서 적극적인 대중계몽활동을 벌이었으며 1912년 12월에는 교내에서 학교당국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착취행위를 반대하는 동

맹휴학까지 조직하였다.

아버지는 중학공부를 하면서도 방학이면 안주, 강동, 순안, 의주 등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대의 여러 지방들을 돌아다니며 대중계몽과 동지획득을 위한 활동을 벌이었다.

아버지가 숭실중학교에 다닐 때 얻은 제일 큰 소득은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동지들을 많이 획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숭실중학교 동창생들가운데는 우리 아버지하고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면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두고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모두 도량도 크고 식견도 넓고 인격도 뛰어난 명망높은 청년선각자들이였다.

그런 동창생들가운데서 평양사람으로서는 이보식을 들 수 있다. 이보식은 독서회에도 일심친목회에도 다 관여하였는데 후날 조선국민회조직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하였으며 3.1인민봉기 때에도 큰 활약을 하였다.

우리가 봉화리에서 살 때 그는 아버지를 만나려고 명신학교에도 여러 번 왔다갔다.

평안북도출신의 동창생들가운데는 백세빈(백영무)이라는 피현사람이 아버지와 가깝게 지냈다. 아버지가 평안북도땅에 갈 때에는 이 사람이 길안내를 많이 하였다. 그는 조선국민회의 국외통신원이였다. 1960년 12월에 남조선에서는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가 결성되었는데 백세빈은 그때 그 위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박인관은 숭실중학교시절에 우리 아버지와 한 기숙사에서 생활한 사람이다. 처음 얼마동안은 아버지도 기숙사생활을 하였다.

1917년 봄에 박인관은 황해도 은률에 나가 광선학교 교원을 하면서 조선국민회에 망라되였다. 그는 송화, 재령, 해주등지를 오가면서 동지들을 규합하다가 적들에게 체포되어 1년동안 해주감옥에서 고초를 겪었다. 그가 광선학교 교원으로 있을 때 학생들이 쓴 ≪반도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제목의 작문들이 지금도 은률사적관에 전시되였다. 그 작문을 보면 당시 조선국민회의 영향밑에 있던 학교학생들의 사상동향과 정신세계의 일단을 알 수 있다.

독립운동자들 중에서 우리 아버지하고 제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던 사람은 오동진이였다.

그가 우리 집으로 자주 드나든 것도 아버지가 숭실중학교를 다닐 때였다. 오동진은 그때 안창호가 설립한 평양대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순수한 인정관계를 초월하는 사상적인 교제였으므로 두 분의 교제는 처음부터 진지하고 열렬했다. 오동진이 우리 아버지의 사상에 처음으로 공감한 것은 1910년 봄 경상골병대마당(이조말기의 군대병영앞에 있던 훈련장)에서 열린 운동회에서였다고 한다.

이 운동회에는 평양, 박천, 강서, 영유 등지에서 만 여명의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아버지는 그날 운동회뒤 끝에 있은 웅변대회에서 우리 나라가 문명국이 되자면 일본의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에 반기를 들고 우리 나라의 근대화는 우리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연설을 하여 군중의 이목을 한데 모았다. 그 연설을 들은 청중들가운데 바로 미래의 정의부사령인 오동진도 끼여있었다. 그 당시를 회상할 때마다 오동진은 ≪그날 김선생이 한 연설이 나에게 큰 자극을 주었다.≫고 뜨겁게 말하군 하였다.



평북도 삭주군 청수동에 있는
오동진의 집

그는 1913년경부터 무역상(도매상)이라는 명목으로 서울, 평양, 신의주 등 국내의 주요도시들과 중국으로 드나들면서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 독립운동의 장래를 두고 의논하였다.

그 무렵에 벌써 송암 오동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이 뜨르르했다. 재산이라든가 배경을 보면 어려운 혁명을 하지 않고서도 살수 있는 사람이였지만 그는 직접 손에 총을 들고 일제와 싸웠다.

오동진은 우리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우애심이 지극하였다. 의주의 그의 집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바깥채는 통채로 그런 손님들을 위한 숙소로 이용되였다. 손님들이 하도 많아서 식모도 따로 데려다가 전문적으로 손님들을 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갈 때만은 바깥채가 아니라 안채에 모시고 그의 부인이 직접 부엌에 나섰다고 한다.

한번은 오동진이 부인을 데리고 우리 집에 다녀간 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 할머니는 그들에게 기념으로 밥바리를 선물하였다.

내가 오동진을 이처럼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친구이고 동지라는데도 있지만 나의 청년시절과 깊은 연고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그와의 사이에 각별한 정을 느끼였다. 내가 길림에서 공부할 때 오동진은 일제에 의해 체포되였다. 썩 후날 내가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려고 간도일대를 돌아다니던 1932년 3월초에 그는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간디의 예심기록문건이 2만 5,000페이지나 된다는 말을 듣고 몹시 놀랐는데 오동진의 예심기록문건은 무려 3만 5,000페이지로서 64책이나 된다고 하였다.

그를 재판하던 날 방청자가 수천 명이나 법정으로 쓸어들어서 아침부터 한다던 재판을 오후 1시가 지나서야 겨우 시작하였다. 오동진은 일체 심리를 거절했으며 재판장의 자리에 뛰어올라가 조선독립만세까지 불러 법정을 흔들어놓았다.

당황망조한 일본재판관들은 황황히 공판을 중단하고 피고도 없이 어물어물 판결을 해버렸다. 상소심에서 종신징역으로 구형되었으나 오동진은 끝내 해방의 날을 보지 못하고 옥사하였다.

우리가 유격대를 꾸리느라고 매우 어려운 싸움을 버리고 있을 때에 그의 고결한 절개와 투지를 반영한 공판기사와 그 후 평양감옥으로 호송되는 용수를 쓴 사진이 신문에 공개되었다. 나는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오동진의 드팀없는 애국심을 감회깊이 더듬어보았다.

이와 같이 숭실중학교시절에 아버지와 친근하게 지낸 사람들이 적지 않게 견결한 혁명가로 자라났고 후날 조선국민회의 골간으로 되었다.

아버지는 숭실중학교를 중퇴한 후에도 만경대의 순화학교와 강동의 명신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후대교육에 힘쓰는 한편 동지규합에 심혈을 기울이었다. 아버지가 숭실중학교를 중퇴한 것은 혁명활동무대를 확대하면서 본격적인 실천투쟁을 벌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1916년에 방학을 이용하여 간도에 다녀왔다. 무슨 줄을 타고 갔는지 알 수 없지만 간도를 거쳐 상해에 가서 손문의 국민혁명파와도 연계를 맺었다.

아버지는 손문을 중국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의 선구자로 높이 평가하였다.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중국에서 남자들이 머리태를 자르고 매주 하루씩 휴식하는 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도 부르조아개혁파들의 노력에 의해 실현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만경대 순화학교

아버지는 특히 손문이 중국혁명동맹회의 강령으로 내세운 민족, 민권, 민생의 삼민주의와 5.4운동의 영향밑에 새롭게 내놓은 연쏘, 연공, 부조공농의 3대정책을 찬양하면서 그를 도량이 크고 의지가 강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혁명가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면서도 손문이 중화민국을 수립한 후 공화정치제도의 수립과 청나라 황제의 퇴위를 조건부로 원세 개에게 총통의 자리를 양도한 것은 실책이였다고 말씀하였다.

나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조선의 부르조아개혁운동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다. 아버지는 김옥균이 지도한 갑신정변이 ≪3일천하≫로 끝난데 대하여 매우 아쉬워하면서 개화당이 내놓은 혁신정강 중 인권평등, 문벌폐지, 인재등용, 청나라에 대한 종속관계의 폐절을 암시한 독립사상 등은 모두 진보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강동군 봉화리
명신학교

나는 그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김옥균을 뛰어난 인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의 개혁운동이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조선의 근대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미련까지 가지였다.

김옥균의 개혁운동과 정강에서 제한성을 찾고 우리가 그것을 주체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본 것은 그 후의 일이다.

우리에게 조선역사를 배워주던 선생들은 대체로 김옥균을 친일파로 규정하였다. 해방 후 우리 나라 학계에서도 오래동안 김옥균에게 친일파라는 딱지를 붙이었다. 그가 정변준비과정에 일본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친일의 표적으로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공정한 평가라고 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역사학자들에게 김옥균의 개혁운동에서 인민대중과의 결합에 주의를 돌리지 않은 것은 물론 잘못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힘에 의거하였다고 그것을 친일로 평가하면 허무주의에 떨어진다, 그가 일본의 힘을 이용한 것은 친일적인 개혁을 단행하자는데 목적이 있은 것이 아니고 당시의 역량관계를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개화당의 편에 유리하게 전환시키자는데 있은 것이다,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전술이였다고 말해주었다.

아버지는 김옥균의 정변이 ≪3일천하≫의 운명을 면치 못한 주요한 원인의 하나는 개혁파들이 백성들의 힘을 믿지 않고 궁정내부세력에만 의거한데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아버지가 간도와 상해에 갔다온 목적은 짐작컨데 그때까지 소문으로만 들어온 해외독립운동의 실태를 직접 요해하여 보고 새로운 동지들을 획득하며 차후 활동방략을 세우려는데 있었던 것 같다.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그 당시는 식민지민족해방투쟁문제가 크게 성숙되지 않았을 때였다. 이런 나라들에서의 독립운동의 방식이나 방법은 아직 개척되지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간도와 상해에 간 때는 중국혁명이 군벌의 준동과 제국주의열강의 간섭으로 일진일퇴의 심각한 곡절을 겪고 있었다. 중국혁명에서도 기본장애물은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외세였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망명해있는 적지 않은 독립운동자들은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환상에 포로되어 어느 대국의 힘을 빌어볼 것인가 하는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


봉화리
비석계 비석

다.

간도의 실태는 조선은 조선사람의 힘에 의하여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간도에 갔다온 아버지는 군중계몽과 동지규합을 위해 침식을 잊고 뛰어다니였다.

이때는 우리가 만경대를 떠나 강동군 봉화리로 이사한 뒤였다. 아버지는 만경대에 계실 때처럼 낮에는 명신학교에서 글을 가르치고 밤에는 야학에 나가 군중계몽사업을 하느라고 늦게야 집으로 돌아오군 하였다.

나도 어느 학예회 때 아버지가 써준 글을 가지고 반일연설을 한 적이 있다.

아버지는 그때 혁명적인 시와 노래를 지어 학생들에게 많이 배워주었다.

아버지를 만나려고 많은 독립운동자들이 봉화리로 찾아왔다. 아버지자신도 동지들을 찾아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일대를 자주 돌아다니였다. 그 과정에 핵심들이 육성되고 군중적 지반이 축성되였다.

이런 준비에 토대하여 아버지는 장일환, 배민수, 백세빈 등 애국적인 독립운동자들과 함께 1917년 3월 23일 평양 학당골에 있는 이보식의 집에서 조선국민회를 결

명신학교교가

보통속도로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노래

mf D A D

1. 봉 — 화 산 기세있게 여 기 솟 았 고 열 파 강 이 흘러내 려

A D f G D Bm A 3

감 돌 아 드 는 우 리 의 — 명 신학교는 반 석 우 에 터를닦고

mf D Bm G A 3 D

높 이 높 이 솟 — 아 — 서 영원무 궁 지 나 도 록 길 이 빛 — 나 리

2. 국가의 큰 인물도 여기서 나며
국가의 큰 재목도 여기서 나네
봉화산과 열파강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의 명신학교는 영원무궁
지나도록 길이 보존하세

3. 삼천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학도야
원대한 뜻을 품고 지식배양 분발해
동 터오는 새 조선을 영원무궁
지나도록 길이 받드세

성하였다. 조선국민회에 망라된 청년투사들은 손가락을 잘라 ≪조선독립≫, ≪결사≫라는 혈서를 썼다.

조선국민회는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울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로서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조선의 애국자들이 무은 국내외의 조직들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의 하나였다.

1917년이라면 국내에 비밀결사가 별로 없을 때였다. 합병 후 조직된 독립의군부나 대한광복단, 조선국권회복단과 같은 단체들은 일제의 탄압에 의하여 이 무렵에 와서 모조리 해산되었다. 지하활동을 하다가 발각되면 가차없이 잡아가던 때여서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런 활동에 가담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다. 뜻있는 사람들이라 하여도 국내에서는 어쩌지 못하고 해외로 망명하여 이런저런 반일단체들을 만들어내는 정도였다. 그럴 용기마저 없는 사람들은 조선경내에서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의 소극적인 활동을 벌이었다.

이런 때에 조선국민회가 태어났다.

조선국민회는 반제자주적인 입장이 투철한 혁명조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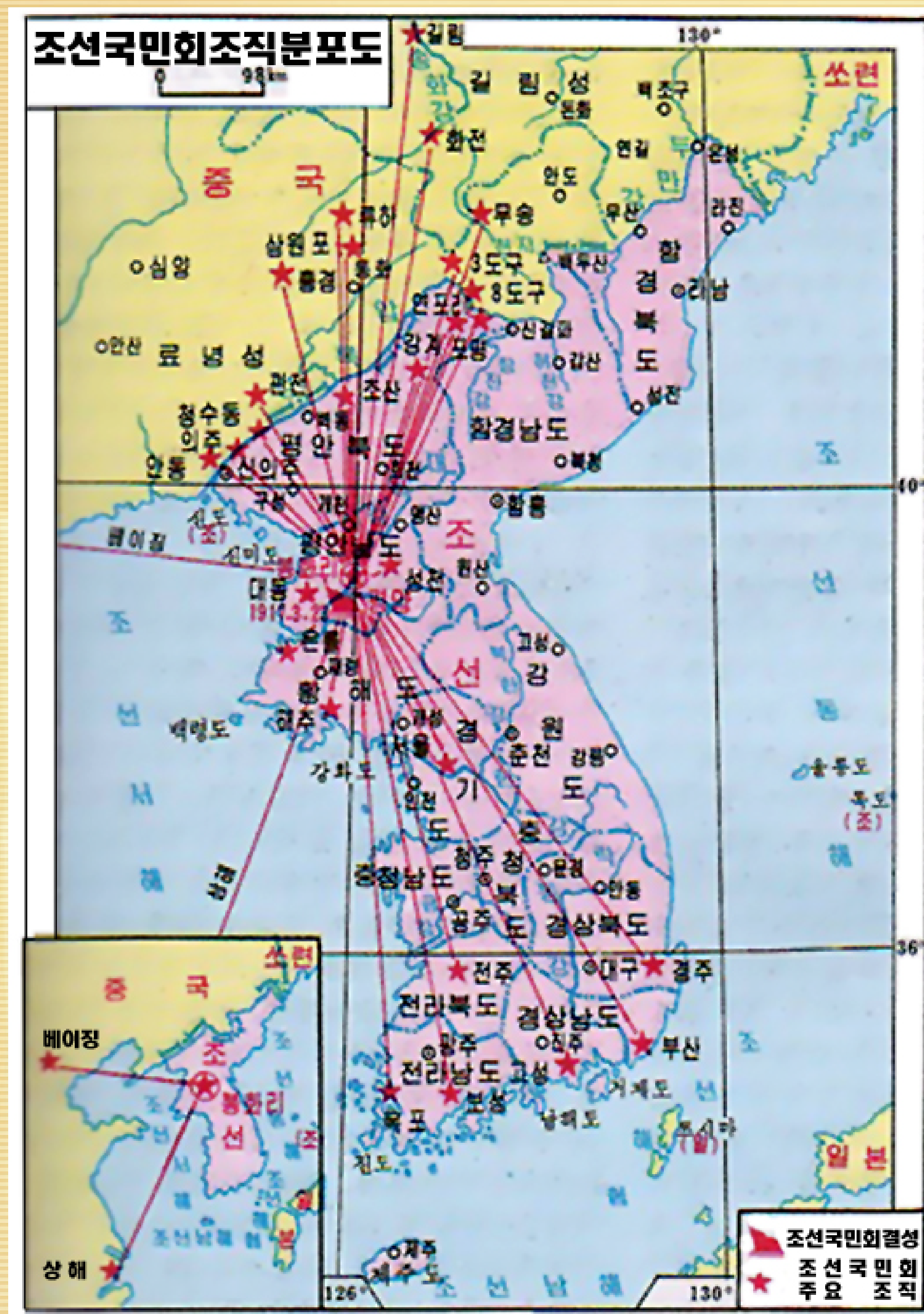
조선국민회의 취지서에는 장차 구미세력이 동양에 부식되고 일본이 그들과 패권을 다투게 될 시기가 닥쳐올 것은 명백하므로 그 기회에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선독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지들의 결속을 도모하여 그 준비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취지서를 통해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조선국민회는 외부세력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과는 달리 조선독립은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이룩해야 한다는 자주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조선국민회는 간도에 동지들을 파견하여 그곳을 독립운동의 책원지로 만들기 위한 원대한 계획도 세웠다.



조선국민회결성을 선포하시는 조선민족해방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



조선국민회는 그 조직이 매우 치밀하였다. 조선국민회에는 준비되고 검열된 애국자들만 엄선하여 받아들였으며 종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회원호상간에도 암호를 사용하였다. 비밀문서들도 암호로만 작성하였다. 조선국민회는 매해 숭실중학교 개학날을 계기로 회원들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지기로 하였다. 조선국민회는

그 이후 조직된 학교계, 비석계, 향토계와 같은 합법적인 외곽단체들로써 철저히 위장되었다. 조선국민회는 산하에 구역장들을 두었으며 해외인사들과의 연계를 위하여 베이징과 단동에 통신원들을 배치하였다.

조선국민회는 튼튼한 대중적 지반우에 선 조직이였다. 조선국민회에는 노동자, 농민, 교원, 학생, 군인(독립군), 상인, 종교인, 수공업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다 망라되어있었으며 그 조직은 국내는 물론, 중국의 베이징, 상해, 길림, 무송, 임강, 장백, 유하, 관전, 단동, 화전, 홍경 등 외국에까지 널리 뻗어있었다.

조선국민회를 결성하고 확대해나가는 과정에 아버지는 장철호, 강제하, 강진건, 김시우 등 많은 동지들을 획득하였다. 그 한 사람한 사람의 동지를 찾는데 기울인 아버지의 노고는 말이나 글로써 다 표현할 수 없다. 아버지는 한 사람의 동지를 얻기 위해서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았다.

한번은 오동진이 황해도지방으로 가다가 우리 집에 갑자기 들려 아버지를 만나고 간 일이 있다. 그날 그는 다른 때보다 별로 신수도 멀끔하고 인상도 좋아보이었다.

오동진은 좋은 사람을 하나 만났다고 하면서 자랑하였다.

≪공영이라고 벽동사람인데 아직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요. 식견이 높고 키가 구척인데다가 미남자요. 사람이 듬직하고 게다가 격술까지 한다니 옛날 같으면 갈데없는 병조판서감이더란 말이요.≫

그의 말에 아버지도 기뻐하며 ≪옛날부터 인재의 공보다도 인재를 천거한 공을 더 높이 친다는데 그러고보면 이번 오선생의 벽동걸음이 우리 운동에 큰 자국을 새기였소.≫라고 말씀하였다.

오동진이 돌아간 다음 아버지는 큰삼촌을 보고 짚신 몇 켤레를 삼아달라고 하였다. 그러고는 다음날로 삼촌이 삼아준 짚신을 신고 길을 떠났다.

아버지는 한 달가량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어찌도 걸음을 많이 걸었는지 신총이 다 끊어져 너덜너덜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지친 기색이 없이 웃으면서 사립문에 들어섰다.

그때 아버지는 공영이라는 사람을 만나보고 돌아와 몹시 흐뭇해하였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버지를 통하여 동지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도리를 배웠다.

조선국민회는 ≪한일합병≫ 후 여러 해 동안 국내와 해외에서 아버지가 벌려온 정열적인 조직선전활동의 총화였다. 아버지가 이 조직을 통하여 판을 크게 벌이려고 계획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조직은 일제의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되었다. 일제가 조선국민회에 대한 단서를 잡은 것은 1917년 가을이었다.

바람이 몹시 부는 어느 날 경찰 세 놈이 갑자기 수업 중에 있는 명신학교 교실에 달려들어 무작정 아버지를 체포하였다.

아버지를 따라 맥전나루까지 갔던 허씨가 나루가에서 아버지가 몰래 한 부탁을 가지고 어머니에게로 뛰어왔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부탁대로 지붕에 올라가 비밀문건들을 꺼낸 다음 아궁에 넣고 불을 질렀다.

아버지가 체포된 다음날부터 봉화리의 기독교인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활동과 관련한 일제의 비밀문건

들은 아버지의 석방을 위해 명신학교에 모여 새벽기도를 드리었다.

평양과 강동 일대의 인민들은 평양경찰서에 몰려가 아버지를 석방하라고 진정서를 들이댔다.

아버지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만경대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큰삼촌을 경찰서로 보냈다. 재판을 한다는데 변호사를 사대야 할지 어째야 할지 아버지의 의향이니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삼촌이 가장집물이라도 팔아서 재판할 때 변호사를 사대겠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단마디로 그 말을 막아버리었다.

≪변호사도 입으로 말하고 나도 입으로 말하는데 돈을 없애면서 따로 변호사를 사댈 필요는 없다. 아무 죄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변호가 필요하겠느냐!≫

일제는 평양지방법원에서 세 차례에 걸쳐 아버지에 대한 재판을 벌이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조선사람이 제 나라를 사랑하고 제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이냐, 나는 당국의 그런 부당한 심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항의하였다.

이렇게 되자 재판은 날자를 끌었다. 일제는 세 번째 재판에서 강제로 형을 언도하였다.

아버지가 잡혀간 다음 형록삼촌이 우리를 만경대에 데려가려고 둘째 외삼촌(강용석)과 함께 봉화리로 찾아왔다.

그러나 어머니는 봉화리에서 겨울을 나겠다고 하였다. 어머니가 그때 만경대로 옮겨가지 않은 것은 집에 찾아오는 조선국민회원들과 반일운동자들과의 연계를 지으면서 뒤수습을 하려는데 있었다.

어머니는 뒤처리를 깨끗이 해놓은 다음 이듬해 봄에야 우리를 데리고 만경대로 돌아갔다. 그때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와 함께 달구지를 가지고 봉화리에 와서 이사짐을 싣고 갔다.

그 해 봄과 여름을 나는 매우 우울하게 보냈다.

몇 밤 자면 아버지가 돌아오는가고 내가 물을 때마다 어머니는 ≪이제 곧 돌아오신다.≫면서 같은 대답만 하였다. 어머니는 어느 날 나를 데리고 만경봉 그네터로 올라갔다. 나를 안고 그네에 걸터앉아 이런 말씀을 하였다.

≪증손아, 저 앞에 대동강얼음이 다 풀리고 나무잎이 푸르러도 너의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는구나. 아버지가 나라를 찾기 위하여 싸우셨는데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네가 어서 커서 아버지 원쑤를 갚아야 한다.…너는 커서 꼭 나라를 찾는 영웅이 되어라.≫

나는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 어머니는 나도 모르게 감옥에 여러 번 다녀왔다. 그렇지만 갔다와서도 감옥에 대한 말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한번은 어머니가 칠골에 목화를 타러 간다면서 나를 데리고 성안으로 떠났다. 어머니는 칠골외가에 들려 목화를 타달라고 맡겨놓고는 곧장 평양감옥으로 갔다.

그때 외할머니가 나를 떼여놓고 혼자 가라고 여러 번 타일렀다. 철도 들지도 않은 아이를 데리고 감옥에 가다니 될말이냐, 저 어린 것이 철창안에 있는 아버지를 보면 얼마나 놀라겠는가고 하면서 한사코 반대하였다. 그때 내 나이가 일곱 살이었다.

나는 보통강나무다리를 건너서자 첫눈에 인차 감옥건물을 알아맞히었다. 감옥이 어떻게 생겼다고



1917년 가을 조선국민회원들이 투옥되였던 평양감옥

대준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의 색다른 모양새와 주변의 스산한 분위기를 보고 저것이 감옥이다 하는 판단을 스스로 내리었다.

감옥건물은 그 외형만으로도 사람들의 혼을 뺄 수 있으리만큼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였다. 철문, 담장, 망루, 쇠살창은 물론, 파수병의 검은 복장과 눈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살기가 넘치고 독기가 풍기였다.

우리가 들어간 면회실은 해빛조차 잘 들지 않는 어둑컴컴한 방이었다. 그 방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지경으로 답답하고 흐리터분하였다.

아버지는 그런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있었다. 나를 보자 반가와하면서 어머니더러 잘 데려왔다고 말씀하였다.

수의를 입은 아버지의 모습은 상해서 인차 알아보기 힘들었다. 얼굴, 목, 손, 발 할 것 없이 살이란 살은 온통 멍이 들고 상처가 나있었다.

아버지는 그런 몸을 해가지고서도 오히려 집안사람들을 걱정하였다. 어찌나 기상이 도고하고 늠름하였던지 분하고 원통한 생각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네가 그새 컸구나. 집에 돌아가면 어른들의 말씀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라!≫

아버지는 간수가 있는 쪽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를 향해 태연하게 말씀하였다. 음성도 이전날과 다름없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큰소리로 ≪예, 아버지도 집에 빨리 돌아오십시오.≫하고 대답하였다. 아버지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러고는 어머니를 향해 간혹 집에 붓장사나 참빗장사들이 오면 잘 도와주라고 하였다. 혁명동지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었다.


Mr. KIM HYONG JIK
AND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김형직선생님의
활동을 소개한
외국출판물

그날 나는 아버지의 불굴의 모습에서 평생을 두고 잊을 수 없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날의 인상가운데서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면회실에서 이관린을 만난 것이다. 그는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에 다니면서 조선국민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불행중 다행으로 경찰의 마수가 그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이관린은 조선국민회원인 동창생 한 사람을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봉건이 심하던 그때에 처녀로서 감옥에 그것도 사상범을 찾아간다는 것이 사실 조련치 않은 일이었다. 감옥출입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시집도 못갈 세상이었다. 그런 때에 멋쟁이 신여성이 사상범을 면회하러 왔기 때문에 간수들도 놀라서 그를 조심스럽게 대하였다. 이관린은 밝은 얼굴로 아버지를 위로하고 어머니를 위로하였다.

그때 감옥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온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큰 사변이었다. 나를 감옥에 데리고 간 어머니의 깊은 뜻도 이해되었다. 아버지의 몸에 생긴 상처는 나로 하여금 악마와도 같은 일본제국주의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게 하였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상처에서 세계의 수많은 정치인들과 력사가들이 일본제국주의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한 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고 직관적인 표상을 얻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나는 일본군경들의 행패를 많이 당해보지 못하였다. 호구조

사와 청결검열차로 만경대에 내려온 일본경찰들이 무슨 생트집을 하나 걸어가지고 시비질을 하던 끝에 우리 집 장지문을 채찍으로 찔러 다 찢어놓고 그 문짝을 가마우에 내동댕이쳐서 솥뚜경을 깨던 광경은 보았지만 죄없는 사람들의 육신에 그처럼 심한 상처를 내는 것은 한번도 목격하지 못하였다.

그 상처는 항일혁명투쟁 전기간 잠시도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 면회에서 받은 충격이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 큰 자욱으로 남아있다.

아버지는 1918년 가을에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다. 큰삼촌이 할아버지와 함께 들 것을 가지고 감옥으로 가고 동네 사람들은 송산리에서 만경대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아버지를 기다리었다.

매를 너무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 된 아버지는 겨우 걸음을 옮기여 감옥문밖으로 나왔다.

할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자 분노로 치를 떨면서 아버지더러 어서 들것에 누우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제 발로 걸어가겠습니다.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야 제가 어떻게 원쑤놈들앞에서 들것에 들려가겠습니까. 놈들이 보란 듯이 제 발로 걸어가야 합니다.≫하고는 흔연히 걸음을 옮기였다.

집에 돌아온후 아버지는 삼촌들을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였다.

≪나는 감옥에서 물이라도 더 먹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가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심을 했다. 세상에 제일 못된놈들이 일본놈들인데 그놈들을 그냥 놔둘 수가 있느냐. 형록이나 형권이도 왜놈들과 싸워야 한다. 죽어도 피값은 해야 한다.≫

나는 그때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장차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일본제국주의자들과 사생결단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하였다.

아버지는 병석에 있으면서도 책을 읽었다.

한동안은 눈병을 잘 고친다는 왕고모부 김승현네 집에서 보양을 하며 감옥에서 시작한 의학공부를 계속하였다. 거기에서 아버지가 좋은 의서들을 많이 구해가지고 왔다. 원래 아버지는 숭실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이 왕고모부네 집에서 의술도 배



조선국민회창건 사적비

우고 의서도 탐독하였다.

아버지가 교원이라는 표면상의 직업을 의사로 바꾸려고 결심한 것이 아마 감옥살이를 할 때부터였다고 생각된다.

아버지는 몸이 미처 추서기도 전에 평안북도일대에로 떠났다. 파괴된 조선국민회조직들을 복구할 결심을 한 것이다.

할아버지는 한번 먹은 마음을 굽히지 말고 어떻게 하나 소원을 성취하도록 하라고 아버지를 고무해주었다.

아버지는 그때 고향을 떠나기에 앞서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시를 남기였다. 그것은 몸이 찢겨 가루가 되어도 대를 이어가며 굴함없이 싸워 삼천리금수강산에 기어이 독립의 새봄을 가져오려는 아버지의 굳은 맹세였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

좀 느리고 충실하게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노래

1.남 산—의 — 저—푸—른 소 —나—무 가
눈서리—에 파묻히—서 천신만고괴롬받다 가 양 춘 을
다시만—나 소 생할 줄— 을 동 무—야 알겠느—나

2.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 되여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 없을줄
동포야 믿어 다오

3.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 올제 독립 만세를
조선아 불러 다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동상



김형직선생님의 혁명사적을
깊이 전하기 위하여 세운 혁명사적비



비석계의 기념비



김형직선생님께서 비밀회합장소로 이용하시던 봉화산의 바위터



창평서당



야학당



신성학교



중강회의소



명신학교



명신학교 내부

3. 독립만세의 메아리





3.1인민봉기에 호응하여 나선 군중들

아버지는 몹시 추운 날에 집을 떠났다.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봄을 기다리었다. 못먹고 못입는 우리들한테는 추위도 큰 원쑤였다.

날씨가 좀 따스해지자 할머니는 조금 있으면 증손이의 생일이 되겠구나 하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내 생일 때면 꽃이 피고 북쪽으로 간 아버지도 추운 고생을 덜하겠지만 춘궁기에 나의 생일을 어떻게 하면 섭섭치않게 해줄 것인가 하는데서 오는 걱정이였다.

우리 집에서는 농량이 떨어지는 봄철이지만 내 생일이면 흰쌀밥 한 그릇과 백하를 두고 지진 닭알을 밥상에 놓아 주군 했다. 죽도 제대로 못먹는 우리 집 형편에서 닭알 한 알이면 대단한 성찬이였다.

그러나 그 해 봄에는 생일 같은데 별로 생각을 두게 되지 않았다. 아버지의 체포사건이 나를 놀래운데다가 멀리에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잠시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지 얼마 안되어 3.1인민봉기가 터졌다. 3.1인민봉기는 일제의 10년간의 야만적인 ≪무단통치≫하에서 모진 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조선민족의 쌓이고쌓인 울분과 원한의 폭발이였다.

합병 후 10년은 조선을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중세기적공포정치의 총검밑에서 우리 민족이 언론,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권리와 재부를 강탈당하고 끝없는 고통속에서 신음해온 수난의 시대, 암흑의 시대, 기아의 시대였다.

합병 후 비밀결사운동과 독립운동, 애국문화계몽운동으로 부단히 힘을 축적하여온 우리 민족은 이 암흑의 시대, 수탈의 시대를 그대로 감수할 수가 없어 분연히 궐기한 것이다.

천도교, 기독교, 불교를 비롯한 종교계 인사들과 애국적인 교원, 학생들의 주도하에 3.1인민봉기는 면밀하게 계획되고 추진되었다. 갑신정변과 위정척사운동, 갑오농민전쟁, 애국문화계몽운동, 의병투쟁을 통하여 줄기차게 이어지고 승화되어온 우리 인민의 민족정신은 마침내 자주독립을 부르짖으며 화산처럼 분출하였다.

3월 1일 평양에서는 낮 12시에 종소리를 신호로 수천 명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이 장대재에 있는 숭덕여학교 운동장에 모여들어 ≪독립선언서≫를 랑독하고 조선

이 독립국가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 다음 ≪조선독립 만세!≫, ≪일본인과 일본군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한 가두시위를 벌이였다. 시위대열이 거리로 밀려나오자 수만 명 군중이 이에 합세하였다.

만경대와 칠골 인민들도 대열을 지어 평양으로 밀려갔다. 우리는 이른새벽에 조반을 지어 먹고 온 집안식구가 독립만세시위에 나섰다. 떠날 때 수백 명에 불과했던 시위대열이 나중에는 수천 명으로 불어났다. 군중은 북과 징을 울리고 ≪조선독립 만세!≫를 웨치면서 보통문쪽으로 밀려갔다.

그때 여덟 살이었던 나도 다 째진 신발을 신고 시위대열에 끼여 만세를 부르면서 보통문앞까지 갔다. 성안을 향해 노도와 같이 밀려가는 어른들의 걸음을 나로서는 미처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너덜거리는 신발짝이 거치장스러워 짚신을 벗어서 손에 들고 뜀박질로 대열을 따라갔다. 어른들이 독립만세를 부르면 나도 함께 만세를 불렀다.



3.1인민봉기에
떨쳐나선
평양인민들

적들은 기마경찰대와 군대들까지 동원시켜 도처에서 군중에게 칼을 휘두르고 총탄을 마구 퍼부었다. 숱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군중은 두려움을 모르고 원쑤들과 육탄으로 대항하였다. 보통문앞에서도 치열한 육박전이 벌어졌다.

이날은 내가 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처음으로 본 날이며 우리 민족의 유혈을 처음으로 목격한 날이였다. 어린 나의 가슴도 분노로 끓어번졌다.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마을사람들은 홰불을 들고 만경봉에 올라가 또다시 나팔을 불고 북을 치고 양철통까지 두드리면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런 투쟁이 여러 날 계속되었다. 나도 형복고모와 함께 어머니를 따라 만경봉에 올라가 만세를 부르며 밤늦게까지 있다가 내려오군 하였다. 어머니는 군중들이 마실 물과 홰불로 쓸 겨릅대를 나르느라고 바쁘게 보내였다.

서울에서는 고종의 장례식을 보려고 지방에서 올라온 농민들까지 합세하여 수십만명의 군중이 결사적인 시위를 벌이였다.

총독 하세가와는 시위를 탄압하기 위해 용산주둔 20사단무력까지 동원하였다. 놈들은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면서 시위군중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서울거리도 삽시간에 피바다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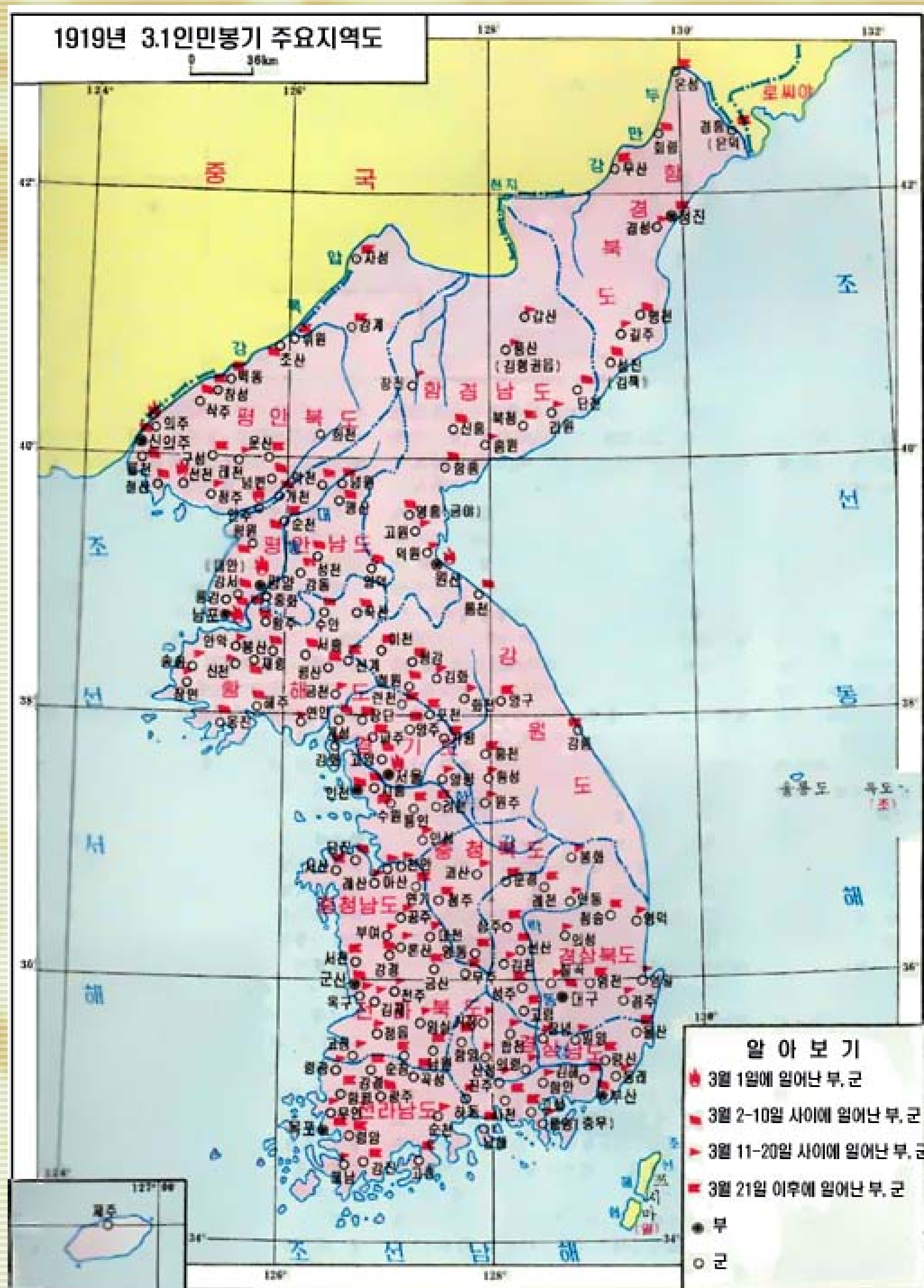
그러나 시위자들은 앞대열이 쓰러지면 그 뒤대열이, 뒤대열이 쓰러지면 또 그 다음 대열이 앞장에 나서면서 전진하였다.

다른 지방의 인민들도 총칼로 시위군중을 탄압하는 적들의 만행에 굴하지 않고 피를 흘리면서 영웅적으로 싸웠다.

나어린 한 여학생은 국기를 들었던 바른팔을 놈들의 칼에 잘리자 왼손에 국기를 바꿔쥐였고 왼팔마저 떨어져 더는 움직일 수 없는 순간까지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조선독립 만세!≫를 불러 일제군경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서울과 평양의 시위를 발단으로 봉기는 3월중순에 이르러 전국의 13개 도를 모두 휩쓸고 만주와 상해, 연해주, 하와이 등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에게까지 파급되어 전민족적인 항쟁으로 번져갔다. 그때 당시 민족적 양심을 가진 조선사람들은 직업, 신앙, 남여로소의 구별이 없이 누구나 다 이 봉기에 참가하였다.

봉건도덕에 억눌려 문밖출입조차 삼가하던 여염집 아낙네들과 천민 중 천민이라



는 대접을 받던 기생들까지도 대오를 뭇고 시위에 떨쳐나섰다.

봉기가 일어난 후 한두 달은 온 나라가 독립만세소리로 진동하였다. 그러다가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서부터 점차 기세가 수그러들기 시작하였다.

몇 달 동안 만세를 부르며 기세를 울리면 적들도 마음을 고쳐먹고 물러갈 것이라

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는데 그것은 망상이었다. 그런 정도의 반항 때문에 일제가 선뜻 조선을 내놓을 리 만무하였다.

일본은 조선을 먹기 위해서 큰 전쟁만 하여도 세 차례나 하였다.

벌써 400년 전에 풍신수길의 부하들인 가등청정과 소서행장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들어와 우리 나라 땅에 불을 질렀다. 그것을 ≪임진왜란≫이라고 하였다.

19세기중엽에 이르러 이른바 ≪명치유신≫으로써 개화의 길에 들어서자마자 일본지배층에서 맨먼저 들고나온 것이 ≪정한론≫이었다. ≪정한론≫은 일본의 번영과 천황국가의 위력을 위하여 무력으로 조선을 정복하여야 한다는 일본군국주의집단의 침략적 주장이었다.

≪정한론≫은 일본정계와 군부내의 의견불일치로 그 당시는 실현되지 못하였지만 ≪정한론≫자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국내전쟁을 반년이상이나 벌이었다.

이처럼 천황정부를 반대하여 대규모적인 반란을 일으킨 ≪정한론≫자들의 우두머리 사이고 다까모리의 동상이 지금도 일본에 버젓이 서있다고 한다.

일본은 조선을 먹기 위하여 청나라와도 전쟁을 하고 러시아와도 전쟁을 하였다. 미국과 영국이 이들을 뒤에서 받쳐주었다.

일본군벌이 얼마나 독한가 하는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러일전쟁당시 여순전투를 지휘한 것은 노기였다. 그가 203고지를 점령할 때 산꼭대기까지 시체로 사닥다리를 쌓고 올라갔다. 여순의 백옥산 사당에는 그때 죽은 사람들가운데서 일부만 묻었는데 무려 2만 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많은 희생을 내고 전쟁을 이기기는 하였지만 다 먹는다던 시베리아도 만주도 먹지를 못했다. 애매하게 속아서 과부가 되고 고아로 된 일본사람들이 속이 좋지 않아서 노기가 돌아온다는 소문을 듣고 부두로 모여들었다. 행패라도 하자는 판이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는 노기의 가슴우에 세 개의 유골상자가 드리워있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노기자신도 그 싸움에서 제 자식 셋을 다 죽였던 것이다.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에서 일본강점자들이 조선을 호락호락 내놓지 않으리라는 것만은 명백하게 알 수 있다.

그런데 3.1운동을 지도한 상층인물들은 이와 같은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우리 인민의 앙양된 투쟁기세에 부합되지 않게 처음부터 운동의 성격을 비폭력적인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조선민족의 독립의지를 내외에 천명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들은 운동이 그 이상 확대되어 민중이 주도하는 대중적 투쟁으로 전환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지어 민족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은 ≪청원≫의 방법으로 조선의 독립을 해결해보려고 하였다. 윌슨의 ≪민족자결론≫이 세상에 나오자 그들은 미국을 비롯한 협상국대표들에 의해 파리강화회의에서 조선의 독립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터무니없는 환상을 가지고 구차스런 청원운동을 벌이었다. 김규식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독립청원서≫를 들고 열강대표들의 숙소를 찾아다니면서 호소도 하고 애원도 하였다.

그러나 협상국의 대표들은 어떻게 하면 분배몫을 더 많이 찾아먹겠는가 하는데만 머리를 쓰면서 조선문제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

원래 민족주의운동의 상층부가 윌슨의 ≪민족자결론≫에 기대를 가진 것부터가 오산이었다. ≪민족자결론≫은 미제가 사회주의10월혁명의 영향력을 막고 세계를 좌지우



빠리강화회의 대표단

지하기 위해 내놓은 위선적 구호였다. 미제국주자들은 ≪민족자결≫의 기만적인 구호밑에 다민족국가인 쏘련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며 식민지약소국가 인민들이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단합하지 못하도록 서로 분리시키는 한편 전패국들을 희생시켜 그 영토를 차지해보려고 획책하였다.

20세기초엽에 벌써 ≪가쯔라-타프트협정≫으로 일본의 조선침략을 ≪승인≫한 미제가 조선의 독립을 지원할 리 만무하였다. 역사는 강대국들이 작은 나라를 동정하고 약한 나라 인민들에게 자유와 독립을 선사한 전례를 알지 못한다. 한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그 민족자체의 주체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만 보존하고 쟁취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 세기와 세대를 거쳐 이미 역사에 의해 검증된 진리이다.

고종황제는 이미 러일전쟁때와 포츠마스강화회담때에 미국에 밀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침략전쟁을 폭로하고 조선의 독립유지에 협조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전후처리문제를 토의하는 포츠담강화회담에서는 회담결과가 일본에 유리해지도록 백방으로 도와주었다. 루즈벨트대통령은 공식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종황제의 밀서를 외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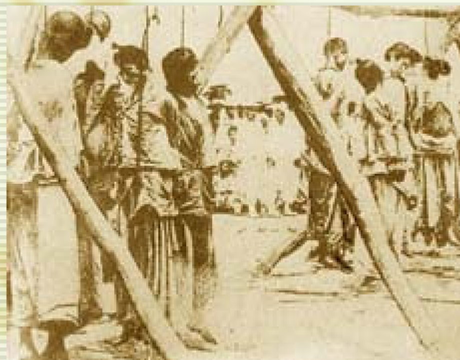
고종은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다시 밀사들을 파견하여 ≪을사조약≫의 비법성을 선포하고 세계의 정의와 인도주의에 호소하여 국권을 보존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집요한 방해공작과 각국 대표들의 냉담한 반응으로 하여 회의앞으로 보내는 황제의 편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으며 열강들의 동정을 호소하는 밀사들의 눈물겨운 노력은 걸음마다 좌절의 쓴맛을 보았다. 고종은 일제의 압력으로 밀사파견의 책임을 지고 순종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

헤이그밀사사건은 봉건통치배들의 뿌리깊은 사대의식을 잡아흔드는 하나의 힘있는 경종이었다. 만국평화회의장을 붉게 물들인 이준의 피는 후대들에게 세계의 그 어떤 강대국도 조선독립을 선사하지 않는다는 것과 남의 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경고해주었다.



재판정에 나선
봉기자들

민족주의운동의 상층부가 이 교훈을 명심하지 않고 또다시 미국과 ≪민족자결론≫에 기대를 건 것은 그들의 머리에 숭미사대주의사상이 그만큼 뿌리깊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그들의 힘을 빌어 국운을 타개해보려고 하였다. 이 버릇이 민족주의운동상층에도 그대로 이식되었다.



일제에 의해 학살된
시위참가지들

3.1인민봉기는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이 더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지도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1인민봉기를 주도한 지도자들의 계급적 제한성은 그들이 일본의 식민지지배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데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일본의 통치질서를 인정하는 한도내에서 자기계급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약간의 양보를 받아내자는데 운동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것은 후날 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을 개량주의자로 굴러떨

어지게 했거나 지어는 일제와 타협하면서 ≪자치≫를 부르짖게까지 한 사상적 바탕으로 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는 개량주의를 타파할만한 선진사상이 없었으며 그런 선진사상을 자기 계급의 지도이념으로 삼고 투쟁할만한 산업프롤레타리아트의 대군이 없었다. 청소한 우리 나라 노동계급은 아직 맑스-레닌주의를 새로운 시대사상으로 정립하고 그 기치밑에 광범한 근로대중을 묶어세울 사명을 지닌 자기의 당을 가지지 못하였다.

일제의 악정밑에서 신음하는 우리 나라의 인민대중이 참다운 투쟁의 진로를 찾고 자기의 이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전위대를 가지려면 멀고도 험난한 길을 더 걸어야 하였다.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우리 인민은 강력한 지도역량이 없이는 어떤 운동이든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수백 만 군중이 나라를 찾으려는 공통된 지향을 안고 항쟁의 거리로 달려나왔지만 노동계급의 영도, 당의 영도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투쟁은 분산성과 자연발생성을 면할 수 없었고 통일적인 강령과 전투계획에 따라 전개될 수 없었다.

3.1인민봉기는 인민대중이 민족적 독립과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반드시 혁명적 당의 영도밑에 올바른 전략전술을 가지고 투쟁을 조직적으로 벌여나가야 하며 사대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고 자체의 혁명역량을 튼튼히 마련해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3.1인민봉기를 통하여 조선사람들은 우리 인민이 남의 노예로 살기를 원치 않는 자주정신이 강한 인민이며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기개와 열렬한 애국정신을 가진 인민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과시하였다.

이 봉기로 하여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일본강점자들은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기 위하여 3.1인민봉기가 있은 후부터 형식상으로나마 ≪무단통치≫와 ≪문화통치≫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3.1인민봉기를 계기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 부르조아민족주의운동의 시기는 종말을 고하고 조선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은 점차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

비운의 조국강산을 뒤흔들며 세계만방에 울려가던 독립만세소리는 온 여름 내 귀전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만세소리는 나로 하여금 나이보다 일찍 철들게 하였다. 시위군중과 무장경찰의 격투로 불꽃을 일으키던 보통문 앞거리에서 나의 세계관은 새로운 단계에로 도약하였다. 어른들의 틈바구니에서 발돋움을 하며 독립만세를 부르던 그 시각에 나의 유년시절은 벌써 끝났었다고 말할 수 있다.

3.1인민봉기는 나를 인민의 대오속에 세워주고 나의 망막에 우리 민족의 참다운 영상을 새겨준 첫 계기였다. 내 마음속에 우뢰가 되어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던 독립만세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나는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영웅성을 두고 다함없는 자부심을 느끼군 하였다.

그 해 여름에 우리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았다.

아버지는 편지와 함께 ≪금불환≫이라는 중국 먹과 붓을 나에게 보내여왔다. 글씨공부를 잘하라고 나에게 특별히 보내준 선물이였다.

나는 벼루들에 ≪금불환≫을 걸죽하게 갈아 붓에 먹을 듬뿍묻힌 다음 한지에 ≪아버지≫라는 세 글자를 큼직하게 써놓았다.

우리 집 식구들은 밤에 등잔불밑에서 편지를 돌려가며 읽었다. 형록삼촌은 세 번씩이나 읽었다. 성미가 덜렁덜렁한 삼촌이였지만 편지를 볼 때에는 늙은이들처럼 꼼꼼했다.

어머니는 대강 훑어보고 나에게 편지를 넘겨주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으실

수 있게 큰소리로 읽어드리라고 하였다. 학령전이였지만 아버지가 집에서 조선어 자모를 배워준 덕에 나는 글을 읽을 줄 알았다.

내가 유창한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드리자 할머니는 물레질을 멈추고 ≪언제 온다는 소리는 없느냐?≫하고 물었다. 그러고는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혼자소리로 뇌이는 것이였다.

≪아라사에 갔는지 만주에 갔는지, …이번에는 퍽그나 오래두 객지생활을 하는구나.≫



10월혁명. 무장폭동에 관한 결정을 제시하고 있는 레닌

나는 어머니가 편지를 얼추 훑어본 것이 마음에 걸려 잠자리에 든 다음 아버지의 편지를 뜬금으로 소곤소곤 외워드리였다. 어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서는 절대로 편지를 오래 들여다보는 법이 없었다. 그 대신 저고리앞섶에 편지를 간수했다가 밭에 일을 나가서는 쉴참에 남몰래 읽군 하였다.

내가 편지의 구절들을 뜬금으로 외워드리자 어머니는 ≪됐다, 이제는 자거라.≫하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우리 아버지는 그 해 초가을에야 가족들을 데려 가려고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1년만에 아버지를 만나는 셈이였다.

그 동안 아버지는 의주, 창성, 벽동, 초산, 중강을 비롯한 평안북도일대와 만주지방에서 조선국민회 조직을 복구하고 동지들을 획득하며 광범한 군중을 결속하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이였다.

아버지가 청수동회의(1918년 11월)를 소집한 것도 그 무렵이였다. 평안북도의 조선국민회 조직대표들과 각 지역의 연락원들이 참가한 이 회의에서는 파괴된 국민회조직들을 시급히 복구하며 광범한 무산민중을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울 데 대한 활동방침을 밝히였다.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만주소식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 레닌에 대한 이야기, 10월혁명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많이 하였다. 러시아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무산대중이 주인으로 된 새 세상이 왔다고 하면서 부러움을 감추지 않는가 하면 신생러시아가 백파도당들과 14개국 무력간섭자들의 공격으로 하여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못내 안타까와 하기도 하였다.



빼뜨로그라드 무기공장 로동자들의 시위 (19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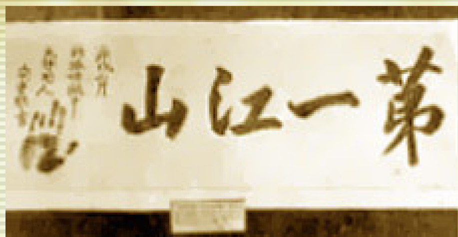
그 이야기들이 모두 생동한 세부와 사실들로 엮어졌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가 그 동안 연해주에 갔다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만주와 마찬가지로 연해주도 조선독립운동의 한개 기지였고 중요한 집결지였다. 3.1운동당시 원동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의 수는 수십만 명되었다. 이 지방에는 조선에서 망명해간 애국지사들과 독립운동자들이 많았다. 이준일행이 바로 여기를 거쳐 헤이그로 갔고 유린석과 이상설도 여기(블라디보스토크)에서 13도 의병연합사령부를 결성하였다. 리동휘를 수위로 하는 한인사회당이 조선최

초의 사회주의그룹로서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기 시작한 곳도 여기였고 대한국민의회라는 명칭을 가진 노령임시정부가 결성되어 내외에 그 존재를 선포한곳도 이 지방이였다. 홍범도와 안중근도 이 지역에 거점을 두고 군사활동을 하였다.

연해주지방에 망명해간 조선의 독립운동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도처에서 자치단체들과 반일항쟁단체들을 뭇고 국권회복을 위한 맹렬한 활동을 벌이었다. 연해주에 기지를 두고 있던 독립군부대들은 경원, 경흥을 비롯한 함경북도일대에 진출하여 일본군경들을 습격하고 적의 통치와 국경경비에 큰 혼란을 주었다. 한때는 여기에서 만주지방으로부터 이동해온 독립군들이 대부대를 편성하여가지고 붉은군대와 함께 쏘비에트공화국을 옹호하여 싸웠다.





두 동생에게 유언하는 안중근, 사형당하기 전 그가 남긴 혈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그에 추종하는 국내의 원쑤들이 사면팔방에서 갓 태어난 쏘비에트정권을 교살하려고 악착스럽게 달려들고 있을 때 수천 명의 조선청년들은 혹은 빨치산대오에서 혹은 붉은군대의 서열에서 손에 무장을 잡고 인류가 이상으로 그려온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하기 위해 피와 생명을 아낌없이 바치었다. 공민전쟁의 영웅들을 추모하여 세운 원동지방의 기념비들에는 조선사람들의 이름도 크게 새겨져있다.

쏘련의 원동지방을 무대로 한동안 정열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해온 홍범도, 리동휘, 려운형 등은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 레닌과도 상봉하였다.

연해주지방에서 조선독립운동자들이 벌인 활동은 외부세력의 개입과 계파호상간의 대립으로 흑하사변과 같은 가슴아픈 참사도 빚어냈지만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선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동지들을 획득하기 위해 아버지가 연해주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짐작은 무리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집안식구들에게 북부국경지대 인민들의 시위투쟁소식을 이야기해주었고 집안식구들은 아버지에게 3.1인민봉기 때 고평면인민들이 용감하게 싸우던 모습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날 아버지가 하던 말씀중에서 이런 말씀은 오늘까지도 내 기억속에 똑똑히 남아있다.

≪강도들이 집에 들어와 칼부림을 하는데 목숨을 살려달라고 아우성친다고 그 강도놈이 목숨을 살려줄 리는 없다. 집밖에 있는 놈도 역시 강도라면 아우성소리를 듣고 달려와 도와줄 리는 없다. 제 목숨을 지키려면 제힘으로 강도놈들과 싸워야 한다. 칼든 놈하고는 칼을 들고 싸워야 이길 수 있다.≫

아버지한테는 이미 독립운동을 위한 새로운 견해와 결심이 서있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3.1운동 당시와 이 운동을 전후한 시기 아버지는 북부국경일대와 남만지방에 활동의 거점을 잡고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사변들을 주의깊이 살펴보면서 민족해방의 진로를 끊임없이 모색하였다. 아버지는 우리 나라 사회계급관계의 변화과정에 대하여서도 깊은 주목을 돌리었다.

3.1운동의 교훈이 보여주는 것처럼 시위나 하고 만세나 불러서는 나라를 찾을 수도 없다. 온 강산이 왜놈의 감옥으로 되고 총칼의 숲으로 덮이었으니 전국 방방곡곡

에서 거족적인 힘으로 침략자들과 싸워야 한다. 그러자면 우리도 러시아처럼 민중혁명을 해야 한다. 민중이 총칼을 들고일어나 원쑤와 싸워 나라도 찾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상도 세워야 한다.

우리 아버지가 고심하여 찾아낸 결론은 이러하였다. 이것이 다름아닌 무산혁명방침이었다.

무수한 피의 자국만을 남기면서 독립운동이 침체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고 민중혁명을 주장하였다.


청수동회의장소

러시아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 다음부터 아버지는 공산주의사상에 공감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3.1운동을 계기로 하여 자신의 사상을 정립하고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시켜야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버지는 1919년 7월 청수동회의에서 무산혁명의 역사적 필연성을 논증한 데 기초하여 8월 중국 관전현 홍통구에서 조선국민회 각 구역장들과 연락원들, 독립운동단체 책임자들의 회의를 소집하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할 데 대한 방침을 정식으로 선포하였으며 시대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어 민족자력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무산민중의 권익을 보장하는 새 사회를 건설할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을 전환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한 것은 반일민족해방운동선상에서 아버지가 이룩한 또 하나의 업적이다.

아버지는 무산혁명에 대한 자신의 이념을 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쌀을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옷을 주는 새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소박하게 표현하면서 실천활동을 통하여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민중을 선진사상으로 깨우쳐주었으며 각종 대중단체들을 뭇고 그 조직들을 확대하여 그들을 하나의 혁명역량으로 묶어나갔다.

아버지가 이룩한 업적가운데서 또 하나는 새로운 무장활동준비와 무장단들의 단합을 위한 투쟁에서 얻은 성과였다.

아버지는 ≪청원≫이나 ≪외교≫가 아니라 무장활동을 해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품고 새로운 무장활동준비를 다그치었다.

아버지의 구상은 무산계급출신의 애국적인 청년들을 선발하여 군사간부로 키우며 이미 있는 무장단체들의 지휘관들과 하층병사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여 그 대오를 무산혁명을 감당할 수 있는 노동자, 농민의 무장력으로 전환시키자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이런 방침을 내놓고 독립군 각 부대들에 조선국민회원들을 파견하여 무장대안에서 선진사상을 보급하는 사업과 무기를 구입하는 사업, 군사간부를 양성하고 군대의 전투력을 높이는 사업을 여러 방면으로 지도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장단들의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었다. 그 당시 아버지에게 가장 큰 고충으로 되었던 것이 독립운동대열의 단합문제였다.

그때 간도와 연해주 지방에는 많은 독립군부대들과 독립운동단체들이 있었다. 밤을 자고나면 무슨 한족회요, 대한독립단이요, 태극단이요, 군비단이요 하는 것들이 하나씩 생겨나던 때였다. 이런 독립운동단체들이 남만지방에만도 무려 20여개나 있었다. 서로 연합을 하고 손발을 잘 맞춰나갔더라면 이 단체들이 큰 힘을 냈을

것이다. 그런데 분파쟁이들은 처음부터 다른 단체들을 배척하고 질시하면서 세력다툼만 하였다.

이러한 사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독립운동대열이 분열되어 인민의 버림을 받거나 적들에게 각개격파될 우려가 있었으며 이미 결심한 방향전환의 대업도 추진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아버지는 대한독립청년단과 광제청년단의 알륵이 심해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관전으로 달려가 거기에 며칠동안 머물러있으면서 두 단체의 지도자들을 설복하여 통합을 이룩하게 하였다. 아버지의 노력에 의하여 홍업단과 군비단을 비롯한 압록강연안일대의 무장단체들이 국민단으로 통합되었다.

이미 있는 무장단들의 역량을 노동자, 농민의 출신들로 갱신하여 공산주의운동을 위한 무장활동의 길로 새롭게 출발하며 여러 갈래의 무장단들을 통합하여 활동에서 분산성을 없애자는 것이 바로 새로운 무장활동을 준비하면서 아버지가 품었던 지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생애의 말년까지 방향전환의 방침을 실천하느라고 애를 태웠다. 그러다가 난치의 병을 얻었다.

관전회의에서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방침이 선포된후 민족주의자들속에서는 사상적분해과정이 촉진되었다.

아버지가 병상에 계시던 때는 뜻을 같이하던 사람들가운데서 더러는 잡혀가고 더러는 변절하고 더러는 흩어지다나니 공산주의운동을 하겠다고 주먹을 부르쥐고 뛰어다닐 인물들도 얼마 남지 못했다.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보수적인 인물들은 여전히 고루한 틀에 얽매여 새것과 담을 쌓고 있었지만 적지 않은 선진층 인물들은 새 길을 선택했으며 후날 우리와 손을 잡고 공산주의혁명을 하였다.

공산주의운동을 해야 한다는 아버지의 사상은 나의 성장에서 큰 자양분으로 되었다.



4. 타향에서 타향으로



관전회의를 지도하시는 김형직선생님

아버지가 활동거점을 자주 옮기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를 여러 번 하여야 하였다.

내가 처음으로 고향을 떠난 것은 다섯 살 잡히던 해였다. 그 해 봄에 우리는 봉화리로 이사를 갔다. 그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한 일가친척들과 헤어지면서도 별로 서운할 줄을 몰랐다. 아직 철이 덜 든 때여서 이별에 대한 생각보다도 새 고장, 새 것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다.

그러나 중강으로 들어가던 그 해 가을에는 가슴이 아팠다.

우리가 북쪽 한끝으로 이사를 간다니 집안식구들도 못내 서운해하였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지지해주고 뜻을 합쳐주던 할아버지도 아들, 손자들이 천리밖으로 가게 된다는 말을 듣고는 아연해하였다.

아버지는 이별을 앞두고 쓸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눅잦혀드리느라고 무던히 애를 썼다. 토방우에서 할아버지의 일손을 마지막으로 도와드리며 아버지가 하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나는 요시찰인으로 등록되어 조선한복판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내가 감옥을 나올 때 놈들은 나보고 운동을 그만두고 집에서 농사나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열 번 다시 감옥에 끌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야 하겠습니다. 왜놈들은 독한 놈들입니다. 독립만세나 불러서는 나라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중강으로 이사를 가던 날 큰삼촌은 아버지를 붙들고 먼데 가도 고향을 잊지 말고 오실 짬이 없으면 편지라도 자주 하라고 하면서 몹시 울었다.

아버지도 삼촌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오냐, 고향을 잊지 않으마. 내 이 고향을 어떻게 잊겠니. 우리가 세상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헤어지지만 어느 때든지 독립이 되면 한데 모여 재미있게 살게 되겠지. 네가 어릴 때부터 내 뒤바라지를 하느라고 신삼이로 손이 다 부르텄는데 오늘은 또 너한테 큰 집안살림을 다 떠맡겨놓고 가자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형님, 그런 말은 말라요. 아버지, 어머니는 내가 모실 테니 아무쪼록 잘 싸워서 품었던 뜻을 꼭 이루시라요. 나는 여기서 그날만 기다리겠어요.≫

그 작별모습을 보는 나도 북받치는 설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나라가 독립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였지만 그런 날이 과연 언제이겠는지 그때로서는 막연하고 답답하기만 하였다. 사실 그때 고향을 하직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시 만경대에 와보지 못한 채 낯설은 이국땅에 묻히었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헤어지기 싫어 자꾸 뒤를 돌아다보았다.

나서자란 산천을 떠나 먼 타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싫었지만 한 가지만은 마음이 놓이었다. 중강에 가면 평양감옥에서 멀어지는 것이 좋았다. 사실 아버지가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나는 좀처럼 불안을 덜어버릴 수 없었다. 왜놈들이 또 아버지를 감옥으로 붙잡아가지 않겠는가 하는 근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세상물정을 모르던 그 시절에 나는 서울이나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벽지에 가면 감옥도 없고 왜놈들의 꼴도 보지 않게 될 것 같은 천진한 생각을 하였다.

평양에서 중강이 몇 리인가고 물었더니 천리라고 하였다. 나는 천리라는 말에 마음을 푹 놓았다. 왜놈들이 그 먼데까지는 따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중강은 조선에서 제일 추운 고장이라고들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만 안전하다면 추위 같은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다.

이사짐은 밥그릇에 숟가락 몇 개를 꾸려넣은 어머니의 보퉁이와 아버지가 메고 가는 전대짐 하나가 전부였다. 봉화리로 갈적에는 궤짝도 있고 책상도 있고 놋그릇, 질그릇 따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아버지의 친구 한 사람이 우리와 동행하였다.

우리는 신안주에서 기차를 내려 개천, 희천, 강계를 거쳐 중강까지 내내 걸어갔다. 강계쪽으로는 아직 철도가 놓이지 않았을 때였다.

아버지는 길에 나서자 내가 먼길을 꽤 걸어가내겠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였다. 어머니도 내가 따라가지 못할가봐 조마조마해하는 눈치였다. 내 나이 여덟 살밖에 안될 때였으니 부모들에게 시름거리가 될 만도 하였다.

나는 지나가는 달구지를 잠간씩 얻어타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의 노정을 걸어갔다. 내 일생에서는 처음으로 되는 커다란 육체적 시련이였다.

강계에 도착한 우리는 남문밖에 있는 객주집에 들려 하루밤을 자고 다음날 길을 떠났다. 객주집주인은 강계지방의 지하조직성원들과 함께 우리 일행을 따뜻이 맞이해주었다. 강계에서 중강에 이르는 500리길은 영도 많고 무인지경도 많았다.

우리가 배낭령을 넘을 때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였다. 세살나는 철주를 업고 보퉁이를 인데다가 초신이 해지고 발까지 부르터서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

중강에 도착한 나는 그만 실망하였다. 거기도 평양의 황금정이나 서문통처럼 일본사람들이 우글우글하였다. 조선사람들은 고향에서도 살수가 없어 이리저리 쫓겨다니는데 그자들은 이런 벽지에까지 쫓아와서 주인행세를 하고 있었다.


강계객주집

아버지의 말씀이 조선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일본사람들이 다 배겨있다는 것이었다. 알고보니 중강에는 경찰서도 있고 유치장도 있고 헌병대도 있었다.

나는 중강에 가보고서야 조선이라는 땅덩어리전체가 하나의 감옥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일본사람들은 중강웃거리 절반이상의 땅에 저들의 이주민지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는 학교도 있고 상점도 있고 병원도 있었다.

중강사람들은 일제가 벌써 10년 전부터 이 고장에 촉수를 뻗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을사보호조약≫이후 우리 나라의 산림채벌권을 빼앗은 일제는 신의주에 영림창을 설치하고 중강에 지창을 둔 다음 저들의 벌목부들을 이 고장에 이주시켰다. 말이 벌목이지 사실은 군사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은 ≪재향군인≫들이 많이 끼여있어 유사시 어느 때든지 출동할 수 있는 반군사집단이나 같은 것이었다. 중강에는 이런자들외에 여러 명의 무장순경과 정규군수비대까지 있었다.


조국을 떠나는 유랑민들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중강으로 간 목적은 독립운동자들의 내왕이 빈번한 이 고장에 병원을 차려놓고 그것을 거점으로 삼아 반일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벌이려는데 있었다. 의사의 신분을 가지면 적들의 감시로부터 자신을 쉽게 위장할 수 있었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강기락이네 객주집에 자리를 잡았다.

강기락은 우리를 위해 여인숙의 방들 중에서 제일 조용하고 깨끗한 방을 하나 따로 내주었다. 우리 아버지는 감옥에서 나와 간도에 다녀오다가 중강에 얼마동안 계시었는데 그때에도 우리 식구들이 들었던 그 방을 썼다고 한다.

강기락은 여인숙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치과와 사진업도 하면서 내막적으로는 중강에 틀고앉아 아버지가 국내에 계실 때는 조선국민회의 국외조직과 아버지를 연결시켜주고 아버지가 국외에 계실 때는 조선국민회의 국내조직과 아버지와의 연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아버지는 이 여인숙을 통하여 임강, 장백, 중강, 벽동, 창성, 초산 등 압록강유역 일대에서 활동하는 국내외의 독립운동자들과 연계를 가지였다.

강기락은 중강치고 큰 유지여서 관청출입도 마음대로 하였다. 그가 관청을 통해 얻어낸 적측 자료들은 아버지의 활동에 큰 도움을 주었다.

나는 아버지를 도와 망도 봐주고 여인숙에 찾아오는 독립운동자들의 시중도 해주고 중상, 중덕 등지를 다니면서 비밀연락도 하였다. 중강인상가운데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나보다 몸집이 더 큰 일본아이와 씨름을 하여 그 아이를 배지개로 넘어뜨리던 일이다. 나는 그때 조선아이들을 못살게 구는 일본아이가 있으면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다. 객주집주인들은 후환이 두려워서 걱정했지만 아버지는 조선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놈들앞에서는 절대로 머리를 숙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내 배짱을 지지해주었다.

이 시기 중강에서는 반일기세가 높아지고 도처에서 삐라살포, 동맹휴학, 악질주구처단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났다.

적들은 중강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들을 아버지와 관련시켜보게 되었다. 중강경찰서에서는 평안남도경무부에서 보내온 통보에 의하여 아버지를 ≪불령선인≫, ≪특호갑종요시찰인≫으로 등록하고 감시하고 있었다. 강기락은 면사무소에 갔다가 아버지의 이름밑에 빨간줄을 쳐놓은 호적등본을 보게 되었다. 그는 경찰놈들이 김선생을 체포하려고 벌서 점을 찍어놓았으니 빨리 자리를 뜨는 것이 안전할 것 같

다고 귀띔해주었다. 그런 때에 중강경찰서에서 아버지를 체포하려 한다는 말이 그곳 경찰순사의 입에서 누설되었다. 아버지는 중강에 그이상 더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다시 보짐을 들고 찬바람부는 나라의 북단마저 떠나 이역땅으로 건너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중강에서 한걸음만 내디디면 중국땅이었다. 중덕나루에서 도막궁이를 타고 압록강을 건느자니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었다. 중강까지 떠나면 이사를 네 번이나 하는 셈이었다. 중강을 낯선 고장이라고 서름서름하게 여겨왔는데 막상 이국에 간다고 하니 중강도 고향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나저러나 중강은 조국의 한 부분이었다. 나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나를 그네에 태워 밀어주던 품이 만경대라면 중강은 봉화리와 더불어 조선은 어데 가나 다 일본제국주의의 감옥이라는 것을 깨우쳐준 잊지 못할 고장이었다.

우리가 중강을 떠나던 날은 날씨조차도 유달리 음산하였다. 마가을의 낙엽이 나루터에까지 날아와 처량하게 굴러다니었다. 하늘에서는 철새들이 무리를 지어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그 새들을 보니 웬일인지 구슬픈 생각이 더 들었다.

중강을 떠나는 이 길이 어머니한테는 조국을 영영 하직하는 마지막걸음이었고 동생 철주도 이 강을 건는 후로는 조국에 돌아오지 못하였다.

사람이 한 생을 살아가느라면 별의별 설음을 다 겪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모든 설음가운데서도 가장 큰 설음은 나라를 잃은 슬픔이며 망국노가 되어 조국을 떠나는 슬픔이다. 고향을 떠나는 슬픔이 아무리 크다해도 조국을 하직할 때의 비감에는 견주지 못한다. 고향을 친어머니에 비기고 타향을 의붓어머니라고 한다면 그 타향보다 몇 곱절 더 생소한 이국은 무엇에 비길 것인가.

오라는 사람도 없고 반겨줄 사람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에 가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 어린 나로서도 기가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러나 조국을 떠나는 뼈저린 슬픔도 나라를 찾으려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묵묵히 참아야만 하였다.

배사공은 만주로 넘어가는 이민의 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면서 조선사람의 신세가 왜 이다지도 가련해지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였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렇게 고향의 문전옥답을 버리고 해외로 떠나가는 사람들의 수가 몇 천몇 만인지 모른다고 하였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이 나라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만주와 시베리아의 황야를 찾아 무리로 떠나갔다. 생존권을 잃은 백성들은 참형을 당하면서도 필사적으로 이 땅을 탈출하였다. 이민의 물결은 미국과 멕시코를 비롯한 머나먼 미주에도 흘러갔다. ≪사시장철 꽃이 피고 씨만 뿌리면 백곡이 저절로 풍요하고 하루 세시간만 품을 팔면 3년안에 부자가 된다.≫는 감언이설에 속은 농부들과 뜨내기군들이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대륙에 가서는 미개인의 취급을 당하며 음식점이나 부자집의 막심부름군으로 일하든가 해별이 불갈이 쏟아져내리는 농장에서 참을 수 없는 고역을 치르었다.

그래도 그때는 국호를 가진 제 나라가 있었다.

나라가 망한 후에는 수천수만의 농민들이 농토를 빼앗기고 산설고 물설은 만주황야로 가랑잎처럼 굴러들어갔다.

대대로 살아온 조상의 땅에는 일확천금에 환장한 일본의 부자들과 장사아치들이 홍수처럼 쓸어들고 그 땅을 살찌워온 주인들은 쫓기는 몸이 되어 남의 나라 지


임강에 있는 반일운동자들의 아지트

경을 넘어 헤매야 했으니 국권을 잃은 백성의 신세를 어찌 가랑잎이나 길가의 조약들에 비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 유랑민의 후손들이 지금 자기네 선친들이 버리고 간 조상의 땅으로 매일같이 찾아오고 있다. 그 교포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압록강가에서 보던 유랑민들의 모습을 회고하군 한다.

임강에 가니 다른 것은 다 서먹서먹해서 굴렀는데 한 가지만은 좋았다. 왜놈들의 몰골을 얼마 보지 않게 된 것이다.

중국 요녕성의 변방상업도시인 임강은 우리 나라와 남북만으로 통하는 교통중심지의 하나였다.

일제는 그때까지만 하여도 중국땅에 공공연하게 세력을 뻗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특무들을 파견하여 독립운동자들을 위협하였다. 그러므로 임강은 중강에 비해 혁명활동을 벌려나가기에 유리하였다.

우리가 임강에 건너가자 아버지는 한 반 년나마 중국교원을 붙여 중국말을 배우게 한 다음 나를 인차 임강소학교 1학년에 입학시켰다. 나는 이 학교에 입학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중어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는 팔도구소학교와 무송제1소학교에 가서 중어공부를 계속하였다.

내가 젊은 시절부터 중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의 공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어째서 아버지가 나에게 서둘러 중국말공부를 시키고 나를 중국인학교에 다니게 하였는지 그때로서는 미처 다 깨닫지 못하였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지원≫의 사상에 기초한 아버지의 그 선견지명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버지가 나에게 일찍부터 중국말공부를 시키지 않았더라면 4반세기를 중국땅에서 보낸 나는 걸음마다에서 커다란 언어적 장벽에 부딪쳤을 것이다.

털어놓고 말해서 우리의 투쟁무대가 대부분 만주지방이었던 조건에서 우리가 중어를 잘하지 못하였더라면 중국사람들과의 친교도 쉽게 이룰 수 없었을 것이고 그들과의 반일연합전선도 성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도대체 적들의 폭압이 우심한 동북땅에 가서 감히 발도 붙이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중국옷을 입고 거리에 나서서 중국말을 유창하게 하면 사냥개들처럼 후각이 발달했다고 하는 일본정탐군이나 만주경찰들도 내가 조선사람이라는 것을 감촉하지 못하였다.

결국 내가 중어를 배운 것이 조선혁명에서 큰 은을 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버지는 이미부터 알고 있던 노경두라는 사람의 알선으로 새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병원을 차려놓았다. 방 한 칸을 내여 약방 겸 치료실로 꾸리고 바깥벽에 ≪순천의원≫이라는 간판을 큼직하게 달아놓았다. 방안에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졸업증도 하나 걸어놓았다. 아마 평양을 떠나기 전에 어느 친구에게 부탁하여 얻어온 졸업증이었다고 생각된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는 명의로 소문나기 시작했다. 의서 몇 권을 읽고 임상실천에 뛰어든 아버지가 명의라는 평판을 얻게 된 것은 의술덕이 아니라 인술의 덕이었다. 아버지는 어디를 가나 사람을 귀중히 여기였다. 고향도 조국도 모두 빼앗기고 설움많은 이국살이에 허덕이고 있은 조선동포들을 위해주고 돌봐주는 아버지의 정성은 각별하였다.

≪순천의원≫을 찾아오는 사람들가운데는 빈손으로 오거나 얼마 안되는 돈을 가지고 와서 병을 보이는 환자들이 적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들이 약값 때문에 걱정할 때마다 돈을 내겠으면 나라가 독립된 후에 내라고 하면서 지금은 우리들이 다른 나라에 와서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멀지

않아 나라를 찾고 다시 압록강을 건늘 날이 올 것이라고 위로해주군 하였다.

임강의 우리 집도 봉화리에서처럼 늘 손님으로 들끓었다. 환자들도 환자지만 그 대부분은 반일운동자들이였다.

강진석외삼촌이 임강에 들어와 백산무사단을 조직한 것도 이 무렵이였다. 백산무사단은 평안도지방의 독립운동자들을 중심으로 무어진 무장단이다. ≪백산≫이란 백두산을 의미한다.

그 당시 만주지방에 살고 있던 조선의 선각자들은 ≪백산≫이란 명칭을 매우 귀중히 여기였다. 그들은 무송지방에 설립한 조선인사립학교에도 백산학교라는 이름을 붙이었다. 우리가 1927년 12월 무송에서 내온 청년조직도 백산청년동맹이라고 불렀다.


외삼촌 강진석

백산무사단은 임강과 장백 일대에 조직된 군소독립군단체들가운데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대오가 째인 무장단이였다. 이 무장단은 본부는 임강현에 있었다. 백산무사단의 국내활동지점은 중강, 초산, 후창을 비롯한 평안북도 일대와 멀리 평양, 순천, 강서 지방에까지 길게 뻗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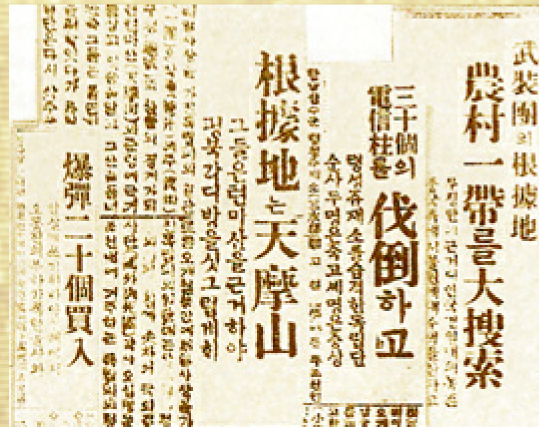
평양에서 비밀청년단체 성원으로 활동하던 외삼촌은 만주에 들어온 다음 무사단을 조직할 때까지 임강의 우리 집에 거처하면서 한동안 채벌노동을 하였다. 무사단을 조직한 후에는 외무위원으로 임명되어 평안남북도일대에서 정치공작과 군자금모연활동을 하느라고 동분서주하였다.

외삼촌은 무사단의 지휘관들과 함께 우리 집에 자주 다니었다. 그때 변대우도 오고 백산무사단의 재무인 김시우도 동행하였다. 그 지휘관들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갈 때가 많았다.

다른 손님들은 다 웃방에서 잤지만 외삼촌만은 늘 우리들이 있는 방에 내려와서 베개밑에 권총을 감추고 자군 하였다.

그 당시 아버지는 관전회의에서 선포한 방향전환의 요구에 따라 선진사상에 기초한 무장투쟁준비에 많은 힘을 기울이었다. 아버지가 홍토애에 자주 다닌 것도 백산무사단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여난 나는 등잔불밑에서 외삼촌이 아버지와 함께 권총을 분해하는 것을 보았다. 그 권총을 보는 순간 내 눈앞에서 어째서인지 3.1독립만세시위 때 보통문 앞거리에서 보던 광경이 새삼스럽게 떠올랐다. 그때 내가 시위군중속에서 본 것은 쇠스랑과 나무작대기뿐이었다. 그런데 1년도 못되어 외삼촌의 손에서 마침내 총을 보게 된 것이다. 수백수천의 죽음으로써 얻어진 피의 교훈에 조선의 선각자들은 무장으로써 화답한 것이다.


武裝團의 根據地 農村一帶를大搜索

三千個의 電信柱를 伐倒하고

根據地는 天摩山

爆彈二十個買入

김형직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무장대들의 활동에 대한 신문보도

며칠후 나는 아버지한테서 중강에 건너가 가방속에 탄알과 화약을 운반해오라는 과업을 받았다. 세관에서 어른들에 대한 단속을 심하게 하는 때였으므로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려고 결심한 것 같았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중강에 건너가 가방속에 탄알과 화약을 넣어가지고 무사히 돌아왔다. 경찰들이 세관에서 배를 타는 사람들을 깐깐하게 조사했지만 그날

은 웬일인지 무서운 생각이 들지 않았다.

외삼촌은 그 후 국내에 나가 무장소조활동을 벌이기 위하여 임강을 떠났다.

그런데 한 달도 못되어 중강헌병대에 있는 김득수오장이 임강에 건너와 외삼촌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김득수는 헌병오장이지만 아버지의 심부름을 많이 들어준 양심적인 사람이였다.

내가 학교에 갔다오니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짓고 있었다. 외삼촌이 붙잡히는 바람에 온 집안이 왁작 끓었다.


유랑민들의 몸을 수색하는 국경경찰들

외삼촌은 임강을 떠난 후 무장소조원들을 데리고 자성, 개천, 평양 일대에서 맹렬한 활동을 벌이다가 1921년 4월 평양에서 일제경찰에 붙잡혀 15년 장기형을 받고 13년 8개월동안이나 옥중생활을 하였는데 보석으로 집에 나왔다가 1942년에 세상을 떠났다.

고향에서 미풍회라는 계몽단체를 뭇고 도박과 음주, 미신을 반대하여 싸우던 외삼촌의 활동이 구국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은 것은 강돈욱외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였다.

혁명은 특수한 몇몇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의식화를 잘하고 영향만 잘 주면 누구든지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혁명투쟁에서 놀라운 위훈을 발휘할 수 있다.

외삼촌을 체포한 후 적들은 임강에 많은 밀정들과 사복경찰들을 들여보내여 아버지를 체포하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밤에 임강교외에 있는 친구의 집에 피해가서 자고 낮에는 집에 돌아와 일을 보군 하였다.

이제는 임강에서도 더 살수가 없었다. 우리는 또다시 이사짐을 꾸려가지고 남의 나라 지경의 타향에서 타향으로 자리를 옮기지 않으면 안되였다. 온 식구가 이고 지고 메고 임강을 떠났는데 인력으로는 이사짐을 도저히 다 나를 수가 없어 방사현이라는 전도사가 발구를 끌고 우리가 살게 될 장백현 팔도구까지 동행해주었다. 임강으로부터 팔도구까지는 250리가량 된다고 하였다.

임강과 마찬가지로 팔도구도 압록강을 끼고 있은 국경마을이였다. 임강대안인 중강땅에 일본헌병대가 있고 경찰관주재소가 있는 것처럼 팔도구대안인 포평에도 일본 헌병대분견소와 경찰관주재소가 있었다.

포평은 조선의 북단에 속하지만 독립운동의 기본무대가 만주로 옮겨진 뒤여서 일제는 이 일대에도 폭압역량을 조밀하게 배치하였다. 포평에서 파견된 밀정들과 헌병, 경찰들이 매일같이 팔도구에 넘어와 애국자들을 찾아내느라고 혈안이 되어 돌아갔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병치료를 해주시며 인민들을 교양하시던 집

우리 집은 팔도강이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합수목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아버지는 이 집에 다 ≪광제의원≫이라는 새 간판을 내걸었다.

우리 집 오른쪽에는 조선국민회원인 김씨네가 살았고 왼쪽에는 국수장사를 하는 다른 김씨네가 살았으며 걸건너 맞은편에도 역시 국수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김씨네가 살았다.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면서 압록강연안의 무장부대들에 물자를 계통적으로 대주던 장사군형제도 김씨였는데 근처에서 살았다. 이렇게 우리 집을 둘러싼 네 김씨네들이 대체로 좋은 사람들이였다.

다만 뒤집 하나가 문제였다. 후에 판명된 것을 보면 그 집주인은 포평경찰서에서 박아넣은 손세심이라는 밀정이였다. 이 손가도 원래는 중강에서 살았는데 일본경찰기관의 지령을 받고 팔도구에 뒤따라와 우리 아버지를 감시하였다.

아버지는 팔도구에 와서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하였다.

그들가운데는 황씨성을 가진 사상가도 있었다. 그는 남사목재소에서 서사로 일하는 과정에 선진사상의 영향을 받고 혁명의 길에 들어섰다. 내막적으로는 우리 아버지의 연락임무를 수행하였다. 황씨는 임무를 받으면 인차 팔도구를 떠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다 수행하고 다시 우리 집에 돌아와 새 과업을 기다리군 하였다.

어떤 날은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술상을앞에 놓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였다. ≪아사히신붕≫에 무슨 기사가 났는데 그 내용이 어떻더라고 하면서 열을 내여 시국평을 하는 때도 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활동근거지로 이용하시던 표평예배당

아버지가 낚시질을 하러 가는 날은 그도 고추장단지를 들고 강가에 따라나가 그물질도 하고 고기밸도 따면서 천렵을 하였다. 그 사람이 이렇게 3년동안이나 우리 집에 다니다나니 어떤 해 추석을 우리와 함께 쇤 적도 있었다.

아버지는 그의 안내를 받으면서 200리나 떨어진 남사목재소에 여러 번 찾아가 노동자들을 교양하고 그들을 반일조직에 묶어세웠다. 나죽보통학교교원들도 아버지의 지도를 받았다. 어느 해였던지 이 학교에서 동맹휴학사건이 일어나 크게 소문을 낸 적도 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비밀연락장소로 이용하시던 우편물위탁소

그 당시 아버지가 많이 다닌 곳의 하나가 포평예배당이였다. 예배당이라 하지만 뾰족지붕에 십자가가 달린 집이 아니라 보통 동기와집으로서 사이벽을 터쳐 통간으로 쓰는 것이 여느집과 다를 뿐이었다.

아버지가 팔도구에 온 다음부터 그 예배당은 군중을 교양하는 장소, 국내혁명가들의 집합장소로 이용되었다. 아버지는 예배가 있는 날마다 포평에 건너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반일선전을 하였다. 때로는 풍금을 타면서 노래도 배워주었다.

아버지가 못가는 날은 어머니나 형권삼촌이 예배보러 오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반일교양을 하였다. 나도 철주를 데리고 그 예배당에 찾아가 아버지한테서 풍금타는 법을 배웠다.

포평거리에는 아버지가 사용하던 비밀연락장소들이 많았다.

포평주재소 청소부로 일하고 있던 사람도 비밀사업을 하였다. 이 사람이 주재소의 비밀을 탐지하여 우편물위탁소에 알려주면 위탁소주인이 우리 아버지에게 전달하군 하였다.

나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비밀연락을 자주 다녔다. 언제인가는 포평주재소에 갇힌 애국자들에게 옷과 음식을 차입해준 적도 있다. 내가 제일 많이 다닌 집은 우편물위탁소였다. 아버지는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 잡지들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발간되는 출판물들을 그 집에서 가져오라고 하였다. 그때 아버지는 형권삼촌의 이름으로 ≪동아일보≫지국을 맡아보았는데 수입을 따로 없었지만 신문은 거저 얻어볼 수 있었다.

나는 한 주일에 두 번 정도 그 위탁소에 건너가군 하였다. 강이 얼기 전에는 포평

에 다녀오는 것이 힘들었다.

그러나 강이 언 다음에는 이틀에 한번씩 갔다오기도 하였다. 내가 공부를 한창 할 때에는 형권삼촌도 다니였다. 아버지 앞으로 우편물이 많이 올 때에는 나와 형권삼촌이 함께 건너가서 날라오기도 하였다. 우편물은 주로 소포와 잡지, 일본에서 출판한 의학서적들이였다.

우리는 포평으로 다닐 때 헌병보조원을 하던 홍종우의 방조를 많이 받았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밑에 혁명의 지지자, 방조자가 된 사람이였다. 물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팔도구도 포평헌병분견소의 관할구역이였다. 이 분견소에 주재소순사들도 복종하고 세관관리들도 복종하였다. 당시 국경지대에 있는 헌병기관들의 권한이 대단하였다.

아버지와 조직성원들은 늘 헌병감시소의 동향을 주시하였고 그들 역시 우리 집에 대해 감시의 눈을 떼지 않았다.

홍종우가 헌병보조원옷을 입고 처음 우리 집 약방에 나타났을 때 나는 몹시 긴장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여러 모로 경계하였다.

홍종우는 서름서름한 표정으로 약방안을 한참동안이나 두리번거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내 오늘 로형을 찾아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안주에 있는 장순봉이라는 사람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외다. 내가 국경쪽으로 전근되어올 때 그 사람이 나더러 후창에 가거들랑 김형직이라는 자기 친구가 있으니 수고스러운대로 찾아보라고 하였습니다. 내자신도 노형을 만나보고 한번 가르침을 받고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헌병옷을 입은 사람의 언행치고는 매우 겸손하고 점잖았다.

그러나 아버지는 첫날 그에게 곁을 잘 주지 않았다.

≪중강의 김득수오장하구는 그렇게도 허물없이 지내시던 분이 오늘은 웬일이세요?≫

홍종우가 돌아간 다음 어머니가 묻는 말이였다.

≪홍씨의 헌병옷을 보니 평양감옥이 새삼스럽게 생각나더구만.≫

아버지는 인사를 전하려고 모처럼 찾아온 사람한테 미안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다음 번에 홍종우씨가 오면 잘 대접하자고 말씀하였다.

홍종우는 그 후에도 우리 집 출입을 계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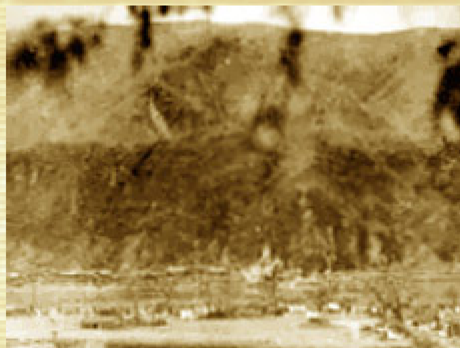
어느 날 아버지는 어머니와 의논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였다.

≪홍종우가 우리 집을 내탐하러 왔으면 나는 홍종우를 통해 헌병대를 내탐하겠소. 만일 여기서 실패하면 내 한 몸이 위태한 것으로 그치지만 그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 일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소. 중강에는 김득수, 포평에는 홍종우라, 김형직이 가는 곳 어디엔들 헌병이 없겠소.≫

그날부터 아버지는 홍종우를 적극적으로 교양하였다.

헌병보조원을 대하던 딱딱한 인사치레는 집어치우고 한겨레로서 진심을 가지고 대하였으며 대접도 잘하였다.

차차 속마음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알고보니 그는 본래 민족적 양심이 있는 사람이였다. 그의 고향은 평안남도 순천이었는데 고향에서 아무리 농사를 힘들게 지어도 살길이 열리지 않아 팔자를 고쳐보



조국의 북변 포평

자고 헌병보조원시험을 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3.1인민봉기 때 시위군중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헌병과 경찰의 치떨리는 만행을 목격하고는 헌병보조원시험에 응한 것을 후회하고 다시 농사나 짓자고 하였다. 그런 때에 합격통지서가 오고 교련호출장이 왔다. 이렇게 되어 홍종우는 헌병보조원이되였다.

일제는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개편하면서 ≪관제개혁≫의 명목밑에 국내의 헌병기관들을 축소하고 경찰기관들을 대대적으로 신설확장하는 동시에 국경지방의 헌병기관들을 보강하였다. 조선인헌병보조원들은 거의나 경찰로 전환되거나 국경지대로 이동되었다. 그 사품에 홍종우도 후창으로 오게 되었다.


포평경찰관주재소

하루는 홍종우가 아버지한테 와서 헌병대의 무장을 탈취하여 독립운동에 나설 용의를 표명하였다.

아버지는 그가 그런 용단을 내린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당신이 독립운동에 나서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요. 몸에 왜놈의 군복을 걸쳤다고 어떻게 넋까지야 더럽히겠소. 5천년 역사국을 자랑하는 우리가 왜놈의 노예살이를 앉아서 순순히 감수만 할수야 있겠소. 그러나 나는 당신이 현 직무에 그대로 있으면서 우리 일을 도와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오. 헌병옷을 입고 있으면 당신이 여러 모로 독립운동을 지원할 수가 있소.≫

홍종우는 그 후 아버지의 말씀대로 독립운동자들에 대한 후원을 잘해주었다.

홍종우는 자주 아버지를 찾아와 어느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기가 도선장감시당번이므로 강을 건너갈 분들이 있으면 그 시간에 보내라고 미리 통지해주기도 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홍종우는 여러 차례나 혁명가들의 도강을 보장해주었다.

우리 아버지도 이 사람의 덕으로 아슬아슬한 고비를 여러 번 넘기였다. 아버지에게 불길한 일이라도 생길 기미가 엿보이면 홍종우는 인차 팔도구에 건너와 ≪순사들이 건너올테니 주의하시우.≫하든가 어머니에게 ≪김선생이 집에 오시면 며칠간 더 촌에 나가있다가 돌아오라고 이르십시오.≫하고 귀띔해주군 하였다.

어느 날 헌병분견소 소장으로부터 대안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자들과 조선사람들의 동태를 탐지할 과업을 받고 팔도구에 건너왔던 홍종우는 포평주재소의 순사가 아버지를 결박해가지고 나루터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홍종우는 그 순사의 앞을 막아서며 이렇게 호통쳤다.

≪이 선생은 헌병대의 일을 보는 우리 사람인데 왜 우리도 모르게 함부로 체포하는가? 앞으로 김선생문제가 제기되면 너희들은 간섭말고 나에게 알려라.≫

그 순사는 잘못했노라고 고개를 조아리면서 아버지의 팔에서 포승을 풀어놓았다.

이렇게 되어 아버지는 위험한 순간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한번은 순찰을 마치고 돌아온 헌병이 분견소 소장에게 팔도구의 김의사가 사상가라고 하는데 붙잡아서 문초를 해보지 않겠는가고 제기하였다.

홍종우는 ≪정보자료≫를 기록한 헌병일지를 펼쳐보이면서 이 자료는 다 김의사를 통해 얻은 자료이다, 사상가들의 동태를 알려면 사상가로 가장해야 그들의 진짜 속내막을 알 수 있다, 김의사는 우리 사업에 공로가 큰 사람이라고 하였다. 그 ≪정보자료≫라는 것은 다 홍종우자신이 꾸며낸 허위자료였다.

1923년 5월 헌병보조원제도가 폐지되자 홍종우는 자기도 가족을 데리고 중국에 건너와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적기관에 복무할 생각이 더는 나지 않

는다고 말하였다.

아버지가 그날 그를 설복하느라고 무던히 애를 썼다. 아버지는 그에게 고향에 돌아가 경찰기관 같은데 들어가 있으면서 종전처럼 계속 우리 사업을 도와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독립군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도움을 준다고 타일렀다. 그리고 고향에 가면 만경대에 찾아가서 나대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인사나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홍종우는 고향에 돌아가자마자 만경대에 찾아가 우리 조부모님들에게 아버지가 보내는 문안인사를 전해드리었다. 그는 아버지가 시켜준대로 고향에 순사로 일하다가 상부에 여러 번 제기하여 1927년부터는 대평주재소 순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부임하자마자 주재소 심부름군에게 술과 돼지고기, 귤을 지워가지고 우리 만경대집으로 찾아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설인사를 드리었다. 만경대도 대평주재소의 관할구역이었다.

홍종우는 생전에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조선민족의 양심을 잃지 않고 시종일관 우리 일가를 잘 보호해주었다. 그가 대평주재소로 자리를 옮긴 목적도 우리 만경대집을 보호해주자는데 있었다. 이 사람이 남리담당으로 있은 동안은 우리 할아버지나 형록삼촌이 놈들의 성화를 덜 받았다. 주재소수석이 그에게 늘 김형직이네 일가는 과거부터 배일사상가들의 집안이니 철저히 경계하고 수시로 가택수색도 해야 한다고 훈계하였지만 홍종우는 매번 별것이 없다는 내용으로 어물쩍해넘기군하였다.

해방 직후 인민들이 도처에서 친일파들을 붙들어다가 두들겨팰 때에도 홍종우만은 매를 맞지 않고 무사히 지냈다. 그가 고향에서 은급순사노릇을 했지만사람들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고 일본법에 걸리는 행위를 보고서도 매번 눈을 감아주었기 때문에 미움을 사지 않았다.

그는 과거경력 때문에 오해를 받으면서도 자기가 한 일을 한번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나에게 편지를 썼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국해방 전쟁이 끝난 몇 해 후 나는 일군들에게 과업을 주어 순천에서 홍종우를 찾아냈다. 찾고보니 그는 벌써 환갑이 넘은 노인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를 도간부학교에 보내여 공부시키었다.

홍종우는 도간부학교를 다닌 다음에도 자기의 천품대로 소박하고 조용하게 살았다. 그는 말년을 우리 아버지의 혁명사적을 발굴하는데 고스란히 바치었다.

홍종우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한테는 순사옷이나 순사의 간판이 방해로 되지 않았다. 문제는 간판이나 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과 정신에 있는 것이다.

후대교육은 팔도구시절에도 여전히 아버지가 관심하는 분야였다. 아버지는 교원의 간판을 의원의 간판으로 바꾼 후에도 교단에 서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후대교육사업에 많은 힘을 넣었다. 학교나 야학을 통하여 군중을 계몽시키고 쓸모있는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야 나라도 찾을 수 있고 부강한 독립국가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아버지의 신념이었다. 1924년 여름에 삼원포에서는 조선소학교 교원들을 위한 여름강습이 진행되었는데 아버지는 그때 학생들에게 배워줄 교육내용과 노래곡목까지 구체적으로 짜주었다.

아버지의 노력에 의하여 팔도구골안에 조선인학교가 서게 되었다. 그 학교에서는 포평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쌀을 지고 와 자체로 밥을 지어먹으면서 조선글을 배웠다.

아버지는 어데 가서나 늘 이렇게 말씀하였다.

≪후대교육은 나라의 독립과 건국의 기초이다.≫

≪사람이 글을 모르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글을 알아야 사람구실도 할 수 있고 나라도 찾을 수 있다.≫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명심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였다. 내가 다니는 팔도구소학교는 4년제중국인학교였는데 수업도 중국말로 하고 취급하는 과목도 중국의 것이었다. 시내에는 조선학교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로부터 개별교육을 받았다. 아버지는 나에게 우리 글과 지리, 조선역사를 배워주고 레닌, 손문, 워싱톤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이름난 명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었으며 진보적인 소설이나 서적들 가운데서 몇 권을 지정해주고는 어김없이 읽고 감상을 발표하도록 체계적인 독서지도도 하였다. 그 덕으로 나는 그때 ≪조선지위인≫, ≪조선영웅전≫, ≪러국혁명사와 레닌≫과 같은 좋은 책들과 신문, 잡지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팔도강의 빨래터

아버지는 공부에 대한 통제를 엄하게 하였다. 공부를 잘 안하면 나나 철주동생은 물론, 형권삼촌까지 붙들어세워놓고 종아리를 칠 때도 있었다.

어머니도 나의 공부를 많이 보살펴주었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산에 나무하러 가려고 하면 어머니는 ≪무슨 나무를 한다고 그러니. 어서 공부나 해라.≫라고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학습에 돌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나는 어머니가 옷 한 벌 제대로 입지 못하고 고생만 하면서도 나를 위해 그처럼 마음쓰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가 하고 늘 궁리하였다. 그러다가 운동화를 사 신으라고 어머니가 준 돈으로 포평에 건너가서 고무신을 한켤레 사다드리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네가 나이는 어려도 속은 깊구나. 나야 아무런 신을 신은들 뭐라니. 너희들이 공부를 잘하고 씩씩하게 자라면 어머니는 기쁜 거란다.≫라고 하였다.

어머니는 어떻게 하나 내가 밝은 마음을 가지고 명랑하게 자라나도록 정성을 다 기울이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구김살을 내지 않고 낙천적으로 자라날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내가 어려서 장난을 제일 많이 한 때가 팔도구시절이었다고 생각된다. 어떤 날은 어른들이 혀를 찰 정도로 험한 장난을 할 때도 있었다. 장난이 없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압록강얼음판에 너비가 1미터도 넘는 큼직한 구멍을 뚫어놓고 강변에 한줄로 늘어서서 그 구멍을 뛰어넘을 내기를 하던 팔도구시절의 겨울을 생각하면 지금도 70년전의 동심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 우리는 그때 저 얼음구멍을 뛰어넘지 못하는 아이들은 커서 조선군대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그 구멍을 날아넘었다. 아이들은 조선군대가 되지 못하는 수치를 면하려고 있는 힘을 다 내어 얼음구멍을 향해 달려가군 하였다.

보폭이 작거나 겁이 많은 아이들은 얼음구멍을 뛰어넘지 못하고 물속에 풍덩 빠지기도 하였다. 그런 날이면 물에 옷을 적신 아이들의 집에서는 화로불에 옷을 말리며 저 평양집 성주 때문에 온 동네 아이들이 동태가 되겠다고 우는소리를 하였다. 성주가 팔도구대장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동네어른들은 자기 자식들에 대한 푸념을 할 때마다 곧잘 내 이름을 거들군 하였다.

어떤 날은 밤늦게까지 팔도구뒤산에서 아이들과 함께 군대놀이를 하느라고 어른들의 속을 까맣게 태운 적도 있었다. 그런 때면 팔도구사람들이 온밤 자지 못하고 우리를 찾아다니였다.

이런 일이 자주 되풀이되였기 때문에 어른들은 아이들에 대한 단속을 무섭게 하였다. 그러나 만리대공으로 날아다니는 자유분방한 동심을 자물쇠로 잠가둘 수는 없었다.

한번은 그때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김종항이 자기 집 창고에 보관되어있는 뇌관상자에서 뇌관 하나를 꺼내가지고 우리한테 자랑하였다. 그 집 창고에는 독립군부대들에 보낼 무기나 피복, 신발 같은 것이 가득 쌓여있었다. 김종항의 형들은 일본회사의 대리점을 통하여 노동복이나 지하족 같은 것을 많이 구입하여 무장대들에 보내주었다. 이 사람들이 독립군에 물자를 대주느라고 배 두 척에 말까지 갖추어놓고 사방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상품을 연방 무데기로 도매하여왔다.

우리는 그날 화로불곁에서 호박씨를 까먹으며 놀았는데 김종항이 그 뇌관을 입에 대고 휘파람을 자꾸 불었다. 그러다가 뇌관에 불찌가 닿아 그만 폭발하였다. 그 바람에 그는 여러 군데 상처를 입었다.

그의 형이 그를 이불보에 싸업고 우리 아버지한테로 뛰어왔다.

뇌관 때문에 상했다는 소문이 경찰들의 귀에 들어가면 큰 봉변을 치를 수 있었으므로 아버지는 김종항을 우리 집에 숨겨놓고 20여일간이나 치료해주었다.

나는 그런 일을 겪고나서야 김종항네 집이 독립군부대들에 군사물자를 조달해주는 애국상인의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무렵에는 실로 철이 없다고 할만큼 모험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그때에도 한 가지 그늘만은 가실 수 없었다.

나이가 들수록 나의 마음속에서는 망국의 고민이 더 크게 자라올랐다.



포평예배당에서 청년들을 선진사상으로 교양하시는 김형직선생님



포평에서 여성들을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는 강반석여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모신 표평혁명사적탑

5. ≪압록강의 노래≫



광복된 조국을 안고 오리라

1923년 초에 아버지는 나를 불러앉히고 이제는 소학교를 졸업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차 어떻게 할 생각인가고 물었다.

나는 상급학교에 가서 공부를 더하고싶다고 말씀드리였다. 나를 상급학교에 보내려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평소부터 품어온 소망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장래에 대한 포부를 물으니 나로서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는 심중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이제부터는 조선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였다.

그 말씀 역시 나한테는 뜻밖이였다. 조선에 나가서 공부하려면 부모님의 슬하를 떠나야했다. 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옆에서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가 놀라면서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데 가까운 고장에 보내면 안되겠는가고 물었다.

아버지는 이미 결심이 확고히 서있는 것 같았다. 지금 당장은 섭섭하고 허전하더라도 성주를 기어이 조선에 내보내야겠다고 거듭 말씀하였다. 원래 우리 아버지는 한번 내놓은 말을 이유없이 거두는 법이 없었다.

네가 어려서부터 부모들을 따라다니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였다. 이제 다시 조선에 나가면 그보다 더 큰 고생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너를 조선에 내보내자고 결심하였다. 조선에서 태어난 남아라면 마땅히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네가 조선에 나가서 우리 나라가 왜 망했는가 하는 것만 똑똑히 알아도 그것은 큰 소득이

다, 고향에 나가서 우리 인민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 하는걸 체험해보아라, 그러면 네가 할 바를 잘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진지하게 하였다.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조선에 나가서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리였다. 당시로 말하면 조선에서도 돈냥이나 있는 집 자식들은 저마다 보따리를 싸들고 외국유학의 길에 오르던 때였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데 가야 개명도 하고 학문도 닦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 풍조로 되어있었다. 그러니 모두가 외국행을 할 때 나는 조선행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사고방식이 아주 독특하였다. 나는 지금에 와서도 그때 아버지가 나를 조선에 내보내준 것이 옳은 처사였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열두 살도 되지 않는 자식을 당시는 무인지경이나 다름없었던 천리길에 홀로 내세운 것을 보면 보통성미가 아니였다. 그 성미가 오히려 나에게는 힘으로 되고 믿음으로 되였다.

사실 그때의 솔직한 심정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였다. 조국에 나가서 공부하라니 다른 것은 다 좋았는데 부모동생들의 곁을 떨어지는 것이 싫었다. 그렇지만 고향에 가고싶은 생각은 불같았다. 조국에 대한 그리움과 단란한 가정의 분위기를 떠나고싶지 않은 미련이 검질기게 교차되는 복잡한 심리의 파동속에서 나는 들뜬 기분으로 며칠을 보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날씨라도 좀 따스해진 다음에 보내면 어떻겠는가고 말씀하였다. 아직 어린 자식을 천리길에 홀몸으로 내세우자니 어머니로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 말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천리길을 가야 할 내 앞길을 은근히 걱정하면서도 아버지가 계획한 날자에 나를 떠나보내려고 밤을 세우며 두루마기와 버선을 지었다. 아버지가 일단 결심한 문제였으므로 어머니도 다른 말씀은 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특징이기도 하였다.

떠나갈 날이 다되자 아버지는 나에게 팔도구에서 만경대가 천리인데 혼자서 갈 수 있는가고 물었다. 나는 갈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아버지는 내 목책에 노정도를 그려주었다. 후창에서 아무데, 화평에서 아무데, 어데어데까지 그리고 그 어간이 몇 리라는 것도 써주고 전보는 두 번 치되 한번은 강계에서 치고 한번은 평양에서 치라는 것까지 상세히 알려주었다.

내가 팔도구를 떠나던 날은 음력 정월 그믐날(양력 3월 16일)이었다. 아침부터 눈보라가 일고 바람이 사납게 불었다. 그날 팔도구에서 사는 동무들이 나를 바래주느라고 압록강을 건너 후창남쪽까지 30리를 따라왔다. 길동무를 해준다고 하면서 한정없이 그냥 따라오기에 겨우 설복해서 돌려보냈다.

막상 길을 떠나고보니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가야 할 천리 중 500리이상은 무인지경이나 다름없는 험산준령이였다. 그 험한 산악들을 단신으로 넘는다는 것이 헐치 않았다. 후창에서부터 강계에 이르는 길 양옆의 수림들에서는 대낮에도 맹수들이 어슬렁거리었다.

그때 천리길을 걸으면서 고생을 퍼그나 했다. 직고개나 개고개(명문고개)와 같은 고개를 넘을 때는 정말 혼이 났다. 오가산령은 하루종일 넘었다. 아무리 걸어도 고개가 끝이 나지 않고 새 고개가 연방 나타나군 하였다.



협궤기관차 니끼샤호

오가산령을 넘고나니 발이 다 부르텄다. 다행히도 그 령밑에서 어떤 노인이 나를 붙들고앉아 발바닥에 성냥으로 딱총을 놔주었다.

월탄을 거쳐 오가산을 넘은 다음에는 화평, 혹수, 강계, 성간, 전천, 고인, 청운, 회천, 향산, 구장을 지나 개천에 이르러 거기서 기차를 타고 만경대로 나왔다.

개천에서부터 신안주까지는 협궤철도가 놓여있었는데 ≪니끼샤≫라는 자그마한 영국제 기관차가 끄는 경편열차가 다니였다. 신안주에서 평양까지는 지금과 같은 광궤철도가 부설되어있었다. 그 당시 개천에서 평양까지의 차표값이 1원 90전이었다.


강계객주집

나는 그때 천리길을 걸으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한번은 발이 너무 아파서 어떤 농민의 발구를 얻어탄 일이 있었다. 헤어질 때 값을 치르려고 돈을 내놓으니 농민은 받지 않고 오히려 그 돈으로 나에게 엿을 사주는 것이었다.

제일 잊혀지지 않는 사람은 강계객주집 주인이었다.

저녁늦게 강계시에 도착하여 객주집에 들어갔더니 그가 대문밖까지 나와서 나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이었다. 하이칼라를 하고 조선바지저고리를 입은 키가 자그마한 사람이였는데 아주 사근사근하고 붙임성이 좋았다. 그가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친 전보를 받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우리 아버지를 ≪김선생≫, ≪김선생≫하면서 존경해온 이 객주집의 할머니도 나를 보자 4년 전에 아버지를 따라 중강으로 들어갈 때는 조그마했는데 이렇게 컸구나 하면서 친손자라도 만난 것처럼 기뻐하였다.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놓은 소갈비국도 끓이고 청어도 구워서 자기 집 아이들한테는 하나도 먹이지 않고 나한테만 주었다. 밤에는 새로 꾸민 이불도 내놓았다. 주인들이 그때 정말 나를 위해 있는 성의를 다했다.

나는 다음날 아침 강계우편국에 가서 아버지가 일러준대로 팔도구에 있는 부모님들에게 전보를 쳤다. 전보문 한 자에 3전이었는데 여섯 자가 넘으면 1전씩 더 받는다고 하여 전보용지에 ≪강계무사도착≫이라는 여섯 글자를 써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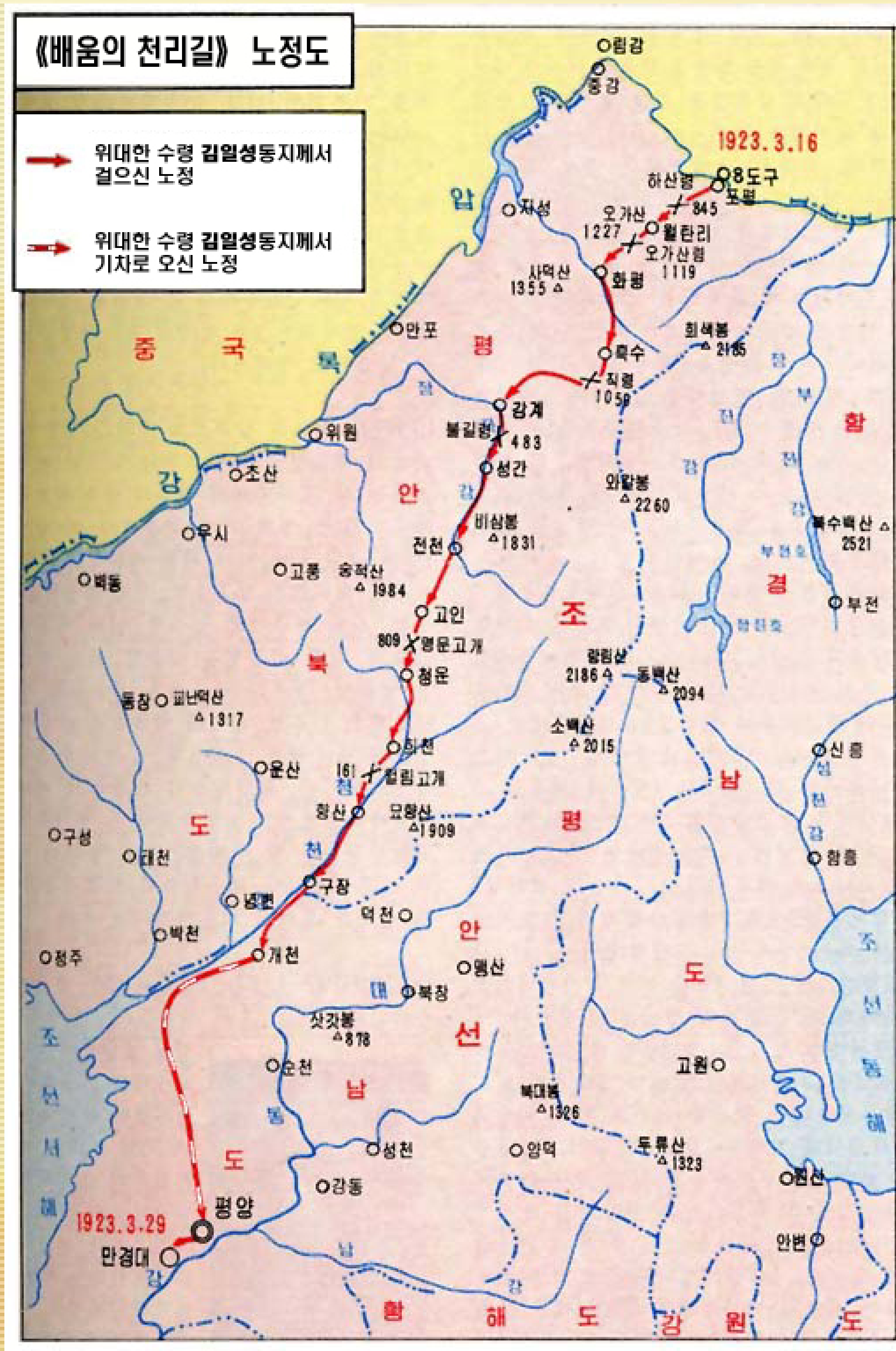
이튿날 객주집주인은 나를 차에 태워보내려고 자동차사업소에 갔다왔다. 그는 차고장으로 열흘쯤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면서 신청은 해놓았으니 친척집에 온 셈치고 그 동안 자기 집에서 묵으라고 하였다. 나는 그의 진정이 고마왔지만 빨리 가야겠다고 하였다. 그랬더니 그도 더는 만류하지 못하고 짚신 두 켤레를 주면서 개고개쪽으로 가는 달구지군까지 한 사람 물색하여 붙여주는 것이었다.

개천역앞에 있던 서선여관 주인도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였다.


난생처음 전보를 치셨던 강계우편국

나는 그 여관에 들자 15전짜리 밥을 청하였다. 여관밥도 등급이 있었는데 이 여관에서는 15전자리가 제일 눅거리였다. 주인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50전짜리 밥을 주었다. 내가 돈이 없어서 50전짜리는 못 먹겠다고 했더니 주인은 돈이 없어도 그냥 먹으라고 하였다.

밤이 되자 여관에서는 손님들에게 포단과 모포 두 장씩을 내주고 50전 정도 받았다. 수중에 있는 로비를 계산해보니 모포를 두 장


《배움의 천리길》 노정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걸으신 노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차로 오신 노정
1923. 3. 16
8도구
포평
845
1227
오가산령
1119
화평
사덕산
1355
만포
중국
압록강
평안북도
강계
483
성간
비상봉
1831
전천
위원
조산
우시
고풍
숭적산
1984
고인
809
명문고개
청운
희천
161
향산
묘향산
1909
구장
개천
덕천
희색봉
2185
직령
1050
와갈봉
2260
부전
장진호
부전호
북수백산
2521
함경남도
조선
소백산
2015
2094
신흥
함흥
평안남도
맹산
북창
순천
성천
양덕
강동
고원
원산
안변
두류산
1323
1923.3.29
평양
만경대
황해도
강원도
조선동해
조선서해
구성
태천
박천
정주
운산



씩이나 덮고 호강할 형편이 못되였다. 그래서 나는 모포를 한 장만 달라고 하였다. 주인은 이번에도 다른 손님들이 다 포단을 깔고 모포를 두 장씩 덮고 자는데 너 혼자만 어떻게 그렇게 하겠는가, 돈을 안내도 되니 마음놓고 받으라고 하였다.

조선사람들이 비록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가 되여 어렵게 살았지만 조상전래의 인정과 미풍양속만은 깨끗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금세기초까지만 하여도 우리 나라에서는 무전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자기 집이나 마을에 찾아오는 나그네들이 돈을 내지 않아도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는 것이 조선의 풍속이였다. 이런 풍속에 대해서는 서양사람들도 몹시 부러워하였다. 나는 천리길을 걸으면서 조선민족이 참으로 선량하고 도덕적인 민족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

서선여관 주인도 강계객주집 주인이나 중강려인숙 주인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지도와 영향을 받은 사람이였다. 여덟 살 적에 중강으로 들어갈 때에도 느낀 바이지만 아버지한테는 이처럼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친지들이 어디에 가나 있었다.

나는 우리 일가를 친혈육처럼 맞이하고 보살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저 많은 친구들을 언제 다 사귀였을가, 저런 동지들을 얻느라고 걸음인들 얼마나 많이 걸었을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사방에 친구들이 있으니 객지에 나서도 아버지는 이모저모로 그들의 도움을 받았다. 나도 그들의 덕을 단단히 보았다.

천리길을 걸을 때의 인상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4년 전까지 등잔불을 켜고 살던 강계시내에 전등불이 환한 것이였다. 강계사람들은 전기가 들어왔다고 좋아하였지만 나는 왜색이 짙어가는 거리풍경을 보고 쓸쓸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조국에 나를 내보내면서 조선을 알아야 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한 아버지의 참뜻이 마음속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었다. 나는 그 뜻을 되새기면서 비운에 잠긴 조국의 모습을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나에게 있어서는 그 천리길이 조국을 알게 하고 우리 인민을 알게 해준 하나의 큰 학교였다.

팔도구에 떠난 지 열나흘만인 1923년 3월 29일 해질 무렵에 나는 마침내 고향집 뜨락에 들어섰다.

아래방에서 물레질을 하던 할머니가 버선발로 마당에 뛰어나와 나를 와락 끌어안았다.

≪누구하고 함께 왔니?≫

≪무얼 타고 왔느냐?≫

≪아버지, 어머니는 다 잘 있느냐?≫

할머니는 나에게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한꺼번에 많은 것을 물었다.

방에서 멍석을 틀던 할아버지도 밖으로 뛰어나왔다.

할머니는 혼자서 걸어왔다는 나의 대답이 잘 믿어지지 않는지 ≪아니, 네가 정말 혼자서 왔단말이냐! 너의 아버지가 범보다 더한 사람이구나!≫하고 혀를 찼다.

그날은 온 집안이 모여앉아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루밤을 새웠다.


외할아버지 강돈욱

산천은 예나 다름없이 유정하고 아름다왔건만 마을의 구석구석에서 내비치고 있은 가난의 자취는 이전보다 더 두드러져보이었다.

나는 만경대에 며칠간 머물러있다가 외할아버지가 교감으로 계시는 창덕학교 5학년에 편입되어 조국에서의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때부터는 칠골외가에 가있으면서 학교를 다니었다.

당시의 외가는 사실 내가 얹혀살 형편이 못되었다. 외가에서는 그때 강진석외삼촌의 일로 시련을 겪고 있었다. 외삼촌이 잡혀서 감옥살이를 시작한 후부터 경찰들의 감시와 성화가 심해진데다가 옥중에 있는 외삼촌의 건강이 좋지 않아 온 일가가 몹시 상심하고 있었다. 외가의 살림살이 역시 타개죽이나 비지밥으로 그날그날을 겨우 연명해가는 형편이였다. 둘째외삼촌은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우차몰이까지 하면서 가까스로 생활고를 헤쳐나갔다.

그러나 외가에서는 내앞에서 가난티를 조금도 내지 않고 내가 학습에 열중할 수 있도록 뒤받침을 잘해주었다. 나를 위해 안채의 웃방을 따로 내주고 거기에 남포등도 걸어주고 돗자리까지 깔아주었다. 내 동무들이 셋씩넷씩 무리를 지어 때없이 찾아들어도 탓하지 않았다.

창덕학교는 우리 외할아버지를 비롯한 칠골일대의 선각자들이 애국문화계몽운동의 조류를 타고 국권회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세운 경향성이 좋은 사립학교였다.

구한국말기와 ≪한일합병≫후 우리 나라에서는 구국투쟁의 일환으로 애국적인 교육운동이 맹렬하게 전개되었다. 국권상실의 수치스러운 본원이 나라의 후진성에 있다는 것을 눈물겹게 통감한 선각자들과 애국지사들은 교육이야말로 자강의 기초이고 근본이며 교육을 발달시키지 않고서는 나라의 독립도 사회의 근대화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도처에서 사립학교운동을 벌이었다.

이 운동의 앞장에는 안창호, 이동휘, 이승훈, 이상재, 유길준, 남궁억과 같은 애국적인 계몽운동자들이 서있었다. 각지방에 조직되어있는 학회들도 교육운동을 힘있게 추진시키였다.


칠골외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던 교육문화운동의 열풍속에서 수천 개의 사립학교들이 태어나 봉건의 구속에서 잠들고 있던 이 나라의 지성에 불을 달아주었다. 공자, 맹자의 교리를 가르치던 서당들이 신식학문을 배워주는 학당이나 의숙으로 개편되어 후대들에게 애국의 정신으로 분발하라고 부르짖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민족주의운동의 지도자들은 예외없이 교육을 독립운동의 시발점으로 삼고 거기에 온갖 재력과 심혈을 다 기울이었다. 테러를 독립운동의 기본방책으로 틀어쥐고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배후에서 끊임없이 조종해온 김구도 초기에는 황해도일대에서 교육활동에 종사하였다. 안중근도 남포지방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후대들을 가르친 선비였다.

서선지방에 설립된 사립학교들가운데서 유명한 것은 안창호가 주관한 평양의 대성학교와 이승훈의 개인자금으로 세워진 정주의 오산학교였다. 이 학교들에서는 이름난 독립운동자들과 지식인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창덕학교

외할아버지는 창덕학교에서 안중근과 같은 인물이 한 명만 나와도 영광이라고 하면서 나더러 공부를 열심히 하여 훌륭한 애국자가 되라고 하였다.

나는 안중근과 같은 유명한 열사는 못돼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애국자가 되겠다고 대답하였다.

창덕학교는 서선지방의 사립학교들가운데서도 비교적 규모가 크고 현대화된 학교로서 학생수가 200명 이상 되었다. 당시로서는 작은 학교가 아니었다. 학교가 하나 있으면 그것을 거점으로 주변인민들을 빨리 계몽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평양지방의 인민들과 유지들은 창덕학교를 매우 중시하였고 여러 모로 이 학교에 대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백선행도 창덕학교에 거액의 자금을 희사하였다. 본명보다도 백과부라고 많이 불리운 그는 해방 전에 평양에서 자선사업으로 이름이 높던 여자이다. 스무 살 전에 과부가 된 그는 80고령이 될 때까지 수절하면서 한푼두푼 돈을 모아 부자가 되었다. 치부방법이 아주 대담하고 독특하여 일찍부터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었다. 오늘날의 승호리세멘트공장소속의 석회석광산 부지도 한때는 백선행의 땅이었다고 한다. 그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돌박산을 헐값으로 사두었다가 일본자본가들에게 본전의 몇십 배가 되는 비싼 값으로 팔아넘긴 것이 바로 오늘의 승호리세멘트공장에 속해있는 석회석광산부지라고 한다.

문서장 한 장으로 국토를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팔아넘긴 역신들에 대한 원성이 구천에 사무칠 때 수판알도 튀길줄 모르는 평범한 여성이 장사속이 밝은 일본자본가들과의 거래에서 막대한 폭리를 얻어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문을 일종의 전승무훈담처럼 통쾌하게 들었다.

사람들이 백선행을 존경한 것은 그가 사회를 위해 유익한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다. 수중에 돈이 많았지만 그는 부귀영화를 조금도 탐내지 않고 조반석죽의 수수한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평생을 두고 저축해온 그 돈을 사회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었다. 그 돈으로 다리도 놓고 공회당도 지었다. 백선행이 지은 평양공회당 건물이 지금도 연광정앞에 원상그대로 남아있다.


창덕학교시절 쓰시던 책상

공부를 시작한지 며칠 안되는 어느 날 외할아버지는 내가 볼 5학년 교과서들을 가지고 왔다. 나는 한 보따리나 되는 책들을 받아안고 가슴을 울렁거리며 그 교과서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그런데

≪국어독본≫이라고 쓴 일본말책이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족을 ≪황민화≫하기 위하여 일본말사용을 강요하였다. 강점 첫 시기에 벌써 그들은 관공서와 재판소, 학교들에서 쓰는 공용어는 일본어로 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조선말을 못쓰게 하였다.

나는 외할아버지에게 일본말책을 왜 국어책이라고 하는가고 물었다.

외할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숨만 쉬였다.

나는 손칼로 ≪국어독본≫이라는 글자들가운데서 나라국자를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날일자를 써넣었다. ≪국어독본≫이 순식간에 ≪일어독본≫으로 되어버렸다. 일본의 동화정책에 엇서고싶은 저항심리가 나로 하여금 그런 용단을 내리게 하였다.

창덕학교에 며칠간 다녀보니 교실이나 길거리나 놀이터에서 일본말을 하는 아이들이 더러 보이었다. 어떤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일본말을 배워주기까지 하였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탓하는 아이들이 별로 없었다. 나라가 망해버렸으니 조선말도 영영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였다.

나는 일본말을 익히느라고 애쓰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조선사람은 응당 조선말을 해야 한다고 깨우쳐주었다.

내가 팔도구에서 조국에 나와 칠골에 간 그날 동리사람들은 시국이야기를 들으려고 우리 외가집에 모여왔다가 만주에서 몇 해 동안 살았으면 중국말을 잘하겠는데 한번 들어보자고 나에게 청을 하였다. 창덕학교 아이들도 중국말을 배워달라고 자꾸 성화를 먹이었다. 그러나 나는 좋은 제 나라 말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남의 나라 말을 하겠는가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매번 거절하군 하였다.

내가 조국에 나와서 중국말을 해본 것은 단 한번뿐이였다.

하루는 둘째외삼촌이 나더러 성안구경을 가자고 하였다. 일에 몰려서 좀처럼 구경이라고는 다니지 않는 분이였지만 그날은 나를 위해 모처럼 통시간을 냈다. 네가 오래간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오늘은 나하고 같이 나가 점심이나 한끼 먹자고 하며 나를 데리고 평양성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시내를 한 바퀴 돌고나서 점심을 먹으려고 서평양에 있는 중국요리점에 들리였다. 지금의 봉화산여관이 자리잡고 있은 일대에는 그 당시 중국요리점들이 많았다.

요리점주인들은 매상고를 올리려고 문밖에까지 나와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하면서 친절하게 손님들을 맞아들이였다. 그들은 돈을 벌려고 경쟁적으로 손님들을 끌었다.

우리가 들어간 요리점 주인은 서투른 조선말로 무슨 음식을 잡숫겠는가고 물었다.

나는 주인이 알아듣기 쉽게 중국말로 호떡을 두 그릇 달라고 하였다.

주인은 눈이 둥그래서 나를 쳐다보더니 혹시 중국학생이 아닌가고 물었다.

나는 중국학생은 아닌데 몇 해 동안 만주에 가서 산 덕으로 그럭저럭 중국말을 좀 한다고 하면서 중어로 얼마간 대화를 하였다.

요리점주인은 어쩌면 어린 나이에 중국말에 그처럼 능통한 가고 하면서 몹시 반가와하였다. 만주



창덕학교시절 쓰시던 방

에서 살다가 온 학생을 만나니 조국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지었다.

그리고는 호떡과 함께 청하지도 않은 음식까지 식탁에 차려놓고 많이 들라고 하였다. 우리는 사양하다못해 주인이 차려놓은 음식을 다 먹었다. 식사를 끝낸 다음 음식값을 치르려고 돈을 내놓았더니 주인은 호떡값조차 받지 않았다.

외삼촌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늘은 내가 한턱 내려고 너를 성안으로 데리고 갔는데 도리어 네 덕을 입었구나 하면서 크게 웃었다. 이 소문이 외삼촌을 통해 동네에 펴졌다.


청년시절의 강양욱

나는 희망대로 강양욱선생이 담임한 학급에 편입되었다.

내가 칠골에 간 것은 강양욱선생이 숭실학교를 중퇴하고 창덕학교에 취직한지 얼마 안되는 때였다. 선생은 학비를 댈 수 없어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하면서 못내 아쉬워하였다.

가난이 오죽 심했으면 선생의 부인(송석정)이 시집을 버리고 한동안 친정에 가있었겠는가. 부인의 부모들이 네가 인덕이 모자라 조강지처는 되지 못할지언정 가난에 진저리가 나서 지아비를 버리다니 그게 될말이냐, 조선사람치고 그만큼 가난하지 않은 집이 몇 집이나 된다더냐, 그래, 시집을 가면 금방석에 앉아서 꿀물에 옥밥이라도 말아먹을줄 알았더냐, 일언이폐지하고 당장 돌아가서 사죄하라고 엄하게 질책하여 부인을 시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니 강양욱선생의 가세가 어느 정도였는가가 긴 설명이 없이도 짐작이 가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선생의 부인을 ≪숙천아지미≫라고 불렀다. 부인의 고향이 평안남도 숙천이었다. 내가 가면 ≪숙천아지미≫는 매번 비지밥을 해주군 하였다. 그 비지밥이 참으로 별맛이었다.

해방 직후 나는 강양욱선생의 생일을 축하하러 갔다가 부인과 함께 창덕학교시절의 비지밥을 회상한 적이 있었다.

≪사모님, 나는 지금도 칠골에서 사모님이 해주시던 비지밥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때 그 밥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20여 년동안 타향살이를 하느라고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는데 오늘은 그 인사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자 부인은 ≪가난 때문에 쌀밥 한끼 변변히 대접 못하고 비지밥만 해드렸는데 감사하다고만 하시니 도리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비지밥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였다. 그리고는 창덕학교시절에 장군님대접을 소홀히 한 봉창을 해드린다고 하면서 손수 지은 음식들을 차려주었다.

어느 해인가 그 부인이 내 생일을 축하한다면서 ≪백화주≫라는 자작술까지 보내주었다. ≪백화주≫란 백가지 꽃으로 만든 술이라는 뜻이다.

그 운치있는 이름 때문에 유다른 호기심을 느끼면서도 나는 가볍게 잔을 들지 못하였다. 쌀밥 한끼 제대로 먹어보지 못하고 늘 시장기와 싸우던 부인의 지난날이 눈앞에 삼삼해서 좀처럼 잔을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나라없는 민족의 슬픔을 뼈에 사무치도록 체험한 나에게는 고향에 있는 한대의 나무, 한 포기의 풀, 한 이삭의 곡식이 이전보다 몇 갑절 더 소중해보였다. 그런데다가 강양욱선생이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부단히 취하였으므로 나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일상적으로 애국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때 선생은 학생들에게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원족이나 수학여행 같은 것을 많이 조직해주었다.

그때 있은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도 황해도 정방산 수학여행이 매우 인상깊다.

해방 후 강양욱선생은 최고인민의 상임위원회 서기장과 공화국 부주석으로 일하

면서 나와 사업상 접촉할 기회가 많았는데 우리는 창덕학교시절의 수학여행에 대하여, 우리가 본 정방산의 성불사와 남문루에 대하여 감회깊이 회상하군 하였다.

창덕학교시절의 추억가운데서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것은 강양욱선생의 창가수업이다. 창가시간은 우리가 제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인기시간의 하나였다.

선생은 전문가들을 무색케 할만한 희한한 고음성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성대를 가지고 선생이 ≪전진가≫나 ≪소년애국가≫와 같은 노래를 부를 때면 온 교실이 숨을 죽이고 그 노래를 감상하군 하였다.

돌이켜보면 선생이 배워준 창가의 선율들이 우리의 가슴에 애국적인 정서를 많이 부어주었다고 생각된다. 나는 그 후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도 창덕학교시절에 배운 노래를 종종 부르군 하였다. 그 시절에 배운 노래들은 지금도 가사와 선율이 그대로 고스란히 머리속에 남아있다.

조국에 돌아와보니 고향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어렵게 살고 있었다.

해마다 봄씨붙임이 시작되면 극빈한 가정의 아이들은 학교에 나오지 못하였다. 농사일이 바쁜데다가 농량이 떨어져 물구지, 냉이, 메싹 같은 것을 캐여 끼니보탬을 해야 했다. 장날이면 나물을 팔아 식량을 사려고 시내에 나가는 아이들도 있었고 부모들을 도와 집에서 어린 동생들을 봐주는 아이들도 있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점심밥을 싸도 조나 수수, 피로 지은 밥을 싸가지고 다니었다. 그나마도 없어서 점심을 못싸가지고 오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칠골이나 만경대에는 집사정이 곤란하여 학교에 못다니는 아이들이 수두룩하였다. 가난 때문에 학교문앞에도 못가보고 집에 파묻혀있는 아이들을 볼 때면 불쌍해서 견딜 수 없었다.

나는 그런 아이들을 생각하여 방학 때 만경대에 가서 야학을 열었다. 그 야학방에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을 다 불러다놓고 글을 배워주었다. 처음에는 1학년용 ≪조선어독본≫을 가지고 우리 글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학과목을 늘여 역사, 지리, 산수, 노래도 배워주었다. 내 일생에서 처음으로 되는 소박한 계몽활동이였다.

나는 동무들과 함께 성안에 자주 드나들면서 평양시민들의 생활형편도 만경대나



칠골 사람들과 별반 다른 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평양의 인구 10만 중에 기를 펴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 안되는 일본사람들과 미국사람들뿐이였다. 미국사람들이 평양에서 경치가 제일 좋은 신양리일대에 틀고앉아 호의호식을 하였다면 일본사람들은 평양에서 제일 번화한 본정과 황금정일대에 자기네 거주지역을 만들어놓고 풍청거리였다.

미국사람들이 사는 ≪양촌≫이나 일본인거주지역에 벽돌집이 늘어나고 상점들이 늘어나고 예배당이 늘어났지만 보통강일대나 빽대거리 같은 곳에는 빈민촌이 늘어났다.

지금은 보통강기슭에 천리마거리, 경흥거리, 봉화거리와 같은 현대적인 거리들이 들어서고 인민문화궁전, 평양체육관, 빙상관, 창광원, 초고층아파트와 같은 큼직큼직한 건물들이 솟아나 옛모습을 찾을 길이 없지만 내가 창덕학교에 다니던 그때만 해도 거기에는 거적문을 해달고 판자를 모아 지붕을 얹은 움집들이 올망졸망 들어앉아 있었다.

내가 조국으로 돌아온 그 해는 평양지방에 전염병까지 퍼지어 시민들이 모진 고통을 겪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홍수의 피해를 입어 온 도시가 형용하기 어려운 곤란을 당하였다. ≪동아일보≫는 그 해 홍수로 인한 참상을 전하면서 평양시내 총호수의 절반에 달하는 1만여호의 집들이 물에 잠겼다고 하였다.

지금 보통강광장뒤에 세계에서 제일 큰 105층짜리 유경호텔이 일어서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에 얼마나 초라한 오두막을 짓고 어려운 생활을 하였는지 새 세대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때 이런 현실을 체험하면서 근로하는 인민이 잘 살수 있는 사회를 갈망하게 되었고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을 더욱 증오하게 되었다.

내가 창덕학교에 다닐 때 일본에서 간또대지진이 일어났다. 그 지진에 대한 소문이 칠골에까지 날아와 학생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지진을 계기로 조선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려한다는 당치 않은 구실을 조작해가지고 일본의 극우익분자들이 군대를 내몰아 조선동포들을 수천 명이나 학살하였다는 것이었다. 그 사건이 나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나는 그 소문을 듣고 일본이 입으로는 ≪일시동인≫이나 ≪일선융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지로는 조선사람들을 짐승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심각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 후부터 나는 일본순사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만 보아도 가만 놔두지 않았다. 널판자에 못을 여러 대 박아 길바닥에 파묻어놓으면 어떤 자전거든지 영낙없이 타이어가 터지군 하였다.

일제를 증오하고 조국을 사랑하는 사상감정은 우리가 만든 음악유희 ≪열세집≫에도 반영되었다. 음악유희 ≪열세집≫은 13명의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며 마분지로 만든 열세 개도의 지도를 붙여 조선지도를 만드는 춤이다.

1924년 가을철운동회 때 이 음악유희를 무대에 올렸는데 공연도중에 순사가 운동장에 나타나 당장 걷어치우라고 야단을 쳤다. 자그마한 운동회를 하나 열려고 해도 경찰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설사 승인을 받았다고 해도 순사의 입회가 있어야 하던 세월이었다.

나는 강양욱선생을 찾아가 자기 나라의 산천을 사랑하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놈들이 뭐라고 하든지 공연을 계속하자고 주장하였다.

강양욱선생은 다른 교원들과 함께 순사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고 ≪열세집≫의 공연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우리와 같은 소학생들도 이처럼 강한 애국정신, 반항정신을 가지고 있었으니 어

른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내가 조국에 나온 그 해 여름 평양에서는 양말공장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있었다. 그때 신문들이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일본이 비록 기만적인 ≪문화통치≫에 매달리고 있지만 조만간에 3.1인민봉기보다 더 큰 반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나는 이렇게 두 해를 보내다가 창덕학교졸업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외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또다시 일제경찰에 체포되였다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였다. 하늘이 무너져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무서운 분노와 적개심에 휩싸였다. 칠골에서도 만경대에서도 어른들은 사색이 되어 내 얼굴만 지켜보았다.

나는 아버지의 원쑤, 우리 일가의 원쑤, 조선민족의 원쑤를 갚기 위하여 사생결단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다지고 떠날 차비를 하였다.

내가 팔도구를 가겠다고 하자 외가집에서는 가도 졸업이나 한 다음에 가라고 하였다. 만경대의 할아버지도 이모저모로 설복하였다. 몇 달만 지나면 학교도 졸업하고 날씨도 따뜻해질 터인데 그때를 기다려 떠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아버지한테 불행이 닥쳐왔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편안히 앉아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하루라도 빨리 가서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고생하는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한다, 내 이제 아무데 간들 피값이야 못하겠는가고 생각하였다.


창덕학교시절의
친우 강윤범

할아버지는 내 마음을 돌려세우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자 태도를 바꾸어 내 결심대로 하라면서 아버지가 영어의 몸이 되였으니 이제는 네가 나설 차례라고 하였다.

다음날 나는 집안어른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고향을 떠났다. 그날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울고 삼촌도 울고 온 집안이 다 울었다.

나를 바래우려고 평양역에 나왔던 작은외삼촌(강창석)도 몹시 울었고 칠골에서 학교를 같이 다니던 강윤범이도 슬피 울었다.

창덕학교시절의 동창생들가운데서 제일 가까운 동무가 바로 강윤범이였다. 그도 배짱이 맞는 동무가 없다나니 나한테 늘 놀러오군 하였다. 우리는 뿌르르 하면 같이 성안에 들어가군 하였다.

기차가 떠날 시간이 다되였을 때 강윤범은 나에게 밥구레미와 함께 봉투 한장을 주었다. 너와 헤어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기에 서운해서 몇 자 적었으니 차칸에 올라가 뜯어보라고 하였다. 나는 그의 말대로 차가 떠난 후 봉투를 뜯어보았다. 봉투속에는 짤막한 편지 한장과 돈 3원이 들어있었다.

그때 그 편지와 돈을 보고 내가 얼마나 감동되였는지 모른다. 동무를 생각하는 마음이 크지 않고서는 그런 인사를 차릴 수가 없다. 그때 형편에서 어린 나이에 돈 3원을 마련한다는 것이 헐한 일이 아니였다. 아버지의 원쑤를 갚는다고 막상 떠나기는 하였으나 사실 나한테는 그때 노자가 문제였다.

강윤범이가 나를 궁색한 처지에서 구원해준 셈이다. 그도 그 돈을 구하기가 무척 빠근했던 모양이다. 해방이 되자 그가 나를 찾아왔기에 내가 첫인사로 돈을 받고 고마왔던 20년 전의 이야기를 하니 자기도 그때 그 돈을 힘들게 구했노라고 실토하였다. 정말 부자들의 백만금에도 비길 수 없는 돈이였다. 그 돈 3원에 실려있는 순결하고도 아름다운 우정의 무게를 무엇으로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돈에서는 우정이 생기지 않지만 우정만 있으면 없던 돈도 생기고 별의별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강윤범은 그때 나보고 장군은 산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 투쟁했지만 자기는 별반

한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힘을 합쳐 새 나라를 건설해보자고 하였다. 나는 강윤범에게 지금 건국사업에서 제일 걸리고 있은 문제가 간부부족인데 학교를 세우는 일을 한 부분 맡아주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그는 선뜻 응해나섰다. 얼마 후 그가 조촌에다 학교를 하나 세우고 그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기에 내가 삼흥중학교라는 이름을 달아주었다. 삼흥이란 지, 덕, 체 세 가지가 다 흥한다는 뜻으로서 깊은 지식과 고상한 도덕품성과 건장한 체력을 다 갖춘다는 것이다.

강윤범은 그 후 종합대학 건설을 책임지고 일을 잘하였다. 지금은 대학 하나를 건



설하는 것이 그닥 큰 문제로도 되지 않지만 그때는 자금도 없고 건설기능자도 없어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그는 일하다가 걸린 것이 있으면 나를 찾아왔고 우리 집에서 같이 자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밤새도록 의논하군 하였다.

강윤범은 나를 광복의 길로 전송해준 잊지 못할 동지였고 친우였다. 나는 지금도 그날 평양역에서 눈물을 머금고 나를 바래주던 강윤범의 모습을 잊지 않고 있다.

성주, 너와 헤어지자니 눈물이 나서 못견디겠구나. 이제 헤어지면 언제 또 만나게 될가? 우리 서로 만리밖에 있어도 잊지 말고 창덕학교시절을 생각하자. 내 고향을 생각하고 내 나라를 생각하자.

그때 그가 준 쪽지에는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있었다.

나는 이런 우정과 의리에 고무되여 또다시 험한 고개들을 넘고 또 넘었다. 만경대를 떠나 열사흘째 되는 날 저녁에는 포평에 도착하였다. 나는 나루터에 다달은 다음에도 인차 압록강을 건느지 못하고 강뚝에서 서성거리었다. 팔도구로 건너가자니 지나온 조국산천이 자꾸만 발목을 잡아당기었다.

내가 고향을 떠날 때 사립문밖까지 따라나오면서 내 손을 쓸어주고 옷깃을 여며주고 눈보라를 걱정해주며 눈물짓던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라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다. 이제 뚝을 넘고 강만 건느면 눈물이 마구 쏟아져 나와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찬바람이 불어대는 두 나라 지경에서 신음하는 조국산천을 돌아보니 사랑하는 고향으로, 고향집으로 다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조국에서 보낸 세월은 비록 두 해밖에 안되었으나 그 기간에 나는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였다.

가장 귀중한 체험은 우리 인민이 어떤 인민인가를 깊이 이해하게 된 것이였다. 우리 인민은 소박하고 근면하면서도 용감하고 강의한 인민이였다. 어떤 곤란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억센 인민, 례절이 바르고 인정이 풍부하면서도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비타협적인 인민이였다. 민족개량주의자들은 연정회의 간판을 가지고 반동적인 ≪자치≫운동을 벌이고 있었으나 노동자와 농민, 청년학생들을 포함한 광범한 인민대중은 피를 흘리면서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그 어떤 힘으로써도 훼손시킬 수 없는 민족의 존엄과 강철같은 독립의지를 뜨겁게 감수하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이런 인민을 잘 조직동원한다면 얼마든지 나라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문화통치≫의 간판뒤에서 나날이 늘어나는 군대와 경찰과 감옥들을 보면서, 우리 조국의 재부를 끊임없이 약탈해가는 화차들과 화물선들을 보면서 일제야말로 우리 인민의 자유와 존엄에 대한 가장 흉악한 교살자이며 우리 인민에게 참을 수 없는 가난과 굶주림을 강요하는 악독한 착취자, 약탈자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조국의 숨막히는 현실은 나로 하여금 조선민족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일제를 몰아내고 독립된 조국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신념을 더욱 굳건히 품게 해주었다.

조국을 한시바삐 되찾고 그 모든 것을 영원히 우리의 것, 조선의 것으로 만들고싶은 념원이 불길처럼 나의 가슴속에 타번지었다.

나는 경찰들의 눈을 피하여 포평나루터 아래쪽으로 좀더 내려가 여울목에서 압록강얼음판에 발걸음을 무겁게 내디디였다. 폭이 백자도 되나마나한 그 강만 건느면 팔도구시가이고 그 강안거리에 우리 집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강건너쪽으로 발을 옮겨놓을 수가 없었다. 조국을 하직하면 언제 다시 이 강을 건너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돌아서서 강뚝우에 나딩구는 조약돌을 하나 집어들고 손바닥에 감싸쥐였다.

조국의 표적이 될 수 있고 조국을 추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가지고 가서 소중히 간수하고싶었다.

그날 압록강가에서 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심리적 체험을 하였다. 그날의 그 체험이 가슴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였기 때문에 나는 조국에 개선한 후 국내애국자들이 나를 환영하여 차린 연회석상에서도 압록강을 건늘 때의 이야기를 먼저 하였다.

나는 입속으로 그 누군가가 지은 ≪압록강의 노래≫를 부르며 천천히 강건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였다.

일천구백십구년 삼월 일일은
이 내몸이 압록강을 건넌 날일세
년년이 이날은 돌아오리니
내 목적을 이루고서야 돌아가리라

압록강의 푸른 물아 조국산천아
고향땅에 돌아갈 날 과연 언젤가
죽어도 잊지 못할 소원이 있어
내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가리라

압록강의 노래

좀 천천히 경건한 마음으로　　혁명가요

1. 일천구백 십구년 삼월일일은
이 내몸이 압록―강을 건넌날일세
년―년이 이날은 돌아오리니
내 목적을 이루―고서야 돌아가―리라

2. 압록강의 푸른 물아 조국산천아
고향땅에 돌아 갈 날 과연 언젤가
죽어도 잊지 못할 소원이 있어
내 나라를 찾고서야 돌아 가리라

나는 설음과 비분을 안고 조국산천을 몇 번이고 돌아보았다.

조선아, 조선아, 나는 너를 떠난다. 너를 떨어져서는 한시도 살수 없는 몸이지만 너를 찾으려고 압록강을 건는다. 압록강만 건느면 남의 나라 땅이다. 그러나 남의 땅에 간들 내 너를 잊을소냐. 조선아, 나를 기다려다오.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다시 ≪압록강의 노래≫를 불렀다.

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가, 내가 자라나고 선조의 무덤이 있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은 과연 언제일가 하고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을 하니 어린 마음에도 비감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그때 조국의 비참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었다.



창덕학교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



평북 도구장군에 있는≪광복의 천리길≫ 헌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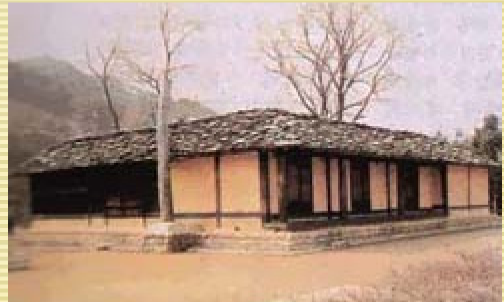


개천≪혁명의 천리길≫ 사적지-기관차와 객차



≪광복의 천리길≫ 사적지-
헌시비 ≪법정나루여 길이 전하라≫


개천≪혁명의 천리길≫ 사적지-경편차역


≪광복의 천리길≫ 사적지-고인여인숙


개천≪혁명의 천리길≫ 사적지-서산여관


≪광복의 천리길≫ 사적지-진천객주집


개천≪혁명의 천리길≫ 사적지-
≪천리길에 빛나는 땅이여!≫ 헌시비


≪광복의 천리길≫ 사적지-
헌시비 ≪광복의 천리길 혁명의 길이여!≫

6. 나의 어머니


어머니 강반석

내가 팔도구거리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문 뒤였다. 천리를 걸으면서 내내 불안에 조이던 마음이 집앞에 다닫자 몹시 긴장되였다.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은 뜻밖에도 펴그나 여유가 있고 침착하였다. 어머니는 두손으로 나를 꼭 부둥켜안고 나는 한번도 그렇게 못해봤는데 너는 혼자서 천리길을 갔다 돌아왔구나, 사내가 다르긴 다르다고 하면서 반가와하였다.

나는 고향소식을 간단히 말씀드리고나서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는가고 물었다.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어 무사하다고 대답하였다. 다른 말씀은 없었다.

나는 어머니의 기색을 보아 아버지가 급한 고비는 모면하였지만 여전히 위험이 뒤따르며 그 때문에 주변의 눈과 귀를 몹시 조심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나는 만경대에서 떠날 때 받은 노자를 아껴 사가지고 온 과자를 동생들한테 안겨주고는 온밤 가족들과 함께 쌓이고쌓인 회포를 풀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어머니는 저녁밥을 한 상 차려주고는 나보고 여기는 놈들의 감시가 심하니 인차 집을 떠나라고 하였다. 아버지가 있는 곳도 안대주고 아버지는 무사히 갔는데 너도 가야겠다고 하였다. 평소에 그렇게도 부드럽고 인자하던 어머니가 그때만은 내 의향이나 심정 같은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엄동설한에 천리길을 걸어온, 그것도 2년만에 만나보는 자식을 하루밤도 재우지 않고 그날밤으로 또 떠나라고 하는 것이였다. 나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덤덤히 서있었다. 동생들까지 데리고 떠나라는 말씀에 겨우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었다.

≪나는 신파에 간 삼촌을 기다린다. 삼촌이 돌아오면 여기 세간들을 정리하고 뒤처리를 해야겠다. 너희들이나 빨리 떠나가거라.≫

어머니의 말씀이였다.

어머니는 임강 노경두네 집에 가되 아무도 몰래 조용히 떠나야 한다고 당부하고나서 송십장에게 발구부탁을 하였다.

송십장은 부탁을 선선히 들어주었다. 본명은 송병철이였는데 십장들처럼 우쭐렁거리는 버릇이 있다고 하여 팔도구사람들은 이름대신 그를 송십장이라고 불렀다.

우리는 이 송십장의 도움으로 발구를 타고 팔도구를 떠나 임강으로 가게 되었다.

내가 일평생 혁명을 하면서 이별도 수많이 해보고 상봉도 수없이 겪어보았지만 이런 특이한 경우는 단 한번밖에 체험해보지 못하였다.

만경대에서부터 근 보름동안이나 걸어와 여장을 풀어보지 못한 채 그날밤으로 다시 길을 떠나면서 나는 어머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성격이 부드럽고 온화하였다. 아버지는 혁명하는 사람으로서 성격이 강의하고 엄한 분이었으므로 따뜻한 사랑은 내가 어머니에게서 더 많이 받았다.

내가 2년 전에 조국으로 공부를 떠나게 됐을 때 그리도 나를 떼놓기 힘들어하던 인정많은 어머니였다.

만경대의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범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런 아버지가 옆에 있으니 어떻게 하지 못했으나 실상 그때 나는 말없는 어머니의 눈물을 느끼였다.

성품으로 보아 내가 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열네 살 나는 아이가 천리길을 걸어 집앞에서 날이 저물었다면 억지로라도 끌어들여 따뜻이 먹여주고 재워줄 어머니였다.

어느 해 봄날 강건너 후창땅에서 왼다리와 목덜미에 종처가 생겨서 중태에 빠진 아이가 자기 큰아버지 등에 업혀 우리 집으로 온 적이 있었다. 부모들이 가정불화로 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큰아버지네 집에 얹혀사는 불쌍한 아이였다.

아버지가 진찰을 끝내고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다리를 수술하게 되면 걸어다니지 못하겠는데 치료기간 우리 집에 있게 해야겠다고 말씀하자 어머니는 더 이를 데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한마디로 응하였다. 수술 후 매일 한 번씩 꿀에다 밀가루와 중조를 반죽하여 아이의 종처에 붙이군 하였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도와 약을 붙이는 시중을 하였으며 어지러운 상처를 다루면서도 얼굴색 한번 달리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 날 지성을 다한 끝에 병이 나아서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때 아이를 데리러 왔던 그의 큰아버지가 1원짜리 돈 한 장을 아버지에게 드리면서≪치료비를 계산한다면 몇백 냥을 드려도 아깝지 않겠습니다만 없는 살림이라 마음뿐입니다. 그저 치료비라고 생각하시고 선생님, 이 돈으로 약주나…≫하고는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없이 사는 분들에게 치료비라니요. 그건 당치 않은 말씀이웨다. 나는 앓는 애를 더 잘 먹이지 못한 게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도 아이의 큰아버지는 막무가내로 그 돈을 받아달라고 간청하였다. 잘 사는 사람이 그런 청을 한다면 몰라도 산에 가서 솔검불 같은 것이나 긁어다 팔아가지고 치료비를 마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돈 1원을 가지고 와서 받아달라고 하니 우리 부모님들도 난처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돌아보며 정녕 우리가 받지 않으면 남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이니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딱해하자 어머니는 ≪진정이야 받아야지요.≫하고는 그 걸음으로 거리에 나가 당목 다섯 자를 끊어가지고 돌아와 그 아이에게 주면서 단오도 멀지 않았는데 집에 가거들랑 옷을 해 입으라고 말씀하였다. 그때 당목 한자에 35전씩이었으니 결국 환자가 내놓은 1원에 75전을 더 보태어 옷감을 끊은 것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원래 어렵게 살면서도 돈에 대한 타산과 욕심이 없었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것이 아니라 명이 모자라서 못산다.≫, ≪돈이라는 것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없다가 생기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철학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이처럼 마음씨가 곱고 온후한 분이었다.

간혹 아버지가 언짢은 일이 있어 꾸중이라도 할 때면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고칩시다.≫라는 식으로 사과를 할 뿐 말대답은 하지 않았다. 우리들이 장난을



어머님으로부터 애국주의교양을 받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심하게 하여 옷을 어지럽히거나 물건을 마스거나 집안을 소란스럽게 할 때에도 할머니가 왜 아이들보고 욕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가고 나무라면 ≪거 뭐 잘못한 걸 가지고 또 욕을 해서는 뭘 하겠어요.≫하는 정도의 말씀밖에 안했다.

혁명을 하는 남편을 섬기니 그렇지 사실 순수한 여성의 각도에서 보면 어머니의 일생은 힘에 부친 고생살이의 연속이였다.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단란한 생활을 얼마 해보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늘 객지에 나가 있으니 자연히 그렇게 되였다. 아버지가 교원생활을 할 때 강동에 가서 한 1년간 좀 재미나는 생활을 하였다고 할가. 그리고 팔도구에 와서 한 1-2년 가정생활을 해보았겠는지.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나와서는 앓고, 경찰의 감시를 받으며 이곳저곳 떠돌아다니고, 아버지가 돌아간 다음에는 나까지 혁명을 하느라고 늘 객지생활을 하다나니 어머니는 단란한 생활을 못해보고 그냥 마음고생을 하면서 일생을 보내였다.

만경대에 있을 때에도 어머니는 열두 식구나 되는 큰 집안 장손며느리로서 늘 바삐 지냈다. 남편의 뒤바라지에 시부모공대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집안팎을 거두고 설겆이를 하고 빨래를 하고 길쌈을 하느라고 허리를 펼 사이가 없는데다가 낮에는 농사일로 진종일 밭에 나가있다나니 머리를 들고 해를 쳐다볼 경황도 없었다. 봉건이 심하고 예의범절이 까다로운 그때 큰집의 맏며느리구실을 한다는 것이 간단치 않은 일이였다. 어쩌다가 밥을 하였을 때에도 어머니한테만은 가마치가 차례졌고 죽을 쑨 날에는 제일 멀건 것을 잡숫군 하였다.

일이 정 고달플 때면 어머니는 삼촌어머니와 함께 예배당으로 가군 하였다. 송산이라면 지금의 군사대학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장로교계통의 예배당이 하나 있었다. 남리와 그 주변에는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이 적지 않았다. 살아서 사람다운 생활을 못하니 예수의 가르침을 잘 따르다가 죽어서 ≪천당≫에라도 가보자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어른들이 예배당에 갈 때면 아이들도 따라가서 예배를 보군 하였다. 신자의 대열을 늘이려고 예배당측에서는 이따금씩 아이들에게 사탕도 주고 공책도 주었다. 아이들은 그것을 받아보는 맛에 일요일만 되면 패를 지어 송산으로 밀려가군 하였다.

나도 처음에는 호기심이 나서 동무들과 함께 가끔 송산으로 다니었다. 그러나 동심에 맞지 않는 엄숙한 종교의식과 목사의 단조로운 설교에 싫증을 느낀 다음부터는 예배당에 잘 다니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날 나는 할머니가 달여준 콩엿을 먹으면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예배당에 안갈래요. 예배를 구경하는게 재미없어요.≫

아버지는 아직 철부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나어린 나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을 하였다.

≪가고 안가는거야 네 마음대로지. 사실상 예배당이라는데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 안가도 좋다. 너는 예수보다도 자기나라를 더 믿고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더 믿어야 한다. 그리구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할 생각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은 다음부터 나는 예배당에 잘 다니지 않았다. 칠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에도 예배당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을 통제하였지만 한번도 가지 않았다. 나는 예수의 복음이 우리 인민이 겪고 있는 비극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였다. 예수의 교리가운데 인도주의적인 것도 많았으나 민족의 운명을 두고 깊은 고뇌에 빠져있던 나에게는 구국에로 부르는 역사의 웨침소리가 그보다 더 절박하게 들리었다.

사상으로 보면 아버지도 무신론자였다. 그러나 신학을 가르치던 숭실중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주위에는 교인들이 많았고 따라서 나도 교인들과의 접촉을 많이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장과정에 기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는가고 묻는데 나는 종교적 영향은 받지 않았지만 기독교신자들에게서 인간적으로 도움은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상적 영향도 주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기독교적정신과 인간의 자주적인 삶을 주장하는 나의 사상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어머니가 예배당에 갈 때에만 송산으로 다니었다.

어머니는 예배당에 다니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에게 슬그머니 물어보았다.

≪어머니, 어머니는 ≪하느님≫이 정말 있어서 예배당에 다니시나요?≫

어머니는 웃으면서 머리를 가로 흔들었다.

≪무엇이 있어서 다니는 것 아니다. 죽은 후에 ≪천당≫가서는 뭘하겠니. 사실은 너무 피곤해서 좀 쉬자고 간다.≫

그 말씀을 들으니 어머니가 불쌍하고 더 정이 들었다. 어머니는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리다가도 피곤에 못이겨 졸군 하였다. 그러다가 목사가 뭐라고 한 후 모두가 ≪아멘≫하고 일어날 때에야 잠에서 깨어났다. ≪아멘≫소리가 난 뒤에도 잠에 몰려 깨여나지 못하면 내가 슬그머니 흔들어서 어머니에게 기도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드리군 하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이들과 같이 만경대뒤고개에 있는 상구막앞을 지나게 되었다. 동리에서 장례를 지낼 때 쓰는 상구를 보관해두는 막이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 그 상구막을 몹시 무서워하였다.

우리가 그 막앞을 지날 때 한 아이가 ≪야, 저기서 귀신이 나온다.≫하고 소리쳤다. 그 바람에 우리



비밀문건 보관장소

는 막에서 정말 무엇이 나오는 것 같아서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냅다뛰였다.

그날저녁에는 모두 무서워서 집에도 돌아못가고 동무네 집에서 자다가 새벽녘에야 집에 돌아오면서 신들을 얻어가지고 갔다.

집에 돌아와서 그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였다.

≪그런 곳을 지날 때에는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부르면 무엇이든지 무서워 못나온단다.≫

노래를 부르면 무서운 기운이 없어지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었을 것이다. 그 후부터 나는 노래를 부르며 그 상구막앞을 지나다니군 하였다.


독립운동자들이 드나들던 임강의 식당

평시에는 이처럼 온순하고 무던한 어머니였지만 적들앞에서는 기상이 도도하고 강의하였다.

봉화리에서 아버지를 체포해간 일제경찰들이 몇시간 후 우리 집에 달려들어 수색을 할 때였다. 그들이 비밀문건을 찾아내려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자 어머니는 성이 나서 ≪볼테면 보라!≫하고 자신의 손으로 옷가지들을 막 내던지고 찢어내치면서 무서운 기상으로 맞섰다. 그러자 놈들은 기가 죽어서 어쩌지 못하고 돌아가버렸다.

우리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였다.

그날밤따라 압록강가에서는 눈보라가 몹시 세차게 일었다.

수림을 통채로 쓸어버릴 것 같은 사나운 바람소리와 맹수의 울음소리로 가득찬 심야의 어둠은 내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던 망국의 상처를 더 아프게 건드려놓았다.

나는 무서워 떠는 동생들을 꽉 껴안고 어두운 두 나라 지경의 얼음우로 발구를 타고 가면서 참으로 혁명의 길은 간단치않고 어머니의 사랑 또한 쉽지 않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였다.

우리는 셋이 다 추워서 이불을 들쓰고 우들우들 떨었다. 캄캄한 밤이었으므로 동생들은 그냥 무섭다고 하면서 내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우리는 오구비라는 조선쪽 기슭에서 하루밤을 자고 다음날 임강에 도착하였다.

알고보니 노경두라는 사람은 전에 우리가 임강에서 살 때 집을 주선해주고 아버지한테 자주 찾아와 국운을 운운하군하던 구면의 객주집주인이었다. 그는 우리 형제들을 큰손님처럼 따뜻이 맞이해주고 환대해주었다.

그 집은 7칸짜리 양통집이었는데 우리는 제일 조용한 두 번째 건너방에 있었다. 부엌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는 객방이 세 개나 있었다. 그 방들은 늘 손님들로 붐비였다. 만주에서 임강을 거쳐 조선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나 조선에서 임강을 거쳐 만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 객주집에 들렀다가 떠나군 하였다. 노경두의 집은 독립운동자의 숙박소나 다름없었다.


1925년 1월, 주석님께서 동생들을 데리고 임강으로 발구를 타고가다 하루밤 쉬고 가신 압록강기슭 오구비

노경두는 반일사상이 강한 민족주의자로서 성격이 온화하면서도 고집이 세고 강의하였다. 그는 객주집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의 일부로 독립운동자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밥장사나 하면서 그날그날을 근근히 살아가는 형편이었으므로 그것도 한 개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가 어떻게 되어 임강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 그 내막은 나도 똑똑히 알 수 없다.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노경두는 독립운동자금을 뽑으려고 중성광을

실어 내가는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 한동안 단동지방에 숨어살다가 사건이 가라앉은 다음에 더 안전한 피신처를 찾아 임강에 이주했다는 것이였다.

그의 본 적지는 대동군 고평면 하리였다. 하리는 순화강을 사이에 두고 우리 고향 남리와 맞닿아있는 동네이다. 노경두는 원래 착실한 농사군이였던 것이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된 다음부터 집에는 얼마 있지 않고 내내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나돌아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농사도 안하고 장돌뱅이노릇을 한다고 온 집안의 미움을 샀다는 것이다. 그는 썰물이 지면 순화강을 건너 남리에 와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군 하였다. 이런 연고가 있어서 그런지 노경두는 우리를 잘 먹여주고 잘 보호해주었다.

나와 우리 가정에 있어서 노경두는 큰 은인이였다. 한 달 가까이 객주집에 있는 동안 그는 자기 집의 것을 다 펴내어 우리들의 시중을 들어주면서도 다른 기색을 전혀 나타내지 않고 시종일관 웃는 얼굴로 우리를 대해주었다. 한번은 자기 돈을 내여 무송에 계시는 아버지에게 장거리전화까지 걸도록 해주었다. 그 덕에 나는 난생 처음 전화를 해보았다. 그때 아버지가 아이들의 목소리를 다 듣고싶다고 하는 바람에 우리 형제들은 어머니와 함께 한 번씩 다 전화를 해보았다.

어머니는 약속한 날자에 형권삼촌을 데리고 임강에 왔다. 오자마자 시가지구경을 하자고 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중국요리집으로 갔다. 우리들에게 교즈 한 그릇씩 사주고는 이것저것 물었다.

처음에는 한 달 가까이 남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해온 자식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푸짐히 먹이고싶어 그리는가보다고 심상않게 따라들어갔는데 실상은 음식보다도 그 동안 우리가 지내온 경위를 듣고싶어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사이 객주집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을 찾는 일이 없었느냐, 너희들이 노경두네 집에 와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몇 이나 되느냐, 이렇게 일일이 묻고나서 어머니는 우리에게 어데 나가서 김형직의 아들이라는 말을 절대로 입밖에 내지 말라는 것과 새고장으로 떠나갈 때까지 매사에 단단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곱씹어 당부하였다.


강반석여사가 탄생하신 칠골집

임강에 와서도 어머니는 역시 우리들 때문에 발편잠을 자지 못하였다. 깊은 밤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군 하였다.

자식들에게 무슨 화라도 미칠가보아 한시도 마음을 못놓는 저런 어머니가 임강으로 우리를 떠밀어보내던 그날은 어찌면 그렇게도 단호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가?!

생각하면 그것은 참된 어머니의 사랑, 혁명적인 사랑이였다.

이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하고 진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은 없을 것이다. 꾸짖어도 매질을 해도 아프지 않은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며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그 사랑은 대가를 모른다.

그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이따금씩 내 꿈에 나타나군 하였다.

7. 유 산



김형직선생님께서 쓰시던 권총을 위대한 수령님께 넘겨주시는 강반석여사

팔도구시절에 우리 집으로 자주 찾아오던 황씨는 우리 아버지의 생애에 큰 흔적을 남긴 사람이였다. 후창에서 일경들의 손으로부터 아버지를 탈환해낸 사람이 바로 황씨였다.

아버지는 국내조직들과의 연계를 지으려고 포평에 건너갔다가 비밀아지트로 이용하던 국수집근방에서 매복경관들에게 붙잡히였다. 적들에게 아버지를 밀고한 것은 우리 뒤집에서 객주업을 하던 손세심이였다. 이자가 사흘이 멀다하게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아버지의 곁에 딱 붙어앉아 ≪김선생≫, ≪김선생≫하면서 알랑거리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손세심이 밀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냈다.

총독부 경무국에서는 지하조직을 들춰내기 위하여 아버지를 체포한데 대해서 극비에 붙이고 평안북도경찰부에 고위급관리들을 급파하여 아버지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하였다. 포평경찰관주재소 순사부장 아끼시마와 다른 순사 한 명이 부랴부랴 후창경찰서를 거쳐 신의주 도경찰부까지 아버지를 호송해가게 되였다. 적들이 아버지를 체포하자마자 신의주로 호송하게 된 것은 압록강연안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이 아버지를 탈환해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였다.

아버지가 포평경찰관주재소 유치장에 갇혀있는 동안은 놈들이 가족을 주재소에

들여놓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아버지가 신의주로 호송되게 된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황씨가 달려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었다.

≪성주 어머니, 내가 집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변호사를 대고 재판받는 것까지 보고 오겠으니 너무 걱정마시우다. 집에 술이 있으면 몇 병 주시오.≫

그는 독한 술 몇 병에다 마른명태 한 코를 망태기에 넣어가지고 슬금슬금 아버지를 따라갔다.

순사놈들은 아침 일찍이 길을 떠났는데 연포리주막집에 왔을 때는 점심시간이 다되었다. 그자들은 배가 출출하다고 하면서 그 주막집에 밥을 시키었다. 그때 일행을 뒤따라 연포리까지 온 황씨가 그 집에 들어와 동정을 살피다가 망태기에서 술병을 꺼내들고 순사놈들에게 술을 권하였다.

놈들은 처음에 죄인호송중이어서 안된다고 하다가 황씨가 자꾸 권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잔두잔 받아마시기 시작하였다. 황씨는 잡혀가는 사람에게도 밥을 먹여야 할게 아니냐고 하면서 경찰들을 구슬려가지고 아버지의 한 쪽 손에는 수갑을 벗기게 하였다. 황씨도 술을 많이 마셨으나 취하지는 않았다. 그는 원래 술고래였다.

아끼시마는 자기의 수하졸병인 조선인순사와 함께 마침내 그 자리에 꼬꾸라져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그 틈을 타서 아버지는 황씨의 도움으로 수갑을 풀고 그와 함께 주막집에서 뛰쳐나와 맞은켠에 있는 뾰족봉으로 올랐다. 산꼭대기에 거의 올라섰을 때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술에서 깨여난 순사들은 그때에야 정신을 차리고 헛총질을 하면서 아버지를 추격하였다. 놈들이 총질을 하는 바람에 아버지는 그때 뾰족봉에서 황씨와 헤어졌다. 그 후로는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내가 해방 후 이 황씨를 찾느라고 여러 곳에 줄을 놓았다. 곤란할 때 그렇게도 목숨을 내대고 서슴없이 아버지를 도와주던 사람이 웬일인지 좋은 세상을 만나니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다.

황씨는 우리 아버지를 대신하여 단두대에라도 올라설 수 있는 진실한 벗이며 동지였다.

황씨와 같은 성실한 동지의 방조가 없었더라면 아버지가 그런 역경속에서 위기를 모면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아버지를 보고 동무복을 타고났다고 말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버지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또 많은 독립운동자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다보니 주위에는 군중이 많았고 혁명동지들과 친구들이 많았다.

나는 후퇴시기 이극로선생한테서도 아버지의 탈출과 관련된 상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전쟁이 일어난 그 해 초가을에 공화국정부에서는 지방들에서의 현물세납부사업을 추진시킬 목적밑에 여러 명의 내각성원들을 전권대표로 파견하였다. 그때 무임소상을 하던 이극로선생도 평안북도에 파견되었다.

선생이 과업을 다 수행하였을 때는 전략적 후퇴가 시작되어 우리가 강계지방에 가있을 때였다. 하루는 그 선생이 내각에 사업보고를 하겠다고 하면서 나를 찾아왔다가 연포리주막집에 대한 화제를 느닷없이 꺼냈다. 자기가 후창군에서 일을 끝내고 강계로 나올 때 그 군 내무서장을 데리고 연포리라는데 가서 우리 아버지가 탈출한 주막집을 직접 돌아보았는데 그 집이 그냥 남아있더라는 것이었다. 강계와 후창은 당시까지만 하여도 다 평안북도에 속해있었다.



무장대 성원들의 모임을 지도하시는 김형직선생님

한 생을 남조선과 해외에서 보내다가 해방 후 건국을 앞두고 북반부에 들어온 이극로선생한테서 연포리주막집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희한한 일이였다. 지금처럼 우리 아버지의 사적이 널리 공개된 때라면 몰라도 연포리주막집이 무슨 집인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때에 그런 말을 들으니 나로서는 신기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이극로선생에게 물었다.

≪이선생이 어떻게 되여 우리 부친의 력사를 다 아십니까?≫

≪나는 벌써 20년 전에 김형직선생님 명성을 들었습니다. 길림에서 어떤 고마운 분이 장군님일가에 대해서 자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겠습니까. 이 전쟁만 끝나면 춘부장님에 대한 전기를 쓰고싶습니다. 그런데 붓끝이 무뎌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평상시 그처럼 과묵하고 조용하던 이극로선생이 이날은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고 많은 말을 하였다.

우리는 내각이 자리잡고 있은 번잡한 방을 떠나 인적이 드문 독로강(장자강)기슭을 거닐면서 한시간 남짓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극로선생에게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황귀헌의 아버지 황백하였다. 그 당시 이극로선생은 신간회대표단 성원으로 만주지방에 들어가 있었다. 그 대표단의 사명은 5.30폭동과 8.1폭동에서 피해를 입은 조선동포들에 대한 구제사업을 하는 것이였다. 폭동피해자들이 속출하자 신간회지도부는 만주지방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그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하려고 하였다.

그때 이극로선생은 심양에서 최일천을 만났다. 길림에 가면 황백하를 만나보라고 선생에게 권고한 사람이 바로 최일천이였다.

이극로선생은 그의 말대로 길림에 가자 황백하를 만나 그에게서 구제사업을 위한 도움도 받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때부터 연포리가 후창군에 있고 후창군이 우리 아버지의 주요한 활동연고지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였다.

신간회가 선생을 대표로 만주지방에 파견한 것은 그가 이 일대에서 다년간 교육활동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생은 내도산의 독립군부대에서 한

동안 훈련도감으로도 있었고 무송의 백산학교와 환인현의 동창학교에서 교편도 잡았다. 그런 것만큼 선생이 만주에 갔다가 거기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십분 있음직한 일이었다.

≪군내무서장이라는 사람은 주막집내막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창군의 수치라고 비판을 좀 했습니다. 그리구 내무서장이 책임지고 주막집을 잘 보존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극로선생은 후대들이 선열들의 투쟁역사를 모르면 후레자식이 되는 법인데 일군들이 전통교양을 잘하는 것 같지 않다고 걱정하였다.

창건된 지 두 해밖에 안되는 청소한 공화국이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있던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혁명전통을 고수해야 한다는 선생의 말을 듣고보니 나도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드는지 몰랐다. 이 땅을 찾기 위해 싸우다가 희생된 선열들의 영혼이 우리의 눈앞에 한꺼번에 날아와 싸워서 이기라고, 조국을 끝까지 수호하라고 절규하는 것 같아서 뜨거운 충동을 금할 수 없었다.

조선이 다 망했다고 떠들던 때에 연포리에 대한 이극로선생의 이야기가 나에게 힘을 주었다.

황씨와 헤어진 아버지는 하루종일 산에서 헤매다가 연포리 주막집에서 그다 멀지 않은 가둑령이라는 곳에서 오막살이땅굴막을 하나 발견하고 주인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서로 통성을 하는 과정에 아버지는 주인이 전주 김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땅굴막주인은 가둑령과 같은 심심산골에서 동성동본의 혁명가를 만난 것은 경사라고 하면서 호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도와주었다.

김노인은 땅굴막근처에 있는 조낟가리속에 아버지를 숨겨주었다. 그때 발도 얼고 무릎도 얼고 아버지의 하반신이 다 얼었다. 사지를 가드라뜨린채 운신도 못하고 며칠동안 찬바람이 스며드는 낟가리속에 숨어있으면서 그만 난치의 병을 얻었다.

노인은 낟가리속에 밥덩어리도 넣어주고 구운 감자도 넣어주면서 아버지를 보호해주었다.



국내 무장소조원들에게 혁명임무를 주시는 김형직선생님

아버지를 놓쳐버린 아끼시마는 상급으로부터 호된 추궁을 받았다. 평안북도경찰부에서는 후창에서부터 죽전리에 이르는 압록강유역에 물샐틈없는 경계망을 펴고 며칠동안 수색을 계속했다. 그러면서도 가둑령의 조난가리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그때 정황판단도 잘하고 은신처도 잘 선택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는 사이에 김노인은 압록강변에 나가서 강물이 얼었는가 얼지 않았는가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아버지에게 장대기를 가지고 강을 건느는 방법까지 대주었다. 아직 얼음이 두텁게 얼지 않은 때여서 서뿔리 강을 건너갈 수 없었다.

아버지는 김노인이 시켜준대로 얼음우에 장대기를 놓고 두 손으로 그것을 밀면서 배밀이도 압록강을 무사히 건너갔다. 장대기만 들고 있으면 물에 빠져도 목숨을 잃을 염려가 없었다. 아주 기발한 도강방법이었으나 그 도강과정에 아버지는 재차 동상을 입었다. 그때의 그 동상이 1년 후 무송에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 또 하나의 화근으로 되었다.

천신만고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압록강을 무사히 건는 아버지는 며칠동안 토로즈마을에서 치료를 받다가 공영과 박진영의 안내로 무송으로 떠나갔다. 공영과 박진영은 장철호가 지휘하는 정의부소속의 무송주둔 독립군대원들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오동진의 소개로 공영이란 인물을 알게 된 사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하였다. 공영은 벽동군출신으로 벽동독립청년단시절과 벽파별영에서 무장대원으로 활동하던 시기부터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오던 진실한 청년이었다. 아버지하고는 아주 막역한 사이었다. 우리 집에 오면 늘상 ≪성주≫, ≪성주≫하면서 나를 사랑해주었다. 나도 후날 그가 공산주의자가 되어 우리의 동지로, 전우로 되기전까지는 그냥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공영은 말리허에 있으면서 한 주일에 한번 정도씩 쌀과 나무를 마련해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와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군 하였다. 그의 부인도 산나물을 한임씩 해이고 남편을 따라 우리 집에 오군 하였다. 공영은 우리 아버지를 잊지 못해 한동안 몽상을 벗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 두 사람과 함께 무송으로 들어가다가 만강경내에서 마적들에게 붙잡혀 도 봉변을 당하였다. 사방에 토비들이 우글거리던 때였다. 군벌들이 도처에서 칼을 빼들고 세력다툼을 하던 혼란되고 불안정한 당시의 환경이 토비들을 많이 만들어냈다. 살길이 막힌 최하층의 인간들 중에도 이 길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 게다가 일본제국주의자들도 반일세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비적단들에 침투하여 그 상층을 조종하거나 따로 토비들을 길러냈다. 토비들은 무리를 지어다니면서 주민지구의 가옥들을 털기도 하였고 행인들을 붙들어놓고 돈이나 물건 같은 것을 빼앗아내기도 하였다. 수가 틀리면 사람들의 귀를 베거나 목을 자르는 잔인한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 것만큼 아버지를 호위해가는 두 사람도 여간 긴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탈출하신 연포리 주막집

아버지가 의사라고 신분을 밝혔으나 무지막지한 마적들은 의사라면 돈이 많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놓아주려하지 않았다. 의사가 무슨 돈이 있겠는가, 병을 봐주고 겨우 밥벌이나 하는데 그러지 말고 당신들가운데 병난 사람이 있으면 고쳐줄 수 있다, 돌아가서 관헌들한테 당신들을 고발하지도 않을테니 놓아달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구슬려도 말을 듣지 않았다.

일이 이쯤 되자 공영은 저녁식사 후 그들이 약담배를 빨고 해이해진 틈을 타서 등잔불을 끄고 아버지와 박진영을 먼저 탈출시킨 다음 여라문 명 되는 마적들을 격술

로 모조리 쓰러뜨리고 토비굴을 뛰쳐나갔다. 참으로 일종의 활극을 방불케 하는 극적인 장면이였다.

이 탈출에서 공영이 발휘한 희생적인 노력을 두고 아버지는 인상깊은 회상을 자주 하였다. 공영은 동지를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헌신적인 투사였다.

며칠 후 아버지는 무송에서 장철호를 만났다. 몇 해전까지만 해도 측량을 하던 사람이 그때는 군인이 되여 독립군의 한 개 중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병색이 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몹시 상심해하며 몸이 추설 때까지 자기들이 주선해놓은 거처에서 쉬라고 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다들 그렇게 권하였다.

사실 그때의 아버지로서는 몸조리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육신을 지탱할 수 없는 형편이였다. 아버지자신도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때가 겨울치고도 제일 추운 때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병든 몸에 찜질 한번 해볼 경황도 없이 인차 북행길에 올랐다.

장철호중대장이 직접 아버지를 목적지까지 안내하였다.

그때 다녀온 곳이 바로 화전과 길림이다. 아버지가 몸에 생긴 동상을 무릅쓰고 그토록 총총히 이 지방들에 간 것은 독립운동단체들의 단일전선에로의 통합과 반일애국세력의 단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당시는 독립운동자들속에서도 당을 내오는 문제가 일정에 오르고 있었다.

사상이 발전하고 혁명의 이념화가 심화됨에 따라 정당정치는 시대적 추세로 되어 세계의 정치계에 급속히 일반화되어갔다. 부르조아정객들도 공산주의자들도 다같이 정당정치를 지향하였다. 10월혁명을 분기점으로 하여 아세아 여러 나라들에서도 공산당들이 연이어 창건되였다. 새 사조의 보급과 함께 동방도 정당정치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었다. 1921년에는 우리의 인방인 중국에서도 공산당이 창건되었다.

이런 배경속에서 조선의 선각자들도 민족해방투쟁을 정치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을 힘있게 다그치였다.

정당정치는 그 지침으로 되고 기초로 될 수 있는 사상과 이념의 창시와 그 발전을 전제로 하며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부르조아민족주의는 우리 나라 근대역사에서 하나의 사조로 등장하여 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해왔으나 자기의 정당을 가지지 못한 채 조락되고 있었다. 민족해방투쟁무대에서는 부르조아민족주의를 대신하여 새로운 공산주의사조가 대두하였다. 부르조아민족주의가 더는 민족해방투쟁의 기치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한 새 세대의 선각자들속에서 공산주의신봉자대열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민족주의진영에서도 많은 선진분자들이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을 바꾸었다.

관전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전환의 방침은 선언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운동내부에서 선각자들에 의해 실천단계에 들어서고 있었다. 관전회의방침을 맨처음으로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사람은 오동진이었다. 오동진이 지휘하는 독립군부대에서는 관전회의가 있은 후부터 맑스-레닌주의사조에 공감해나선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일제는 이 시기에 대두한 새 세력을 ≪제3세력≫이라는 이름으로 규정지었다.

일경의 포박에서 탈출한 아버지가 무송을 거쳐 길림에 간 1920년대중기는 민족운동내부에서 방향전환을 지향하는 혁신파와 그것을 반대하는 보수파의 분해과정이 촉진되던 때였다.

아버지는 이런 대세를 통찰한데 기초하여 방향전환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정치조직의 탄생기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만주지방에서의 조선사람들의 민족운동은 그때까지 국권회복의 이념밑에 주로

직접적인 무장활동과 교육, 민생 문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치활동의 형태를 띠고 전개되어왔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 운동을 정치적으로 영도할 수 있는 조직이 없었다. 이런 실정으로부터 아버지는 길림일대에서 활동하던 혁신계열의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만주지방에 산재하는 모든 군사단체들과 자치조직들에 대한 정치적 영도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에 착수하였다.

그 첫 사업이 바로 아버지의 제의로 길림의 우마항에서 소집된 모임이었다. 모임은 1925년초 길림시 북산밑에 있는 박기백(박일파의 아버지)의 집에서 열리었다. 이 회합에는 양기탁, 현하죽, 오동진, 장철호, 김사헌, 고원암, 곽종대 등 독립운동의 원로들과 중견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독립군 중대장
장철호

그들이 독립운동을 통일적으로 영솔할 수 있는 정치단체의 필요성을 한결같이 인정하고 가까운 장래에 모종의 유일당을 내올데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모임에서는 창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칙적 문제들도 협의하였다.

이관린의 회상에 의하면 회의과정에 제일 많이 논의된 것은 당의 명칭에 대한 문제였다고 한다. 당명을 조선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는가, 고려혁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문제였는데 결국 명칭도 중요하지만 활동목적에 부합되게 당의 임무와 강령을 정확히 설정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데로부터 명칭은 고려혁명당으로 낙착짓고 강령토의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우마항회의에 참가했던 독립운동지도자들은 1년후 국내에서 온 천도교혁신파대표와 형평사대표, 연해주에서 온 대표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열고 ≪현금의 사유재산제도를 소멸하고 현존한 국가조직을 철폐하여 공산제도에 의한 세계 단일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고려혁명당을 결성하였다. 병중에 있은 아버지는 그때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북산과 강남 공원을 참관하고 신안툰의 청년단체간부들까지 만나본 다음 무송에 돌아와 우리에게 전화로 임강을 떠나도록 분부하였다.

임강을 떠나 얼마간 갔을 때 우리는 장철호중대장이 보낸 두 명의 베감투를 쓴 독립군대원을 만났다. 그들이 베감투를 쓰고 온 것은 특무들의 의심을 덜 받기 위한 위장이였다.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온 말파리를 타고 무송으로 향하였다.

아버지는 무송시가에서 40리가량 떨어진 대영에까지 나와 우리를 마중해주었다. 얼굴에 비록 병색은 짙었으나 환히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만가지 시름이 다 풀리는 것 같았다. 나는 동생들의 손을 이끌고 앞으로 달음박질해갔다.

동생들은 내가 미처 인사를 드리기도 전에 아버지한테 매여달려 두 달 동안이나 품어두고 있었던 말들을 한꺼번에 쏟아놓았다.

아버지는 그들의 응석을 일일이 다 받아주면서도 내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조국의 물이 좋기는 좋구나! 내가 너를 조선에 내보내고 잠을 못잤는데 네가 어느새 이렇게 숙성했구나!≫하며 아버지는 기뻐하였다.

그날밤 우리는 가족끼리 모여앉아 밤을 밝히며 회포를 풀었다. 내가 아버지의 탈출을 도와준 황씨와 전주 김씨노인, 만강토비굴에서의 공영의 용감한 미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바로 그날밤이였다.

나는 조국에서 보고 느낀 것을 이야기하다가 아버지에게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압록강을 건느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씀드리였다. 아버지는 대견스럽게 나를 살펴보더니 조선의 아들이라면 응당 그래야 한다고 긍정해주면서 조선을 알기 위한 공부가 창덕학교에서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되니 새 고장에 와서도 조

국을 알고 민족을 알기 위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고 의미심장하게 당부하였다.

며칠후 나는 무송제1소학교에 편입하였다. 이 학교에서 나와 제일 친한 학생은 장울화라는 중국소년이였다. 그는 무송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손꼽히는 부자집 아들이였다. 장울화네집에는 가병만 해도 수십 명이나 있었다. 무송현 동강에 있는 인삼포는 거의나 장울화네것이였다. 장울화네는 해마다 가을이면 인삼을 캐여 말이나 노새에 싣고 다른 지방에 가져다 팔았다. 그 집에서 인삼을 팔러 갈 때에는 가병들이 10리씩이나 늘어서군 하였다. 장울화의 아버지는 이름있는 부자였지만 제국주의를 미워하고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양심적인 인간이였다. 장울화 역시 그랬다.

나는 후날 혁명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덕으로 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모면하였다.

조선학생들 중에서는 고재봉, 고재룡, 고재림, 고재수 등이 나와 가깝게 지냈다.

아버지가 무송을 중심으로 혁명활동을 벌려나가던 당시는 중국반동군벌들이 친일적인 경향으로 기울어지고 조선애국자들의 활동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세가 매우 불리하였다. 그런데다가 평양과 포평에서 받은 두 차례의 심한 고문과 동상의 후과로 하여 아버지의 건강도 좋지 못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혁명투쟁을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소남문거리의 우리 집에는 ≪무림의원≫이라는 새 간판이 나붙었다. 사실 아버지는 남을 치료할 형편이 못되였다. 오히려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인차 또 길을 떠났다.

그때는 다들 못떠난다고 말리였다. 장철호, 공영, 박진영을 비롯하여 무송에서 왔다갔다하는 독립운동자들은 누구나 다 만류하였다. 나나 형권삼촌도 말리고 아버지가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지지하고 말없이 받쳐드리던 어머니도 이번만은 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만류하였다.

아버지는 결심을 굽히지 않고 기어이 무송을 떠났다.

내도산일대에서 활동하는 독립군상층이 행동통일을 보지못하고 몇 개의 패로 갈라져 서로 세력다툼을 하기 때문에 부대가 와해될 위험에 처해있다는 소식에 아버지는 몹시 불안해하였다.

장철호의 지령을 받은 사람이 안도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갔다. 그는 두 사람분의 길양식으로 좁쌀 대여섯 되박과 된장 한 단지를 배낭속에 넣은 다음 도끼와 권총 한 자루를 몸에 지니고 무송을 떠났다. 목적지까지는 수백 리나 되는 무인지경이였다. 그 무인지경을 가느라고 퍽그나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밤에는 한지에다 우등불을 피우고 덮개도 없이 통나무무지에 기대여앉아 쪽잠을 청하군 하였는데 아버지의 기침이 심하여 그 사람은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안도에 갔다와서도 그냥 심하게 기침을 하였다. 며칠 후부터는 그런 몸으로 백산학교의 인가를 얻느라고 또 여기저기로 뛰어다니였다.

백산학교는 국내에서 사립학교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그에 보조를 맞추어 무송지방에 이주한 조선의 망명자들과 선각자들이 농민들과 함께 설립한 역사가 오랜 사립학교였다.

초기의 백산학교 규모는 아버지가 다닌 만경대의 순화서당만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지금의 농촌집 방 두 개를 합친 것만 하였다.

그런데 그처럼 작은 규모의 백산학교도 운영비의 부족으로 오래동안 문을 닫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가 무송에 이사하였을 때에는 백산학교를 복구하기 위한 운동이 본격적으로 벌어지던 시기였다. 일제의 부추김을 받고있던 군벌당국이 학교의 인가를 해주지 않아서 아버지는 여간 애를 태우지 않았다.

아버지는 어디 가서나 교육운동에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고 도처에 학교들을 설립하였다.

아버지는 개교식전야에 장철호와 함께 목공창에서 만든 책걸상들을 마차에 싣고 백산학교로 갔다. 비록 ≪무림의원≫간판을 달고 의원일은 중단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늘 학교에 가있었다.

아버지는 백산학교 명예교장으로서 직접 교편을 잡지 않았으나 교육내용과 후원사업을 보아주면서 학교에 나가 연설도 하고 과외활동지도도 많이 하였다.



김형직선생님이 무송에서 돌아가신 방

백산학교에서 사용한 ≪국어독본≫은 우리 아버지가 손수 쓴 것이다. 아버지는 백산학교를 세운 다음 유하현 삼원포에 갔다와서 박기백(박범조)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 교과서를 만들었다. 아버지가 교재를 집필하면 뜻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삼원포에 가지고 가서 인쇄해다가 만주각지에 배포하였다. 거기에 교과서를 찍어내는 정의부관할하의 인쇄소가 하나 있었다. 석판으로 인쇄물들을 뽑아냈는데 책들이 훌륭하였다. 만주에 있는 조선인학교들에서는 여기서 찍어낸 교과서들을 가지고 공부하였다.

아버지는 무송에서 교육문제를 의논하는 회의만 해도 여러 차례 열고 안도, 화전, 돈화, 장백 등지에 유능한 사람들을 파견하여 조선사람들이 살고 있은 모든 곳에 학교와 야학을 세우도록 하였다. 장백현 18도구 득영촌의 육영학교도 그 무렵에 세운 학교였다. 후날의 조선혁명군 대원이며 ≪ㅌ·ㄷ≫성원인 이제우와 항일투사 강돈은 다 그 학교 출신들이였다.

백산학교 일이 잘되어가자 아버지는 다시금 만주각지로 다니면서 독립운동자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이 시기의 활동에서 기본은 독립운동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방향전환의 노선을 실현할 수 있는 모종의 유일당창건문제가 일정에 오를 때였던 것만큼 그 초석으로 되는 독립운동대열의 단합을 이룩하는 문제는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초미의 시대적 과제로 나서고 있었다. 그것을 위해 아버지는 생애의 말년을 고스란히 바치었다.

그 당시 동북 3성에 할거하고 있던 여러 갈래의 군소독립운동단체들은 3부로 통합되어 만주에는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3부가 존재하는 새로운 시기가 도래하였다. 그런데 이 3부도 세력권확장을 위한 파쟁을 일삼아 민중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아버지는 통일단결이야말로 분초를 다투는 역사적 대과제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1925년 8월에 무송에서 국내외의 조선국민회대표들, 무장단체대표들과 함께 독립운동대열의 통일단결을 위한 대책을 토의하고 민족단체연합촉진회를 결성하였다.

그때 아버지의 구상은 이 촉진회를 움직여서 유일당창립을 앞당기려고 하였던 것 같다. 아버지는 분과 초를 다투어가면서 하루하루를 다른 때보다 몇 곱절 더 서둘러 일하였다. 그때 아버지자신은 벌써 앞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한 것 같았다.

아버지는 그 후 얼마 안되어 중환으로 몸져누웠다.

1926년 봄부터 아버지는 완전히 병석에 매인 몸이 되었다.

아버지가 병환에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토방우에 낯선 신발들이 대여섯 켤레 놓여있군 하였다. 다

들 몸에 좋다는 약들을 지어가지고 와서 문병을 하고 아버지를 위로하였다. 아무리 돈에 궁한 사람도 인삼 한 뿌리씩은 거의 가지고 왔다. 하지만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아버지의 병에는 약도 효험이 없었다. 봄은 지상만물에 기름진 생명의 즙을 주며 새 계절을 노래하고 있었건만 야속하게도 만사람이 그렇게도 바라고 기다리던 아버지의 건강만은 소생시키지 못하였다.

나도 학교에 다닐 마음의 경황이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학교로 가다가 아버지가 걱정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너 왜 학교에 가지 않느냐?≫하고 엄하게 물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한숨만 쉬었다.

아버지는 ≪가거라. 사내가 그래서는 큰일을 못해.…≫라고 하며 나를 기어이 학교로 보내였다.

하루는 길림에서 오동진이 장철호와 함께 아버지를 찾아왔다. 오동진은 무송회의방침에 따라 반일애국역량을 묶어세우느라고 여러 모로 애를 썼으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고심하던 중 의논도 할 겸 병문안도 할 겸 겸사겸사해서 찾아왔노라고 하면서 분열을 일삼는 사람들의 소행을 격분에 차서 타매하였다.

성미가 과격한 장철호는 그런 옹고집쟁이들하고는 차라리 결별을 하고 말아야 한다면서 분노를 다잡지 못하였다.

두 사람의 말을 주의깊게 듣고 있던 아버지는 그들의 손을 하나씩 갈라잡고 ≪아니요. 그래서는 안되오. 힘이 들더라도 통합은 꼭 실현해야 하오. 통합을 해가지고 무장으로 적과 맞서기 전에는 독립을 성취할 수가 없소.≫하고 말씀하였다.

그들이 돌아간 후 아버지는 이조시기부터 내려오는 당파싸움에 대해 말씀하면서 당쟁 때문에 나라가 망했는데 독립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파쟁을 일삼고 있으니 야단이라고 개탄하였다. 파쟁을 근절하기 전에는 나라의 독립도 이룩할 수 없고 문명개화도 이룩할 수 없다, 파쟁은 국력을 쇠진케 하는 근원이고 외세를 끌어들이는 매개자이다, 외세가 들어오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다, 너희들 대에는 반드시 파쟁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단결을 이룩해야 하고 민중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하였다.

내가 학교에서 돌아와 병구완을 할 때면 아버지는 나를 옆에 앉혀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주로는 아버지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얻은 체험들이었는데 교훈적인 이야기가 많았다.

아버지의 이야기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3대각오에 대한 말씀이다.

≪혁명가는 어디 가나 항상 3대각오를 가져야 한다. 아사, 타사, 동사, 다시 말하여 굶어죽을 각오, 맞아죽을 각오, 얼어죽을 각오를 가지고 처음 먹은 원대한 뜻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나는 아버지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들었다.

벗과 우정에 대한 아버지의 말씀도 교훈적인 것이었다.

≪사람은 어려울 때 사귄 벗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집에서는 부모에게 의지하고 대문을 나서서는 벗들에게 의지하라고들 하는데 다 뜻이 있는 말이다. 생사고락을 같이할 진정한 벗은 사실상 형제보다도 더 가깝다.≫ 그날 아버지는 벗과 우정에 대한 말씀을 장시간 하였다.

아버지는 동지를 얻는 일로부터 투쟁을 시작하였다, 돈이나 육혈포를 얻는 것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버지는 어데 가서나 좋은 동지들부터 물색하였다. 좋은 동지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다, 금이나 보석을 캐내듯이 힘을 들여 스스로 찾아내야 하며 키워내야 한


김형직선생님의
좌우명 ≪지원≫

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평생 조선과 만주벌판을 발이 부르트게 돌아다닌 것이다. 너희 어머니도 그래서 한뉘 손님시중을 드느라고 배를 곯으며 고생하였다.

나라와 민중을 위한 진심만 있으면 좋은 동지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문제는 뜻이고 마음이다. 돈은 없어도 뜻만 통하면 서로 동지가 될 수 있다. 백만금을 가지고서도 얻지 못하는 우정을 단 한 모금의 숭늉이나 한 알의 감자를 가지고 얻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아버지는 재산가도 아니고 세력가도 아니지만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아버지는 재산가운데서도 제일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아버지는 동지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들도 목숨을 걸고 아버지를 보호해주었다. 아버지가 지금까지 가지가지의 풍상고초를 이겨내며 광복운동에 헌신할 수 있은 것은 동지들이 아버지에게 사심없는 방조를 주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병중에 계시면서도 제일 그리워지는 것이 친구들이라고 하며 나에게 좋은 동지들을 많이 사귀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동지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동지를 얻을 수 있다.≫

그때 아버지가 해준 말씀은 지금도 나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있다.

어머니는 몇 달 동안 침식을 잊고 병마와의 어려운 싸움을 하는 아버지를 정성껏 간호해드리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따를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눈물겨운 지성이었다. 그러나 그 초인간적인 지성도 아버지를 구원하지 못하였다.

1926년 6월 5일, 아버지는 고향으로부터 수천 리 떨어진 이역의 자그마한 지붕밑에서 망국의 한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우리가 고향을 떠날 때는 독립을 이룩하고 함께 돌아가자고 하였는데 나는 못갈 것 같소. 나라가 독립되면 당신이 성주를 앞세우고 고향에 가오.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가자니 시름이 안놓이오. 성주를 부탁하오. 내가 성주를 중학까지 공부시키자고 했는데 글러진 것 같소.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을 먹더라도 중학까지는 공부시켜주오. 그 다음 그 아래 동생들은 성주가 할 탓이요.≫

그날 어머니에게 남긴 아버지의 유언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늘 차고 다니던 권총 두 자루를 어머니에게 주면서 이렇게 부탁하였다.

≪내가 죽은 다음 이 총이 나지면 재미가 없으니 땅속에 묻었다가 성주가 커서 투쟁의 길에 나설 때 주도록 하오.≫

그리고는 우리 삼형제를 향하여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다.

≪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간다. 그러나 너희들을 믿는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의 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뼈가 부서지고 몸이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

나는 소리를 내여 목놓아울었다. 아버지의 서거는 나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던 망국의 설음을 한꺼번에 폭발시키었다.

아버지는 한 생을 나라를 위해 살을 저미고 뼈를 깎다가 돌아갔다. 거듭되는 악형과 동상으로 몸에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도 굴함을 모르고 민중을 찾아가고 동지들을 찾아가던 아버지였다. 힘이 진하면 지팡이를 짚고 배가 고프면 생눈을 움켜삼키면서도 뒤를 돌아보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곧장 앞으로만 걸어가던 아버지였다.

우리 아버지는 한평생 어느 당파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추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나라의 광복과 근로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서슴없이 바치였다. 아버지에게는 물욕도 없었고 사리사욕도 없었다. 돈이 생기면 자식들에게 사탕을 사먹이고 싶어도 꾹 참고 한푼두푼 모아서 풍금을 사다가 학교에 기부하였다. 자기를 생각하기에 앞서 겨레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기에 앞서 조국을 먼저 생각하며 찬바람을 맞받아 일생을 쉬임없이 걸어간 아버지였다. 인간으로서도 청렴하게 살았고 혁명가로서도 결백하게 살았다.

나는 아버지가 가정살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한번도 듣지 못하였다. 내가 사상이나 정신면에서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것이 많지만 재물이나 금전상으로 상속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 우리 고향집에 전시해놓은 농쟁기나 가정도구들도 모두 할아버지가 남긴 것이지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아니다.

≪지원≫의 사상, 3대각오, 동지획득에 대한 사상, 두 자루의 권총, 이것이 내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의 전부였다. 그것은 모진 고생과 희생을 전제로 하는 유산이었다.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보다 더 훌륭한 유산이 없었다.

아버지의 장례는 사회장으로 거행되었다. 장례날에는 소남문거리가 미여지게 조객들이 모여들었다. 남북만각지와 간도에서 그리고 국내에서 평소에 아버지를 따르고 흠모하던 수많은 동지들과 친구들, 제자들, 어제날의 환자들이 꼬리를 물고 무송으로 밀려들었다. 무송현장도 금박향지묶음을 가지고 찾아와 아버지의 영전에 향을 피우고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였다.

아버지의 묘소는 소남문거리에서 10리가량 떨어진 두도송화강기슭의 양지촌에 쓰게 되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 마을로 자주 다니였다. 그 동네사람들에게 이야기도 해주고 병도 봐주면서 한집안식구처럼 허물없이 지내었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평소에 그처럼 살틀하게 지내던 사람들속에 계시고싶었을 것이다.

그날은 소남문거리로부터 양지촌에 이르는 10리길이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 독립운동자들은 상여를 메고 가면서도 목놓아울었다.

무송지방의 조선여성들은 아버지의 장례식날부터 보름동안 머리에서 흰댕기를 풀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아버지를 잃었다. 한순간에 아버지를 잃고 스승을 잃고 지도자를 잃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준 혈육인 동시에 어린 나이 때부터 나를 혁명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해준 스승이였고 지도자였다. 아버지의 희생은 나에게 있어서 커다란 타격으로 되었다. 내 가슴은 메꿀 수 없는 상실로 하여 텅 비여버리였다.

어떤 때는 홀로 강가에 나가앉아 멀리 조국의 하늘을 그려보며 눈물을 짓기도 하였다.

생각하면 나에 대한 아버지의 정은 남다른 것이었다. 내가 좀 자라서부터는 늘 진지하게 나라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터놓고 말씀하군 하던 아버지였다. 무한히 엄하면서도 끝없이 웅심깊은 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제는 그런 사랑, 그런 이끄심을 더는 받을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나를 비탄의 눈물속에서 일으켜세워준 것은 아버지의 남다른 그 유산이었다. ≪지원≫, 3대각오, 동지획득, 두 자루의 권총…

당장은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막막하고 암담한 슬픔속에서도 나는 그 유산에서 힘을 얻고 내가 갈 길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김일성주석님께 물려주신 권총

제2장



잊을 수 없는 화전

화성의숙
환멸
타도제국주의 동맹
새로운 활무대를 그리며
독립군의 여걸 이관린

■ 시기 : 1926. 7 ~ 1926. 12

1. 화성의숙

장례식이 끝난 다음 아버지의 친구들은 무송에 며칠간 머무르면서 나의 장래문제를 의논하였다.

그들의 보증과 소개를 받아가지고 내가 화성의숙으로 떠난 것은 1926년 6월중순이었다.

그때로 말하면 우리 나라에서 6.10만세시위투쟁이 일어난 직후였다.



6.10만세시위투쟁은 3.1인민봉기 후 민족해방투쟁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조직된 대중적인 반일시위투쟁이었다.

우리 나라 민족해방투쟁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하는데서 3.1인민봉기가 분기점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세상에 잘 알려진 사실이다. 3.1인민봉기를 통하여 부르조아민족주의가 더는 민족해방투쟁의 기치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선각자들속에서 새 사조를 따르는 기운이 급속히 자라났으며 그들의 활동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었다.

3.1인민봉기가 있은 이듬해에 서울에서는 노동공제회라는 노동단체가 출현하였으며 연이어 농민단체, 청년단체, 부녀단체와 같은 대중조직들이 속출되었다.



岩泰事件으로

小作幹部의質問

암태도 소작쟁의

이런 조직들의 지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1920년대 초부터 무산대중의 권익을 옹호하며 일제의 식민지정책을 반대하는 대중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1921년에 부산부두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일으켰다. 그 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서울, 평양, 인천과 같은 산업중심지들을 비롯하여 많은 지방들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노동운동의 영향밑에 일본인대지주들과 악질적인 조선인지주들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소작쟁의가 재령나무리벌과 암태도를 휩쓸었으며 식민지노예교육을 반대하고 학원의 자유를 요구하는 청년학생들의 동맹휴학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무단통치≫의 총검우에 ≪문화통치≫의 비단보자기를 씌워놓고 ≪중추원≫에 친일파들을 몇 명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조선사

람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는척하면서 ≪민의 창달≫의 허울밑에 조선글로 된 신문, 잡지를 몇 종 발간하도록 허가해주고는 마치 그 무슨 복지시대라도 온 것처럼 요란스럽게 떠들었지만 우리 민족은 그런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고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였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의 발전추세는 이를 통일적으로 영솔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지도세력을 요구하였으며 이런 역사적 요구를 반영하여 1925년 4월 서울에서는 조선공산당이 창건되었다. 이 무렵으로 말하면 구라파 여러 나라들에서도 노동계급의 정당들이 많이 출현하던 때였다.

조선공산당은 창건 후 현실에 부합되는 지도사상이 없고 대열이 통일되지 못하고 대중속에 튼튼히 뿌리박지 못한 근본적인 제한성으로 하여 노동계급의 전위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으나 그 창건은 신구사조의 교체와 민족해방투쟁의 질적 변화를 보여주는 의의있는 사변으로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청년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의 발전을 추동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전국적 범위에서 새로운 반일시위를 준비하게 되었다.

이런 때에 이조의 마지막왕이였던 순종이 사망하였다. 순종의 사망은 조선민족의 반일감정을 크게 건드려놓았다. 왕의 부고에 접한 조선사람들은 상복을 차려입고 남녀노소 할 것없이 대성통곡하였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순종이 마지막왕으로서 리왕조를 상징하고 있었는데 그마저 없어지니 쌓이고쌓였던 망국의 설음이 다시금 울음으로 폭발한 것이다. 군악을 울리며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군중은 더욱 슬피울었다.





순종장례식(위)과
6.10만세운동
(아래)

잘 있거라 창덕궁아
영원히 무궁히
나는 간다 북망산천
쓸쓸한 곳으로
인제 가면 언제나
또다시 오려나
2천만의 백의동포
무궁하여라

그 통곡소리가 일본강점자들에게는 폭탄과 같은 자극을 주었다.

조선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우는 곳이 있으면 즉시에 일본기마경찰대가 출동하여 총칼과 곤봉을 휘둘러 야수적으로 해산시키었다. 소학교아이들까지도 가차없는 곤봉세례를 받았다. 나라가 망해도 슬퍼하지 말고 왕이 죽어도 울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단통치≫로부터 ≪문화통치≫로 탈바꿈을 한 총독정치의 진면모였다.

적들의 포악무도한 탄압만행은 불길처럼 타번지는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에 기름을 쏟아붓는 격이 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반일기세에 편승하여 순종의 장례식날을 계기로 전국적 범위에서 반일시위투쟁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그 준비를 비밀리에 추진시키였다.

그런데 그 비밀이 시위투쟁준비위원회에 끼여있던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일제에서 알려졌다. 반일시위준비는 무자비한 탄압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나 애국적 인민들은 시위투쟁준비를 멈추지 않았다.

6월 10일 순종의 상여가 종로를 지나갈 때 수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조선독립만세!≫, ≪일본군대 물러가라!≫, ≪조선독립 운동자들은 단결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대중적인 시위를 벌이었다. ≪문화통치≫7년간 쌓이고쌓인 원한과 울분이 마침내 ≪독립만세!≫의 함성으로 폭발한 것이다.

열두어살 안팎의 보통학교 학생들까지 대열을 짓고 시위에 나섰다. 시위군중은 무장한 적의 군경들과 치열한 격투를 벌이면서 용감하게 싸웠다.

6.10만세시위투쟁은 종파분자들의 책동으로 하여 일제의 야수적 탄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의 사대사상이 3.1인민봉기를 실패하게 한 근본원인의 하나라면 초기공산주의자들의 종파행위는 6.10만세시위투쟁을 말아먹은 기본화근이었다. 화요파는 이 투쟁을 지도하면서 저들의 종파적 견지에서 조직사업을 하였고 서울파는 이에 대립하여 방해공작을 하였다.

6.10만세시위투쟁을 발단으로 조선공산당 지도부의 주요인물들은 대부분 검거되었다.

6.10만세사건을 계기로 ≪문화통치≫의 기만성과 교활성은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이 운동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반드시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존엄을 고수하려는 불굴의 의지와 투쟁기세를 과시하였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이 파벌관념을 버리고 통일적으로 이 투쟁을 조직하고 지휘하였더라면 6.10만세운동은 거족적인 투쟁으로 확대발전되었을 것이며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보다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다.


己未運動以後第二次「萬歲」事件

爆發當時의 先鋒
學生十一名公判

裁判廷은 宛然히 討論場

「朝鮮말로 對答하겟소」

「唯一의 生路」
朝鮮〇〇뿐

裁判長失色

乞食途中에
愛女를 투投

6.10만세운동을 보도한 당시의 신문

6.10만세운동은 종파를 극복함이 없이는 공산주의운동의 발전도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승리도 이룩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남기였다.

나는 그때 6.10만세운동의 결과를 놓고 제나름대로 분석해보았다. 내가 이상스럽게 생각한 것은 이 투쟁의 조직자들이 왜 3.1운동당시의 평화적 방법을 그대로 되풀이하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천일양병 일일용병이라는 말도 있지만 인민대중을 한번 싸움마당에 내세우자면 그들을 충분히 교양하고 조직화하며

훈련을 잘 주어야 한다.

그런데 6.10만세운동을 조직하고 지도한 사람들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도 없이 총을 든 군경들앞에 적수공권을 군중을 수만 명이나 내세웠으니 그 결과가 비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어설 때마다 무리죽음을 내고 좌절당하군 하는 반일운동을 생각하면 분해서 잠도 오지 않았다. 그 실패는 내 피를 끓게 하고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찾아야 하겠다는 나의 의기를 더욱 굳게 해주었다.

나는 이런 사상적 충동을 안고 아버지의 유훈, 어머니의 념원, 민중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화성의숙시절을 값있게 보내리라고 결심하였다.

화성의숙은 독립군의 간부들을 키워낼 목적으로 1925년초에 세운 정의부소속의 2년제 군사정치학교였다.

민족재생의 출로를 실력배양에서 찾은 독립운동자들과 애국적인 계몽활동가들은 일반학교의 설립과 함께 군사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무관학교의 설립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었다. 그들의 노력에 의하여 만주각지에는 신흥강습소(유하현), 십리평사관학교(왕청현), 소사하훈련소(안도현), 화성의숙(화전현)을 비롯한 여러 개의 무관학교들이 일어섰다.

이 무관학교설립운동에서는 양기탁, 이시영, 오동진, 이범석, 김규식, 김좌진과 같은 독립운동의 거두들이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화성의숙의 입학대상은 정의부산하 중대들에서 선발된 현역군인들이었다. 우에서 입학생수를 쪼개여 내려보내면 중대별로 우수한 청년들을 뽑아보냈는데 2년동안의 학습과정을 마치면 성적에 따라 새 직급을 주어 출신중대에 되돌려보내였다. 독립군밖에서도 개별적 인사들의 소개로 입학하는 청년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다. 그래서 뜻을 가진 한창나이의 젊은이들은 은근히 이 학교에 가고 싶어하였다.

지금 화성의숙시절의 나의 동창생들가운데 그 시절을 회고할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

아버지가 생존해계실 때만 해도 나는 나의 전도문제와 가정살림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나의 장래문제를 비롯하여 가정을 운영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에 나도 자연히 관심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아버지의 서거에서 오는 슬픔과 고뇌때문에 망연자실의 상태에 처해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 아버지의 뜻을 이어 한 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겠다는 일념과 사정이 허락되면 어머니의 부담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상급학교에 진학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자기의 전도문제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였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면서 나를 중학까지 보내주라고 유언하였지만 우리 집 형편을 보면 내가 상급학교에 가고싶어도 가겠다고 말할 형편이 못되었다. 내가 학교에 가면 학비조달의 무거운 부담을 어머니 혼자서 짊어져야





화성의숙기숙사

하는데 어머니의 삯빨래와 삯바느질에서 얻어지는 보잘것없는 수입으로는 빈한한 가계를 유지하고 나의 학업을 위해 달마다 학비를 대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돌아가니 그 조수역을 하던 형권삼촌도 일조에 직업을 잃었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약방에는 약이 얼마 없었다.

이런 때에 아버지의 친구들이 나를 화성의숙에 가라고 권고하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어머니에게 남긴 유언가운데 나의 진학문제도 포함되어있었다. 내가 상급학교로 갈 때에는 아버지의 친구들에게 서신을 내여 그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 어머니와 삼촌에게 주고 간 아버지의 마지막부탁이였다.


딩시 숙감 강제하

어머니는 그 부탁대로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인정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각박한 세월이였으니 어머니로서는 미안한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되어 나의 전도문제는 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후 무송에 남아있던 독립운동자들속에서 자연히 한 개의 의제로 상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동진은 의산 최동오선생한테 소개신도 보냈으니 화성의숙에 가라, 화성의숙에 가서 군사를 배우는 것이 네 포부에도 맞을 것이다, 입씨름으로는 독립을 못한다는거야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냐, 학교를 졸업하면 그 후의 전도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돌봐줄테니 의숙에 가서 마음껏 공부하라고 하였다.

아버지의 친우들은 장차 나를 자기들의 대를 이을 후비인재로 키우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독립군지도자들이 후비육성문제에 관심을 돌리고 인재양성을 중시한 것은 좋은 일이었다.

나는 오동진의 제의에 쾌히 동의하였다. 나의 전도를 그렇게도 살뜰히 걱정해주는 독립운동자들의 진정이 참말로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무관학교에 보내어 독립운동인재로 키우려는 그들의 의도는 일생을 조국해방위업에 바치려는 나의 지향에도 부합되는 것이였다. 군사적 대결에 의해서만 일제를 타승할 수 있고 군사를 알아야 독립운동의 전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그 당시의 나의 견해였다. 이제는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나는 화성의숙을 반일독립투쟁의 활무대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화전으로 떠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외국의 어떤 정객이 나보고 주석님은 공산주의자인데 어떻게 되어 민족주의자들이 운영하는 군사학교에 가게 되었는가고 물은 적이 있었다. 있을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화성의숙에 입학한 것은 아직 공산주의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였다. 나의 세계관은 맑스-레닌주의를 자기의 이념으로 완전히 삼을 만큼 원숙한 단계에 있지 않았다. 그때까지 내가 공산주의를 지식으로 섭취한 것이 있었다면 무송에서 ≪사회주의대의≫와 ≪레닌의 일생기≫라는 소책자를 읽은 것뿐이고 사회주의이념이 실현된 신생쏘련의 발전모습을 풍문으로 들으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끝없이 동경하였을 뿐이다.

내 주변에는 공산주의자들보다 민족주의자들이 더 많았으니 고장을 옮길 때마다 내가 다니던 여러 학교의 선생들은 공산주의사상보다 민족주의사상을 더 많이 고취하였다. 우리는 새 사조에 의해 교체될 운명을 지니고 있었으나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반세기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은 민족주의의 포위속에 있었다.

의숙에 끌끌한 청년들이 많고 정치교육과 함께 군사교육을 하며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공부시켜준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화전으로 갈 결심을 내리게 하였다. 학



휘발하기슭과
화전시가전경

비를 댈 힘이 없으면서도 상급학교에 갈 희망과 아버지의 뜻을 이어 조국광복의 길에 나서려는 포부를 동시에 품고 있은 나로서는 그보다 더 이상적인 교육 환경과 조건을 생각할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는 화성의숙의 교육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 2년동안 의숙의 교육을 받느라면 중학과정안은 물론, 군사를 하나 더 배우게 되리라는 흐뭇한 생각도 들었다.

정작 집을 나서고보니 걸음을 옮기면서도 자주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아버지의 유해가 묻혀있는 양지촌을 돌아보고 멀리서 나를 바래주는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아보니 마음이 산란하여 가볍게 발을 옮길 수가 없었다.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고생할 어머니가 걱정스러웠다. 무송과 같은 백사지에서 어머니 혼자 가정을 유지해나간다는 것이 그때 형편에서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길을 떠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한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무송에서 화전까지는 육로로 300리가량 되었다.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은 풍을 친 한림차라는 것을 타고 쉽게 다니는 길이었지만 노자가 변변치 못한 나는 그런 호강을 할 처지가 못되었다.

화전은 송화강과 휘발하의 합수목으로부터 오륙십리 떨어진 곳에 자리잡고 있은 길림성관할의 산간도시로서 남만치고도 손꼽히는 독립운동중심지의 하나였다.

내가 길을 떠날 때 무송의 어떤 독립운동자는 나에게 화성의숙의 살림살이가 몹시 가난하니 고생스러울 것이라고 걱정해주었다. 독립군의 재정형편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화성의숙의 숙식조건이 변변치 못하겠지만 그런 곤란 같은 것은 문제로 도 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무명옷을 입고 타개죽을 먹으며 자라난 나에게는 화성의숙이 아무리 가난하면 우리 만경대집보다야 더 가난하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시우

내가 약간이나마 불안스럽게 생각한 것은 나이도 어리고 군인경력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를 화성의숙이 어떻게 맞아주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화전에 김시우가 있고 화성의숙에 강제하와 같은 아버지의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의지로 되었다.

나는 화전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일러준대로 김시우의 집부터 찾았다. 그는 정의부소속의 화전총관소 총관이었다. 총관소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고 있은 조선사람들의 생활상 편의를 봐주는 자치적인 기구였다. 이런 총관소들이 무송에도 있고 반

석에도 있고 관전, 왕청문, 삼원포 같은 고장에도 있었다.

김시우는 자성군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와 연계를 맺고있던 독립운동자였다. 3.1인민봉기 후 중국에 들어가 임강과 단동일대에서 활동하던 그는 1924년에 화전으로 자리를 옮기였다.

그는 화전시내에 정미소를 하나 꾸려놓고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면서 대중계몽에 힘썼다.

그가 세워놓은 것이 남대가에 있는 영풍정미소였다. 김시우는 총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그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돈을 뽑아 독립군에 식량도 대여주고 화성의숙과 그 부근에 있는 조선인모범소학교에 재정적인 후원도 하였다.



당시 숙장 최동오

나는 임강에 있을 때부터 김총관의 북방사람다운 호방한 기질과 강직한 성미에 매혹되어 그를 무척 따르고 존경해왔었다. 김총관도 나를 친아들이나 조카처럼 극진히 사랑해주었다.

뜨락에서 닭장을 손질하던 김시우내외는 내가 나타나자 환성을 지르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그 집 뜨락에는 발에 걸채일정도로 닭들이 많았다.

나는 김시우의 안내로 화성의숙을 찾아갔다.

김시우는 정미업자특유의 쌀겨냄새가 풍기는 옷을 걸치고 나를 화성의숙으로 안내하였다.

화성의숙은 휘발하기슭에 자리잡고 있었다. 만주의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물매가 급한 초가지붕과 청벽돌로 쌓은 거무스레한 벽체가 소나무숲사이로 바라보이었다. 교사뒤에는 운동장을 사이에 두고 화성의숙의 기숙사가 자리잡고 있었다.

교사도 기숙사도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초라했다. 하지만 건물이야 초라한들 뭐라는가, 집이 너절해도 좋은 것을 많이 배울 수만 있다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서운한 감을 눌러버리었다.

그래도 운동장만은 크고 번듯하였다.

나는 걸음을 옮기면서도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화성의숙의 전모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우리가 팔도구에서 살 때 오동진이 추운 겨울날 털모자도 쓰지 않고 우리 집에 찾아와 아버지와 함께 화성의숙의 설립문제를 두고 의논하던 일이 생각났다.

이 의숙에 입학생으로 찾아와 교사를 살펴보는 내 마음속에는 뜨거운 감회가 끓어올랐다.

키가 자그마하고 이마가 훌렁 벗어진 중년의 인상좋은 숙장이 자기 방에서 나를 맞아주었다. 그가 의산 최동오선생이였다.

의산선생은 33인으로 불리우는 3.1인민봉기 주도자의 한 사람인 천도교 3세교주 손병희의 제자였다. 손병희가 설립한 강습소를 나온 후 고향 의주에 내려와 서당을 세우고 천도교인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것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한 사람이었다. 3.1운동에도 참가하였고 그 후에는 중국에 망명하여 천도교 종리원을 세우고 망명동포들속에서 애국적인 포교활동을 벌이었다.

숙장은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에 가보지 못한 것이 일생의 한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못내 가슴아파하였다. 숙장은 총관과 한참동안 우리 아버지에 대한 회고담을 벌려놓았다.

그날 최동오선생이 나에게 한 훈계가 아주 인상적인 것이었다.

≪성주는 아주 맞춤한 때에 우리 의숙에 왔소. 독립운동은 수재들을 요구하는 새

로운 시기를 맞이했거든, 홍범도나 유인석식의 주먹구구시대는 이미 지나갔단 말이요. 왜놈의 신식전법이나 신식무장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식전법과 신식무장이 필요한데 이것을 누가 해결하겠는가? 바로 성주네와 같은 새 세대가 맡아 해결해야 한단 말이요.…≫

숙장선생은 그밖에도 교훈으로 삼을만한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그는 숙식조건이 불편하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면서 이런 곤란, 저런 곤란이 있더라도 조선독립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참고 견디라고 격려해주었다. 첫 인상에도 성미가 온화하고 놀라우리만큼 언변이 유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김시우네 집에서는 나를 위해 저녁을 차리었다. 주인내외의 정성이 엿보이는 소박한 식탁앞에 아버지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과 마주앉으니 감개가 무량하였다.

두리반상 한쪽구석에는 곡주도 한 병 놓여있었다. 김시우가 반주를 하려고 내놓은 줄로만 알았는데 총관은 뜻밖에도 잔에 술을 부어 나에게 권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도 송구스러워 두 손을 바삐 내저었다. 난생처음으로 받게 되는 어른대접이어서 여간만 당황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장례 때 내가 너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장철호가 술을 권한 일이 한번 있지만 그것은 상제로서 받는 대접이었지 그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김시우는 나를 완전히 어른처럼 대하는 것이었다. 그는 말투도 이전 날의 ≪해라≫로부터 ≪하게≫조로 바꾸었다.

≪자네가 온다니 자네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지더군. 그래서 내 술을 한병 갖추어 놓으라고 했네. 자네 아버지가 화전에 오시면 늘 이 상에서 내가 권하는 잔을 받군 했네. 오늘은 자네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잔을 받으라구. 자네야 이제부터는 가장이 아닌가.≫

총관이 이렇게 말하며 허물없이 잔을 권했지만 나는 가볍게 그 잔을 들 수가 없었다. 줌안에도 차지 않은 조그마한 잔이었으나 거기에는 참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있었다.

김시우가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는 그 자리에서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른처럼 처신을 해야 하리라는 엄숙한 사명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자기가 침실 겸 서재로 이용하는 방을 내주었다. 숙장선생과도 토론이 되었으니 기숙사에 들어가있을 생각은 아예 말고 자기 집에 눌러있으라고 오금을 박았다.

김형직선생이 임종을 앞두고 편지로 성주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신 것만큼 자기는 그 부탁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무송에서나 화전에서나 아버지의 친구들은 이처럼 나를 위해 성의를 아끼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와의 의리를 지키느라고 그렇게 해주었을 것이다. 나는 그때 그 성의나 의리를 두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의리의 밑바탕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한몫할 것을 바라는 아버지세대 사람들의 절절한 기대가 깔려있었다. 그 기대는 나로 하여금 조선의 아들로서, 새 세대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였다. 나는 장차 아버지의 유훈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학습과 훈련을 잘하여 민중의 기대에 보답할 것을 굳게 결심하였다.

나는 다음날부터 화성의숙에서 생소한 군관학교생활을 시작하였다. 최동오선생이 나를 교실로 데리고들어갔다. 학생들은 나를 보자 어린 독립군이 왔다고 하면서 신기해하였다. 어느 중대에서 심부름이나 하다가 굴러온 애숭이군대라고 짐작하는 것 같았다.

40명 남짓한 학생들가운데 나만큼 어린 학생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

20살안팎의 청년들로서 그 중에는 수염이 검숭검숭하게 난 아이아버지도 있었다. 모두 내 형이나 삼촌벌쯤 되는 학생들이었다.

숙장이 나를 소개하자 학생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나는 선생이 정해주는대로 창문쪽 맨 앞줄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내 옆자리에는 1중대출신인 박차석이라고 하는 학생이 앉아 있었다. 그는 수업이 시작될 때마다 교실에 들어오는 선생들의 경력과 개성 중에서 특이하다고 생각되는 점들을 귀속말로 간단간단히 튕겨주군 하였다.

그가 제일 존경을 가지고 소개한 교원은 군사교관 이웅이었다. 이웅은 정의부의 군사위원인데 황포군관학교를 다니었다고 한다. 황포군관학교 출신이라면 누구나 다 굉장한 존재처럼 우러러 볼 때였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큰 약국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인삼을 많이 부쳐다 먹는데 관료기가 좀 있는 것이 흠이기는 하지만 박식하고 다재다능하여 학생들의 존경을 받는다고 하였다.

박차석은 화성의숙에서 조선역사와 지리, 생물, 수학, 체육, 군사학, 세계혁명사와 같은 과목들을 배워준다고 하면서 종이장에 의숙의 일과에 대해서도 적어주었다.

후날 무장투쟁을 할 때 내 가슴속에 아물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긴 박차석과의 인연은 이렇게 맺어졌다. 그가 후에 길을 잘못들었지만 화성의숙시절에는 나하고 살붙이처럼 각별한 우정을 나누면서 지냈다.

그날 오후 6중대출신의 최창걸이 10여명의 동무들과 함께 나를 만나려고 김시우네 집으로 찾아왔다. 아마 그들이 나에 대해서 첫인상을 좋게 가졌던 것 같다. 내가 하도 어린 나이로 입학하다보니 호기심도 생기고 말이라도 나누고싶었던 모양이였다.

최창걸은 머리에 큼직한 허물자리가 있었다. 넓은 앞이마와 시꺼먼 눈섭이 아주 남성적이었다. 키도 크고 몸집도 좋아서 머리의 허물만 아니라면 미남자라고 불리울만큼 잘 생긴 사람이었다. 그의 말투나 몸가짐에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서글서글한 멋이 있었다. 첫 대면에서 그는 벌써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놓았다.

≪성주의 나이가 열다섯살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나이보다는 퍼그나 숙성해보이는구만. 이런 나이로 독립군생활은 어떻게 했고 화성의숙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소?≫

최창걸의 첫 질문이었다. 그는 한지붕밑에서 오랜 세월을 같이 딩굴며 우정을 맺었던 십년지기라도 만난 듯이 시종 입가에 웃음을 담고 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



화성의숙터전

다.

나는 그가 알고싶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대로 간단히 대답해주었다.

내가 김형직의 맏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한편 놀라기도 하고 한편 선망의 눈길도 보내면서 나를 더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며 내가 체험한 조국의 현실을 알려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질문을 하였다.

조금 후에는 내가 반대로 최창걸에게 독립군시절의 생활에 대하여 물었다.

그는 자기 머리에 있는 허물자리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내력부터 말해주었다. 우스개를 섞어가며 구수하게 이야기를 엮어댔는데 아주 걸작이었다. 그의 이야기에서 특징은 자기를 항상 3인칭의 위치에 놓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그랬다.≫, ≪내가 속았다.≫라고 해야 될 말도 ≪최창걸이 그랬다.≫, ≪최창걸이 속았다.≫고 말하여 대화상대방의 웃음을 자아내군 하였다.

≪최창걸이 양세봉의 수하졸병으로 있을 때였소. 한번은 개원쪽에서 밀정을 잡아가지고 가다가 여관에 들렀는데 글쎄 그 펑텅하기 짝이 없는 최창걸은 밀정을 앞에 두고 꺼떡꺼떡 졸지 않았겠소. 수십리길을 걷다나니 피곤했거든. 그사이에 그 밀정은 포송을 풀고 도끼로 최창걸의 머리를 답새기고 꽁무니를 뺐단 말이요. 다행히도 그놈이 정통은 치지 못했지. 최창걸의 머리에 생긴 ≪훈장≫은 이런 기막힌 역사를 가지고 있소. 사람이 탕개가 풀리면 최창걸이처럼 될 수 있소.≫

한두시간 마주앉아 흉금을 터놓고보니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청년시절에 사귄 동무들이 수백수천 명이나 되는데 최창걸이처럼 자기를 항상 3인칭의 위치에 놓고 이야기를 슬슬 엮어나가는 그런 걸작을 처음으로 보았다.

그 후 생활을 통해 나는 그의 경력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무순에서 자그마한 여관을 하나 경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를 도와 영업에 종사할 것을 원하였지만 최창걸은 나라를 독립시키겠다고 집을 뛰쳐나와 군대에 입대하였다. 그가 독립군생활을 할 때 그의 할머니가 손자의 마음을 돌려세워보려고 여러 차례 삼원포에 찾아왔지만 최창걸은 매번 나라가 망한 판에 지금 어디 제 집 여관이나 지키고 있을 때인가고 하면서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최창걸, 김리갑, 계영춘, 이제우, 박근원, 강병선, 김원우 외에도 남만과 국내 여러 곳에서 반일운동에 뜻을 두고 화성의숙에 찾아온 수많은 청년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같이 오후가 되면 나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김시우네 집으로 찾아왔다. 나는 한두 명도 아닌 숱한 학우들이 나를 찾아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처음부터 동년배가 아닌 나보다 나이가 5-10살 이상 되는 연장자들과 사귀게 되었다. 청년학생운동과 지하혁명활동시기의 나의 전우들 가운데 연장자들이 많은 것은 그 때문이었다.

나는 화성의숙에서 공부하는 며칠사이에 의숙의 살림살이가 무송의 독립운동자가 말한 것보다 더 가난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화성의숙에서 재산이라고 할만한 것은 낡은 책걸상과 몇 개의 운동기재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포부를 크게 가지였다. 비록 건물은 비좁고 거무칙칙하여 보잘나위 없어도 그 고삭은 초가지붕밑에서 자라는 청년들은 얼마나 믿음직한가! 돈은 없지만 끌끌한 청년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화성의숙이 부자라고 할 수 있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2. 환멸

나는 인차 화성의숙의 생활에 익숙해졌다. 두어주일가량 공부해보니 학과목들도 별로 어려운 것이 없었다.

의숙학생들이 제일 골치아파하는 과목은 수학이였다. 어느 날 수업시간에 여럿이 지명을 받고도 풀지 못한 길다란 사칙문제를 내가 별로 어렵지 않게 풀어냈더니 그들은 몹시 신기해하였다. 여러 해 동안 정규교육에서 떨어져나와 독립군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였으므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후부터 나는 수학 때문에 단련을 받았다. 머리를 쓰기 싫어하는 몇몇 수염쟁이 청년들이 수학숙제를 할 때마다 찾아와서는 성화를 먹이었다.

그 대가라고 할지 그들은 나에게 여러 가지 체험담을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들가운데는 들을 만한 것이 많았다.

강한 육체적 부담을 요구하는 군사훈련이 있을 때에도 그들은 나를 도와주려고 여러 모로 애를 썼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는 서로 마음속 깊은 사연까지도 서슴없이 헤쳐보이는 다정한 벗들이 되었다. 애숭이신입생으로서 나이많은 사람들의 짐이나 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여겼던 내가 학습과 교련에서 남들에게 뒤지지 않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네것내것이 따로없이 학우들과 잘 섭쓸려돌아갔기 때문에 그들도 연령의 층하를 두지 않고 나를 가까이 대해주었다.

그만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은 환경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되어 화성의숙의 교육은 점차 나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였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세운 학교이고 아버지의 연고자들이 주관하고 운영하는 학교이지만 나는 여기서 전 세대가 남긴 사상과 방법에서의 낡은 잔재를 발견하게 되였다.

부르조아민족주의운동의 역사가 수십 년 되지만 의숙의 교육에는 그것을 집대성하고 비판적으로 분석총화하는 이론이 없었다. 부르조아민족주의자들은 수십 년동안이나 민족주의운동을 지도해오면서도 그 운동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만한 논문이나 교과서 하나 똑똑히 만들어놓지 않았다. 화성의숙에 찾아오는 독립군의 거두들이나 애국지사들도 그저 막연하게 연탁을 두드리며 독립하자고만 부르짖었다. 혁명역량은 어떻게 편성하고 대중은 어떻게 동원시키며 독립운동대열의 통일단결은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 하는 방법도 없었고 무장투쟁의 교범이나 전술같은 것도 변변치 못하였다. 조선역사과목은 왕조사본위로 엮어져있었고 세계혁명사도 부르조아혁명사가 기본을 이루고 있었다.

화성의숙에서 배워주는 것은 민족주의사상과 구한국냄새가 나는 낡은 군사훈련뿐이었다.

민족주의사상에 깊이 물젖은 선생들이 비록 반일과 민족적 독립에 대하여 말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투쟁방법은 뒤떨어진 것이였다. 학교당국은 전투경험이 있는 독립군대원들을 데려다가 무훈담을 자주 들려주었다. 그런데 그 무훈담을 통해서 고취하는 것은 안중근, 장인환, 강우규, 이재명, 나석주와 같은 열

사들이 적용하였던 개인테러의 방법이었다.

학생들은 독립군의 간부들을 키워내는 군관학교라는 것이 말뿐이지 실탄사격에 쓸 탄알마저 없어 늘 나무총이나 가지고 훈련해서야 무슨 수로 왜놈들을 내쫓겠는가고 하면서 불평을 터놓군 하였다.

한번은 어떤 학생이 언제면 우리도 신식총을 다루어볼 수 있는가고 군사교관에게 물은 적이 있었다. 교관은 몹시 난처해하면서 지금 독립군간부들이 군자금을 해결해가지고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무기를 사올 계획으로 맹활동을 하고 있으니 인차 해결될 것이라고 얼버무리었다. 총 몇 자루를 얻지 못해 이렇게 몇 만리밖에 있는 서양나라들을 쳐다보는 형편이었다.


일제총독에게
폭탄을 던졌던
강우규열사

나는 군사훈련시간에 아래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릴 때마다 이렇게 해서 왜놈들을 타승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난날 수천수만 명을 헤아리는 전봉준의 동학군은 우금치라는 고개에서 천명의 일본군을 당해내지 못해 지리멸렬되었다. 그때 일본군은 신식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동학군은 100명이 한놈씩만 제껴도 공주를 치고 서울까지 내처 달려갈 수 있는 유리한 형세였는데 무장이 약하고 군세가 약하여 참패하고 말았다.

의병의 무장도 동학군보다는 별로 나은 것이 없었다. 의병들에게도 얼마간 신식총이 있었지만 그 양은 한정되어있었고 대부분의 성원들은 도창무기가 아니면 화승대를 사용하였다. 의병투쟁을 화승대와 38식보총의 싸움이라고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총탄 한방을 쏠 때마다 매번 손으로 불을 붙이지 않으면 안되는 화승총으로 분당 10발 이상씩 쏠 수 있는 38식보총을 제압하려면 얼마나 비참한 인내를 체험해야 하며 얼마나 간고한 싸움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다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화승대의 성능이 아직 의병들만 아는 비밀로 남아있을 때까지는 일본군대가 이 화승대의 총성만 듣고도 겁에 질려 달아났는데 성능을 안 다음부터는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습게 여기였다니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는가. 양반도덕과 계율에 밝은 유생출신의 의병들은 전투 중에도 대관을 쓰고 거치장스러운 도포차림으로 싸움을 했다고 한다.

이런 의병들을 일본군대는 대포와 기관총으로 짓뭉개놓았다.

일본의 군력이 그때보다는 어방없이 강대해졌는데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니는 훈련이나 해가지고 과연 탱크, 대포, 군함, 비행기와 같은 현대적 무기와 중장비들을 계열식으로 만들어내는 제국주의강군을 거꾸러뜨릴 수 있겠는가.

나를 제일 실망케 한 것은 화성의숙의 사상적 낙후성이었다.

학교당국이 민족주의 외통길로만 나가면서 다른 사상은 다 경계하다나니 학생들도 자연히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화성의숙에는 왕조정치에 미련을 가지거나 미국식민주주의에 환상을 가지는 청년들도 있었다.

그런 경향은 세계혁명사과목의 학과토론시간에 제일 우심하게 나타났다. 선생의 지명을 받은 학생들은 강의시간에 취급된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해 옮기면서 자본주의발전에 대하여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그들의 그 교조적인 학습태도에 나는 불만을 금할 수 없었다. 화성의숙의 정치과목수업에서는 조선독립과 조선의 민중이라는 산 현실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었다. 그저 교과서나 교수요강에 제시된 내용들을 기계적으로 배워주고 받아낼 뿐이었

다.

토론을 실천문제, 조선의 장래와 관련된 문제를 놓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나는 방금 토론을 한 학생에게 우리 나라에서는 독립 후 어떤 사회를 세워야 하겠는가고 물어보았다.

질문을 받은 학생은 자본주의길로 나가야 한다고 서슴없이 대답하였다. 우리 민족이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 다른 나라들이 자본주의길로 나갈 때 우리 나라에서는 봉건통치배들이 음풍영월로 허송세월하였기 때문인데 그런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자본주의사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였다.

어떤 학생들은 봉건왕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사회를 세워야 한다거나 근로인민이 주인된 사회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없었다. 민족해방운동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할 때인데 이런 시대사조를 전혀 염두에 두는 것 같지도 않았다.

독립후 어떤 나라를 세우는가 하는 것은 그때에 가서 볼일이지 독립도 되기 전에 자본주의냐, 왕조복귀냐 하는 것은 싱거운 일이라고 하면서 팔짱을 지르고 앉아있는 학생들도 있었다.

나는 그런 토론을 들으면서 화성의숙에서 실시하는 민족주의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는 것을 더욱 통절하게 느끼였다. 봉건왕조를 되살리겠다는 것도 그렇고 자본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도 그렇고 다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참다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나라는 구라파나라들처럼 부르조아혁명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낡은 봉건통치기구를 그대로 되살려도 안된다고 말하였다.

자본주의나 봉건사회는 다같이 돈많은 놈들이 근로대중을 착취하여 호강하는 사회이다, 독립된후 조선에 이런 불공평한 사회를 세울 수는 없다, 기계문명의 발전만 보고 자본주의의 병집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이다, 봉건왕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도 당치않은 소리이다, 나라를 외세에 팔아먹은 왕조정치에 그 누가 미련을 품겠는가, 도대체 왕들이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백성들의 등껍질을 벗기고 바른 말을 하는 충신들을 목자르고 귀양보낸 것밖에 더 있는가,

우리는 조선을 독립시킨 후 조국땅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사회,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세워야 한다.…

많은 학생들이 나의 주장에 공감을 표시하였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만민평등의 부강한 사회를 세우자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최창걸이도 수업이 끝난 다음 내 손을 꽉 그러잡고 좋은 토론을 했다고 하면서 나를 지지해주었다. 내가 공산주의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공산주의사상을 멋있게 들이먹이더라고 하면서 몹시 통쾌해하였다.

화성의숙의 제한성은 민족주의운동자체의 제한성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화성의숙을 통하여 민족주의운동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와서는 독립군들도 맥을 못추고 세력다툼만 하였다. 1920년대 전반기에 국내와 압록강연안에서 종종 벌이던 것과 같은 실제적인 군사활동은 거의나 하지 않고 관할구역에 틀고앉아 군자금이나 거두며 돌아다니는 형편이었다.

≪조선민족을 대표하는 거국적인 정부≫라고 자칭하던 상해 임시정부의 인사들도 ≪자치파≫니, ≪독립파≫니 하는 파벌을 이루고 서로 치열한 감투싸움을 벌이었다. 임시정부의 수뇌자리가 번번이 교체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지어는 한해에 두 번씩 내각개조놀음이 벌어진 때도 있었다.


파리강화회의에 보낸 독립청원서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파리강화회의 때 ≪조선독립청원서≫가 미국을 비롯한 협상국대표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으로 회의의정에 상정되지조차도 못했던 사실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민족의 존엄을 훼손시키면서까지 비굴하기 짝이 없는 ≪청원≫놀음을 계속하였다.

심지어 ≪미국회의원동양시찰단≫이라는 것이 상해를 거쳐 서울로 들어왔을 때에는 국내에 있는 친미사대주의자들을 부추겨 미국회의원들에게 인삼과 은제품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값비싼 물건들을 섬겨바치게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런 임시정부조차도 자금난으로 1920년대 중엽에 와서는 그 허울마저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장개석의 중경정부에 얹혀다니면서 구차스럽게 지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치적 동요성이 많은 자산계급출신의 민족운동지도자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근로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에 겁을 먹은 나머지 원쑤들에게 투항변절하고 말았다. 그들은 ≪애국지사≫로부터 일제의 앞잡이로, 민족개량주의자로 굴러떨어져 민족해방운동을 저애하는 길에 들어섰다.

일제는 ≪문화통치≫를 표방하면서 조선사람들이 나라의 독립을 원한다면 정치적으로 일본의 통치를 반대하여 나설 것이 아니라 그에 협력하여야 하며 일본의 식민지통치밑에서의 자치권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하며 문화를 향상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며 민족성을 개량해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이 설교를 통채로 받아문 것이 바로 자산계급출신의 민족운동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은 ≪민족개량≫과 ≪실력양성≫의 보자기를 쓰고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떠들었고 각 개인의 ≪자아수양≫을 떠들었으며 ≪계급협조≫와 ≪대동단결≫, ≪민족자치≫를 떠들었다.

이와 같은 개량주의의 바람이 화성의숙에도 불어왔다.

김시우네 집 웃방은 항상 나와 정치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싶어 찾아오는 청년들로 흥성거리었다. 내가 김시우의 서재에 있는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열심히 탐독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화제는 자연히 정치문제에 쏠리었다.

나는 무송에 있을 적에도 ≪레닌의 일생기≫나 ≪사회주의대의≫와 같은 책을 몇 권 읽었지만 화전에 와서는 그보다 많은 책을 읽었다. 이전에는 그저 책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쳤다면 화성의숙에 온 다음부터는 책을 읽으면서도 항상 고전에 나오는 혁명의 원리들을 조선의 현실과 결부시켜 생각해보게 되었다. 조선혁명의 실천과 관련해서는 알고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였다.

일제를 타도하고 나라를 찾아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 목적을 실현하겠는가, 조국을 광복하는 투쟁에서는 어떤 대상을 적으로 규정하고 어떤 노정을 거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해야 하는가, …나한테는 이 모든 것이 미지수였다.

그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손에 책을 잡으면 비슷한 대목이 나올 때까지 근기있게 파고들었다. 특히 식민지에 대한 문제가 언급된 대목은 열번스무번 곱씹어읽었다. 그러다나니 동무들이 찾아와도 화제거리가 많았다.

우리는 새 사조에 대한 이야기와 쏘련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날에는 학생들이 저마다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세계를 눈앞에 그리며 좀처럼 자리를 뜨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왕조복귀나 자본주의나 민족개조를 주장하는 이론보다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더 재미난다고 하였다. 그날그날을 되는대로 보내던 학생들속에서는 점차 새것에 대한 동경심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학교에 나가서는 레닌에 대한 이야기나 10월혁명에 대한 이야기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학교당국이 그것을 금지시키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점차 화성의숙에 대한 기대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3. 타도제국주의동맹


≪ㅌ · ㄷ≫를 조직하시던 때

화성의숙의 시대적 낙후성은 나로 하여금 낡은 방식대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다. 총 몇 자루를 가지고 소규모의 무장단성원으로 압록강을 넘나들면서 왜놈순사나 몇 놈 처단하고 군자금이나 모으러 다니는 것과 같은 투쟁방법으로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굳어졌다.

나는 새로운 방법으로 조국광복의 길을 개척해야 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품게 되었다. 새 길로 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나의 동무들도 견해가 같았다.

그런데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은 학생이 몇 명 되지 않았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새 사조를 선뜻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계하거나 배척하였다.

화성의숙에서는 공산주의서적도 마음대로 읽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공산당선언≫을 학교에 가지고 나가면 학생들이 내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그런 책은 집에서나 보라고 슬그머니 귀띔해주군 하였다. 학교당국이 제일 경계하고 엄중시하는 것이 적색계 책인데 경중에 따라 퇴학처벌도 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는 것이였다.

나는 통제를 한다고 읽고싶은 책도 읽지 않으면 큰일을 어떻게 하겠는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책은 퇴학을 시킨다해도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산당선언≫은 김시우의 서재에 있던 책이였다. 그 서재에는 공산주의서적들이 많았다. 김시우의 서재는 민족해방운동이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던 당시의 시대상과 그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려는 김시우 자신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화성의숙당국이 그런 책들을 읽지 못하게 하니 나로서는 불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의숙의 계율은 어떻든 새 사상에 심취되어 그것을 깊이 파고들려는 우리의 열정은 누잦힐수 없었다. 나는 당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공산주의서적들을 정열적으로 탐독하였다. 그 무렵에는 벌써 그런 책을 보고싶어하는 학생들이 줄을 서고 있을 정도로 늘어났을 때여서 우리는 독서순서와 기간을 정하고 제때에 책을 바치도록 하였다. 새 사조를 신봉하는 학우들사이에서 은연중에 약속된 이 독서규범을 청년들은 대체로 잘 지키었다.

그런데 성미가 더펄더펄한 계영춘이만은 이 규범을 곧잘 어기였다. 그는 독서기간도 잘 지키지 않고 독서장소를 선택하는데서도 조심성이 없었다. ≪공산당선언≫은 혼자서 열흘이상 끼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동무에게 빨리 넘겨주라고 했더니 그는 좀 발취할 대목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틀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였다.

계영춘은 다음날 학교에도 나오지 않고 기숙사에서 슬그머니 새여버리였다. 오전공부가 다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어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휘발하강가에서 풀숲에 엎드려 정신없이 책을 읽고 있은 그를 찾아내였다.

나는 그에게 책에 심취되는 것은 좋지만 강의에 빠지지 말고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읽으라고 조용히 귀띔해주었다.

계영춘은 조심하겠다고 하였지만 다음날 역사시간에 책을 몰래 꺼내보다가 교원에게 빼앗기였다. 그 책이 숙장선생의 손에까지 들어가서 큰 말썽을 일으키었다.

학교당국은 그 책이 나를 통해 김시우의 서재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을 알고는 나와 총관에게 역사교원을 보내여 야단을 부리였다.

그 선생은 김시우에게 화성의숙의 사업을 잘 도와주어야 할 총관이 학생들이 좌익서적을 읽는 것을 보고도 막지 않는 것은 총관답지 못한 처사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학생들이 그런 책을 읽지 못하도록 단속해달라고 하였다. 나를 보고는 성주도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위협하였다.

나는 학교당국의 처사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이 건전한 인격을 갖추려면 다면적인 지식을 섭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학교당국은 어째서 새것을 한창 섭취해야 할 청년들에게서 세계적으로 공인된 선진사상을 연구할 권리마저 빼앗습니까. 맑스나 레닌의 저작들이 보통책방에까지 흘러나와 글을 아는 사람이면 다 읽는 판인데 유독 화성의숙에서만은 어째서 그런 책들을 못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화성의숙에 대한 불만을 터놓으며 김시우에게 들이댔다.

김시우는 한숨을 쉬면서 정의부의 시책이고 학교당국의 방침이니 자기 재간으로는 어쩌지 못하겠다고 고백하였다.

사람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척도가 사상인 것처럼 교육의 가치, 학교의 가치를 규정하는 기본척도도 사상이다. 그런데 화성의숙당국은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 케케묵은 사상으로 새 사조의 물결을 막아보려고 헛되게 애를 쓰고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은 학교안에 맑스-레닌주의를 탐구하는 패가 있다는 것을 감촉하게 되었다. 당국은 이 사건을 가지고 퇴학이니, 엄중처벌이니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진보적인 청년들속에서 공산주의사상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부채질해주는 결과를 빚어냈다.

그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나한테로 좌익서적들을 빌려달라고 찾아오는 학생들의 수가 부쩍 늘어났다.

나는 그런 청년들가운데서 뜻을 같이하고 생사를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들을 한 사람한 사람씩 만나기 시작했다.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늘 한 말씀이 동지를 잘 사귀고 동지를 많이 가지라는 것이였다. 아무리 정당하고 훌륭한 목적을 가진 사람도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이 없으면 원대한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한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늘 명심하였다.

많은 학생들과 접촉하였는데 그 중에는 1중대에서 온 이모라는 학생도 있었다. 그는 머리도 총명하고 실력도 우수하고 성격이나 기질도 다 좋아서 동무들의 사랑을 받고 있은 학생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상만은 보수적이였다.

세계혁명사과목시간에 왕조복귀를 맨처음으로 주장해나선 학생이 바로 그 청년이였다.

평소에는 그저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의 말이나 주고받던 그 학생이 나와 속을 터놓을 정도로 친숙해진 것은 조선인모범소학교 고등반학생들과의 축구시합이 있은 후부터였다. 그날 공격수로 활동한 그 학생은 상대편선수와 부딪쳐 다리를 상하였다.

나는 기숙사에 들어가 침식을 같이하면서 열흘 남짓하게 그를 간호해주었다. 그



과정에 그와 흉금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세계혁명사강의시간에 자기가 왕조복귀를 주장한 것은 엉터리없는 일이였다고 하면서 성주가 말한 것처럼 우리 나라는 독립 후 근로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빨리 왜놈들을 내쫓고 우리도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지금 화성의숙에서 배워주는 군사교련이나 받으면 왜놈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가, 일본을 세계 5대 강국의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소총 한 자루 변변치 못한 독립군의 힘만으로 그런 강적을 감당해낼 수 있을 것 같은가고 물었다.

그 학생은 싸우자면 신체를 단련하고 총을 잘 쏘아야지 별수가 있는가, 오래동안 독립운동을 해오던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야지 다른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하였다.

나는 아니다, 그런 식으로는 독립을 못한다, 지금 그 방법을 찾아내려고 맑스나 레닌이 쓴 책들을 읽고 있는데 배울 것이 많다, 지금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공산주의사상을 비방중상하고 있고 또 완고한 민족주의자들이 사회주의를 배척하고 있는데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나쁘다고 한다 하여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인 우리가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나쁘다고 해서는 안된다, 참다운 독립운동자, 애국자가 되자면 맑스-레닌주의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 학생은 내 말에 공감되는지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하더니 자기에게도 그런 책을 빌려줄 수 없는가고 하였다.

나는 이제 상처만 나으면 책을 빌려줄 터이니 우선 치료를 잘하여 빨리 일어나라고 고무해주었다.

새 사조를 동경하는 조류는 걷잡을 수 없는 힘으로 화성의숙을 휩쓸었다. 민족주의를 따르는 완고한 몇몇 학생들을 내놓고는 절대다수가 선진사상을 신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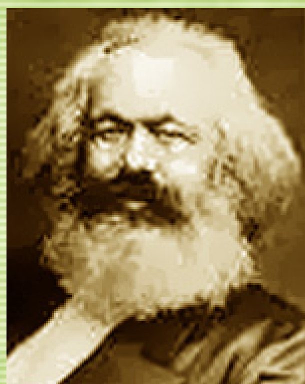
나는 진보적인 청년학생들로써 읽은 책에 대한 토론회를 자주 조직하였다. 토론회는 김시우의 집에서도 하고 숙감인 강제하의 집에서도 하고 휘발하강가에서도 하였다.

총관의 서재에서 토론회가 벌어지는 날이면 김시우는 은근히 왼심을 쓰면서 손

님들은 물론, 집안식구들까지 그 방에 드나들지 않도록 엄하게 단속하군 하였다. 때로는 토방우레 걸터앉아 무슨 허드레일을 하는척하면서 망도 봐주었다. 그때마다 나는 말없는 그의 행동에서 후더운 인정과 지지를 느끼었다.

우리가 강제하의 집을 토론회장소로 정한 것은 그의 아들 강병선이 나와 가까운데도 있지만 장제하자신이 아버지의 친구인데다가 사상경향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강제하는 민족주의자이지만 공산주의를 배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놀러 가면 앉혀놓고 공산주의선전을 하였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틀렸는데 자네들은 공산주의적 방법으로라도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하였다. 그것이 우리한테는 적지 않은 힘이 되었다. 그의 집에는 공산주의서적도 여러 권 있었다.


마르크스

지금 돌이켜보아도 그때 우리는 조선혁명과 관련된 실천적 문제들을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토론을 진행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런 토론과정을 거쳐 청년들은 조선혁명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통일시킬 수 있었다.

어느 날 김시우네 집에서 이런 토론을 하고 있을 때 나의 간호를 받던 리동무가 쌍지팡이를 짚고 찾아와 약속했던 책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의 말이 다른 동무들은 다 새길을 가는데 자기 혼자 기숙사에 누워있자니 낙오자가 되는 것 같아서 찾아왔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그도 우리와 한길을 걷게 되었다.

자본가들은 돈을 모으는 재미가 별재미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동지를 모으는 재미가 최상의 락이고 재미였다. 동지 한 명을 얻을 때의 희열을 어찌 황금덩이 하나를 얻을 때의 기쁨에 비길 수 있겠는가. 동지를 얻기 위한 나의 투쟁은 이렇게 화성의숙에서부터 첫 발자국을 떼였다. 그때부터 나는 한 생을 동지를 얻는 일에 바치었다.

좋은 동지들이 주위에 많이 집결되자 나는 이들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결속하여 판을 크게 벌려볼 수 없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모대기었다. 동무들에게도 내 생각을 터놓았다. 그것이 아마 9월말경에 있은 모임에서였다고 기억된다.

내가 그날 조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였던 것 같다. 나라를 해방하고 근로민중이 잘 사는 세상을 세우자면 멀고도 험난한 길을 개척해야 한다, 우리가 대오를 늘이고 완강하게 혈전을 벌려나간다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조직을 내온 다음 대중을 그 두리에 묶어세우고 각성시켜 그들의 힘으로써 나라를 광복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말했더니 동무들이 다들 기뻐하면서 빨리 조직을 내오자고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조직을 내오자면 준비를 더해야 한다는 것과 우리와 사상을 같이하며 함께 투쟁할 수 있는 동무들을 더 많이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임에서는앞으로 조직성원이 될만한 대상들을 정한다음 아무개는 누구를 맡고 아무개는 누구를 맡아 교양한다는 식으로 분공조직도 하였다.


레닌

그런데 몇몇 동무들이 우리가 장차 새로운 조직을 내오면 또 하나의 파가 생기지 않겠는가고 우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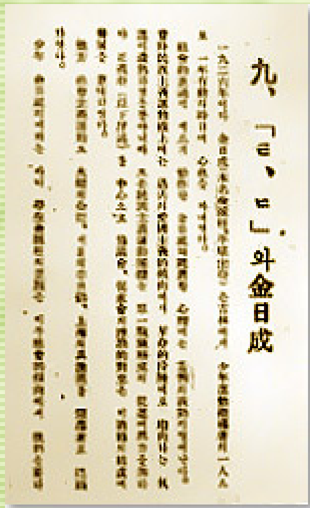
그래서 나는 말했다. 우리가 무으려는 조직은 민족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의 분파와는 전혀 다른 새 형의 혁명조직이다, 그것은 파쟁을 하자는 조직이 아니고 오직 혁명을 하자는 조직이다, 우리는 자신을 혁명에 깡그리 바쳐 싸우고 또 싸우는

것으로서 만족할 것이다, …

우리는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당시 중국의 국경절인 쌍십절(10월10일)에 조직을 내오기 위한 예비회의를 열고 조직의 명칭과 성격, 투쟁강령, 활동규범들에 대한 토의를 하였으며 한주일 후인 1926년 10월 17일에는 김시우네 집에서 정식으로 조직을 무었다.

연탁도 없는 수수한 온돌방에서 모임은 조용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그 방에 차넘치던 활기와 열정만은 60여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날은 동무들도 흥분하고 나도 흥분하였다. 조직을 뭇는 마당에 정작 나서고보니 왜 그런지 돌아가신 아버지생각이 떠오르고 조선국민회생각이 떠올랐다. 아버지는 조선국민회를 무으려고 여러 해 동안 수만리길을 걸으면서 사방에 흩어져있는 동지들을 결속하였다. 국민회를 내온 뒤에는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한 생을 깡그리 바치다가 돌아가시였다. 그리고 이루지못한 뜻을 자식들에게 넘겨주었다.


九, 「ㅌ·ㄷ」와 金日成

≪ㅌ·ㄷ≫의 결성과 그 활동을 소개한 출판물자료

뼈가 부서지고 몸이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한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길에서 드디어 첫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가슴도 울렁이고 눈물도 났다.

우리가 내오게 된 조직의 강령에는 아버지의 이념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모임에 참가하여 열변을 토하던 청년들의 얼굴이 지금도 눈앞에 삼삼하다. 최창걸, 김리갑, 이제우, 강병선, 김원우, 박근원,… 후날 배신은 하였지만 이종락과 박차석도 혁명을 위해 피와 살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전투적인 언약을 하였다.

언변이 좋은 사람도 있었고 서투른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훌륭한 토론들을 하였다. 나도 그때로서는 꽤 긴 연설을 하였다.

그 모임에서 나는 우리가 뭇는 조직을 타도제국주의동맹으로, 약칭으로는 ≪ㅌ·ㄷ≫라고 할 것을 제의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은 반제, 독립, 자주의 이념밑에 민족해방, 계급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새 세대의 청년들이 역사의 진통속에서 창조한 순결하고 참신한 새 형의 정치적 생명체였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 목적으로 이 동맹을 결성하였지만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너무 좌익적인 조직인 것 같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하여 조직의 명칭을 타도제국주의동맹이라고 하였다. 그만큼 우리는 그때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조직의 명칭을 타도제국주의동맹으로 하자는 제의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내가 발표한 ≪ㅌ·ㄷ≫의 투쟁강령도 그대로 채택되었다. ≪ㅌ·ㄷ≫는 문자그대로 제국주의일반을 타도하자는 조직이였던 것만큼 그 구호도 대단하였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의 당면과업은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는 것이며 최종목적은 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며 나아가서는 모든 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세계에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는 것이였다.

우리는 이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방침도 채택하였다.

모임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등사한 규약책도 나누어주었다.

그 회의에서 최창걸이 나를 타도제국주의동맹 책임자로 추천하였다.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한 덩어리가 되어 휘발하강가에 달려나가 노래를 부르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였다.

그날 나는 잠이 전혀 오지 않아 뜬눈으로 밤을 밝히였다. 너무도 흥분이 크고 감격이 커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때 온 세계를 전취한 것 같은 감격과 희열에 휩싸여있었다. 돈더미 우에 올라앉은 억만장자들의 락을 어떻게 이런 기쁨에 비길 수 있을 것인가.

그 당시 공산주의운동내부에는 큼직한 간판을 가진 조직들이 많았다.

우리는 조직을 방금 내온 데 지나지 않았다. 규모를 보면 아직 그런 조직들에 비길만한 형편이 못되였다. 세상은 아직 ≪ㅌ·ㄷ≫라는 것이 나왔는지 어쨌는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ㅌ·ㄷ≫를 뭇고나서 그처럼 열광적인 기분에 휩싸였던 것은 우리가 만든 조직이 종래의 조직들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 형의 공산주의적 혁명조직이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였다.

≪ㅌ·ㄷ≫는 어느 파에서 갈라져나온 조직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망라된 성원들로 말하면 어떤 종파에 가담했거나 망명단체에 가있다가 떨어져나온 사람들도 아니였다. 문자그대로 백지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새 세대였다. ≪ㅌ·ㄷ≫의 피에는 잡것이 섞여있지 않았다.

그 성원들로 보면 또 다 만만치 않은 인물들이였다. 연설을 하라고 하면 연설을 하고 논문을 쓰라고 하면 논문을 쓰고 노래를 지으라고 하면 노래를 짓고 격술을 하라고 하면 격술도 할 수 있는 끌끌한 재목들이였다. 지금말로 한다면 ≪일당백≫, ≪일당천≫의 청년들이였다. 그런 청년들이 모여서 새 길을 개척하자고 덤벼들었으니 그 기세 또한 대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후 ≪ㅌ·ㄷ≫성원들은 우리가 개척한 혁명위업이 어려운 국면에 처할 때마다 항상 육탄이 되어 그 출로를 열어나갔다. 그들은 조선혁명의 핵심부대로서 어데서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김혁, 차광수, 최창걸, 김리갑, 강병선, 이제우를 비롯하여 ≪ㅌ·ㄷ≫의 산아들 중 많은 사람들은 투쟁의 앞장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고결하게 생애를 마치였다.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출발은 잘 떼고서도 혁명투쟁이 심화되는 과정에 ≪ㅌ·ㄷ≫의 이념을 저버리고 배신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제는 ≪ㅌ·ㄷ≫시절에 나와 같이 손잡고 일하던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조국의 독립과 무산민중의 사회를 그리며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싸우던 수많은 ≪ㅌ·ㄷ≫의 아들딸들이 좋은 세상도 못보고 꽃같은 나이에 모두 일찍이 우리 곁을 떠나가버리었다. 그들은 청춘을 바쳐 우리 당과 혁명의 초석을 쌓아놓았다.

우리 당 역사에서는 ≪ㅌ·ㄷ≫를 당의 뿌리로 보고 있으며 ≪ㅌ·ㄷ≫의 결성을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조선혁명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시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뿌리에서 우리 당의 강령이 태어나고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원칙에 마련되고 우리 당창건의 골간이 육성되었다. ≪ㅌ·ㄷ≫가 조직된 때로부터 우리 혁명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걸음을 떼였다.

그때 우리가 추켜들었던 타도제국주의동맹의 이념이나 기개에 대하여서는 해방직후 최일천(최형우)이 ≪해외조선혁명운동소사≫에서 ≪≪ㅌ·ㄷ≫와 **김일성**≫이라는 제목으로 그 일단을 서술했다고 생각한다.

여러 해가 지난 후 혁명군이 창건되고 조국광복회가 태어나 2천만의 총동원을 소리높이 웨칠 때 그리고 그 대열을 수천수만의 지지자, 동정자들이 위성처럼 둘러싼 혁명의 전성기가 도래하였을 때 나는 화전에서 우리가 ≪ㅌ·ㄷ≫를 조직하던 시절을 감개무량하게 회상하군 하였다.



당창건기념탑 전경



당창건기념탑 - 1편 중간부분 부각상



당창건기념탑 - 1편 좌측부분 부각상


당창건기념탑 - 2편 부각상


당창건기념탑 - 3편 좌측부분 부각상



당창건기념탑 - 3편 우측부분 부각상

4. 새로운 활무대를 그리는 마음



화성의숙에서는 학교운영자금의 부족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었다.

의숙의 학생수가 100명도 채 되지 못했으나 당시의 독립군형편에서 그만한 학생들을 먹여살린다는 것도 헐한 일은 아니었다.

정의부가 주인이였지만 돈을 넉넉히 대주지 못하였다. 백성들한테서 한푼두푼 모은 군자금으로 행정, 군사, 민사의 세 가지 틀거리를 다 갖추고 한 개 국가와 맞먹는 허울을 가까스로 유지해나가는 정의부로서는 돈을 크게 대줄 처지가 못되였다.

화성의숙당국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학교운영자금모연공작에 주기적으로 동원시키였다. 학생들은 20명이 한조가 되어 자기의 출신중대에 들어가 무기를 받아가지고는 두달동안씩 정의부관할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금을 모으다가 기한이 되면 다른 조와 교대하군 하였다.

그렇게 돈을 모았대야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인차 바닥이 나군 하였다. 그러면 또 길림에 올라가서 정의부에 손을 내밀었다.

한번은 최동오숙장이 겨울나이준비를 위한 자금을 해결하려고 정의부본부에 숙감을 파견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숙감은 빈손으로 학교에 돌아와 3중대장을 나쁜 놈이라고 욕하였다. 화성의숙에 주려고 내놓았던 돈을 3중대장이 먼저 가로채가지고 가서 자기의 결혼식 비용으로 몽땅 써버렸다는 것이었다. 어찌나도 돈을 물쓰듯했던지 며칠을 불궈두고 온 동네를 다 먹이고도 음식이 남아 이웃동리 사람들까지 불러다먹이었다고 한

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분격을 금할 수 없었다.

정의부금고에 있는 돈이라고 하여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였다. 그 돈은 백성들이 죽을 먹고 끼니를 건느면서도 나라를 찾아달라고 푼전을 모아 군자금으로 바친 돈이었다. 돈이 없으면 짚신을 삼아 팔아서라도 군자금을 내고서야 마음을 놓는 우리 인민이었다.

3중대장한테는 그런 것도 안중에 없는 모양이었다. 사리사욕에 얼마나 눈이 어두우면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너절한 사취행위를 하였겠는가.

총을 잡고 적과 혈전을 벌려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은 지휘관이 그러한 탐오행위를 꺼리낌없이 하였다는 것은 독립군의 상층이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이다.

≪을사조약≫후 최익현이 지휘한 순창의병의 패보를 듣고 수백 명의 의병을 모아 전라도일대에서 맹활약을 하던 한 의병장은 자기의 부하가 백성의 재물을 약탈한 사실을 알고는 그것을 탄식하던 끝에 부대를 해산하고 산속에 숨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의병장이 백성에 대한 침해를 얼마나 큰 수치로, 죄악으로 받아들였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

3중대장의 비행은 결국 인민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었다.

나는 임강에서 살 때 독립군의 몇몇 대원이 조선에 건너가서 농민들의 소를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돌아와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대원들이 소속된 부대의 지휘관이 우리 집에 왔다가 아버지한테서 호된 추궁을 받고 돌아갔다.

그 당시 독립군이 군자금을 거두려고 관할구역의 조선인거주지역들에 나타나면 지역을 책임진 사람들이 아무 집에서는 돈 얼마, 아무집에서는 쌀 몇 말 하는 식으로 문서를 만들어 부탁에 돌리었다. 주민들은 그 문서에 적혀있는 량만큼 돈이나 식량을 군자금으로 바쳐야 하였다. 가난한 농사군들한테는 이것이 큰 부담이었다.

그러나 독립군들은 그런 사정은 외면하고 어떻게 하나 더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애를 썼으며 저마끔씩 관할구역을 정해 놓고 승벽내기로 그 울타리를 넓히었다. 어떤 독립군들은 다른 무장단성원들이 모연해오는 자금을 중간에서 협박하여 빼앗아가지고 달아나기도 하였다.

크고작은 무장단성원들이 저마끔씩 인민들한테서 경쟁적으로 돈을 긁어들이였다. 그들은 백성들을 순전한 납세자, 돈을 대주고 쌀을 대주고 잠자리를 대주는 시중군들로밖에 보지않았다.

이런 비행은 지난날 봉건사회의 관료배들이 하던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조선의 봉건통치배들은 궁궐에 옥관자를 쓰고 앉아 인민의 피땀을 짜낼 새로운 세금법만 만들어내면서 백성들의 주머니를 끊임없이 털어갔다.

한때 봉건정부는 경복궁을 짓는데 막대한 돈을 써버리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문세(통행서)라는 것까지 생각해냈다. 그렇게 긁어간 돈으로 대학이라도 하나 세우고 공장이라도 지어놓았다면 후손들한테서 고맙다는 말이라도 들었을 것이다.

화성의숙의 진보적 청년들은 중대장이라는 사람이 그 지경으로 타락하였으니 독립군도 이제는 망해가는 모양이라고 개탄하였다. 그러나 그저 비난하고 개탄할 뿐이었다. 지금과 같이 밝은 세상이면 군민이 여론을 모아가지고 법에 제기한다든가 동지재판 같은 것을 하여 버릇을 떼주겠지만 법도 없고 군률도 무른 당시로서는 별도리가 없었다.

정의부에 민사를 담당한 기구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간판뿐으로서 군자금을 제대로 바치지 못하는 백성들이나 데려다가 볼기를 치는 정도이고 중대장과 같은

사람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었다. 그들의 법에는 상층만이 통하는 개구멍이 따로 있었다.

나는 이 사건을 계기로 독립군과 모든 독립운동자들에게 단단히 경종을 울려야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경종을 울리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최창걸은 당장 학생대표들을 선출해서 1중대부터 6중대까지 빠짐없이 돌아다니며 항의를 들이대자고 하였다.

어떤 동무들은 정의부가 발간하는 ≪대동민보≫같은 출판물에 글을 써서 독립군의 관료행동을 폭로하자고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3중대장과 처지가 별반 차이없는 정의부본부나 다른 중대장들, 출판물의 편집성원들이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확신성없는 방법을 가지고 날자를 질질 끌 것이 아니라 독립군 각 중대들에 성토문을 보내자고 하였다. 동무들도 그 방안을 지지하면서 나더러 성토문을 쓰라고 하였다.

그 성토문은 ≪ㅌ · ㄷ≫를 조직한 후 우리가 민족주의자들에게 가한 첫 비판이었다. 처음 써보는 성토문이어서 무엇인가 하고싶은 이야기를 다 담지 못한 것 같았으나 동무들이 좋다고 하기에 김시우에게 주어 정의부 통신원이 오면 전하도록 하였다. 그 후 성토문은 통신원의 손을 거쳐 인차 각 중대들에 전해졌다.

반응도 어지간히 일어났다. 군자금을 결혼식비용으로 써버린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정의부를 비난하는데 대해서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오동진까지도 그 성토문에서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이듬해초에 내가 길림에 가서 공부할 때 그는 내앞에서 그 성토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6중대에 내려갔다가 거기에 모인 중대장, 소대장들과 함께 성토문을 보았다고 한다.

≪그 성토문을 보고 나는 3중대장을 되게 문책하였네. 중대장자리에서 떼던지려고까지 생각했지. 그런 물걸짝들이 독립군망신을 다 시키거든.≫


독립군과 독립군이 사용한 무기

오동진은 독립군상층이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허심하게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수습할 길 없어 분해하고 안타까와하였다.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면서도 독립군의 타락을 막아내지 못하고 그것을 수수방관할 때 오동진이 그 불같은 성미를 어떻게 다잡았는지.

나는 오동진의 말을 듣고 독립군의 부패가 우리와 같은 젊은 세대들의 고민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들의 고민으로도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한장의 성토문으로써 독립군의 정치도덕적 타락을 막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독립군은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조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자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며 대변하는 민족주의군대로서의 독립군의 운명이 다르게는 될 수 없었다.

인민들을 거칠게 대하고 그들에게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들씌우는데서는 화성의숙의 학생들도 독립군과 별로 차이가 없었다. 그들도 모연공작에 동원되면 관할구역을 돌아다니며 경쟁적으로 재물과 량식을 걷어들이었다.

모연에 잘 응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애국심이 없다고

트집을 걸든가 독립군도 몰라본다는 식으로 까박을 붙이면서 하다못해 돼지나 닭 같은 짐승이라도 바치게 하였다.

그들은 학교에서 조밥만 자꾸 해준다느니, 부식물이 어떻다느니 하면서 밥타발까지 하였다. 한번은 어떤 학생이 기숙사식당에서 저녁밥을 먹다가 조밥에 시래기국만 주니 식사질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하면서 트집을 걸던 끝에 식당사감을 하는 황세일과 다투기까지 하였다. 황세일은 사감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하였다. 그런데 식사질이 조금만 떨어져도 학생들은 사감이 제구실을 못한다고 비난하였다.

나는 해방 직후 의주에서 군인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사업하는 황세일을 만나 그와 함께 화성의숙시절을 회상한 적이 있다. 그때 황세일은 웃으면서 자기는 화성의숙시절의 교훈을 생각하여 리에 내려가도 절대로 밥타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는 화성의숙에서 조밥을 타발하는 사람들은 졸업 후 독립군에 돌아가서도 밥타발을 계속할 것이며 그런 사람들의 종말은 필연코 돈이나 권세 밖에 모르는 추악한 인간으로 전락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2년 후에 군관으로 독립군의 중대와 소대들을 지휘하게 된다는데 있었다. 굶어죽을 각오는커녕 조밥을 먹을 각오조차 되어있지 못한 군대한테서 과연 무엇을 더 기대하겠는가.

독립군운동을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운동일반에 대한 실망과 함께 화성의숙의 교육에 대한 환멸은 날이 갈수록 내 마음속에서 점점 더 크게 자라올랐다. 화성의숙은 나의 기대에 만족을 주지 못하였고 나는 화성의숙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화성의숙이 내가 바라는 그런 학교로 될 수 없는 것처럼 나도 화성의숙이 바라는 그런 학생으로 될 수 없었다. 화성의숙에 대한 나의 불만과 나에 대한 화성의숙의 불만은 서로 정비례하였다.

나는 맑스-레닌주의선진사상에 심취되면 될수록 화성의숙의 교육으로부터 멀어져갔고 화성의숙의 교육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헤어나올수 없는 고민의 세계에 빠지였다. 내가 의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나를 거기에 보내준 사람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으로 되고 그들에게 나의 장래를 부탁한 아버지의 뜻을 어기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버지의 장례에 참가하려고 수백리를 달려와 나를 위로해주고 노자를 찔러주며 의숙으로 등을 떠밀어주던 오동진과 의숙에 왔다고 나에게 술까지 부어주던 김시우며, 최동오며, 강제하 선생들의 생각을 하면 참으로 죄송스럽기도 하였다.

그런 사람들과의 의리를 지키자면 내가 불만이 있더라도 화성의숙의 교육에 재미를 붙여야 하였다. 눈을 꾹 감고 2년동안 공부하다가 배치해주는 중대에 가서 곰상곰상 독립군생활을 하면 그 사람들앞에서 체면도 세울 수 있었다. 독립군생활을 한다고 하여 새사조에 대한 연구를 못하거나 ≪ㅌ·ㄷ≫의 터전을 넓히는 작업을 못한다는 법은 없었다.

그러나 그런 체면 때문에 자기가 보수적이라고 규정한 교육과 외교를 하면서 적당히 지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낡은 교육과 타협하고싶지 않았



무관학교의 아침운동모습

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집에 돌아가서 삼촌대신 약방일이나 맡아가지고 가정 살림을 돌볼 것인가, 아니면 심양이나 하얼빈이나 길림과 같은 도회지에 가서 다른 상급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심리적 곡절끝에 나는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길림에 가서 중학교를 다니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내가 화전대신 길림을 내 운명의 다음정거장으로 선택한 것은 이 도시가 만주지방에서 조선의 정치적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길림은 ≪제2상해≫라고 불리우기까지 하였다. 중국관내에서는 상해가 조선혁명가들의 집결처였다.

나는 화전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터치고 보다 광활한 무대에로 나가 ≪ㅌ·ㄷ≫의 결성으로 첫 걸음을 뗀 공산주의운동을 더 높은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벌여보고 싶었다. 이것이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하게 된 기본이유였다.

내가 화성의숙을 다니다가 반년만에 중퇴하고 길림으로 간 것은 내 생애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용단이었다. 두 번째 용단이 있었다면 그것은 남호두회의 후 새 사단을 조직하면서 ≪민생단≫보따리를 불살라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길림에 가서 청년학생들속에 들어갈 용단을 내린 것이 정당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화성의숙을 제때에 떠나지 않고 그 울타리속에서 맴돌았더라면 그 이후 조선혁명을 급속한 앙양에로 승화시킨 모든 공정들이 그만큼 지연되었을 것이다.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길림으로 가겠다고 하자 ≪ㅌ·ㄷ≫성원들은 깜짝 놀랐다. 나는 그들에게 ≪ㅌ·ㄷ≫를 내온 것만큼 이제는 그 조직과 이념을 사방에 펼쳐가야 한다, 화성의숙에 주저앉아서는 아무 일도 못할 것 같다, 이런 학교를 다녔대야 큰 보람도 있을 것 같지 않다, 내가 간 다음 동무들도 기회를 보아 독립군대나 적당한 고장에 자리를 든든히 잡고 ≪ㅌ·ㄷ≫의 줄을 뻗치면서 대중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동무들은 다 조직의 성원들인 것만큼 어디에서 일하든지 조직의 통일적인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몇몇 동무들과는 후날 길림에서 만나자는 약속도 했다.

나는 화성의숙을 중퇴하는 문제를 두고 이미 김시우와도 의논하였다.

≪집에 가서도 의논해보겠지만 이거 뭐 화성의숙에 와서 공부해보니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고…돈은 없지만 길림에 가서 중학교에라도 다니고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런 고백을 했더니 총관은 몹시 섭섭해하였다. 그러면서도 의숙을 그만두겠다는데 대하여서는 막지 않았다.

≪자네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 친구들과 의논하여 주선해주겠네. 사람마다 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달구지가 있는 법이야. 화성의숙의 달구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네의 달구지를 타고 가게나.≫

내가 화성의숙에 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환영해준 김시우가 그처럼 대범하게 이해하여주는 바람에 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총관은 최동오숙장이 섭섭해하지 않도록 중퇴하더라도 인사나 잘하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만나고 길림으로 갈 때에는 꼭 자기한테 들리라고 하였다.

김시우를 납득시키는 일은 예상회로 순탄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동오숙장과의 작별은 참기 어려운 괴로움을 동반하였다. 처음에는 선생이 노여움을 타면서 한참동안 나에게 섭섭한 말을 하였다. 사내가 한번 뜻을 품었으면 그만이지 중퇴를 하다니 될말인가, 의숙의 교육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중퇴하겠다는데 이 어수선한 세월에 만사람의 구미를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어디

있는가고 하면서 막 야단을 하였다. 그러다가 나를 등지고 창가를 향해 돌아섰다.

선생은 그 창가에서 눈내리는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성주와 같은 수재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학교라면 나도 이 의숙에서 물러가겠네.≫

선생이 폭탄처럼 내던지는 말에 나는 몸둘 바를 모르고 함구무언으로 서있었다. 학교의 교육이 어떻다고 정면에서 운운한 내자신의 처사가 숙장선생을 위해서 너무 가혹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최동오선생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옆에 가까이 다가와 어깨우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최동오

≪조선을 독립시키는 주의라면 나는 민족주의건, 공산주의건 상관하지 않겠네. 아무튼 꼭 성공하게.≫

선생은 운동장에 나와서도 퍼그나 오랜 시간 나의 생활에 교훈으로 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었다. 선생의 머리와 어깨우에 눈이 내려와 자꾸 쌓이었다.

나는 그 후 폭설속에서 나를 바래주던 숙장선생의 모습을 회상할 때마다 그날 선생의 어깨우에 쌓인 눈을 털어드리지 못한 실수를 두고두고 후회하였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나 나와 최동오선생은 평양에서 감격적인 해후를 하였다. 나는 수상이고 선생은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간부였지만 그 상봉은 역시 어쩔 수 없는 스승과 제자의 상봉이었다. 화전에서 추켜들었던 ≪ㅌ·ㄷ≫의 이념은 전쟁의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한 이 땅에서 사회주의로 개화하고 있었다.

≪결국 그때 성주수상이 정당했습니다!≫

선생이 웃으면서 나의 아명을 부르는 바람에 나의 추억은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눈내리던 화성의숙의 운동장으로 날아갔다.

곡절많은 정치생활의 파동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로스승은 아무런 설명도 주해도 붙어있지 않는 이 짤막한 말로 30년 전에 있었던 나와의 대화를 결속지었다.

내가 화성의숙을 중퇴한데 대해서는 우리 어머니도 지지해주었다. 처음에 어머니는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심각해지였다. 그러나 내가 중퇴사유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마음을 놓는 것이였다.

≪네가 학비 때문에 자꾸 걱정을 하는데 사람이 돈 때문에 주접이 들면 아무 일도 못한다. 학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댈 테니 너는 그저 품었던 뜻을 꼭 이루어라. 이왕 새 길을 가려고 결심한 바에는 걸음을 걸어도 큼직하게 걸어라.≫

어머니의 말씀은 새로운 포부를 품고 무송에 돌아온 나를 크게 고무해주었다.

무송에 와보니 내가 소학교에 다닐 때부터 알고 있던 많은 동무들이 살림이 구차하여 상급학교에 가지 못하고 가정에 파묻혀 갈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깨우쳐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ㅌ·ㄷ≫를 방금 조직하고 그 뿌리를 사방에 뻗쳐가려고 결심한 뒤여서 나도 무슨 일이든지 하지 않고서는 못견딜 심정이



무송에서 살던
소남문거리의 집



무송시가

였다.

나는 소년들을 선진사상으로 교양하고 혁명의 길로 이끌기 위하여 무송시내와 그 일대의 애국적인 소년들로 새날소년동맹을 조직하였다. 그때가 1926년 12월 15일이었다. 새날소년동맹은 말그대로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광복할 새날을 위하여, 낡은 사회를 짓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할 광명한 새날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산주의적 소년조직이였다.

새날소년동맹의 결성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의 활동규모를 넓혀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이 동맹이 내세운 구호도 대단하였다. 그때 우리는 조선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자는 구호를 내세웠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선진사상을 학습하고 그것을 광범한 군중속에 널리 해설선전할 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당면하게 수행해야 할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나는 새날소년동맹의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원칙과 사업체계, 동맹원들의 생활규범을 규정해주고 길림으로 떠날 때까지 그들의 동맹생활을 지도해주었다.

1926년 12월 26일에는 ≪ㅌ·ㄷ≫와 새날소년동맹을 조직한 경험에 토대하여 어머니를 도와 반일부녀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혁명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갔다. 그때 어머니는 무송현성안은 물론, 멀리 주변농촌의 넓은 지역에까지 다니며 도처에 야학을 내오고 조선여성들에게 우리 나라 글을 배워주고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있었다.

무송에서 얼마쯤 머무르다가 길림으로 들어갈 때 나는 약속대로 화전에 있는 김시우를 찾아갔다.

김시우는 김사헌선생이 우리 아버지하고 친한 분이라고 하면서 그의 앞으로 편지를 써주었다. 내가 가면 학교에 입학시켜달라는 소개신이였다. 그것이 김시우와의 마지막상면이였다.

김시우는 내가 잊지 못하는 사람들가운데서도 가장 인상깊은 한 사람이다.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다. 대중계몽과 후대교육으로부터 무기구입, 자금조달, 국내공작원들의 길안내, 비밀문건과 비밀자료들의 전달, 무장단체들의 통합과 행동통일을 위한 사업에 이르기까지 그가 관계하지 않은 분야란 거의 없다.

그는 아버지의 일을 잘 도와주었을 뿐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성심성의로 뒤받침해주었다. 우리가 ≪ㅌ · ㄷ≫를 뭇던 날 밖에서 망을 봐주며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도 김시우였다.

김시우는 나와 헤어진 후에도 영풍정미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독립군에 식량을 대주고 조선인학생들에 대한 후원을 열심히 하였다. 중국에서 국내전쟁을 할 때에는 혁명후원회 위원장으로 화전에서 일본군대와 장개석군대의 침해로부터 조선사람들의 생명재산을 지키느라고 모진 고생을 하였다.


김시우

김시우가 조국으로 돌아온 것은 1958년이었다. 한평생 민족을 위해 그처럼 많은 일을 하고서도 그는 그것을 한번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러다나니 나도 그의 행처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전천에서 중병이 들어 임종의 날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때에야 비로소 자식들앞에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나와의 연고관계를 이야기하였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런 깊은 인연이 있으면 왜 장군님을 한번도 찾아가지 않았는가, 장군님이 아버지를 만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장군님이 지금 우리 전천땅에와서 현지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아버지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형편이면 우리 집에 모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고 들이댔다.

그때 내가 정말 전천군에서 현지지도를 하고 있었다.

김시우는 아들의 말을 듣고 도리어 그를 꾸짖었다.

≪내가 죽기 전에 옛날일을 이야기하는건 너희들이 무슨 덕을 입으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우리 집 내력이 여사여사하니 너희들도 장군님을 잘 모시고 받들라는 거다. 국사에 바쁘신 장군님의 걸음을 한시라도 지체시켜서야 안되지.≫

그 노인 성미가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고정하였다. 아들의 말대로 했더라면 그도 나를 만나고 나도 그를 만났을 것인데 정말 아쉽게 되었다. 나로서는 평생 풀지 못할 한이다.


김시우의 집

나는 화성의숙시절을 생각하고 ≪ㅌ · ㄷ≫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김시우를 회고하군 한다. 김시우를 떼놓고서는 나의 화전시절에 대하여 말할 수 없다. 우리가 화전에서 새 사조를 보급하고 ≪ㅌ · ㄷ≫를 결성하던 잊지 못할 나날에 나를 도와 숨은 노력을 제일 많이 해준 사람이 바로 김시우였다.

≪ㅌ · ㄷ≫가 불패의 대오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김시우와 같은 성실한 인민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이런 인민의 기대를 가슴깊이 새기며 커다란 포부와 결심을 안고 길림으로 향하였다.

5. 독립군의 여걸 이관린


독립군의 여걸 이관린

화성의숙을 중퇴하고 무송에 돌아와보니 이전처럼 집으로 찾아오는 독립운동자들이 많지 않았다.

밤낮으로 인적이 그치지 않던 지난날의 집안풍경에 대비하면 너무나도 적막하고 쓸쓸하였다.

내가 무송에서 받은 인상들가운데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이관린의 모습이었다. 이관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오동진이 그를 우리 집에 보내면서 관린은 김선생덕을 많이 입었는데 그 연고를 생각해서라도 무송에 가서 성주어머니를 잘 도와드리라고 당부하였다는 것이다. 이관린은 남만여자교육연합회 사업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를 동무해주고 있었다.

원래 이관린은 성격이 담차면서도 낙천적인 여자였다. 문무를 겸비한 여자로서 이관린만큼 인물이 잘나고 기상이 도도하고 대담무쌍한 여걸은 당시 조선에 없었을 것이다.

봉건이 심해서 여자들이 바깥출입을 해도 얼굴마저 가리우고 다니던 그때 남복차림으로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이관린을 보면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딴세상사람이라도 구경하듯이 희한해서 쳐다보았다.

그런데 며칠 지내면서 보니 이관린은 이전보다 별로 생기가 덜한 것 같았다.

내가 화성의숙을 그만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몹시 놀라는 것이었다. 생각이 있어도 마음대로 가지 못해 다들 안달아하는 군관학교를 단념해버렸으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숙을 중퇴하게 된 이유와 전말을 듣고서는 용단을 잘 내렸다고 하면서 길림으로 가려는 나의 결심을 지지해주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쓸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민족주의계열의 학교를 부정하고 사상적으로 결별해버린 나의 행동이 그에게 충격을 준 모양이었다. 감수성이 예민한 이관린은 분명 그때 내 생활에서 일어난 변화를 목격하면서 독립군의 말로, 민족주의말로를 더 심각하게 느낀 것 같았다.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아도 그는 이전보다 많이 달라졌는데 요새는 더욱더 말수더구가 적어지고 조용해졌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그 나이의 미혼여성들에게서 흔히 보게 되는 일종의 고민이 아니겠는가고도 생각하였다. 이관린의 그때 나이가 28살이었다. 14살이나 15살만 되어도 머리를 쪽지고 시집을 보내는 조혼의 시대였으므로 28살이라고 하면 다들 쉬서 못쓰겠다고 고개를 내저을 때였다. 이관린과 같이 혼기를 놓쳐버린 노처녀들이 일생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일이 자주 되풀이되므로 나는 어느 날 그에게 그사이 왜 그렇게 얼굴이 축가고 우울해졌는가고 물었다.

이관린은 한숨을 쉬면서 자꾸 나이는 드는데 만사가 신통치 않아서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성주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하루에 100리, 200리를 걸으면서도 힘든 줄을 몰랐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하나 해도 성수가 나지 않고 몸에 차고 다니는 권총에도 녹이 쓸 지경이니 어데다 마음을 의탁할 데가 없고 야단이 아니냐, 독립군이 아무래도 대사를 치르지 못할 것 같애, 지금 독립군의 형세가 말이 아니야, 꼭대기에 있는 영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틀만 차리면서 상발(출근)도 하지 않고 싸움깨나 할만한 장정들은 집살림에 재미를 붙이고 총각들은 여자들의 분내나 맡으면서 돌아가고 있지,… 며칠전에는 날파람있던 싸움군총각이 장가를 들어가지고 독립군에서 나와 간도쪽으로 떠나가버렸구나, 모두들 눈치를 보면서 하나둘씩 꼬리를 사리는 판이야,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는거야 어떻게 하겠나, 그렇지만 장가를 간다고 총까지 벗어던지면 조선독립은 누가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도 체면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하였다.

나는 비로소 그의 고민이 이해되고 울분이 이해되었다. 처녀의 몸으로 시집도 안가고 독립운동을 위해 애를 쓰는데 멀쩡한 사내라는 것들이 총을 벗어던지고 안식처를 찾아 달아나는 판이니 그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글공부를 했다는 처녀들이 개화바람이 나서 신여성행세를 하며 돌아갈 때 이관린은 육혈포를 차고 압록강을 넘나들면서 왜놈군경들과 격전을 벌이었다.

여자가 남복에 권총을 차고 직업적인 군인이 되어 외적과의 싸움에 나선 실례는 우리 나라 역사에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글에서 제목을 특별히 따로 설정하여 이관린의 생애를 더듬어보는 것도 이 점을 중시한데 있다. 남존여비의 인습이 뿌리깊이 남아있던 우리 나라에서 여자들이 권총을 차고 싸움마당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외적에 대한 우리 나라 여성들의 지난날의 저항방법이 시대마다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저항들이 많은 경우 봉건유교적인 정절관에 기초한 소극적인 형태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외적이 침노하여 이 나라 인민들을 도륙하고 괴롭힐 때마다 여성들은 몸을 더럽히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깊은 산중이나 절간 같은 데로 피신해버리군 하였다. 미처 피신하지 못한 여성들은 자결로써 놈들에게 항거하였다. 임진왜란 때 나라에 등록된 렬녀의 수가 충신의 수보다 30배 이상이나 더 많았다고 하니 이 나라 여성들의 절개가 얼마나 강했는가 하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최익현이 대마도에 가서 단식으로 순국했을 때 그의 부인은 3년상을 마치고 자결로써 남편과 같은 길을 걸었다고 한다.

인륜의 도리로 볼 때에는 그것을 나라에는 충성하고 남편을 위해서는 절개를 지키는 최대의 도리라고 응당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모두가 죽음만을 택한다면 원쑤는 누가 치고 이 나라는 누가 지켜주겠는가 하는 것이다.

나라가 근대화되면서 우리 여성들의 사고방식과 인생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피신, 자결의 소극적인 방법으로 적들에게 저항하던 이 나라의 여성들이 남성들과 함께 군경들의 총검앞에 가슴을 내대고 반일시위에 떨쳐나섰으며 적의 관공서에 폭탄을 던지었다.

그러나 손에 총을 잡고 여성독립군으로 이국땅에서 10년 유여의 세월을 무력항

쟁에 참가한 여자는 이관린밖에 없을 것이다.

이관린은 원래 인물이 잘나서 어데 가나 꽁무니를 따라다니는 남자들을 떼버리느라고 애를 먹던 여자였다. 용모나 학식이나 가정환경을 보면 학교에 가서 교원도 할 수 있고 좋은 남편을 만나 남부럽지 않게 호강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한 몸을 초개와 같이 독립운동에 바치였다.

그의 아버지는 삭주에서 여러 정보의 땅과 산림과 초가이기는 하나 10칸이나 되는 집을 가지고 자작농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중산층이었다. 그는 이관린이 12살 나던 해에 상처를 하여 2년 후에 재취를 한다는 것이 16살되는 처녀를 데려왔다.

이관린은 자기보다 겨우 2살밖에 더 먹지 않은 여자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다. 게다가 아버지가 봉건이 심하여 딸이 15살이나 되도록 학교에 보낼 생각은 하지 않고 적당한 혼처를 물색하여 시집보낼 궁리만 하고 있었다.

남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부러워 늘 공부를 시켜달라고 떼를 쓰던 이관린은 아버지의 처사에 불만을 느끼고 15살 때에 집을 뛰쳐나왔다.

그는 아버지가 어디로 간 사이에 슬그머니 압록강가에 나가 얼음구멍앞에 옷과 신발을 벗어놓고 그 길로 의주에 갔다. 거기서 그는 먼 친척벌되는 사람의 도움으로 양실학교에 입학하였다. 반년쯤 배포유하게 공부를 하다가 가을이 다된 때에야 그는 아버지에게 학비를 보내라는 편지를 부치었다.

딸이 강물에 빠져죽은 줄로만 알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그의 아버지는 편지를 받고 너무도 기뻐 곧 의주땅으로 달려갔다. 그는 딸에게 이제는 네가 공부하는 것을 막지 않겠으니 요구되는 것이 있으면 아무 때나 편지하라고 하였다.

이관린은 그때부터 학비걱정을 모르고 공부에 열중하였다. 성적도 우수하였으므로 학교에서는 그를 평양여자고등보통학교 기예과에 추천하였다.

이렇게 한해두해 공부하는 과정에 그는 세상이치도 깨닫게 되고 우리 아버지의 보증으로 조선국민회에도 들게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당당한 혁명조직의 성원으로 지하활동에 참가하였다. 그가 우리 아버지한테서 ≪지원≫의 뜻을 배운 것이 바로 이때였다. 이관린은 평양여자고보와 숭실중학교, 숭의녀학교, 광성고보의 학생들 속에서 동지들을 흡수하기 위한 공작을 은밀히 하였다.

어떤 날은 그가 원족삼아 만경대에도 놀러 왔다. 우리 집에 와서는 아버지와 사업토의도 하고 어머니의 일손도 도와주었다.

교통조건이 불리한 때였지만 경치가 좋다고 봄이면 숭실중학교나 광성고보 같은 데서 많은 학생들이 점심밥을 싸가지고 만경대로 놀러오군 하였다.

평양에서 3.1인민봉기가 폭발하자 그는 시위대열의 선두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시위가 좌절되면 기숙사에 들어가 잠깐씩 숨을 돌리고는 다시 만세를 부르면서 학우들을 고무하였다. 봉기가 실패하고 시위주모자들에 대한 검거선풍이 일어나자 그는 고향에 돌아가 직업적인 독립운동의 길에 나섰다. 망국의 운명을 끝장내기 전에는 학창에서 공부나 하고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결심이 선 것이다. 초기에는 오동진이 조직한 광제청년단에서 총무로 활동하였다.

이관린은 만주로 건너가기 전에 벌써 고향에서 일본경관 두놈을 권총으로 쏴죽이고 압록강얼음구멍에 처넣어 세상을 놀래운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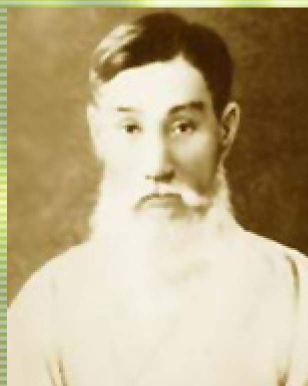

3.1인민봉기 당시 반일시위에 나섰던 여성들

도 있었다.

독립군에 입대한 후 그가 국내에 자금모연공작을 나왔다가 경찰에게 걸려들어 조사를 당한 적이 있었다. 이관린이 이고가는 보퉁이속에 권총이 들어있었으므로 정황은 아주 위급하였다.

경찰은 그 보따리를 자꾸 풀라고 하였다. 이관린은 보따리를 푸는척하다가 재빨리 권총을 뽑아들고 경찰을 수림속에 끌고들어가서 처단해버렸다.

국내에 모연공작을 자주 다니다나니 그는 노상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 언제인가 그는 오동진이 주는 임무를 받고 평안남도 일대에 나가 모연공작을 한 일이 있었다. 모연을 마치고 국내조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본영으로 돌아오던 그는 삼도만에서 하루밤 류숙하던 중 근방에 있는 다른 무장단성원들의 협박을 받았다. 그때 두 사람의 수중에는 몇 백원에 달하는 돈이 있었다. 그자들은 권총을 꺼내들고 공포를 쏘아대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두 사람을 위협하였다. 동행하던 남자는 그 위협에 겁을 먹고 간수하고 있던 돈을 고스란히 내놓았다. 그러나 이관린은 한푼의 돈도 내놓지 않고 오히려 호령질로 그들을 쫓아버리었다.


양기탁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에는 유격대에 여장군들이 많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여성이 조선에는 없었다. 고보시절에 수놓이나 재봉 같은 것만 배우던 책상물림의 여자인데 그처럼 용감하고 담력이 있었다. 한때 ≪동아일보≫나 ≪조선일보≫같은 신문들이 이관린을 두고 굉장히 떠들었다.

이관린은 또한 절개가 굳고 대가 강한 여자였다.

3.1인민봉기 후 남만에서는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단체들이 저마다 다른 파를 무시하고 자기 파를 내세우면서 본위주의를 하기 때문에 통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통합을 위한 논의는 매번 무의미한 입씨름과 마찰로 공회전을 하였다.

아버지는 통합운동이 직면하고 있은 이런 난관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업에 독립운동의 원로들을 인입하려고 결심하였는데 그 첫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이 양기탁이었다. 적의 감시속에 있는 양기탁을 서울로부터 남만주까지 안내해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심중히 생각하던 끝에 그 적임자로 이관린을 선정하고 양기탁에게 보내는 편지를 주어 그를 서울로 파견하였다.

양기탁은 민족주의자들속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평양 한학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부터 애국적인 신문활동과 교육운동으로 대중속에 반일독립정신을 배양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었다. 양기탁이라면 조선에서 처음으로 되는 ≪한영사전≫을 편찬하고 일본에 대한 국채보상운동을 지도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그는 ≪105사건≫으로 감옥살이도 여러 해 하였으며 신민회와 상해임시정부(국무위원), 고려혁명당(위원장)조직에도 관계하였다. 이 사람이 오동진과 함께 정의부도 조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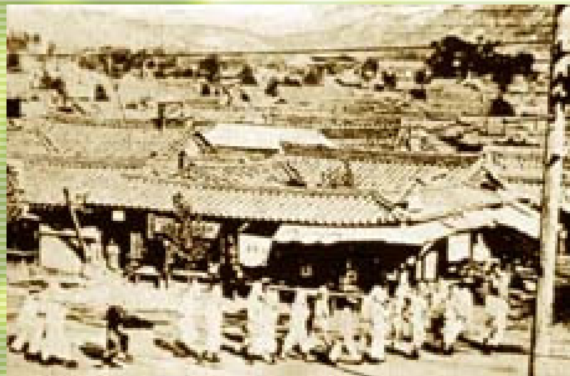
이런 경력으로 독립운동자들은 소속에 관계없이 그를 존경하였다.

이관린은 서울에 나갔다가 형사들에게 붙잡혀 종로경찰서 구류장에 갇히었다. 적들은 그에게 매일같이 악착한 고문을 들이댔다. 코에 고추가루물을 부어넣기도 하고 참대침으로 손톱눈을 찌르기도 하고 두 팔을 뒤로 제껴 천정에 매달아놓기도 하였다. 어떤 날에는 그를 마루바닥에 눕혀놓고 얼굴에 널판자를 올려놓은 다음 그것을 디디고 서서 발을 탕탕 구르기도 하였는데 고문할 때마다 중국에서 왔는가, 러

시아에서 왔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다니는가 하면서 차고 때리고 짓밟고 하였다. 나중에는 두다리에 매운 재떡을 붙이고 석유를 친 다음 불을 달아놓으면서 태워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래도 이관린은 굴복하지 않고 나는 직업이 없어서 다니는 여자다, 어느 부자집 침모나 보모를 하려고 서울에 왔는데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붙잡아다놓구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가고 대들었다.

이관린은 하도 뻗대자 한달만에 놈들은 그를 놓아주었다.



끌려가는 105인 사건 관련자

그는 운신조차 할 수 없는 몸이였으나 기어이 양기탁을 데리고 흥경으로 들어갔다.

그때에 받은 그 고문의 후탈로 이관린은 흥경에 도착하자마자 병상에 매인 몸이 되었다. 동료들이 그를 간호하다 못해 차도가 보이지 않아 한 늙은 의사를 데려다가 진찰을 시키었다. 그런데 맥을 짚어본 의사는 태맥이라고 엉터리없는 진단을 내리었다. 이름난 미인한테 수작을 걸어보고 싶었던 늙은 의사의 실없는 야유였는지도 모른다.

이관린이 하도 어이가 없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고 들자 의사는 임신을 했다고 하였다.

의사가 말을 끝내기 바쁘게 이관린은 베고 있던 목침을 들어 그에게 냅다 던지면서 이렇게 욕설을 퍼부었다.

≪이 자식, 너 젊은 여자가 시집도 안가구 독립운동을 하자고 나서서 총잡고 싸우는데 무엇이 배가 아파서 조롱하느냐, 나를 헐뜯어서 얻어먹을게 무엇이냐, 다시한번 말해봐라.≫

혼쌀이 난 의사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달아나버렸다.

이관린이 이런 기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그에게 중요한 과업을 많이 주군 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시키는 일이라면 이관린은 무엇이든지 다하였다. 평양에 가라면 평양에 가고 서울에 다녀오라면 서울에 다녀왔다. 급한 연락을 가라면 연락을 가고 여성계몽을 하라면 여성계몽을 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국내공작을 할 때면 이관린은 그 수행원으로 따라다니면서 아버지의 신변호위도 하고 사업도 보좌해주었다. 그가 다닌 노정은 실로 수만리에 달한다. 의주, 삭주, 초산, 강계, 벽동, 회령 같은 북부국경일대와 간도지방은 물론, 순안, 강동, 은률, 재령, 해주를 비롯한 서선지구와 멀리 경상동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곳이란 거의 없었다.

이관린은 그 당시 우리 나라에서 처녀의 몸으로 백두산을 넘나든 첫 여성이었다.

일생에서 가장 열렬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그 황금같은 청춘시절에 그는 이처럼 타향의 이슬비를 맞으면서 여자로서는 힘에 부친 군인생활을 하였다.

애국의 일념밑에 몸에 권총을 두 개씩 차고 소란스러운 세상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활약하던 그가 기울어져가는 독립운동을 두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가슴이 아팠다.

내가 길림으로 갈 준비를 하기 시작하자 그는 자기도 나처럼 장차 길림에 가서 무

엇인가 좀 해보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관린은 그 후 그 결심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였다.

나는 길림에 가서 공부할 때 손정도네 집에서 두세 번 그를 만나보았다. 그 때 이관린이 시국이야기를 해달라고 하기에 나는 우리 나라 혁명의 전도에 대해 장시간 이야기해주었다. 그는 우리가 하는 식이 마음에 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정의부 지붕밑에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관린은 공산주의를 좋다고 하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민족주의좌파였다.

나는 민족주의운동의 조락을 두고 번민하는 이관린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민족주의진영에는 이관린과 같이 사생활을 버리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애국지사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옳은 지도자가 없다나니 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ㅌ·ㄷ≫가 방금 첫 걸음을 뗀 때여서 그는 우리의 운동선에도 합류하지 못하였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처럼 믿어주고 사랑을 기울여 키워온 이관린이 그 어디에도 마음을 의탁하지 못하고 번민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에 조선의 모든 애국역량을 하나로 결속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참다운 지도세력이 없는 것을 통탄하였다.

이관린의 고민은 나로 하여금 우리 새 세대들이 혁명을 위해 더 분발해야겠다는 충동을 느끼게 하였다. 이관린처럼 올바른 방향타가 없어 모대기는 애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한시바삐 만사람을 공감시킬 수 있는 새 길을 개척하여 나라의 독립을 지향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같이 하나의 흐름을 타고 싸워나갈 수 있는 혁명의 새 시대를 마련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길림으로 갈 준비를 다그쳤다.

길림에서 마지막으로 이관린을 본 후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우리는 줄곧 그를 찾았다.

우리가 동만에서 유격대를 무어가지고 활동할 때 그 대오에는 20대의 여자들이 많았다. 남성들과 꼭같은 기개와 투지를 가지고 민족해방사의 새 장을 펼쳐나가는 그들의 용감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독립군의 여걸 이관린을 생각하였다. 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참으로 궁금하고 안타까왔다. 여러 경로를 통해 수소문을 해보았으나 그의 행방과 운명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길이 없었다.

조국이 해방된 후 그의 고향 삭주에도 들려 찾아보았지만 거기에도 이관린은 없었다.

우리가 그의 행방을 처음으로 알아낸 것은 1970년대초였다. 우리 당 역사연구소 동무들이 여러 모로 탐문하던 끝에 그가 중국땅에서 아들딸 남매를 키우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관린과 함께 싸우던 사람들가운데서도 공영, 박진영과 같이 ≪ㅌ·ㄷ≫의 영향으로 공산주의물을 먹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갔다. 그들은 모두 혁명가답게 최후도 값있고 장렬하게 마치였다.

그러나 이관린은 자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옳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탓으로 하여 투쟁을 중도반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도 오동진이 살아있을 때는 관전회의에서 선포된 무산혁명방침을 실현한다고 하면서 속도 많이 태우고 걸음도 많이 걸었다. 내가 길림으로 떠난 그 해(1927년) 여름에 이관린은 장철호를 비롯한 독립군대원들과 함께 내도산에 가서 풀막을 치고 감자농사를 지으면서 군중계몽도 하였다. 오동진은 아마 내도산마을을 개척



반일구국에 나선 민족주의 군대 의병

하여 독립군의 활동기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오동진이 붙잡힌 다음에는 이런 활동도 다 흐지부지되었다. 민족주의좌파세력가운데서 공산주의조류쪽으로 제일 크게 기울어진 사람이 오동진이었는데 이런 기둥이 잡혀가다나니 관전회의방침을 실현하겠다고 몸을 내대는 재목도 없었다. 정의부안에 공산주의를 동조하는 인물들이 더러 있기는 하였으나 맥을 추지 못하였다.

3부의 통합으로 국민부가 나온 후에는 민족주의상층도 급격히 반동화되어 공산주의라는 말조차 번지기 어렵게 되었다.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공산주의를 동조하는 민족주의좌파인물들에 대하여 일제경찰에 밀고하거나 암살해버리는 반역행위도 서슴지 않고 감행하였다.

이관린도 국민부테러분자들의 부단한 추격과 협박을 받으며 피신처를 찾아 헤매게 되었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느 중국사람에게 시집을 가서 가정에 파묻히고 말았다. 상하사불급이라는 말과 같이 가정을 이루는 것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

거치른 만주땅에 새별처럼 나타나 세상의 이목을 끌며 원쑤들을 전율케 하던 ≪독립군의 꽃≫, ≪만록총중 일점홍≫은 이렇게 속절없이 시들어버렸다.

그는 비유해 말하면 민족주의라는 목선을 타고 먼 항행을 떠난 독립운동자였다. 고난과 시련이 끝없이 겹쳐드는 반일독립항쟁의 그 풍랑사나운 망망대해를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배였다. 그런 쪽배로는 도저히 조국광복이라는 목적지에까지 갈 수 없었다.

숱한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항행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기슭에까지 가닿지 못하고 중도에서 주저앉아버리었다.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서는 밥벌이나 하고 우국지사흉내를 내면서 편안하게 살아갈 구멍수만 찾아다니었다. 지난날 민족을 ≪대표≫한다고 하던 상층들가운데는 백고약을 만드는 소시민이 되거나 깊은 산속에 도피하여 중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었다.

변절은 안하고 가정에 파묻히거나 생업에 몰두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였다. 이관린과 함께 민족주의항로를 헤쳐나가던 독립운동자들가운데는 조국과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의 앞잡이로 굴러떨어진 자들도 있었다.

이관린은 우리와 헤어진 다음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이역에서 보내다가 여러 해전에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내가 독립군시절에 자기가 그처럼 따르던 김형직선생의 아들 성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조국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고 한다. 성주가 나라를 영도한다면 만민평등의 사회건설에 대한 김형직선생의 이념이 실현될 것인데 그 현실을 기어이 보고싶었다는 것이었다. 찬바람부는 만주광야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지으며 끝없이 그려보던 나서자란 그 산천에 묻히고싶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관린이 귀국을 결심하기까지에는 여러 해 동안의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다.

그에게는 두 남매와 여러 손자, 손녀들이 있었다. 한번 떠나면 다시 넘어서기 어려운 만리타향에 사랑하는 자식들을 죄다 남겨두고 홀몸이 되어 조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한다는 것은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노인으로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였다.

그러나 이관린은 그 후대들과 영영 갈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조국으로 기어이 돌아가리라는 결심을 내리였다. 이관린과 같이 담력이 큰 여성이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대용단이였다. 그가 한창나이 때 나라를 위해 청춘을 고스란히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런 용단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조국을 위해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피도 흘리면서 온 넋과 육신을 다 바친 사람들만이 조국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심장으로 깨달을 수 있다.

나는 이관린이 이역땅에 자식들을 다 떨궈두고 백발을 날리며 단신으로 조국에 돌아온 것을 보고 그의 불같은 조국애와 고결한 인생관에 탄복하였다.

무송에서 헤어질 때 20대였던 이관린은 그때 80고령의 백발노인으로 내앞에 나타났다. 뭇사람들의 눈길을 끌던 홍안의 아름다운 모습은 더는 찾아볼 길이 없었다.

그렇게도 애를 태우며 찾을 때에는 소식이 감감하던 이관린이 머리에 흰서리를 무겁게 이고 내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반세기이상이나 우리를 갈라놓고 있던 그 무정한 세월을 두고 서글픈 감회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이관린에게 평양시 중심부의 풍치좋은 곳에 살림집을 따로 마련해주고 나이를 고려하여 식모와 의사까지 붙여주었다. 그 집은 처녀시절에 그가 다니던 여고보자리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김정일**조직비서가 이관린의 심정을 헤아려서 그런 곳에 집을 잡아주었다. **김정일**비서는 그 집에 나가서 늙은이의 취미와 기호에 맞게 가구의 위치도 정해주고 조명과 난방상태까지 다 보아주었다.

이관린은 몸이 불편했지만 그 집 앞마당에 터밭을 일구고 강냉이를 심었다. 내가 어린 시절에 강냉이를 무척 좋아했기에 자기 손으로 강냉이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싶다는 것이었다. 반세기가 지난 때였지만 그가 내 식성까지 다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무송에 있을 때에도 여름철에 풋강냉이를 사다가 뒤뜨락에서 내 동생들에게 구워주군 하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젊은 시절이 공적을 생각하여 우리는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 장례도 잘 치루어주고 그의 유해를 애국열사릉에 안장하였다.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구의 그 어느 곳에서 살든지 선조의 무덤이 있고 자기의 태가 묻힌 낯익은 강산으로 찾아오기 마련이며 설사 다른 지점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어느 때인가는 이렇게 만나 정을 나누게 되는 법이다.

제3장



길림시절

선진사상의 탐구
상월선생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결의 시위
안창호의 시국대강연회
3부통합
차광수가 찾은 길
왕청문의 교훈
철창속에서

■ 시기 : 1927.1 ~ 1930.5

1. 선진사상의 탐구


길림시절

나는 집에서 한 달 가량 머무르다가 설까지 쇠고 이듬해 정월중순에 무송을 떠났다. 내가 길림에 도착한 것은 행인들의 왕래가 번잡한 한낮이였다. 길을 물을 때마다 아버지친지들의 주소가 적혀있는 수첩을 꺼내들고 언손을 놀려가며 종이장을 번지는 것이 거치장스러울 것 같아서 나는 미리 내가 찾아야 할 거리와 번지들을 머리속에 다 외워두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대도시의 번창한 풍경은 첫 순간부터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지대에서만 살아온 나를 위압하는상 싶었다.

나는 개찰구를 나선 다음에도 가슴을 치미는 흥분 때문에 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나를 새 생활에로 부르는 신천지의 약동하는 모습을 오래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내가 본 도시의 풍경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거리에 물장사군들이 많은 것이였다. 물의 도시로 이름나 한때는 선창이라고도 불렀다는 고장인데 음료수가 부족하여 저렇게 물장사만 성행해가니 길림이라는 도회지의 생활이 점점 각박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나가는 행인들까지 짜증스럽게 투덜거리였다. 물 한 모금에도 수판알을 튀겨야 한다는 도시생활을 중압이 첫 걸음부터 심신에 육박해왔지만 나는 그 중압에 저항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쭉 펴고 활개를 치며 도심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갔다.

길림역에서 북산방향으로 뻗은 차루가를 따라 얼마쯤 걸어가니 도시를 성내와 성외로 구분하는 성벽이 보이고 조양문이라는 현판이 달려있는 성문이 보이었다. 조양문 가까이에는 신개문이라는 성문이 있었다. 길림에는 조양문과 신개문외에도 파호문, 임강문, 복수문, 덕승문, 북극문을 비롯하여 모두 10개의 성문이 있었는데 그 매 성문을 장작상군대가 지키고 있었다. 풍화작용으로 군데군데 허물어진 길림의 고색창연한 성벽은 이 도시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은 성시라는 느낌을 주었다.

길림은 처음 와보는 생소한 고장이였으나 별로 낯이 설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와보고싶던 곳이고 아버지의 친구들이 많은 곳이여서 그랬는지 모른다. 나의 수첩에는 내가 찾아가 인사를 드려야 할 아버지의 친구들과 친지들의 주소가 십여 개나 적혀있었다. 오동진, 장철호, 손정도, 김사헌, 현묵관(현익철), 고원암, 박기백, 황백하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길림에 있는 아버지의 친구들이였으며 내가 만나보아야 할 사람들이였다.

나는 의례방문의 첫 순서로 오동진을 선정하고 차루가와 상부가사이에 있는 그

의 집부터 찾아갔다. 사실 그때 나의 마음은 은근히 긴장되어있었다. 아버지의 친구들이 모처럼 주선해준 화성의숙을 중퇴한 것 때문에 오사령이 못마땅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오동진은 이전과 다름없이 나를 반갑게 대해주었다. 내가 화성의숙을 그만두고 길림으로 온 사연을 말했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심중한 표정으로 머리만 끄덕이었다.

≪소문도 없이 길림에 불쑥 나타난 너를 보니 너의 아버지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아버지도 숭실중학교를 그렇게 갑자기 중퇴하셨더랬지. 나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여간 아쉬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퍽 이후에는 아버지가 결심을 옳게 하셨다고 생각하였다. 아무튼 여섯 달만에 의숙을 포기하고 길림으로 온 그 결단성이 놀랍다. 길림이 이상에 맞는 고장이라면 여기서 너의 우물을 파거라.≫

나의 길림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날 오동진이 한 말은 이것이 전부였다. 역시 오동진다운 활달한 사고방식이라는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내가 길림에 와서 공부하게 된 바에는 이번 걸음에 어머니와 동생까지 데리고 솔가이주하여 여기다 살림을 폈걸 그랬다고 하면서 서운해하였다. 아버지의 장례식에 왔을 때에도 오동진은 우리 어머니에게 김선생의 친구들이 많은 길림으로 이사하라고 여러 번 권하였다. 어머니는 그 권고를 고맙게 여기면서도 무송에서 자리를 뜨지 않았다. 양지촌에 산소가 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고 어떻게 길림으로 훌쩍 이사를 가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날 오동진은 자기의 수하에서 서기로 일하는 최일천을 나에게 소개해주었다. 오동진이 서기자랑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최일천에 대해서는 나도 일정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의부내에서 문장가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이날의 상봉을 계기로 하여 나와 최일천은 그 후 특별한 동지적 유대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날 오후 오동진은 나를 삼풍잔에 데리고 가서 독립운동자들에게 인사시키었다. 그 독립운동자들속에 김시우가 소개신을 써주면서 만나라고 하던 김사헌도 있고 정의부 경호대장으로 활동하는 장철호도 있었다. 삼풍잔이란 삼풍여관이라는 뜻이다. 중국에서는 여관을 ≪잔≫이라고도 한다. 김사헌과 장철호 외에도 이 여관에는 이름모를 독립운동자들이 많이 와있었다.

삼풍여관은 태풍합정미소와 함께 길림에서 독립운동자들이 숙박소 겸 연락장소로 이용하는 2대거점이었다.

조선에서 들어오는 이주민들도 상품여관을 많이 이용하였다.

이 여관주인은 손정도목사의 동향인이었다. 그는 평안남도 증산에서 살다가 손목사의 권유로 길림에 들어와 삼풍여관을 운영하였다. 간판은 여관이지만 기숙사나 공회당과 같은 인상을 더 주는 그런 집이었다.

삼풍여관에서 일본영사관까지의 거리가 100미터가량밖에 되지 않았다. 길림지방 정탐활동의 총본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영사관의 문전이나 다름없는 여관에 밀정들과 경찰들이 그처럼 촉수를 늘이고 찾지 못해 애를 쓰는 반일독립운동자들이 무시로 찾아드는 것은 재미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독립운동자들은 ≪등잔밑이 어둡다.≫고 하면서 그 여관에 뻔질나게 드나들었다. 이상한 일이지만 실지로 삼풍여관에서 애국자들이 붙잡혀가는 불상사는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조직들을 내온 다음에는 이 여관을 자주 이용하였다.

김사헌은 김시우의 소개신을 보고나서 나에게 자



1930년대 초엽의 길림역

기가 잘 알고 있은 김강이란 조선사람이 길림육문중학교에서 교원을 하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고 물었다. 시내에 신흥사회계에서 세운 사립학교인데 길림에서는 그 중 경향성이 좋다는 것이었다.

길림육문중학교가 경향성이 좋은 학교라는 것은 사회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것은 ≪길장일보≫가 이 학교에 대한 보도를 여러 번 하였기 때문이였다. ≪길장일보≫는 벌써 1921년에 육문중학교를 경영은 참담하나 성적이 매우 훌륭하여 사회 각계의 찬조를 받는 학교라고 소개하였다.

자금문제와 교장의 직권남용문제를 둘러싼 분쟁으로 육문중학교에서는 교장이 자주 교체되였는데 내가 길림에 도착한 그 당시에는 남경금릉대학출신인 장음헌을 대신하여 이광한이 교장으로 부임된 지 얼마 안된다고 하였다.

교장을 네 번이나 갈아치운 것만 보아도 육문중학교가 정의와 법도를 얼마나 중시하는 학원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육문중학교의 이 혁신적이 교풍이 나의 마음을 끌어당기였다.

김사헌은 다음날 나를 육문중학교의 김강선생한테 소개해주었다. 김강은 영어를 잘하였다.

나는 그의 안내로 이광한교장을 만났다. 이광한은 중국민족주의좌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은래총리의 중학시절동창이였고 어려서부터 주총리의 영향을 받은 양심적인 지식인이였다. 내가 주총리과 이광한교장의 연고관계를 알게된 것은 수십년의 세월이 지난 뒤였다. 언젠가 나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주은래총리를 만나 청년시절을 회고하면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중국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이광한교장의 이름을 들었다. 주총리는 그 말을 듣자 여간만 반가와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천진에서 남개대학부속중학교에 다닐 때 그와 같이 공부하였다고 하였다.

이광한교장은 그날 나에게 학교를 졸업하면 장차 어떤 일을 할 생각인가고 물었다. 내가 나라를 찾는 일에 한 몸 바치고 싶다고 서슴없이 대답했더니 그는 아주 좋은 포부라고 긍정해주었다.

흉금을 터친 담화의 덕이라고 할지 이광한교장은 1학년을 거치지 않고 2학년에서 공부하게 해달라는 나의 요구도 쾌히 들어주었다.

청년학생운동과 지하활동을 하던 시기 나는 이 선생한테서 여러 번 도움을 받았다. 그는 내가 혁명사업 때문에 자주 결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었으며 군벌당국에 매수된 반동교원들이 함부로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모저모로 보호해주었다. 군벌이나 영사관경찰들이 나를 붙잡으러 올 때면 미리 연락하여 울타리 밖으로 빼돌리기도 하였다. 교장이 양심적인 지식인이다보니 그밑에서 많은 사상가들이 발을 붙이고 일할 수 있었다.

내가 육문중학교에 입학하고 돌아오자 오동진부부는 나에게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숙사에 들어가지 말고 자기네 집에서 다니라고 하였다. 사실 그때 내 처지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였다.

나는 어머니의 뒤받침으로 공부를 해야 하였는데 우리 어머니는 병약한 몸이였다. 어머니는 겨울이나 여름이나 하루종일 쉬지 않고 삯빨래와 삯바느질로 품을 팔아서 한 달에 3원 정도씩 나에게 보내주었다. 그 돈으로 월사금과 공책값, 교과서값을 대



길림육문중학교

고나면 신 한결레 사신기가 힘든 형편이였다.

이런 처지에서 나는 아버지의 친구들의 권고와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길림에 가서 처음에는 오동진의 집에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였고 그가 체포된 다음에는 장철호의 집에 한 1년, 현묵관네 집에도 몇 달 그리고 오동진의 후임으로 정의부의 사령을 하던 이웅의 집에도 얼마간 가있었다.

당시 길림에 있던 명사들이 대체로 아버지하고 친분이 깊은 사람들이여서 여러모로 나를 돌봐주고 사랑해주었다. 나는 아버지의 친우들의 집에 자주 드나드는 과정에 독립군간부들과 독립운동지도자들을 많이 알게 되었으며 길림에 드나들던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었다.

그 당시 정의부간부들은 거의 다 길림에 상주하고 있었다. 정의부는 행정, 재무, 사법, 군무, 학무, 외교, 검찰, 검독 등 어마어마한 중앙기구와 지방기관까지 꾸려놓고 관할구역의 조선동포들한테서 세금까지 받아내면서 한 개 독립국가와 맞먹는 행세를 하였다. 이 방대한 기구를 보호하기 위해 정의부는 150여명의 군인들로 조직된 상비적인 중앙호위대까지 가지고 있었다.

길림은 중국의 한 개 성소재지로서 봉천, 장춘, 하얼빈과 더불어 만주지방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의 하나였다.

길림독군서에서는 장작림의 4촌동생 장작상이 우두머리노릇을 하였는데 그는 일본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일본사람들이 누가 공산당원이고 누가 나쁜 사람이라고 고소하여도 그는 당신들은 상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거절해버리군 하였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에게 무슨 정치적 견해가 있어서라기보다도 무식하고 자존심이 강하였기 때문이였다. 그의 이러한 특징이 혁명가들과 사회운동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만주지방으로 이주해온 조선사람들의 대부분이 또한 이 길림성에서 살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하여 일본군경들에게 쫓겨다니는 조선 독립운동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길림에 많이 모여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자연히 조선사람들의 정치활동무대로 되었으며 그 중심지를 이루게 되었다. ≪동 3성에서의 배일의 책원지는 길림≫이라고 한 일본사람들의 평가가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

길림은 1920년대 후반기 만주에서 조선민족주의운동의 기본세력이였던 정의부, 참의부, 신민부의 수뇌들의 집결처로 되어 있었다. 독립운동자들이 신문을 발간하고 학교를 세우는 일은 화전, 흥경, 용정 같은데서 많이 하였지만 실지 그 수뇌들이 모여 활동한곳은 길림이였다.

엠엘파, 화요파, 서상파와 같은 종파분자들이 제각기 자기파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돌아치던 곳도 바로 길림이였다.

공산주의운동자들가운데서도 내노라고 하는 명물들은 거의 다 이 길림에 드나들었다. 민족주의자, 공산주의자, 종파분자, 망명자 등 별의별 사람들이 다 여기로 모여들었다.

새것을 지향하고 진리를 찾아 모대기는 청년학생들도 이 성시로 찾아왔다.

한마디로 말하여 길림은 형형색색의 사상조류가 집결된 곳이라고 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내가 공산주의기치를 들고 혁명활동을 벌였다.

내가 길림에 왔을 때 ≪ㅌ·ㄷ≫의 몇몇 성원들은 화전에서 약속한대로 이 도시에 와서 문광중학교를 비롯한 시내 학교들과 기관구, 선창 등에 적을 붙이고 있었다.



학교 기숙사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위로부터)

그들은 내가 길림에 타나났다는 소문을 듣기 바쁘게 오동진사령의 집으로 뛰어왔다. ≪돈이 귀하고 마실 물이 귀하고 땔 것이 귀하지만 책이 많아서 좋다.≫는 것이 그들의 길림인상이였다.

나는 책이 많으면 배고픈 고생과도 타협할 수 있다고 롱을 하였다. 그것은 나의 진정이기도 하였다.

그들도 육문중학교에 대해서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다. 교직원들 중에 국민당우파도 있지만 절대다수의 교원들은 공산당계열이 아니면 삼민주의의 숭배자들이라는 것이였다.

그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였다.

후에 판명된데 의하면 상월선생도 공산당원이였고 마준선생도 공산당원이였다고 한다.

우리는 새로운 고장에서 혁명의 진리를 마음껏 배우며 ≪ㅌ·ㄷ≫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 바쳐 싸워나가자고 결의하였다.

화전에 남아있던 ≪ㅌ·ㄷ≫의 성원들도 활동무대를 찾아 무송현, 반석현, 홍경현, 유하현, 안도현, 장춘현, 이통현 등 만주일대의 조선인거주지역들로 떠나갔다. 그들가운데는 출신중대에 들어가 다시 독립군의 모자를 쓴 동무들도 있었다.

길림과 같이 복잡한 도시에서 얼마되지 않는 핵심들을 가지고 만사람이 우리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게 하며 ≪ㅌ·ㄷ≫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싸운다는 것은 헐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한 점의 불씨가 되어 주변의 열 사람, 백 사람을 불러일으키고 그 백 사람이 다시 천 사람, 만 사람의 심장을 달구어 세계를 변혁할 굳은 결심에 차넘치고 있었다.

길림에서의 나의 활동은 맑스-레닌주의를 더 깊이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였다. 나는 길림으로 올 때 화전에서 시작한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탐구를 본격적으로 더 깊이 해보자고 결심하였다. 길림의 사회정치적 분위기는 새 사조를 깊이 파고들려는 나의 결심을 부채질해주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들보다도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의 저작들을 탐독하는데 더 열중하였다.

당시의 중국은 대혁명시기여서 쏘련이나 일본에서 발간되는 좋은 책들을 많이 번역출판하였다. 베이징에서는 ≪번역월간≫이라는 잡지도 찍어냈는데 거기에 청년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진보적인 문학작품들이 자주 실리었다. 무송이나 화전에서 볼 수 없었던 책도 길림에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나한테는 책을 살만한 돈이 없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기 어렵겠지만 그때 나는 운동화도 학교에 갈 때에만 신고 집에 와서는 거의 맨발로 다니였다.

그때 우마항거리의 도서관에서는 한 달에 열람료를 10전씩 받았는데 나는 그 열람권을 달마다 떼가지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도서관에 들려 몇 시간씩 책과 신문을 읽군 하였다. 그러면 적은 돈을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 출판물들을 볼 수 있었다.

책방에 좋은 책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도 돈이 없어 못살 때에는 부자집학생들을 부추겨 사게 하고 그들이 사온 다음 그 책들을 빌려다보군 하였다. 돈많은 집 자식들가운데는 읽지는 않으면서도

멋을 부리기 위하여 책을 사다가 장식용으로 꽂아두는 학생들이 있었다.

그 시기 육문중학교에서는 학교관리를 민주주의적으로 하였다. 도서주임도 반년에 한 번씩 학생총회에서 선출하였다. 선출된 도서주임은 학교도서관운영계획을 세우고 책을 사들일 권한을 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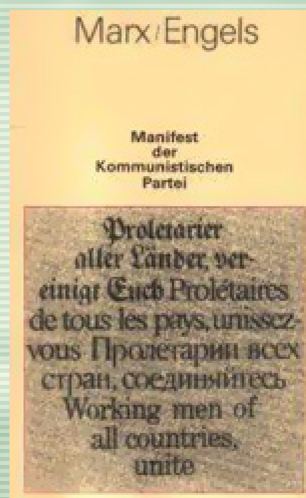
나는 육문중학교시절에 두 번이나 도서주임으로 선거되었다. 그 기회를 이용하여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많이 사들이었다.

책이 많고 보니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문제였다. 나는 독서시간을 1분1초라도 더 얻어내기 위하여 애를 쓰면서 차례진 시간 안에 하나라도 더 많은 책을 읽고 그 본질을 깊이 알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어려서부터 책을 읽게 하고는 그 책에서 중심이 무엇이며 배운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꼭꼭 쓰는 습관을 키워주었다. 아버지가 키워준 이 습관이 크게 은을 내였다. 중심을 잡아쥐면서 책을 정독하게 되면 아무리 복잡하게 뒤엉킨 내용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책들을 볼 수 있다.

내가 중학시절에 밤을 새우며 책을 본 것은 단순한 취미나 탐구심 때문만이 아니였다. 나는 학자가 되고 그 무슨 출세의 길을 틔우려고 책을 파고든 것이 아니였다. 어떻게 하면 일제를 물리치고 나라를 찾겠는가? 어떻게 하면 사회의 불평등을 없애고 근로하는 인민들을 잘 살게 하겠는가? 내가 책에서 찾고싶었던 것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였다. 어디서 무슨 책을 보건 나는 항상 이 해답을 찾으려고 하였다.

맑스-레닌주의를 교조로가 아니라 실천의 무기로 대하게 되고 진리의 기준을 추상적인 이론에서가 아니라 항상 조선혁명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에서 찾으려는 나의 입장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싹텄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이 시기 ≪공산당선전≫, ≪자본론≫, ≪국가와 혁명≫, ≪임금노동과 자본≫을 비롯한 맑스-레닌주의 고전들과 그를 해설한 도서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다.



≪공산당선언≫

정치서적들과 함께 혁명적인 문학작품들도 많이 읽었다. 내가 그때 제일 흥미를 가지고 읽은 것은 고리끼와 노신의 작품들이였다. 무송이나 팔도구에 있을 때는 ≪춘향전≫, ≪심청전≫, ≪이순신전≫, ≪서유기≫와 같이 옛날생활을 담은 책들을 많이 읽었다면 길림에 와서부터는 ≪어머니≫, ≪철의 흐름≫, ≪축복≫, ≪아큐정전≫, ≪압록강가에서≫, ≪소년방랑자≫와 같은 혁명적인 소설들과 당시의 현실생활을 담은 진보적인 소설들을 많이 읽었다.

후날 항일무장투쟁을 하면서 고난의 행군과 같은 어려운 시련에 부닥쳤을 때에도 나는 길림시절에 본 ≪철의 흐름≫과 같은 혁명적 이 소설들의 내용을 회상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군 하였다. 문학작품은 사람들의 세계관 형성에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나는 작가들을 만날 때마다 혁명적인 소설들을 많이 써내라고 말하군 한다. 지금은 우리 작가들도 혁명적인 대작들을 많이 써내고 있다.

우리는 당시의 불합리한 사회현상과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를 직접 목격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정치적으로 각성되었다.

그때 조선에서 만주로 들어오는 이주민들가운데는 길림을 경유하여 다른 고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국내의 참상을 수시로 청취하였다.

압록강을 건너온 이주민들은 단동을 거쳐 남만철도로 장춘에까지 와가지고는 거기에서 동지철도를 이용하여 북만쪽으로 가든가, 길장선을 타고 길림을 경유하여 그 근방의 오지로 들어가기도 하고 봉천으로부터 봉해선, 길회선을 거쳐 돈화, 액

목, 영안 방면으로 가기도 하였다.

추운 겨울철과 이른 봄철이면 길림역과 여관들에서 조선이주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이런 이주민들가운데는 별의별 곡절을 겪은 사람들이 다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동무들과 함께 극장에 ≪창시≫구경을 갔다. 공연이 끝난 다음 ≪창시≫를 하던 여배우가 우리한테로 찾아와 자기애인의 이름을 대면서 죄 아무개라는 사람이 혹시 여기에 살지 않는가고 물었다. 그 여배우가 조선말을 하는 바람에 우리는 모두 놀랐다. 조선에서는 ≪창시≫라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였다.

옥분이라는 그 여배우는 경상도여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어느 날 뒤집에 있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너의 처가 아들을 낳으면 내 사위로 삼고 우리 처가 딸을 낳으면 네 며느리로 주마, 만약 다같이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결의형제를 맺어주자고 약속하였다.



육문중학교 모표

얼마 후 한 집에서는 아들이 태어나고 다른 한집에서는 딸이 태어났다. 두 집에서는 자식들을 서로 결혼시켰다는 표적으로 명주수건 하나를 둘로 갈라 각각 반쪽씩 나누어 가지였다.

그 후 두 집은 살길을 찾아 제가끔 고향을 떠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아들을 본 집에서는 길림에 와 살았는데 그 아들이 커서 문광중학교에 다니었다. 그 집에서는 그래도 길림에 온 다음 집도 한채 얻고 자그마한 정미소도 하나 차려놓고 어렵지 않게 살았다. 그런데 여자를 낳은 집에서는 단동까지 와서 여비가 떨어져 중국사람한테 어린 딸을 팔게 되었다. 옥분이는 매를 맞으며 ≪창시≫를 배워가지고 배우가 되었는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고향에서 살 때 결정해놓았다는 그 남자를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새 고장에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조선사람들을 몰래 찾아다니며 그 남자의 행처를 탐문하군 하였다.

그날 옥분이란 그 여배우는 문광중학교에 다니는 남편되는 사람과 극적인 상봉을 하였다.

옥분이가 ≪창시≫를 그만두고 남편한테 떨어지겠다고 하자 그를 데리고 다니던 홍행단 주인여자는 굉장한 돈을 내라고 하였다. 그래서 옥분이는 자기 몫으로 나오는 돈을 몇 해 동안 모아서 몸값을 물어주고 길림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였다. 그때 이런 사연을 목격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피가 맺히고 분노가 생기였다. 학생들은 돈만 알고 인정을 모르는 홍행단 주인여자를 ≪뱀같은 여자≫라고 욕질하였다.

수십만의 인생이 한데 모여 생존경쟁으로 비지땀을 흘리며 돌아가는 대도시의 생활은 계급사회가 내뿜는 악취를 감추지 못하였다.

뙤약볕이 내려쬐는 어느 여름날 동무들과 함께 북산에 갔다오던 나는 길가에서 인력거군이 부자와 다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 인력거를 타고 온 부자가 인력거군한테 돈을 적게준 모양이였다. 인력거군이 부자에게 지금은 ≪삼민주의≫시대인데 ≪민생≫문제를 좀 돌봐주어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면서 몇 푼만 더 달라고 빌었다. 부자는 돈을 더 줄 대신에 도리어 ≪삼민주의≫만 알고 ≪오권헌법≫은 모르는가고 하며 단장을 들어 인력거군을 때리었다.



학교 도서실

분격한 우리 학생들은 부자놈에게 달려들어 돈을 더 주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런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 왜 인력거

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인력거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열두대문이 달린 으리으리한 집에서 호강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지가 되어 거리를 헤매야 하는가 하는 의문과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혁명적 세계관은 사람들이 자기의 계급적 처지와 이해관계를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착취계급을 증오하고 자기 계급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사상을 가지며 나아가서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는 각오를 가지고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되었을 때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나도 맑스-레닌주의고전을 비롯한 혁명적인 책들을 보고 계급적 처지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사회현상을 보고 불평등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착취계급과 착취사회를 증오하는 사상이 자라서 결국 세계를 개조하고 변혁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투쟁의 길에 나서게 되었다.

맑스와 레닌의 저서들을 널리 탐독하고 거기에 깊이 심취될수록 나는 그 혁명학설을 청년학생들속에 한시바삐 보급해야겠다는 충동을 가지게 되었다.

육문중학교에서 내가 처음으로 사귄 동무는 권태석이라는 조선학생이었다. 초기에는 육문중학교에 조선학생이 모두 네 명 있었는데 공산주의운동에 마음을 둔 것은 권태석이와 나뿐이었고 그 나머지는 정치운동에 무관심했다. 그저 돈만 알고 졸업한 다음 장사나 해먹을 궁리만 하였다.

나와 권태석은 지향도 비슷하고 사회를 보는 눈도 비슷해서 처음부터 서로 배짱이 맞았다. 중국학생들가운데서는 장신민이라는 청년이 나하고 가까왔다. 그 사람이 늘 나와 같이 다니면서 정치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의견을 많이 나누었다. 사회의 불평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제국주의의 반동성과 일제의 만주침략기도, 국민당의 반역적 죄행에 대한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화제는 다양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길림에서는 맑스-레닌주의가 청년학생들속에서 동경의 대상으로만 되어있었다. 맑스가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어떤 인물인지 좀 보자는 식으로 고전을 뒤적거리거나 맑스주의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 추세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정도였다.

나는 화전에서 얻은 경험을 참작하여 뜻이 통하는 몇몇 동무들로 먼저 육문중학교안에 비밀독서조를 조직하였다. 비밀독서조는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이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것을 사명과 목적으로 하였다. 이 조직은 매우 빠르게 자라서 얼마후에는 문광중학교와 제1중학교, 제5중학교, 여자중학교, 사범학교를 비롯한 길림시내의 여러 학교들에 확대되었다.

독서조성원들의 대열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독립운동자들이 경영하는 정미소의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유길학우회 성원들을 내세워 자체로 도서실을 운영하였다.

지금은 어디에 가나 도서관이 있고 마음만 먹으면 인민대학습당과 같은 큰 도서관도 궁전같이 세우지만 사실 그때 맨주먹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 도서실을 꾸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였다. 책도 사오고 서가도 매고 책걸상도 갖추어놓아야 하겠는데 우리에게는 돈이 없었다. 그래서 일요일마다 철도공사장에 가서 침목을 메나르거나 강가에서 자갈을 져나르는 것 같은 삯일을 하였다. 여학생들도 정미소에 가서 쌀의 뉘를 골랐다.

이렇게 한푼두푼 힘들게 번 돈으로 책



육문중학교 교실

을 사들였다.
혁명적인 책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비밀서가까지 갖추어 도서실을 꾸려놓은 다음 간단하면서도 구수하게 책소개를 써서 시내의 여러 곳에 붙여놓았다. 그러자 학생들은 앞을 다투어 우리의 도서실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그때 학생들을 끌기 위하여 도서실에 연애소설도 가져다놓았다.
청년들은 연애소설들을 읽는 멋에 도서실출입을 많이 하였다. 그런 식으로 책에 맛을 붙이게 해놓고는 사회과학책을 조금씩 주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사회과학책들을 보면서 점차 각성되면 그때에는 비밀서고에서 맑스-레닌주의고전들과 혁명적인 소설책들을 꺼내주군 하였다.


길림 북산공원

우리는 그때 청년학생들에게 ≪재생≫, ≪무정≫, ≪개척자≫와 같은 이광수의 소설책도 주었다. 이광수가 3.1운동전야에 일본도꾜에서 ≪2.8독립선언서≫도 작성하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진보적인 작품도 많이 썼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의 소설을 즐겨읽었다. 그러나 후에는 변절하여 교양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쓰지 못하였으며 나중에는 ≪혁명가의 안해≫와 같은 반동적인 작품까지 써냈다. 나는 항일유격대를 창건한 다음 부대를 인솔하고 남만으로 가다가 무송에 잠깐 들린 기회에 그 소설을 읽어보았다. 소설 ≪혁명가의 안해≫는 한 공산주의자가 병치료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안해가 남편의 병치료를 해주러 다니는 의학전문학교 학생과 치정관계를 맺는 추잡한 생활을 그린 작품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을 모독하고 공산주의운동을 헐뜯는 사상으로 일관되어있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우리는 길림예배당이나 북산공원 같은데 모여 독서발표모임을 자주 하였다. 처음에는 더러 연애소설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듣는 학생들이 그따위 시시껄렁한 이야기는 집어치우라고 들이대군 하였다. 이렇게 한번 망신을 당하면 연애소설에 빠졌던 학생들도 스스로 혁명적인 소설책들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청년학생들과 대중들에게 혁명사상을 널리 보급하기 위하여 ≪당수≫라는 방법도 이용하였다.
어느 날 나는 목이 아파서 찜질을 하느라고 수업에 참가하지 못한 적이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북산에 들렸더니 소경주위에 숱한 사람들이 모여앉아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소경이 넉두리 같은 것을 해가며 ≪삼국지≫의 한 대목을 뜬금으로 엮어대고 있었다. 그는 제갈량이 꾀를 써서 적진을 일격에 무찌르고 들어가는 장면 같은 데서는 북까지 치면서 흥을 돋구었다. 그러다가 재미나는 대목에 이르러 이야기를 뚝 그치고는 구경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내라고 손을 내밀었다. 그때 중국사람들은 이런 것을 ≪당수≫라고 하였는데 군중을 끄는데서는 좋은 방법이였다.
그 후부터 우리도 이런 식으로 혁명사상을 보급하였다.
우리 동무들가운데 우스개도 잘하고 말주변도 좋은 걸작이 한 명 있었다. 우리한테서 과업을 받아가지고 종교인들과의 사업을 하던 동무였는데 기도를 드리고 성경책을 외우는 것을 보면 목사들보다 나았다. 그 동무에게 ≪당수≫를 해보라고 과업을 주었더니 성경책을 외울 때보다 더 잘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마실방이나 공원 같은데 가서 내용이 좋은 소설들을 뜬금으로 구수하게 엮어서 매번 호평을 받았다. 소경은 ≪당수≫를 하고 돈을 받았지만 그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 대신 재미나는 대목에 가서 끊고는 한바탕 선동연설을 한 다음 내일 어느 시간에 다음

대목을 또 들어보라고 하였다. 그러면 다음날 사람들이 소설을 마저 들으려고 약속된 장소에 모이군 하였다.

그때 책을 통하여 사귄 사람들 중에 인상깊은 사람은 박소심이다.

길림의 번화한 거리에는 ≪신문서사≫라는 큰 책방이 하나 있었는데 나는 한 주일에도 몇 차례씩 그 책방에 들리군 하였다. 그 책방에 박소심도 단골손님으로 다니였다. 그는 매번 사회과학서적을 팔아주는 매대앞에서 무슨 책이 들어왔는가를 알아보려고 한참씩 서성거리군 하였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매대앞에서 마주치는 때가 많았다. 몸은 강말랐으나 키가 후리후리하고 지성미가 있는 사람이였다.

내가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학생도서관에 넣을 책을 한아름씩 사갈 때면 그는 자기 책이나 고르는 것처럼 흐뭇해하면서 어느 책은 어떻고 어느 책은 꼭 볼 필요가 있으니 사가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조언을 주군 하였다. 이렇게 책이 인연이 되어 나는 박소심과 친하게 되었다. 내가 동대탄에서 학교를 다닐 때 그는 한동안 내가 거처하는 숙소에 와서 같이 생활하였다.



≪자본론≫

박소심은 서울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이였다. 몸이 약해서 공산주의운동 같은 것은 하려고 하지 않고 신문과 잡지들에 짤막한 글들을 써내군 하였다. 그가 쓴 글이 아마 ≪해조신문≫이나 ≪조선지광≫같은데 나갔을 것이다. 운동에는 크게 관계하지 않고 있었지만 종파분자들에 대해서는 몹시 경멸하였다. 박소심이 대가 있고 식견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길림에 드나드는 운동자들은 제가끔씩 그를 쟁취해보려고 하였다.

박소심은 일본어로 번역된 ≪자본론≫을 밤을 새워가며 읽군 했다. 돈이 떨어지면 입을 옷을 저당잡히면서라도 책을 사다보는 지독한 독서가였다. 그는 통속입문서 몇 권을 읽고 맑스-레닌주의이론가로 으시대는 행세군이 아니라 맑스나 레닌의 주요저작들을 거의 통달하다싶이한 사람이였다.

박소심은 나에게 ≪자본론≫을 안내해주고 그것을 해설해준 잊지 못할선생이였다. 맑스의 저작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자본론≫에도 난해한 대목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박소심이 우리에게 ≪자본론≫에 대한 해설강의를 해주었다. 고전을 파악하는데서는 역시 입문서나 안내자가 필요하였다. 박소심은 그 안내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였다. 그는 참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한 번은 내가 프롤레타리아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의 명제에 대하여 그에게 물은적이 있다.

박소심은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이 역사발전의 여러 단계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하여 각이한 측면으로 해석한 명제들을 한참이나 뜬금으로 쭈르르 외우는 것이였다. 이론이나 지식으로 보면 그야말로 맑스주의대가라고 불리울만한 사람이였다. 그런데 그런 박소심이한테도 모르는 것이 있고 막히는데가 있었다.

내가 맑스-레닌주의고전들에서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이 선차이고 민족적 해방이 후차라고 했지만 우리 나라는 우선 일제의 기반에서 벗어나야 노동자, 농민이 계급적으로도 해방될 수 있지 않는가고 물은 적이 있었다. 이것은 그 당시 우리 동무들속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던 문제였다.



≪조선지광≫

당시까지만 해도 맑스-레닌주의고전들에는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과 민족해방의 호상관계에 대한 이론적 해명이 적었다. 식민지나라들에서의 민족해방투쟁에 대해서는 과학적 해명을 기다리는 문제가 많았다.

박소심은 나의 질문에 어정쩡한 대답을 하였다.

나는 맑스-레닌주의고전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주국에서의 혁명과 식민지나라들에서의 혁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고 하면서 종주국에서의 혁명승리가 가지는 의의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나라 경우에는 일본노동계급이 혁명에서 승리해야 나라가 독립될 수 있단 말이 아닌가, 우리는 그들이 승리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있어야 한단 말인가고 또 물었다.

박소심도 그 질문에는 대답이 막히였다. 그는 놀란 눈으로 한참 나를 바라보았다. 박소심은 고전에 씌여있는 것처럼 노동계급의 계급적 해방을 민족적 해방에 앞세우고 종주국노동계급의 투쟁을 식민지나라에서의 민족해방투쟁보다 중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노선상의 문제라고 하였다.

내가 납득이 잘 안되어 머리를 기웃거리자 그는 그대로 안타까와서 자기는 맑스-레닌주의를 학술상으로만 연구해왔을 뿐이지 조선의 독립과 조선에서의 공산주의건설이라는 구체적인 혁명실천과 결부시켜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나는 그 말을 듣자 어쩐지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그의 말과 같이 실천과 유리되어 학문상으로만 공산주의학설을 연구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때 나와 우리 동무들이 맑스-레닌주의선진사상을 연구하면서 느낀 제일 큰 고충은 우리도 러시아사람들처럼 혁명을 통해 사회를 변혁하고 나라를 해방해야겠는데 조선의 형편과 10월혁명이 일어나던 러시아의 형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었다.

낙후한 반봉건국가인 조선과 같은 식민지나라에서 무산혁명을 어떻게 하겠는가, 일제의 가혹한 탄압 때문에 자기 조국을 떠나 중국땅에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에서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 혁명과 어떻게 연계를 취하며 조선혁명앞에 지닌 민족적 임무와 세계혁명앞에 지닌 국제적 의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는가 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옳은 대답을 찾기까지는 오래 세월이 걸려야 했고 또 값비싼 대가를 치르어야 했다.

박소심은 맑스-레닌주의탐구의 나날에 나와 인간적으로 가까와졌고 우리의 혁명적 지향에 깊이 끌려들었다.

그는 반제청년동맹과 공청에도 가입하였으며 우리와 함께 청소년들을 교양하고 계몽하는 사업에도 헌신적으로 참가하였다. 책속에만 파묻혀있던 사람이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실천무대에 뛰어드니 그 정열이 대단하였다.

그 후 우리는 폐병치료 때문에 그를 카륜지방에 보냈다.

박소심은 쟈쟈툰에서 5리가량 떨어져있는 무개하기슭에 초막을 짓고 제 손으로 밥을 지어 먹으면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

나는 카륜과 오가자 일대에서 활동할 때 시간을 내여 그를 찾아갔던 일이 있었다. 나를 보자 박소심은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동안의 회포를 나누면서 많은 문제를 토론했다.

그때 박소심은 처음으로 나에게 안해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안해가 죽었거나 리혼한줄로 알고 있었던 나는 놀랐다. 사진만 보고서도 그의 안해가 매우 아름답고 교양있는 신식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소심은 서울에 있는 그 안해가 얼마전에 편지를 보내왔더라고 하였다. 왜 안해를 데려오지 않는가고 물었더니 자기처는 부자집 딸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의 대답을 듣고 그러면 부자집 딸이라는 것을 모르고 결혼했는가고 물었

다.

박소심은 한숨을 쉬면서 결혼을 한 후에 자기의 세계관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이 너무도 괴이하게 들려 정말 안해를 완전히 잊어버렸는가고 다시 물었다.

박소심은 지금까지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왔는데 요즘 편지를 받고보니 자주 생각이 난다고 솔직하게 말하였다.

그래서 나는 안해를 사랑한다면 데려와야 한다고 진심으로 권했다. 자기 안해 하나 교양하지 못하면야 어떻게 낡은 세상을 뒤집어엎고 새 세계를 세우겠는가, 안해가 곁에 있으면 병치료에도 좋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박소심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도 한숨을 쉬었다.

≪내 성주동무 말이니 듣겠소. 하지만 내 인생은 이미 기울었소. 실패한 인생이란 말이요.≫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후대들에게 넘겨줄 재산이나 정신적 유산도 없었다. 자기는 맑스-레닌주의연구에 한 생을 바쳐 노동계급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책을 꼭 쓰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였다는 것이였다. 살아 펄펄 뛰던 때는 진리를 몰라서 못썼고 진리를 깨닫고보니 이제는 건강이 허락치 않는다고 한탄하였다.

박소심의 그 말을 들으니 나도 안타까왔다. 박소심은 학문앞에 성실하고 꾸준하였으며 탐구력이 있었다. 책속에만 묻혀있지 않고 실천속에 좀더 일찍 뛰어들었다면 노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가치있는 이론도 찾았을 것이고 실천적인 업적도 쌓았을 것이다. 실천속에서 이론이 나오고 그 이론의 정당성도 실천을 통하여 검증된다. 우리가 순간도 잊어서는 안될 실천은 조선의 독립이며 우리 인민의 행복이다. 아쉽게도 박소심은 이 진리를 깨닫기 바쁘게 우리 곁을 떠나갔다.

박소심은 그 후 서울에 있는 안해를 데려다가 병구완을 받으면서 마지막순간까지 소논문과 단상들을 기록하다가 카륜에서 숨이 졌다.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아침에 도리를 깨닫는다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고 했지만 박소심과 같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기만 하고 가버린 것은 분한 일이었다.

나는 길림에서 3년 남짓한 세월을 보냈다. 내 일생에서 길림은 참으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긴 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길림에서 나는 과학적 학설로서의 맑스-레닌주의를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학설의 도움으로 조선의 독립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실천적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내가 새 사조의 진수를 빨리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나라잃은 민족의 아들로 태어난 슬픔과 분노 때문이다. 우리 민족이 당하는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은 나를 일찍이 철들게 하였다. 나는 수난당하는 조국과 겨레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감수하였다. 그것이 나에게 커다란 민족적 의무감을 짊어놓았다.

길림시절에 나의 세계관이 확립되고 드팀없는 것으로 굳어졌으며 그것이 내 한생의 사상정신적 양식으로 되었다.

길림에서의 축적과 체험은 그 후 나로 하여금 자주적인 혁명사상의 골격을 세울 수 있게 하였다.

학습은 혁명가가 자신을 수양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기초적 공정이며 사회의 진보와 변혁에 이바지할 밑천을 마련하는데서 단 하루도 중단해서는 안되는 필수적 정신노동이다. 선진사상의 탐구과정을 통하여 길림시절에 터득한 교훈으로부터 나는 오늘도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라고 강조하고 있다.

2. 상월선생


상월

나에게 ≪자본론≫을 안내해준 선생이 박소심이라면 고리끼의 ≪어머니≫와 ≪홍루몽≫을 소개해준 사람은 상월선생이였다. 상월선생은 육문중학교의 어문교원이였다.

상월선생이 육문중학교의 교원으로 부임되어온것은 1928년 2월경이였다. 베이징대학 영문학부를 졸업한 새 어문교원이 학교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모두 어문시간을 기다리였다.

그러나 신임교원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한 가닥의 불안도 없지 않았다. 교육청이 특무를 어문교원으로 배치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였다. 교육청이 파견하는 육문중학교 교원들가운데는 군벌당국에 매수된 불순분자들이 적지 않았다.

당시는 장학량이 장개석의 지령에 따라 만주땅에 국민당기발을 날리기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때였다. 장개석의 특무조직들이 벌써 심양으로부터 길림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었다. 국민당의 졸개들이 아직 육문중학교를 완전히 자기네 수중에 장악하지 못하였지만 혁신사상이 강한 이 학교 교직원, 학생들의 움직임은 언제나 군벌과 그 앞잡이들의 주시속에 있었다.

이런 때에 새 교원이 배치되어왔으므로 학생들은 신경을 잔뜩 도사리고 어문시간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상월선생은 단 한번의 강의로 학생들의 경계심을 해소시켜주고 우리의 인기를 독점하였다. 그는 120회에 달하는 ≪홍루몽≫의 방대한 줄거리를 한 시간사이에 다 소화시키었다. 본질을 추리고 거기에 중요한 생활세부들을 끊임없이 섞어가며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솜씨가 얼마나 세련되였는지 우리는 그 소설이 가지고 있은 생리와 가부장적 전통이 지배하는 한 귀족가문의 고락과정을 순간에 완전히 파악할 수 있었다.

상월선생이 수업을 끝내고 교실에서 나가자 학생들은 육문중학교에 보배가 굴러들어왔다고 하면서 환성을 울리었다.

그런데 선생이 ≪홍루몽≫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면서도 그 소설을 창작한 작가에 대해서는 적게 소개하였다. 그래서 나는 다음날 운동장둘레를 산책하는 상월선생을 찾아가 ≪홍루몽≫의 저자 조설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선생은 시간의 부족으로 하여 작가의 경력은 생략하고 지나갔는데 내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면서 조설근의 생애와 집안내력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주었다.

선생의 설명이 끝난 다음 나는 그 자리에서 작가의 출신과 작품의 계급적 성격간의 호상관계를 두고 몇 가지 질문을 하였다.

상월선생은 그 질문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답을 주었다. 선생은 자기의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전제를 두면서 작가의 출신이 작품의 계급적 성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격을 규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은 출신이 아니라 작가의 세계관이라고 말하였다. 그 실례로 그는 바로 조설근을 들었다. 그가 강희제의 특별대우를 받는 귀족가문에서 태어나 부유한 환경속에서 자라났지만 붕괴기에 있는 봉건중국의 내막과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형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은 것은 세계관이 진보적이였기 때문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날 상월선생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성주학생이 오늘 나를 찾아온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의문되는 것이 있거나 해명하고싶은 것이 있을 때에는 주저하지 말고 지체없이 교원의 방조를 받아야 한다. 그것이 과학을 탐구하는데서 학생이 가져야 할 자세이다. 때와 장소에 구애되지 말고 질문을 많이 제기하라. 나는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을 좋아한다.≫

질문을 많이 하라는 상월선생의 그 말이 나의 마음을 끌었다. 원래 나는 소학교시절부터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육문중학교에 와서도 질문을 많이 하여 교원들을 성가시게 굴었다.

상월선생은 자기에게 ≪홍루몽≫도 있고 조설근의 약력을 발취해놓은 자료집도 있으니 보고싶거든 아무 때나 와서 가져라가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첫 손님으로 선생의 숙소를 방문할 수 있는 행운을 지니게 되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늘 학생이 선생의 집에 들락날락하는 것은 장려할만한 일이 못된다고 말씀하였다. 서당에서 ≪동몽선습≫같은 것을 배우며 성장한 구세대의 인물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신식학문의 덕으로 개명을 했다는 어른들가운데도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학생이 선생의 뒤생활을 자주 엿보게 되면 스승을 신비스럽게 대하지 않는다, 선생은 언제나 학생이 스승을 밥도 먹지 않고 오줌도 누지 않는 신선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 그러자면 병풍을 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할아버지의 지론이였다.

할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서당공부를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였다.

아버지가 다니던 순화서당에 김지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훈장이 있었다. 그 훈장은 술이라면 감투가 벗어진줄도 모르는 애주가였다. 그는 사흘이 멀다하게 접장(지금의 학급반장)을 하는 우리 아버지에게 술심부름을 시키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고분고분 훈장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그 훈장이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도랑창에 쓰러진 것을 보고난 다음부터는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어느 날 훈장은 되병 한 개를 우리 아버지의 손에 쥐여주며 또 술을 사달라고 부탁하였다. 서당문을 나선 아버지는 바위돌에 되병을 던져 박살내고 훈장한테 돌아가 범한테 쫓기다가 돌에 넘어져 술병을 깼다고 거짓보고를 하였다. 훈장은 그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어 ≪허허, 백두산범이 만경대에까지 내려왔다. 형직이가 나한테 대포를 불 지경이 되었으니 내 꼬락서니가 얼마나 추접스럽게 보였을가. 너희들한테 술심부름을 시킨 내가 잘못이지.≫하였다. 그 후부터 훈장은 술을 끊었다.

훈장은 술과 결별하였지만 아버지의 머리에는 개울창에 쓰러져 술내를 풍기던 선생의 모습이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병풍을 치고 살아야 교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할아버지의 지론은 이런 사연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나는 상월선생이 병풍을 칠 사이도 없이 아직 그 누구에게도 개방해보이지 않았다는 선생의 생활종심에로 풍덩 뛰어들었다.

선생의 서가에는 수백 권의 책이 꽂혀있었다. 그것은 내가 그때까지 보아온 서가들 중에서도 가장 풍성하고 이채로운 서가였다. 상월선생은 책부자였다. 그 서가에는 영문으로 된 소설책들과 전기문학작품들도 많았다.

나는 그 서가앞에서 좀처럼 발길을 뗄 수 없었다. 이 서가의 지식을 다 섭취하면 대학을 하나쯤 더 다닌 것으로 되지 않을가, 상월선생이 육문중학교에 온 것은 나를 위해서도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나는 이런 생각에 잠겨 손에 잡히는 책을 닥치는 대로 뽑아보다가 선생에게 물었다.

≪실례이지만 선생님, 이 서가를 갖추는데 몇 해나 걸렸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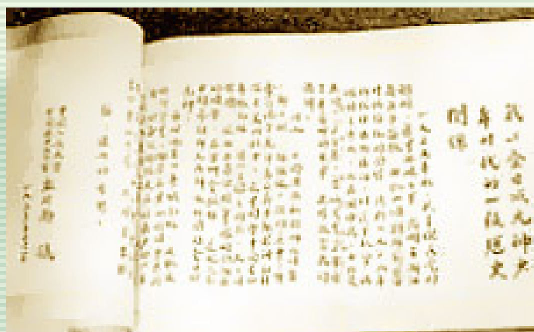
상월선생은 입가에 미소를 짓고 서가앞에 다가와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 10년쯤 걸린 것 같애.≫

≪이 책들을 다 읽는데는 얼마만큼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부지런하면 삼 년, 게으르면 백 년.≫

≪책만 빌려주신다면 어떤 조건부든지 다 접수하겠습니다.≫



상월선생이 쓴 자료

≪다른 게 아니구 성주가 장차 작가로 되어야 한다는 조건부야. 나는 오래전부터 프롤레타리아혁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가후비를 한두 명 키우려고 했는데 성주가 그 후비 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없겠는가 하는 거요.≫

≪선생님께서 그렇게까지 저를 믿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사실 전 문학과목을 특별히 사랑하고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몹시 동경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독립된 후에는 혹시 문학의 길을 선택하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 저희들은 나라를 빼앗긴 망국민의 자식들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나라를 찾으려고 한평생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장차 독립투쟁에 몸을 바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대의 이상이구 포부입니다. 민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이 곧 저의 직업으로 될 것입니다.≫

상월선생은 서가에 기대여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연방끄덕이다가 내곁에 다가와 어깨우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다.

≪장하오, 성주! 독립투쟁이 이상이라면 나는 그 이상을 조건부로 이 서가를 성주에게 통채로 개방하겠소.≫

나는 그날 ≪홍루몽≫을 빌려가지고 숙소로 돌아왔다.

상월선생이 나에게 두 번째로 빌려준 책은 장광자의 소설 ≪압록강가에서≫와 ≪소년방랑자≫였다.

나는 이 두 소설을 매우 흥미있게 읽었다. 이맹한과 운고라는 조선의 청춘남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소설 ≪압록강가에서≫는 특히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주었다.

그 후에는 고리끼의 ≪어머니≫를 빌려보았다.

우리는 이렇게 책과 문학을 통하여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다.

상월선생은 내가 요구하는 책이면 무엇이든지 다 빌려주었다. 자기의 서가에 없는 책은 품을 내여 다른데 가서 구해다주었다. 선생은 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나에게서 독후감을 꼭꼭 들어보군 하였다.

우리는 고리끼의 작품 ≪원쑤들≫과 노신의 소설 ≪축복≫을 두고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그러는 과정에 나와 상월선생은 자연히 문학에 대한 견해를 자주 교환하였다. 우리의 담화에서 초점을 이룬 것은 문학의 사명에 대한 것이였다. 우리는 문학이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며 사회의 발전을 어떻게 추동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상월선생은 문학이 인류를 지성에로 인도하는 등불이라고 하였다. 기계가 생산의 발전을 추동한다면 문학은 그 기계를 움직이는 인간의 인격을 완성시켜준다고 선생은 늘 말하군 하였다.

상월선생은 노신과 그의 작품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대하였다. 선생은 노신의 문우였고 노신이 지도한 문학소조의 한 성원이었다. 선생이 소조활동을 할 때 쓴 단편소설≪도끼등≫은 노신한테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소설은 봉건유습을 반대하는 라산지방 인민들의 투쟁을 담고 있었다. 상월선생의 딸 상효원의 말에 의하면 노신은 ≪도끼등≫을 읽고 예리성이 부족한 것이 흠이라고 하면서 그 작품에 대한 불만도 표시하였다고 한다.

상월선생은 초기의 창작에서 나타난 미숙성을 극복하고 1930년대에는 ≪예모≫와 같이 사상예술적으로 세련된 작품을 창작하여 독자대중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장편소설은 그 당시 운남성에서 발간되는 잡지에 연재되었다. 1980년대에 중국인민문학출판사에서는 ≪예모≫를 단행본으로 발행하였다.

상월선생은 ≪예모≫, ≪도끼등≫ 외에도 장편소설 ≪창≫과 ≪개문제≫를 창작하여 독자들에게 선물하였다. 선생은 교육사업에 종사하면서도 작가적 사색을 한시도 중단하지 않았다. 선생이 초기에 나를 문학의 길로 인도하려고 생각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나는 상월선생한테서 ≪진독수선집≫까지 빌려다보았다. 진독수는 중국공산당 창건자의 한 사람이며 중국당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상월선생은 처음에 그 책을 잘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였다. 자칫하면 진독수의 우경적 투항주의노선에서 나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선생은 자기가 베이징대학을 다니기 전에 진독수가 그 대학에서 문학부장으로 활동하였는데 많은 교직원, 학생들이 그가 자기네 대학출신인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었다고 하였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한동안은 진독수를 숭배하였소. 그가 발간한 ≪신청년≫ 잡지와 그의 초기논문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반해버렸더랬지. 그런데 지금은 진독수에 대한 나의 견해에도 변화가 생기였소.≫

상월선생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5.4운동시기와 공산당창당초기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던 진독수의 인기가 여지없이 폭락된 것은 그가 우경기회주의 노선을 제창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진독수의 기회주의적 오류는 농민문제에 대한 입장과 태도에서 가장 우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스탈린은 벌써 1926년에 농민은 중국의 반제국주의전선에서 기본역량이며 노동계급의 가장 주요하고 믿음직한 동맹군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진독수는 농민을 경시하였다. 그는 농민이 토호출신들과 충돌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농민이 행정을 간섭하는 것과 농민의 적극적인 자위를 반대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농민투쟁을 제한하려고 하였다.

진독수의 오류는 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구실밑에 농촌혁명을 반대하면서 부르조아지가 혁명전선에서 떨어져나갈가봐 두려워한데 있다. 그의 투항주의적 노선은 오히려 혁명에 대한 부르조아지들의 배신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이것이 진독수에 대한 상월선생의 견해였다.

선생이 정당하게 말한 바와 같이 진독수의 글들에는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줄 수

있는 투항주의적 요소들이 있었다.

나는 ≪진독수선집≫을 읽은 다음 상월선생과 함께 농민문제에 대한 견해를 나누기 위한 장시간의 담화를 하였다. 그 담화과정에서는 조선혁명과 중국혁명에서 농민문제가 차지하는 위치의 공통성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이겠는가, 농민문제에 대한 레닌의 전략에서 참고할 점은 무엇인가, 농민이 혁명의 주력군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이야기되였다.

나는 농사가 천하지대본인 것처럼 농민을 천하지대군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고 하였다.

상월선생은 그 말을 긍정하면서 농민을 경시하는 것은 곧 농사를 경시하고 땅을 경시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이념을 가진 혁명을 하여도 실패를 면치 못하는 법이라고 말하였다. 선생은 진독수의 오류가 바로 이 이치를 망각한데 있다고 부언하였다.

나는 이런 담화까지 하고나서 상월선생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동시에 상월선생도 내가 공청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선생의 감수성과 판단력은 놀라울 정도였다.

상월선생은 1926년에 중국공산당에 입당하였다. 고향에서 농민운동을 지도하다가 국민당반동군벌에게 체포된 선생은 전강성육군감옥에서 1년 남짓하게 갖은 고초를 다 겪었다. 1928년초에 조선인군의의 도움으로 보석출옥한 후 사주우무라는 이름으로 변성명을 하고 만주지방에 와서 초도남이란 사람의 소개를 받아 길림육문중학교에 입직하였다.

농민문제에 대한 견해를 교환한 다음부터 나는 상월선생과 함께 정치문제에 대한 논의를 자주하였다. 그 당시 길림의 청년학생들속에서는 정치논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중국도 대혁명시기이고 조선도 대중운동이 앙양되고 있던 시기여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조선청년들속에서 리준의 방법이 옳은가, 안중근의 방법이 옳은가 하는 문제가 화제에 올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던 시기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많은 청년학생들은 안중근의 투쟁방법에 절대적인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다.

나는 상월선생에게 안중근의 투쟁방법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상월선생은 그때 안중근의 소행은 물론 애국적이다, 하지만 투쟁방법은 모험주의적이라고 말하였다. 선생의 그 대답은 나의 생각과 일치하였다. 나는 일본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은 결코 큰 군벌의 앞잡이 한두 명을 처단하는 테러적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인민대중을 교양하고 각성시켜 전민을 궐기시킬 때에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상월선생과 함께 일제의 조선침략역사와 조선에서의 식민지정책, 만주에 대한 일제의 침략기도와 군벌들의 동향, 반제반침략투쟁에서 조중인민의 단결과 협조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도 의견을 나누었다.

그때 당시 육문중학교 학생들은 군비축소와 관련된 ≪국제연맹≫의 태도를 두고 많은 논의를 하였다. 학생들가운데는 ≪국제연맹≫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말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국제연맹≫이 군비축소문제를 가지고 가짜 흥정을 한다는 논문을 써냈다. 많은 학생들이 그 논문을 지지하였다. 상월선생도 그 글을 보고 나의 견해가 옳다고 말하였다.

상월선생은 길림에 온 후 공산당과의 조직선이 끊어진 상태에 있었지만 고리끼, 노신 등 진보적작가들의 작품을 가지고 그것을 해설하는 계몽식강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 하였다. 언제인가는 비밀독서조성원들의 제의를 받고 학교도서실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자≫는 제목으로 한 주일동안 특별강의를 해주었다. 이 강의를 받

은 학생들의 반영이 대단히 좋았다.

나는 그 반영을 수집하여 상월선생을 고무해주었다.

사상의 진보성과 후대교육에서의 높은 책임성, 동서고금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으로 하여 상월선생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다.

군벌당국에 매수된 반동교원들은 그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상월선생의 교권을 허물어보려고 비열하게 책동하였다. 상월선생의 비호와 지지를 받는 학생들도 그들이 모해하고 시샘하는 대상이 되었다.

풍가성을 가진 교원은 이광한교장에게 조선학생들을 퇴학시키라고 위협하였고 체육주임 마가는 조선학생들이 중국교원들을 적대시한다고 하면서 나를 반대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려고 꾀하였다.

그때마다 상월선생은 나를 비호해나섰다.

영어교원도 새 사조를 지향하는 학생들을 적대적으로 대하였다. 그 교원은 사대주의사상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 사람이었다. 그는 동양사람들을 깔보다 못해 서양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데 중국사람들은 소리를 몹시 낸다고 하면서 그것은 미개한 표현이라고 하였다. 그는 중국사람이면서도 서양인처럼 행세하였다.

그가 동양사람들의 후진성을 두고 야비한 말을 너무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식당당번을 서는 날 일부러 우동을 만들어놓고 식당에 교원들을 초대하였다. 뜨거운 우동을 만들어놓고 식당에 교원들을 초대하였다. 뜨거운 우동을 먹다나니 그날 식사시간에는 온 식당안에 후르륵후르륵 하는 소리가 가득찼다. 영어교원도 후르륵후르륵하는 소리를 내면서 우동을 먹었다. 선생이 입으로 불면서 힘들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은 식당이 떠나가게 웃었다. 영어교원은 학생들이 자기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일부러 우동을 만들었다는 것을 간파하고 얼굴이 시뻘개서 식당에서 달아나버리었다. 그 후부터 그는 동양사람들을 모독하는 말을 더는 하지 않았다. 그 선생이 사대주의를 너무 하기 때문에 육문중학교 학생들은 영어수업에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상월선생에 대한 반동교원들의 압력은 1929년에 들어와서 더욱더 우심해졌다.

한번은 상월선생이 체육은 선수본위로 하는 것보다 군중화할수록 좋다는 선전을 하였다. 그것은 학교운동장에 있는 농구장을 선수들만 독점하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불량선수들은 방과후 숙소에서 교사로 돌아오는 상월선생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무리로 날려들었다.

나는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발동시켜 불량선수들의 폭행을 미연에 저지시키고 그들을 되게 꾸짖어 쫓아버리었다.

≪마체육주임이 졸개들을 잘 길러냈군. 벌거지만도 못한 녀석들.≫

상월선생은 꽁무니를 빼는 불량선수들을 덤덤히 바라보며 이렇게 한탄하였다.

≪선생님, 너무 놀라실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계급투쟁의 한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보다 더 첨예한 충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자 선생은 그 말을 수긍하였다.

≪그래, 옳은 말이야, 우리는 지금 군벌과의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상월선생은 그 후 교육청의 조치에 따라 부당하



김일성동지께서 쓰시던 책걸상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상월선생의 딸이 아버지가 생전에 수령님을 흠모하여 쓴 편지를 삼가 올리었다

게 출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의 복교를 위해 투쟁하다가 철직되어 육문중학교를 떠나갔다.

장춘과 카륜 지방에 가서 대중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학교에 돌아오니 권태석이 뛰어와서 상월선생이 남기고간 편지를 전해주었다.

그 편지에는 나는 군벌과의 싸움에서 패자가 되어 떠나간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가 군벌을 이기게 될 것이다. 조국과 민중의 참된 아들이 되어 한 생을 살기로 결심한 성주의 이념을 위해 나는 어디 가서나 성주에게 다함없는 축복을 보낼 것이다라는 사연이 적혀있었다.

이것이 나에게 남긴 상월선생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 후 나는 상월선생을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다만 선생이 1955년 나에게



≪상월선생이 그리워질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육문중학교 교정을 거닐어보군한다≫

보내준 글 ≪나와 소년시절의 **김일성**원수와의 역사적 관계≫와 1980년에 보내준 ≪중국역사강요≫를 받아보고 선생이 생존해있다는 것을 짐작하였을 뿐이다. 나는 그때 그 글을 보고 상월선생과 함께 조선정세와 만주정세, 일제의 침략정책과 조중인민의 공동투쟁을 논하던 육문중학교 시절을 회고하면서 노스승에게 충심으로 되는 마음속 감사를 드리였다.

나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그들에게 상월선생의 안부를 묻군 하였다. 하지만 선생과의 상봉은 아쉽게도 실현시키지 못하였다. 나로서는 옛 제자로서의 도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국경이란 참으로 이상야릇한 것이다.

상월선생은 베이징에 있는 중국인민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하다가 1982년에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났다.

1989년에 중국과학원 역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은 상월선생의 맏딸 상가란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고 1990년에는 셋째딸 상효원이 나를 만나보고 돌아갔다. 상효원은 중국인민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60년 전에 헤어졌던 스승의 모습을 그 두 딸의 얼굴에서 찾았을 때 나는 기쁨을 금할 수 없었다. 민족이 다르다고 정까지도 달라지겠는가. 사람의 정은 피부와 언어와 신앙의 장벽을 모른다. 만일 육문중학교 교정이 가까이에 있다면 나는 그 교정에 만발하는 정향나무꽃잎들을 한줌 가득 뜯어주며 ≪이것이 너희들의 아버지가 사랑하시던 꽃이다. 상월선생과 나는 이 꽃나무밑에서 자주 만났다.≫하고 말해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길림을 떠난 상월선생은 하얼빈, 상해, 베이징, 한구, 중경, 녕하, 연안 등지에서 당사업과 교육사업, 문화사업, 문필사업에 헌신적으로 참가하였다. 한때는 만주성당위원회에서 비서장으로도 사업하였다고 한다.

그는 생애의 말년까지 나를 잊지 않았으며 중국의 친근한 인방인 나의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국제주의적 감정에 충실하였다.

상월선생의 유해는 지금 베이징의 팔보산열사릉에 안장되어있다.

사람에게 한 생을 두고 회고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인간이다. 그러니 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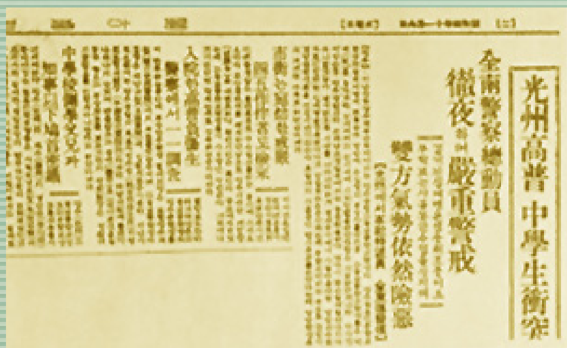
나의 청춘시절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새긴 상월선생이 그리워질 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육문중학교 교정을 거닐어보군한다.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ㅌ·ㄷ≫성원들과 비밀독서조성원들의 활동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사상이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가자 청년학생들의 사상의식에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선진사상은 그들로 하여금 점차 역사와 민족앞에 지닌 자기들의 임무를 깊이 자각하게 하였다.

우리는 청년학생들의 의식화를 위한 사업을 계속하면서 그들을 여러 가지 조직에 묶어세워나갔다. 조직을 통해서만 맑스-레닌주의사상을 더 널리 보급할 수 있었고 핵심역량도 더 빨리 키워낼 수 있었다.

나의 혁명활동은 청년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가 혁명활동을 청년학생운동으로부터 시작하고 거기에 그처럼 큰 의의를 부여한 것은 내가 학생의 몸이라는데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노동자와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군중을 의식화하고 조직화하는데서 그 운동이 노는 역할과 위치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이였다.



光州高普 中學生衝突

全南警察總動員

徹夜하며 嚴重警戒

雙方氣勢依然險惡



광주학생운동

맑스-레닌주의이론에서는 청년학생운동을 교량자의 역할에 비기고 있다. 다시 말하여 청년학생운동이 선진사상을 보급하고 대중을 계몽각성시켜 혁명운동에로 추동하고 안내하는 교량자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도 그 이론을 긍정하였다.

혁명이 심화발전되는데 따라 청년학생들의 역할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입장에서는 질적인 변화가 생기였다. 우리는 혁명의 동력을 노동자, 농민의 본위로만 규정하던 종전의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 청년학생들도 혁명투쟁에서 당당한 주력을 이룬다고 새롭게 규정하였다. 이것은 청년학생운동이 걸어온 노정이 입증해주고 있다.

3.1인민봉기와 6.10만세운동, 광주학생사건 등 해방 전 우리 나라 반일애국투쟁의 봉우리를 이루는 주요한 역사적 사변들에서 청년학생들은 항상 앞장에 서서 용감하게 싸웠다. 우리는 공산주의운동의 새 역사도 청년들의 힘으로 개척하였고 15성상의 항일무장투쟁도 청년학생들을 골간으로 하여 전개하였다. 오늘도

우리 혁명에서는 청년학생들이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조선혁명에서도 주력은 청년학생들이라고 할 수 있다. 4.19봉기의 산파도 청년학생들이였고 광주인민항쟁(1980년)의 주역도 청년학생들이였다.

중국사람들이 신민주주의운동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은 5.4운동의 최선봉에 청년학생들이 서있었다는 것도 세상이 다 알고 있은 사실이다.

인류가 아직 한번도 걸어보지 못한 전인미답의 길을 해치며 새로운 경험을 부단히 창조해온 조선인민의 풍부하고도 장구한 투쟁역사는 청년학생들을 하나의 계층으로조차 보지 않던 종전의 이론이 우리 나라의 실정과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920년대 전반기까지의 우리 나라 청년학생운동에는 계급적 입장과 반제적 입장이 확고하지 못하고 대중속에 깊이 침투하지 못하는 부족점이 있었다. 운동의 상층은 대부분 인텔리출신들이였으며 운동의 주력도 계몽활동에 편중되고 있었다.



조선인길림 소년회의 활동에 대한 일제의 비밀문건자료

우리는 청년학생운동에서 이런 부족점이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하면서 첫 걸음을 잘 떼려고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그런데 막상 조직을 내오고 거기에 청년학생들을 망라시키자고 하니 복잡한 문제들에 부닥치게 되였다.

청년학생들을 조직화하는데서 우리에게 가장 큰 난관으로 제기되였던 것은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에 의하여 이미 만들어진 기성청년조직들이 있는 조건에서 어떤 방법과 형식으로 우리의 조직을 내오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길림에는 길림청년회, 조선인여길학우회와 소년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성조직들이 있었다.

그런 조직들이 없다면 빈터우에 집을 짓는 식으로 거침없이 새 조직들을 내오겠는데 여러 갈래의 기성단체들이 출현하여 청년학생들과의 사업을 하고 있은 조건에서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었다.

우리는 심중히 토의한 끝에 이미 있는 조직들가운데서 간판만 있고 활동하지 않는 조직은 무시하고 새롭게 꾸리며 미약하게나마 움직이는 조직은 그대로 두고 이용개편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길림에서 처음으로 내온 조직은 조선인길림소년회였다. 그때 길림에는 민족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소년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름뿐이고 길림시내의 조선소년들은 그런 조직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우리는 1927년 4월에 손정도네 예배당에서 조선인길림소년회라는 합법적 조직을 무었다.

나는 김원우, 박일파(박우천)와 함께 이 모임을 지도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직부와 선전부, 문체부(문화체육부)와 같은 소년회의 부서들을 내오고 학교와 지역별로 되는 반도 조직하였다.

그때의 일에 대해서는 당시 소년회 선전부 책임자로 있던 길림여자사범학교출신의 황귀헌이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소년회는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민족주의자의 자제들을 비롯하여 길림시안의 조선인소년들을 다 망라시키였다. 조선인길림소년회의 목적은 소년들을 반일사

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키우는데 있었다.

조선인길림소년회는 강령에서 회원들이 새로운 선진사상을 학습하고 그것을 광범한 군중속에 널리 해설선전하는 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 해 5월에 우리는 조선인여길학우회를 조선인유길학우회로 개편하였다.

조선인여길학우회는 망라된 인원도 적지 않았고 일정한 정도로 영향력도 있었다.

본래 조선인여길학우회는 길림에 와서 공부하는 조선인청년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민족주의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여길학우회의 고문들가운데는 손정도도 있었다.

우리가 여길학우회를 유길학우회로 개편하려고 하자 어떤 동무들은 조선인여길학우회가 민족주의자들이 주관하는 순수한 친목단체라는 것을 문제시하면서 그것을 밀어치워버리자고 하였다. 본바탕이 민족주의이면 거기에 아무리 이질적인 것이 양적으로 많이 첨가된다고 하여도 그것은 결국 민족주의화된다는 것이었다. 그 주장의 본질은 낡은 사조로서의 민족주의를 타도하자는데 있었다.

당시는 대중을 끄는데서 경쟁이 심했다.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서로 대치되어 승벽내기로 군중을 끄는가 하면 같은 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도 파벌별로 저마끔씩 대중을 끌어당기느라고 야단법석을 하였다. 오늘 서울파가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지도부를 장악하면 내일은 화요파가 그에 대항하여 한양청년회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모레 화요파가 조선노농총동맹을 만들어내면 이번에는 반대로 서울파가 거기에 맞서서 경성노농회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풍으로 되고 있었다. 종파분자들은 심지어 다른 파들을 견제하기 위한 테러단도 경쟁적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우리 새 세대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전철을 밟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만일 종파분자들이 하는 식으로 조선인여길학우회를 무시하고 길림에 새로운 청년조직을 또 내온다면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으며 학생청년들의 대열을 분열시킬 수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백해무익한 일이었다.

우리는 조선인여길학우회속에 들어가 본래의 합법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점차 그 조직을 순수한 친목단체로부터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자고 하였다. 공산주의자인 내가 명예회장으로 되었지만 표면상으로는 민족주의자들을 끼고 하는 일이었기때문에 중국군벌당국의 주의도 덜 끌었다. 나는 조선인여길학우회를 지도하면서 그것을 조선인유길학우회로 개편하였다.

조선인유길학우회는 겉으로는 조선인청년학생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라고 표방하였지만 실지로는 ≪ㅌ·ㄷ≫의 이념을 실현하는 혁명적인 학생청년조직으로 활동하였다. 조선인여길학우회를 조선인유길학우회로 개칭하고 그것을 순수한 친목단체로부터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한 것은 우리가 청년학생운동을 하면서 얻은 하나의 큰 경험이었다.

우리가 만든 조직들이 움직이게 되면서부터 길림시안의 풍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청소년학생들의 일과생활부터 몰라보게 변하였다. 소년회와 유길학우회에 망라된 청소년들은 아침마다 지구별로 조기회를 하였다. 일요일이 오면 길림시내 모든 회원들이 대열을 지어 북산에도 가고 가창행진도 하였으며 북산밑에 있는 운동장에서 체육경기도 하였다.

우리는 청소년학생들과의 사업을 하는데서 그들의 취미와 의식수준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활용하였다.

소년회에 망라된 학생들가운데는 기독교신자들의 자녀들이 적지 않았다. 그들은 부모들의 종교적 영향을 어떻게나 많이 받았는지 세상에 정말 ≪하느님≫이 있다고까지 생각하였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아무리 ≪하느님≫이 없고 종교를 믿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해주어도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던 조선인소학교의 한 여선생에게 부탁하여 종교를 믿는 학생들을 데리고 예배를 보러 가게 하였다.

그 여선생은 나의 말대로 학생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가서 온종일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아버지이시여, 배가 고픈데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빵을 주십시오.≫하고 기도를 드리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떡이나 빵이 차례질 리는 만무하고 배만 여전히 쪼록쪼록 고팠다. 이번에는 여선생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을을 하고난 밀밭에 가서 이삭을 줏도록 하였다. 선생은 밭에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굉장히 많은 이삭을 주어왔다. 그 이삭을 털어서 빵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학생들은 그 빵을 먹으면서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는 실지 노동을 통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단순한 사실 같지만 청소년들의 사상의식을 개조하고 낡은 인습을 청산하는데서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였다.

우리가 청소년들이 예배보러 다니는 것을 경계하고 그들이 미신의 포로가 되지 않도록 부단히 교양한 것은 결코 종교 그 자체를 타도하자는데 있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미신에 빠지고 예수의 교리를 절대화하게 되면 혁명에 아무 쓸모도 없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신자라고 하여 혁명을 못한다는 법은 없지만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가 부족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종교가 내포하고 있은 무저항주의적인 요소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길림에 가보니 어떤 소년회원들은 거리를 걸어다니면서도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종교적 영향력이 강하였다. 그런데 찬송가나 불러가지고서는 적의 화구앞으로 돌진할 수 없었다. 우리에게는 찬송가를 부르는 신도들보다도 결사전가를 부르는 투사들이 더 필요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혁명적인 노래들을 대대적으로 보급하였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거리를 오가던 소년회원들이 얼마 후부터는 ≪소년애국가≫와 ≪조선인길림소년회가≫를 부르며 버젓이 시가행진을 하였다.

조선인길림소년회와 조선인유길학우회가 나온 다음 우리가 한 활동가운데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 해 여름방학에 조직한 국어강습이다. 그 강습에는 중국인소학교에 다니는 조선소년들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글을 모르는 아이들을 다 참가시키었다. 그 소년들의 대다수는 출생지가 만주였다. 만주에서 태어난 소년들은 조선말보다 중국말을 더 잘하였다.

우리는 그때부터 ≪조선사람은 조선을 알아야 한다.≫는 구호를 내들었다.

계영춘, 김원우, 박소심이 엇바꾸어가며 강의에 출연하였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우리에게는 교원이 따로 없었다. 조직의 모든 핵심들이 다 교원이였고 강사였다.

20일동안 강습을 하고나니 여기에 참가했던 소년들이 누구나 다 어린이잡지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소년회와 학우회는 청소년들의 취미와 기호에 맞게 용담산원족과 강남공원야유

회도 조직하고 문화유적들에 대한 참관과 답사도 조직하였으며 강연회, 토론회, 학습회, 웅변대회, 독서발표회, 노래보급, 연예공연과 같은 과외활동도 많이 조직하였다.

우리는 그때 비밀활동장소로서 강남공원과 북산을 많이 이용하였다. 강남공원은 릉라도와 같이 아름답게 생긴 송화강상의 섬이었다. 길림의 자본가들은 이곳에 나무를 많이 심어 섬을 식물원과 같이 수려하게 꾸리고 입장료까지 받아먹으면서 돈벌이를 하였다. 공지에다가는 락화생 같은 것도 재배하였다. 이 공원에서 우리가 야유회의 간판을 가진 비밀회의를 많이 하였다.


약왕묘

강남공원보다 더 이상적인 밀회장소는 북산이었다. 초목이 무성한 여름철을 위주로 이용하던 강남공원에 비하여 북산은 계절의 구애를 받지 않고 사시장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길림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드는 유원지가 바로 북산이었다. 그러므로 북산과 그 주변에는 봉사망도 시적으로 제일 조밀하게 배치되어있었다. 북산으로 들어가는 거리 량 옆에는 음식점, 빙탕막, 완구상, 담배상, 잡화상, 차집, 오락장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있었고 서양상품판매를 전업으로 하는 큰 경광상점도 있었다.

북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은 경치가 좋은데도 있지만 거기에 약왕묘와 같은 명승고적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약왕묘라는 것은 약신의 제사를 지내는 절당이라는 뜻이다.

길림에서는 매해 6월 4일부터 6일까지의 사흘간을 묘회기간으로 정하고 성정부의 주관하에 북산에서 약신령의 탄생을 축하하는 관제행사를 벌이었다. 이 행사에는 일반서민들은 물론, 관직을 가진 사람들까지도 다 참가하였다. 묘회기간의 3일은 휴가로 선포되었다.

경찰당국은 이 행사가 벌어질 때마다 북산아래 대도로 동쪽에 임시파출소를 내오고 전화를 가설하였으며 산우에는 경찰분반까지 배치하여 상공개의 질서를 유지하는가 하면 양왕묘, 관제묘, 랑랑묘에 피우는 향불이 산불로 번져가지 않도록 부단히 경계하고 단속하였다. 3일간의 행사기간에는 마차부들과 인력거군들까지 평상시의 10배나 되는 돈을 벌었다.

장사아치들이 3일간의 묘회를 돈벌이의 호경기로 삼았다면 이 도시의 유지들과 선각자들은 성립통속강습소의 간판을 가지고 군중을 계몽시키는 사회교육의 연단으로 삼았다. 각이한 직업에 종사하는 계몽활동가들이 도처에 나타나 주먹을 흔들며 애국, 도덕, 법수호, 미감, 실업, 체육, 위생 등의 주제를 가지고 열변을 토하였는데 북산이 아니고서는 어데서도 볼 수 없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이었다.

이런 복잡한 틈바구니에서 우리도 군중을 찾아다니며 선진사상을 먹이고 때에 따라서는 비밀회합도 하였다. 약왕묘 지하실은 우리의 전용회의실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 절의 중은 우리가 쟁취한 사람이었다.

나는 길림에서 학교를 다닐 때 강연도 많이 하였다. 어떤 때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조직한 토론회에 가서도 연설을 하였다. 오동진, 이탁을 비롯한 정의부의 지도자들은 국치일(8월29일), 3월 1일, 단군탄생일(10월 3일)등 주요기념일이 있을 때마다 시내 교포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모여놓고 강연회와 토론회를 자주 조직하였다.

유길학우회의 성원들속에서는 이준의 방법이 옳은가, 안중근의 방법이 옳은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였다. 아무리 논쟁을 해도 결판이 나지 않으므로 우리는 여길학우회가 유길학우회로 개편된 그 해 여름에 손정도네 예배당에 시내에 있는 조선인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그 문제를 토론에 붙이기까지 하였다. 그 토론회를 계기로 길림의 청소년들이 크게 각성되었다. 그들은 테러로써도 안되겠다. 청원으로써는 더구나 안되겠다. 강대국들이 도와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닫고 조선을 독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로가 탐구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약왕묘안에 있는 지하실

그 당시 길림에서 진행된 토론회나 독서발표회에서는 조선혁명의 실천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논의되었다.

우리는 매해 5월 첫 주 일요일을 ≪소년회날≫로 정하고 이날에 길림시내의 조선인청소년들과 그 부형들, 유지들과 독립운동자들이 참가하는 운동회도 열어 단결의 분위기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청소년들을 단결시킨 다음 그들을 대중을 교양하고 계몽시키는 사업에 참가시키었다. 열 살 안팎의 소년회원들까지도 방학이면 강동, 육대문, 신안툰, 대황구와 같은 주변농촌마을들에 나가 농민들의 일손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계몽하였다.

파쟁이 우심하던 길림에서 우리가 백가지 숨을 쉬던 청소년들을 한 가지 숨을 쉬게 만들어놓은 것은 확실히 귀중한 소득이였고 체험이였다.

조선인길림소년회, 조선인유길학우회, 맑스-레닌주의독서조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길림일대에서는 ≪ㅌ · ㄷ≫성원들을 핵심으로 하는 새 세대의 혁명역량이 급속히 자라나게 되었다.

길림에 주재하고 있던 일본총영사까지도 이것을 간파하고 우리의 활동에 주의를 돌리게 되었다. 길림일대에서 새로운 혁명세력이 등장하여 그것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질겁한 총영사는 자기 나라 외무대신에게 보낸 공식보고문에서 그 대오가 조직력이 강하다는 것과 장차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게 될 위험성이 있으니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일제는 내부가 통일되어있지 않고 사분오열된 조선공산당의 종파집단이나 실행력과 군중에 대한 침투력이 미약한 민족주의세력보다도 파쟁과는 담을 쌓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서 인민대중속에 깊숙이 스며들어가 독자적인 방법으로 혁명의 길을 개척해가는 우리의 존재를 늘 무서워하였다.

길림에 새로운 운동선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만주각지는 물론, 국내와 중국관내에까지 펴져갔다. 이 소문은 주로 길림에 와서 공부하던 유학생들과 그들의 부형들에 의하여 멀리까지 전파되었다.

우리의 운동선에 합류하려고 국내와 일본, 연해주, 만주각지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길림으로 모여들었다. 독립군에 관계했던 청년들, 일본에 가서 고학을 하던 청년들, 백파들과 싸우던 청년들,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광주폭동에 참가했던 청년들, 국민당반동들의 추격을 피해 여기저기 숨어다니던 청년들, 레닌의 숭배자, 손문의 숭배자, 루소의 숭배자 등 정견과 소속, 생활경로가 서로 다른 천태만상의 청년들이 우리를 찾아왔다. 김혁, 차광수, 김준, 채수항, 안붕 등도 그 시기에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을 교양하여 ≪ㅌ · ㄷ≫에 받아들이는 한편 조직을 시내 여러 학교들에 확대해나갔다.

그 과정에 우리는 ≪ㅌ·ㄷ≫보다 더 큰그릇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망라할 수 있는 조직을 내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이런 필요성으로부터 1927년 8월 27일에 ≪ㅌ·ㄷ≫를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고 그 다음날 연이어 ≪ㅌ·ㄷ≫의 정수분자들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창립하였다. 반제청년동맹은 ≪ㅌ·ㄷ≫의 구호를 그대로 내세우고 그 강령을 그대로 계승한 반제적이고 대중적인 비합법적 청년조직이었다. 조직의 기본구성은 조선청년들이었으나 우리는 반제적 입장이 강한 중국청년들도 거기에 가입시키었다.

반제청년동맹은 광범한 반일청년대중을 혁명대열에 묶어세우며 반일투쟁의 대중적 지반을 튼튼히 하는데서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 조직은 문광중학교, 길림제1중학교, 길림제5중학교, 길림사범학교, 길림여자중학교, 길림법정대학을 비롯하여 조선학생들이 있는 시내의 모든 학교들에 다 들어갔으며 강동, 신안툰을 비롯한 길림주변의 농촌지역과 유하현, 화전현, 홍경현 일대에도 뿌리를 박았다. 조선청년들이 있는 곳이면 다 퍼지었다.

반제청년동맹에서는 얼마 후부터 등사판으로 선전용자료까지 밀어냈다.

우리는 그때 청년들을 더 많이 결속하기 위하여 토요일이면 공부가 끝나기 바쁘게 주변농촌으로 나가군 하였다. 토요일에 공부가 끝나서 떠나면 일을 보고 일요일 오후에 돌아올 수 있었다.

우리가 ≪ㅌ·ㄷ≫를 반제청년동맹으로 개편하고 연이어 공청을 창립한 것은 반년 남짓한 사이 길림과 무송 일대에서 청년학생들을 망라하는 합법, 비합법의 여러가지 대중조직들이 자라난 조건에서 그 모든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영솔할 수 있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새로운 전위조직을 내오는 것은 당시 청년운동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였다.

당시까지는 내가 어느 조직에나 다 관련되어있었기 때문에 나 개인의 활동을 통하여 조직들 호상간의 연계가 지어지군 하였다. 최창걸, 김원우, 계영춘과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청년공산주의자의 자격으로 학생청년조직들에 관계하였을 뿐이다.

새로운 전위조직을 내오는 것은 당시의 정세로 보아도 절박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었다.

그때 일제는 만주침략을 서두르고 있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을 강화하면서 만주에서 반동군벌과 결탁하여 조중인민의 반일기세를 말살하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였다.

조선청년들은 일제와 중국의 반동군벌들을 반대하여 도처에서 투쟁에 궐기하였다. 이런 실정은 청년학생들을 조직적으로 결속하고 통일적으로 장악하며 그들의 투쟁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전위조직의 필요를 절실하게 제기하였다.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영도권쟁탈로 하여 사분오열의 길을 걷고 있은 청년운동의 실태를 보아도 청년들을 분열의 위기에서 구원하고 통일단결의 길로 건전하게 이끌어갈 전위조직의 탄생은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앞에 단 하루도 지체시킬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부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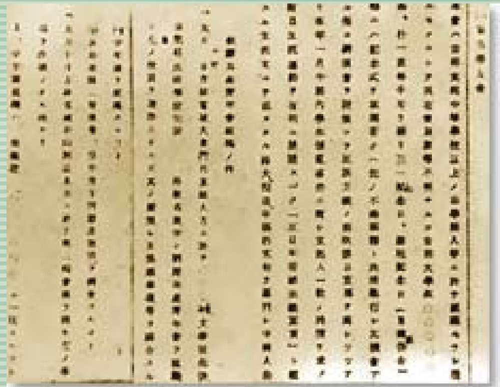
당시 중국 동북지방에는 비합법적 청년조직으로서 만주조선공산주의청년단이 조직되였고 합법적 청년조직으로서 남만주청년총동맹, 북만주청년총동맹, 동만주청년총동맹, 길림청년동맹, 길회청년동맹, 삼각주청년동맹 등 여러 단체들이 조직

되어있었다.

각이한 계열의 종파분자들이 이 청년단체들을 서로 끌어당기고 각이한 세력의 민족주의자들이 승벽내기로 이 단체들에 손을 뻗쳤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있는 사람들조차 자기의 소속단체가 공산주의단체인지, 민족주의단체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정도였다. 청년학생들은 이렇게 여러 갈래로 갈라져있었다. 엠엘파나 화요파의 영향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민족주자의 자식들인 경우에도 아버지가 무슨 단체에 속해있는가에 따라 정의부편, 참의부편, 신민부편으로 갈라지고 거기다가 또 보수파와 혁신파로까지 나뉘어져있었다. 견해가 다르고 소속단체가 다르다보니 그들은 늘 반목상태에 있었다.

분열된 청년운동을 바로잡고 청년들을 민족주의세력과 종파분자들의 영향밑에서 떼어내여 참다운 공산주의혁명의 길로 이끌어나가자면 반드시 새로운 전위조직을 내와야 하였다.

털어놓고 말해서 그때 조선공산당이 제구실을 어지간히라도 하였더라면 우리까지 그런 걱정을 안해도 되었을 것이다. 공산주의이념을 가진 당이 있고 많은 청년조직들이 있으면서도 그 덕을 하나도 보지 못하니 그보다 더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은 없었다.



조선공산주의 청년동맹을 조직지도하신데 대한 일제의 비밀문건

조선혁명은 그 자체의 특수성으로 하여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 많은 애로와 난관이 걸음마다 앞을 가로막아나섰다.

종파분자들과의 관계, 민족주의자들과의 관계, 중국인민들과의 관계, 국제당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항시적으로 제기되었다. 게다가 만주에서 활동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일제와 중국반동군벌들로부터 이중적인 위협을 받고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혁명을 능란하게 영도해나가자면 그것을 감당할만한 세련된 영도핵심과 올바른 지도이론이 있어야 하였다.

≪ㅌ·ㄷ≫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우수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많이 자라났다. 파쟁도 모르고 사대주의도 모르고 집권욕도 모르며 낡은 때가 묻지 않은 새 형의 청년공산주의자들로써 우리 나라 청년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롭게 개척해나갈 수 있는 참다운 핵심이 육성되었다.

화전과 길림에서 새 사조를 탐구하고 ≪ㅌ·ㄷ≫와 함께 투쟁의 길을 헤쳐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조선혁명의 실천과 관련된 일정한 지도이론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이런 지도이론을 구현한 전위조직으로 공청을 내올 것을 결심하고 그 강령과 규약을 만드는데 착수하였다.

강령에서는 공청이 조선혁명의 실천과 밀접히 결부된 이론에 의하여 지도되며 종파를 철저히 배격한다는 것이 특별히 강조되었다.

우리는 이런 준비에 기초하여 1927년 8월 28일 북산공원의 약왕묘 지하실에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는 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는 최창걸, 김원우, 계영춘, 김혁, 차광수, 허률, 박소심, 박근원, 한영애를 비롯한 반제청년동맹 핵심들과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참가하였다.

내가 보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미 소책자로 세상에 나갔다.

그날 우리는 ≪ㅌ·ㄷ≫를 뭇던 때처럼 서로 어깨를 겯고 한 덩어리가 되어 ≪인터내셔날≫의 노래를 불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하고 여러 혁명조직들에서 단련되고 검열된 청년들로 무어진 반제민족해방과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비합법적인 청년조직이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조선청년공산주의자들의 선봉대로서 각계각층 대중단체들을 조직지도하는 전위조직이였다.

우리는 공청을 창립한 다음 대열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대오의 조직사상적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헌병, 경찰, 특무들의 준동과 반동분자들, 종파분자들의 해독행위가 심한 당시의 실정에서 조직을 보존할 수 없었다.

공청은 동맹원들의 사상교양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 그들속에서 정치이론수준과 지도수준을 높이기 위한 학습에 많은 힘을 넣었다. 동맹원들속에서는 그때 ≪제국주의론≫, ≪식민지와 민족문제≫, ≪조선혁명의 당명투쟁과업≫과 같은 문제에 대한 연구와 토론이 진지하게 진행되였다.

우리는 공청원들의 조직생활을 매우 중시하였다. 그 당시 공청에서는 한 달에 한번씩 성격검토회를 가지고 공청원들의 생활을 총화하였다. 공청원들은 조직생활을 통해 단련되였으며 공청대오는 조직성과 규율성이 강한 집단으로 자라났다.

우리는 공청원들에게 아래조직들을 지도할 데 대한 분공, 청년학생들과 군중을 계몽시킬 데 대한 분공, 농촌을 혁명화할 데 대한 분공 등 다양한 분공을 많이 주어 실천활동을 통하여 그들을 부단히 단련시키였다.

또한 혁명조직들에서 단련된 우수한 청년들로 공청대오를 부단히 늘여나갔다. 그리하여 공청은 짧은 기간에 길림시와 그 주변은 물론, 돈화, 홍경, 화전, 무송, 안도, 반석, 장춘, 하얼빈 등 만주의 넓은 지역과 북부조선일대를 비롯한 국내깊이에까지 확대되였다. 공청은 조선혁명에서 전위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이 대중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맡아하는 것은 공산주의운동에서 하나의 상식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이 제구실을 똑똑히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청이 당에서 해야 할 일까지 맡아가지고 자기산하의 청소년조직들에 대한 지도와 함께 노동자조직, 농민조직, 여성조직들에 대한 지도까지 동시에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는 공청을 창립한 다음 소문을 내지 않으면서 조용히 대중속으로 스며들어갔다. 설사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혁명에 이롭고 인민에게 이로운 일을 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배짱이였다. 남들이 영도권이 탐나서 자신들을 ≪정통파≫라고 자랑하며 돌아다닐 때에 새 세대의 청년공산주의자들은 그런 허영의 세계와 담을 쌓고 혁명의 길을 한치한치 뚫아나갔다.

공청은 청년들의 조직적 결속을 촉진시키고 핵심을 육성하며 우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는데서 눈부신 역할을 하였다. 공청의 창립은 새 형의 당조직을 내오기 위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힘있게 추동하였으며 그 위업을 앞당기는데서 중추적이고 근본 적인 역할을 하였다. 1930년 여름에 결성된 첫당조직의 성원들중 대다수는 공청을 통해 육성된 선봉적인 청년투사들이였다.

얼마전에 우리는 공청창립일인 8월 28일을 청년절로 제정하였다.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하투쟁을 앞두고

반제청년동맹과 공청을 내온 다음부터 우리는 활동무대를 광활한 지역에로 넓혀나갔다.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이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꼬리를 물고 길림을 떠나갔다.

나도 그때 학생의 몸이지만 여러 고장들에 나가군 하였다.

길림에서 몇백 리 떨어진 곳들에도 자주 다니며 새로운 활동무대를 개척하였다. 토요일 저녁차로 길림을 떠나 교하, 카륜, 고유수와 같은 고장들에 갔다가 다음날 밤차로 돌아오군 하였는데 피치 못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결석도 하였다. 이광한교장이나 상월선생을 제외한 대다수의 교원들은 그것을 몹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아버지도 안계시고 집이 가난하여 학비벌이라도 하는 게 아닌가고 짐작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신분이 학생이고 보니 여러 가지 구속과 제약이 없지 않았다. 강의에 참가하고 과외학습을 하고 그 여가를 타서 여러 조직들의 사업까지 보아야 했으므로 나는 늘 시간의 부족을 느끼군 하였다.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방학 때였다. 우리는 보통 때 준비를 잘해두었다가 방학이 되면 여러 고장으로 다니며 조직을 꾸리는 활동도 하고 군중계몽도 하였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국내에서도 하나의 사회적 풍조로 되고 있었다. 방학이 되면 많은 학생들이 농민들속에 들어가 계몽활동에 참가하였다. 내가 화성의숙에 다니던 그 해 여름 국내에서는 ≪조선일보≫사가 방학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등학교이상의 학생들로 계몽대를 뭇고 그들에게 강습까지 주어 농촌으로 내려보냈다. 계몽대에 망라된 학생들은 고향에 돌아가 신문사에서 만들어준 조선어교본을 가지고 문맹퇴치사업을 하였다.



브나로드운동

일본에 가서 공부하는 유학생들도 방학이 되면 조국에 돌아와 유학생순회강연대를 무어가지고 전국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계몽사업을 하였으며 천도교와 기독교청년회에서도 농민들속에 침투하여 농촌진흥사업을 추진시키었다.

그러나 국내학생들의 계몽운동은 민족의식의 계발을 지향하는 모든 국민적 운동을 저들의 식민지정책에 대한 반항으로 보는 총독부당국의 철저한 탄압과 지도자들의 사상적 제한성으로 인하여 대중을 혁명화하고 조직화하는 단계에로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민족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순수한 개량주의적 운동에 머무르고 말았으며 그것마저 1930년대 중엽에 들어가서는 하강기를 맞이하였다.

그 운동이 순수한 개량주의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은 농촌에서 그들이 해

온 활동내용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들의 활동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문맹퇴치와 농촌의 생활환경을 위생적으로 개조하는 것이었다. 기독교청년성원들이 진행한 활동내용가운데는 지어 요리법의 개선운동과 우물을 깨끗이 거두는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양계, 양잠법과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신청서의 사용법에 이르기까지 농촌주민들을 근대적 생활에로 안내하고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화계몽적인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있었다.

우리는 일제의 탄압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는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농촌계몽활동을 대중을 조직화, 혁명화하기 위한 활동과 밀접히 결합시키면서 그것을 적극적인 정치투쟁의 한 형태로 승화시키는데 큰 주의를 돌리였다. 우리의 군중공작은 애국주의교양, 혁명교양, 반제교양, 계급교양을 주선으로 하여 사람들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각종 대중조직에 묶어세우는 방향에서 진행되였다.

우리가 대중의 혁명화를 위해 그처럼 전력을 다한 것은 그들을 우매하고 미개한 계몽대상으로만 보아오던 종래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인민이야말로 우리의 선생이며 혁명을 추동하는 기본동력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시한데 있었다.

우리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갔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

그때부터 이 구호는 나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좌우명으로 되었다.

나는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혁명활동을 시작하였고 오늘도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혁명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생을 총화하고 있다. 단한 번이라도 인민들과의 접촉을 게을리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인민의 존재를 망각하는 순간이 있었다면 나는 10대의 시절에 이미 형성된 인민에 대한 순결하고 진실한 사랑을 오늘까지 간직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인민에 대한 참다운 복무자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인민의 권리가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인민의 지혜와 창조력이 무한정 발양되는 오늘의 우리 사회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나는 우리를 인민행 열차에 처음으로 태워준 길림시절에 감사를 드리군 한다.

우리가 인민들속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1927년 겨울방학부터였다.

부자집학생들한테는 겨울방학이 문자그대로 신선놀음이었다. 그들은 겨울 내내 집에서 연애소설을 보며 딩굴든가, 기차를 타고 장춘이나 하얼빈,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로 유람을 떠나든가 하였다. 음력설이 되면 좋은 음식을 해놓고 폭죽을 터뜨리며 흥겹게 놀았다. 원래 중국사람들에게는 음력 정월초하루부터 2월 2일까지 정월 한달동안 계속 노는 풍속이 있다. 그들은 음력 2월 2일을 용태두(용이 대가리를 쳐든 날)라고 하면서 정월에 잡은 돼지대가리를 다 삶아먹어야 명절놀이를 끝낸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처럼 유람을 다닐 수도 없었고 명절놀이로 풍청거릴 수도 없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면 방학을 이용하여 혁명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궁리를 하였다.

나는 방학이 되자 연예대원들을 데리고 장춘에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기 바쁘게 인차 무송으로 떠났다. 박차석과 계영춘도 한해 겨울을 우리 집에서 보내기로 약속하고 나와 동행하였다.

그 해 겨울방학을 우리는 참으로 바쁘게 보내었다.

나는 집에 도착하기 바쁘게 새날소년동맹원들에게 둘러싸이었다. 그들은 동맹이 겪고 있은 사업상 고충에 대하여 기탄없이 하소연하였다.

동맹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

다.

우리는 그들의 애로를 풀어주기 위하여 새날소년동맹원들과의 사업에 많은 시간을 바쳤다. 동맹지도일군들에게 연예선전대의 활동방법, 사회활동방법, 군중공작방법, 동맹내부사업방법들을 가르쳐주면서 정치토론회와 성격검토회에도 자주 참가하여보았다.

소년동맹사업을 추켜세운 다음에는 무송지방의 핵심청년들로 백산청년동맹을 조직하였다. 백두산주변에 있는 청년들의 조직이라는 의미에서 백산청년동맹이라는 이름을 달았으나 그 단체는 사실상 반제청년동맹의 변신이였다. 우리가 그 조직에 백산반제청년동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저 청년동맹이라고 한 것은 적들에게 혼란을 주고 조직을 위장시키기 위해서였다. 백산청년동맹은 민족주의영향하에 있는 단체처럼 변장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하였다.

우리는 백산청년동맹원들을 움직여 청와재를 비롯한 주변의 농촌마을들에 야학을 내오도록 하였다.


신문 새날창간호를 만든 무송의 백산학교

나는 청년조직들이 늘어나고 그 대열이 확대되는 조건에서 광범한 청년들과 군중들에게 사상적인 양식을 줄 수 있는 신문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신문을 만드는 사업은 완전히 영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욕심 같아서는 한번에 신문을 100부 정도씩 찍어내고싶었지만 우리에게는 등사기도 없고 종이도 없었다.

무송에 중국사람이 경영하는 자그마한 인쇄소가 하나 있기는 하였으나 우리가 만들 신문의 내용으로 보아 그 인쇄소에 의뢰할 수가 없었다.

나는 생각다 못해 손으로 써서 신문을 내기로 마음먹고 이 사업에 새날소년동맹열성자들과 백산청년동맹의 핵심들을 동원시키었다. 100부를 쓰는데 한 주일이상의 시간이 걸리었다.

1928년 1월 15일 우리는 드디어 ≪새날≫이라는 제호를 단 신문의 창간호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때 무슨 정력으로 그 많은 글을 다 써냈던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좀처럼 믿어지지 않는다. 그 시절의 혈기와 젊음이 그리워지는 때가 많다. 우리는 그때 자기를 혁명에 깡그리 바치는 거기에서 둘도 없는 행복을 느끼였다.

꿈도 없고 담력도 없고 열정도 패기도 투지도 낭만도 없는 청춘은 청춘이 아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상을 높이 세우고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만난을 무릅쓰고 완강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생신한 사상과 건실한 육체를 가진 청춘들이 피와 땀을 바쳐 가꾸고 이룩해놓은 모든 열매들은 조국의 귀중한 재부로 되며 그 재부를 이루어놓은 주인공들에 대하여 인민들은 영원히 잊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때가 일생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시절이기 때문이다.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때가 제일 행복하다.


연극-혈분만국회

그 후 나는 아버지의 친지들한테서 힘들게 얻어낸 등사기로 ≪새날≫신문을 밀어냈다.

1927년 겨울방학의 활동가운데서 가장 이채로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연예선전대의 활동이였다. 무송의 연예선전대에는 새날소년동맹원들과 백산청년동맹원들, 부녀회원들이 망라되였다. 이 연예선전대가 무송과 그 주변의 농촌부락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달가량 순회공연을 하였다. 우리는 순회공연을 하면서 도처에 조직도 꾸리고 군중계몽도 하였다. ≪혈분만국회≫,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딸에게서 온 편지≫와 같은 연극들은 다 그 해 겨울에 우리가 무송에서 창작하고 공연한 작품들이다.


예술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연예선전대가 순회공연을 앞두고 무송시내에서 며칠동안 공연활동을 하고 있을 때 군벌당국이 아무 이유없이 나를 체포하여 감옥으로 끌고갔다. 몇몇 봉건주의자들이 우리의 공연내용이 자기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나를 군벌당국에 밀고하였던 것이다.

그때 소학교동창생인 장울화가 나를 석방시키느라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설복하여 경찰당국이 우리 집을 수색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게 하였다.

장울화의 아버지는 우리 집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 의사가 소통하여 아버지의 친지가 된 사람이였다. 그는 거부이지만 양심적인 인간이였다. 우리 아버지가 무송에서 백산학교 복교를 발기하고 그 인가를 얻지 못해 애를 태울 때에도 그가 나서서 교섭을 하였다.

장울화의 아버지와 같은 세력가가 압력을 가하니 특별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던 군벌당국도 어쩧게 하는 수가 없었다.

그때 무송에 있는 조선사람들이 군벌당국에 몰려가 나를 석방하라고 집단적인 항의를 들이댔다. 우리 어머니가 조직을 발동하고 군중을 추동하였다. 중국인유지들까지도 군벌당국의 처사를 비난하면서 나를 내놓으라고 하였다.

얼마 후 군벌당국은 하는 수없이 나를 석방하였다.

나는 경찰서에서 풀려나오자 연예선전대를 이끌고 푸수허 마을로 떠났다.

연예선전대는 푸수허마을에서 연 사흘동안이나 공연하였다.

우리의 공연을 이웃마을 사람들까지 와서 구경하고 돌아가다나니 주변부락들에 소문이 굉장히 퍼지게 되었다.

두지동사람들도 그 소문을 듣고 우리를 찾아와서 연예선전대를 자기네 마을로 초청하였다.

우리는 그 초청을 쾌히 수락하였다.

두지동에서의 공연은 대성황을 이루었다. 우리는 부락사람들의 요구에 의해 예정했던 체류기일을 여러 번 연장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첫 공연이 끝났을 때 새날소년동맹 위원장이 무대뒤로 뛰어와서 마을의 좌상아바이가 나를 찾는다고 알려주었다.

입에 골통대를 문 풍채좋은 중늙은이가 방금 우리가 공연을 한 그 집 울타리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은 수북한 장미밀으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를 자기네 마을까지 안내한 두지동의 청년이 내곁에 다가와서 ≪차천리노인이요.≫하고 귀띔해주었다.

나는 차천리라는 말을 듣기 바쁘게 절을 하였다.

≪노인님, 인사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노인님께서 이웃동리에 나들이를 가셨다기에 미처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 나들이를 갔다가 연예대소문을 듣구 급히 뛰어왔네. 자네가 김형직선생의 자제라는게 적실한가?≫

≪네, 그렇습니다.≫

≪자네 같은 아들을 두었으니 김선생이 지하에서나마 마음을 놓게 되었네. 내 한평생 이렇게 훌륭한 연예는 처음 보았네.≫

노인이 격식을 차려 깍듯이 대하는 바람에 나는 여간만 당황해지지 않았다.

≪노인님, 이러지 마십시오. 아들 같은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뭘 이러십니까.≫

노인은 그날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였다.

나는 노인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가면서 넌지시 이렇게 물었다.

≪노인님, 이거 버릇없는 물음이지만 노인님이 하루에 천리를 걷는다는 게 정말입니까?…≫

≪허허, 자네도 그 소문을 들었던가. 내 한창 나이 때에는 천리는 몰라도 오백리는 걸었네.≫

나는 그 대답을 듣고 차천리노인이 소문과 같이 대단한 독립운동자라고 생각하였다.

그의 성밀에 본명대신 천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 다 일리가 있은 일이었다.

그 천리라는 이름 때문에 노인은 만주지방의 조선사람들속에서 신비스러운 인물로 알려지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도 생전에 이 노인의 걸음걸이를 두고 탄복의 말씀을 한 적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 천리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노인이 강계지방에서 의병활동을 할 때부터라고 말씀해주었다.

차천리는 만주에 건너온 후 참의부에 소속되어 심룡준의 부하로 활동하였다. 참의부가 상해임시정부의 치하에 들어갈 때 그것을 제일 견결하게 반대한 사람이 차천리였다는 말도 많이 들었는데 독립군단체가 임시정부의 울타리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던 정의부의 몇몇 인사들은 노인의 입장을 격찬하였다. 지도부의 대다수가 군인출신인 정의부인물들속에서는 문관위주의 임시정부를 사답게 보지 않는 경향이 지배하고 있었다.

차천리노인은 그날 나에게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노인은 지난날 조선민족이 얼마든지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고 독립국가의 당당한 인민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 때문에 나라를 빼앗겼다고 통탄하였다. 그는 독립운동을 하려면 말만 하여서는 안되며 손에 총을 잡고 왜놈을 하나라도 더 잡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아주 교활한 놈들이기 때문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까지 들려주었다.

≪자네 경성성냥공장이 망한 경위를 들어본 적이 있나? 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잰내비표≫성냥이 아주 유명했네. 성냥두 성냥이지만 상표가 특별해서 사람들의 눈을 끌었지. 잰내비가 복숭아가지를 메고 있은 상표였거든. 왜놈들이 조선에 와서 딱성냥공장을 차려놓았지만 이 성냥 때문에 돈벌이를 할 수 없었다는구만. 그래 여러 가지로 계책을 짜내던 끝에 ≪잰내비표≫성냥을 수만 통 사가지고 어느 무인도에 가서 성냥가치를 모조리 물어 잠궜다가 말린 다음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걸세. 그 다음부터는 사가는 사람마다 불이 일지 않아 못쓰겠다고 하면서 왜놈들의 딱성냥만 사갔다지 않겠나. 경성성냥공장은 상표를 왜놈회사에 팔고 파산당했네. 왜놈족속들이란 이래.≫

사실여부는 확증할 수 없었지만 일본제국주의를 이해하는데서는 만 냥짜리 이야기였다.

노인의 말이 자기는 한창나이 때 화승대를 가지고 놈들이 5연발총으로 다섯 발을 쏘는 사이에 세 발은 쏘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싸우지도 못하고 집에 들어박혀있자니 답답해견딜 수 없다고 하였다.

노인은 그날 우리가 공연한 ≪단심줄≫이라는 가무가 대단히 좋다고 하면서 지난날 의병활동이 흐지부지돼버린 것도 힘을 합치지 못한 탓이며 독립군이 맥을 못추고 왜놈들에게 쫓겨다니는 것도 역시 힘을 합치지 못하고 제가끔 뿔뿔이 놀아나는 탓이라고 개탄하였다.

≪조선사람은 비록 셋이 모여도 단결하여 왜놈들과 싸워야 하네.≫

노인은 격해서 이렇게 말했다. 차천리노인의 말이 다 옳았다. 단결하면 이기고 분열되면 망한다는 이치를 아프게 체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다.

노인이 내 손을 붙잡고 자기는 나이가 많아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 같지 못하다고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잘 싸워달라고 당부할 때 나는 조선의 아들로서 인민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혁명을 잘해야겠다는 숭고한 사명감을 느끼었다.

그날밤 차천리노인이 해준 말은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조선사람들은 비록 셋이 모여도 단결하여 일제와 싸워야한다고 한 노인의 말은 그 후 우리의 투쟁에서 큰 교훈으로 되었다.

연예선전대를 데리고 사람들속으로 들어가면 군중을 깨우쳐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군중에게서 배우기도 하였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우리의 선생은 역시 인민이었다.

그래서 나는 일군들을 만날 때마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라고 간곡하게 말하군 한다. 인민들속에 들어가는 것은 보약을 먹는 것과 같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고 늘 강조하군 한다. 인민들속에 들어가야 차천리 같은 노인도 만날 수 있다. 인민들속에는 철학도 있고 문학도 있고 정치경제학도 있다.

차천리노인은 참의부의 경호대장으로 활동하다가 자기의 상관인 심룡준에게 암살당하였다고 한다.

나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조선사람은 비록 셋이 모여도 단결하여 왜놈들과 싸워야 한다던 차천리노인의 말을 비분강개한 심정으로 되새겨보았다. 노인의 좌우명처럼 참의부의 지도자들이 서로 마음을 합치였더라면 이런 통탄할 불상사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두지동에서 그 해 음력설을 쇠였다.

설명절이 지난 후 나는 연예대원들을 무송으로 돌려보내고 계영춘, 박차석과 함께 안도땅으로 향하였다. 안도현에는 조선사람들만 사는 내도산마을이 있었다. 하늘아래 첫 동네라고 불리우는 백두산기슭의 이 마을은 울창한 밀림속에 산간벽촌이었다. 내도산이란 수림속의 섬 같은 산이란 뜻에서 생겨난 이름이다. 중국사람들은 산모양이 젖꼭지 같이 생겼다는 의미에서 내두산이라고도 한다.



두지동집

이 산간마을에 오래전부터 조선의 독립

운동자들이 드나들었다. 독립군의 백전로장인 홍범도와 최명록도 한때 이 부락에 와있었다.

우리가 이미 ≪ㅌ·ㄷ≫성원인 이제우를 내도산에 파견하여 그 일대의 청년들을 조직에 묶어세우도록 한 것은 장차 백두산 주변을 큰 혁명기지로 만들자는 타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우(이우)는 황해도태생이였다.

그의 아버지는 장백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와의 연계밑에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런 연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우도 자연히 나와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었다.

화전에서 헤어진 후 내가 이제우를 다시 만난 것은 무송에서 백산청년동맹을 결성할 때였다. 나는 그때 그와 내도산부락에 백산청년동맹지부를 내올데 대한 문제를 의논하였다. 이제우는 농절반 진담절반으로 자꾸 과업만 주려 하지 말고 한번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무송에서 내도산까지는 300리가 넘었다. 중국쪽에서 보면 만주땅의 마지막부락이지만 조선땅에서 보면 백두산너머 첫 마을이다. 이 내도산주변 100리안팎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

우리는 저녁녘에 마을에 도착하여 이제우의 안내로 한의노릇을 하는 최씨의 집에 들었다.

최씨의 말이 우리가 들어있는 방에 장철호가 두 번 와있었고 이관린이도 있었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다녀가고 아버지의 친구들이 개척하던 고장에 오늘은 우리가 와서 혁명의 보습을 대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숙연해지는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내도산부락에 며칠 있어보니 이제우가 기어이 와달라고 하던 심정이 이해되었다. 내도산마을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 발을 붙이기가 무척 어려운 고장이였다.

마을에는 주로 최가, 김가, 조가 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는데 이들은 바깥세상과 담을 쌓고 서로 삼각혼사를 맺었다. 최씨네 딸은 김씨네 아들한테 시집을 가고 김씨네 딸은 조씨네 아들이 데려갔으며 조씨네 딸은 최씨네 며느리로 들어갔다. 좁은 골안에서 혼사가 이런 식으로 맺어지다나니 온 마을이 친척관계로 얽혀져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형님≫, ≪아재비≫, ≪사돈님≫하면서 돌아갔다.

이 마을 사람들은 거의 다 천불교를 믿었다. 천불교신자들은 하늘에서 99명의 선녀가 백두산천지에서 미역을 감고 올라갔다는 전설에 기초하여 그곳에 ≪덩덕궁≫이라는 99칸자리 절간을 지어놓고 일년에 두 번씩 찾아가 기도를 드리였다. 천불교신자들은 마을에도 ≪천불사≫라는 절간을 지어놓고 열흘이나 한 주일에 한 번 정도씩 가서 기도를 드리였다.

우리가 내도산에 도착한 다음날이 마침 천불교신자들이 절간에 가서 기도를 드리는 날이였다. 그날 우리 일행은 이제우의 안내를 받아 절간근처에까지 가보았는데 과연 장관이였다. 신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고구려사람들처럼 머리를 우로 틀어올리고 울긋불긋한 옷차림으로 한데 모여들어 꽹과리와 제금을 치고 북과 목탁을 두드렸는데 덩덕궁덩덕궁하는 소리가 아주 장엄하였다. 그래서 절간이름마저 ≪덩덕궁≫이라고 지었다는 것이였다.

이제우가 하는 말이 내도산일대에서는 이 천불교가 골치거리라는 것이였다. 그는 종교가 아편이라는 단순한 관념을 가지고 천불교를 곱지 않게 보고 있었다. 무송에서 이제우의 말을 들었을 때는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의식을 거행하는 천불교신자들의 진지한 모습과 웅장한 ≪덩덕궁≫을 보고나서는 생각을 한번 더 깊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최씨의 안내를 받으며 이제우와 함께 천불교 교주 장두범을 찾아갔다.

장두범은 한때 독립군에서 싸우던 사람이였는데 독립군이 맥을 못추게 되자 총을 내던지고 내도산에 들어와 왜놈들에게 천벌을 내리고 조선민족에게는 복을 내려달라고 백두산천기에 빌면서 그것을 신앙으로 하는 천불교를 만들었다는 것이였다.

나는 교주와 담화를 하면서도 천정밑에 매달려있는 기장이삭에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최씨네 집에서 본 기장이삭이 교주의 집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매달려있었기 때문이였다. 종곡을 하려고 간수해두는가고 이제우에게 물었더니 그는 불공을 드릴 때 쓰는 기장이라고 시답지 않게 대답하였다.

논농사를 하지 못하는 이 고장 사람들은 제밥을 지을 때 흰쌀(입쌀)대신 기장쌀을 썼는데 어느 집에서나 기둥이나 천정 같은데 기장이삭을 매달아두고 있었다. 먹을 것이 없어 끼니를 번지를 때에도 그들은 이 기장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았다. 다만 백두산절간에 불공을 드리러 갈 때에만 그것을 절구에 정성껏 찧어 키질을 하고 나무숟갈로 싸래기와 풀씨, 뉘, 티럼불을 고른 다음 똑같은 크기의 쌀알만 하나하나 모아 참지에 싸두었다가 깨끗한 샘물에 제밥을 짓군 하였다.

≪그 망할놈의 천불교 때문에 내도산사람들이 그만 다 환장하였소.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 맑스의 말은 정말 명언중의 명언인 것 같소. 이런 종교쟁이들을 새 사상으로 개조하는 것이 과연 필요하며 가능하겠는가 하는 거요.≫

이제우는 이렇게 푸념하면서 내도산사람들의 얼을 다 뽑아서는 ≪덩덕궁≫에 불을 지르고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치밀 때도 있다고 고백하였다.

나는 이제우의 관점이 협애하다고 비판하였다.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 맑스의 명제를 나는 물론 부정하지 않소. 그러나 이 명제를 어떤 경우에나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요. 일본에 천벌을 내리고 조선민족에 행복을 내려달라고 비는 천불교에다 그래 아편이라는 감투를 함부로 씌울 수 있겠소? 나는 천불교를 애국적인 종교라고 생각하며 이 교의 신자들을 다 애국자라고 생각하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애국자들을 하나의 역량으로 묶어세우는 것뿐이요.≫

나는 이제우와 앉아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그 과정에서 천불교를 타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일감정을 적극 지지해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래서 그곳에 한 열흘가량 물러있으면서 마을사람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종교를 믿는 것으로는 조국을 광복하지 못한다는 나의 말을 천불교신자들은 쉽게 긍정하였다.

그 해 겨울 내도산사람들이 우리를 참으로 성의있게 대해주었다. 내도산사람들의 주식은 감자였다. 당콩을 넣은 감자밥이 제맛이었다. 계영춘은 방귀바람에 구들장이 꺼지겠다고 우스개 소리까지 하였다.

만일 그때 우리가 내도산에 가보지 않고 길림에 앉아서 이제우의 보고를 들었거나 지나가는 풍문이나 얻어듣고 사태를 판단하였더라면 천불교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내도산에 가서 ≪덩덕궁≫도 보고 기도를 드리는 신자들의 진지한 표정도 보고 집집의 대들보밑에 달아맨 기장이삭들도 보았기 때문에 천불교와 그 신자들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다.

인민적 풍격과 인민의 이익에 부합되는 인민적인 사고방식을 지닌다는 것은 결코 탁상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더욱이 말공부로써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로지 사람들의 육성은 물론, 숨결, 눈빛, 표정, 말투, 손세, 몸가짐까지도 자기의 눈과 귀로 직접 포착할 수 있는 인민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법이다.

우리는 마을사람들을 계몽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선행시킨 다음 이 부락에 백산청년동맹지부를 내오고 소년탐험대를 꾸려주었다.

내가 길림으로 돌아온 후에는 우리 형권삼촌이 백산청년동맹사업을 책임지고 이제우와 함께 덕수, 독골, 절골, 약수등, 임수골, 지양개를 비롯한 장백일대와 신파, 보천, 혜산, 갑산, 삼수 등 국내 여러 지방들에 그 지부들을 조직하였다.

동맹은 이제우에게 백산청년동맹 장백지구 책임자의 임무를 맡기였다. 이제우는 그 중임을 훌륭히 감당해냈다. 형권삼촌과 이제우는 백두산일대를 혁명화하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 덕으로 우리는 후날 이 일대에서 혁명투쟁을 할 때 군중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배움을 잠시 중단하고 쉬는 때가 방학이지만 나는 그 해 겨울방학에 책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웠다.

겨울방학을 마치고 길림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의 반년간사업을 총화하고 각계각층의 청년들과 군중들을 망라하는 계층별 대중조직들을 더 많이 꾸릴 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그 과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김혁, 차광수, 최창걸, 계영춘, 김원우 등 공청핵심들이 흥경현, 유하현, 장춘현, 이통현, 회덕현 일대와 국내로 떠나갔다. 그들은 거기에 가서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을 비롯한 각종 대중조직들을 빠른 속도로 늘여나갔다.

나는 길림에 남아서 신안툰에 농민동맹을 내오기 위한 사업을 하였다. 농민들을 조직에 결속하는 것은 그들을 혁명의 동력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농민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그들을 전취하는 문제가 혁명의 승패를 좌우하는 관건적 문제였다.

우리는 강동마을에 나가서 농민동맹도 조직하고 반제청년 동맹지부와 부녀회도 조직하였으며 연이어 카륜과 대황구에도 반제청년동맹지부를 무어주었다.

교하지방에도 반제청년동맹지부를 조직하였다. 내가 교하의 청년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여신청년회 조직부장 강명근을 만난 다음부터였다. 이 사람이 아마 장철호한테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모양이었다. 교하로 말하면 장철호의 중간정류소와도 같은 곳이였다. 그는 길림과 무송사이를 왔다갔다할 때마다 교하에 있는 강명근네 집에 들려 길림의 청년학생운동에 대하여 전해주고 길림에 돌아와서는 교하의 소식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이렇게 되어 강명근이 우리를 알게 되었고 나도 교하지방의 청년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바로 그런때에 강명근이 나를 만나려고 길림으로 찾아왔다.

내가 동대탄에 있는 장철호네 집에서 학교를 다닐 때였다.

나보다 나이가 열살이상이나 더 든 사람이 ≪선생님≫, ≪선생님≫하면서 자기가 겪고 있은 사업상 고충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털어놓고 안타깝게 방조를 호소할 때 나는 그에 대한 동정을 금할 수 없었으며 길림에서 180리나 떨어져있는 교하에서 보통중학생에 지나지 않는 나한테까지 찾아온 그의 혁명가다운 열정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교하현에서는 납법산을 경계로 서북쪽에서 여신청년회가 활동하고 동남쪽에서는 납법청년회가 활동하였다. 교하일대의 조선청년들은 대체로 이 두 청년단체에 망라되어있었다.

청년들은 처음에 큰뜻을 품고 조직에 들었지만 자리다툼이나 하고 군자금이나 거두어들이는 민족주의운동지도자들의 소행에 점



교하거리

차 환멸을 느끼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프롤레타리아혁명≫과 ≪헤게모니≫에 대하여서만 요란스럽게 떠들며 돌아치는 행세식맑스주의자들의 빈말공부에도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갈길을 찾지 못해 좌왕우왕하게 된다는 강명근의 그 심정이 이해되고도 남았다.

나는 길림일대에서 벌어지고 있은 청년학생운동의 실태와 우리의 활동경험을 강명근에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교하에 돌아가면 반제청년동맹지부를 내올 수 있게 준비를 잘해보라고 하였다. 그가 돌아갈 때에는 여러 권의 맑스-레닌주의서적도 주었다.

나로서는 성의를 다하여 깨우쳐주느라고 하였지만 강명근이 돌아간 다음 교하의 일이 마음놓이지 않았다.

나는 벼르던 끝에 노일령을 넘어 교하땅으로 찾아갔다. 그것이 아마 1928년 봄이었던 것 같다.

강명근은 나를 보자 그러지 않아도 길림에 한번 다시 찾아갈 생각이었다고 하면서 여간 반가와하지 않았다. 그가 하는 말이 길림에서는 막힐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정작 돌아와서 일을 하려고보니 걸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교하의 농촌청년들은 우선 조직을 어떻게 내오겠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 어떤 청년들은 여신청년회가 민족주의자들의 조직이기 때문에 당장 거기서 나와 뜻이 맞는 몇몇 사람들끼리 반제청년동맹을 뭇자고 하였으며 어떤 청년들은 여신청년회를 무작정 해산해치우자고 하였다.

조직에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문제에서도 그들은 올바른 견해를 세우지 못하고 누구는 ≪적대분자≫이고 누구는 ≪동요분자≫이기 때문에 조직성원이 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웬만한 청년들은 미리부터 다 대상에서 제껴놓고 있었다.

나는 그날 마실방에서 목침을 베고 그들과 같이 한자리에 누워 조직을 내오려면 군중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쟁취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사람들을 이편저편 가르기 전에 꾸준하게 교양하고 설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었다.

청년들이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물을 먹지 않게 만들며 여신청년회와 납법청년회안에 있는 선진적인 핵심청년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데 대하여서도 말해주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토론해주었다.

이렇게 한 다음 여신청년회에 망라되어있는 5명의 핵심청년들을 선발하여 교하반제청년동맹지부를 무어주었다.

나는 그 후에도 교하지방에 자주 나가 반제청년동맹성원들과 사업하였다.

나는 동만청총안에 있는 청년들도 우리 조직에 묶어세우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 용정에 와서 고학을 하고 있던 조선청년들은 거의 모두가 동만청총에 망라되어있었다.

그들은 화요파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조직부장으로 사업하던 동흥중학교 학생 김준이 우리가 길림에서 발간한 잡지와 소책자를 보고 나를 찾아왔다.

그때 나는 김준을 통하여 용정일대의 청년운동형편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김준은 길림에 왔다간 다음부터 우리와 연계를 가지고 대성중학교, 동흥중학교, 은진중학교를 비롯한 용정시내 여러 학교의 청년학생들속에 우리의 사상을 선전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하여 간도지방과 회령, 종성을 비롯한 6읍관내의 청년들을 선진사상으로 교양하였다.

이 시기 나는 노동자들과의 사업에도 관심을 돌리었다.



길림시가

당시 길림에는 화력발전소, 철도기관구, 성냥공장, 방직공장, 정미공장과 같은 크고작은 공장들이 적지 않았지만 노동계급을 망라하는 신통한 조직은 없었다. 다만 1927년 봄에 조선인노동자들의 취직과 생활편의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성회가 조직되었을 뿐이었다.

우리는 길림화력발전소에 다니다가 농촌에 나온 한 청년을 교양하여 반제청년동맹에 받아들이고 그가 이전부터 일해왔다는 길림화력발전소에 다시 들어가게 하였다.

그가 길림화력발전소에 발을 붙이고 선진적인 노동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발판이 생기었다.

우리는 유길학우회성원들을 발동하여 송화강선창을 중심으로 노동자야학을 조직하고 3.1인민봉기기념일이나 5.1절, 국치일 같은 때 그들을 찾아가 연설도 하고 연예공연도 하였다. 이런 준비사업에 기초하여 1928년 8월에 반일노동조합을 내왔다. 그 책임자는 반제청년동맹의 핵심성원이었다.

청년학생들을 주되는 사업대상으로 삼고 그들의 의식화, 조직화를 다그쳐오던 우리가 활동판도를 노동계급속에까지 넓히고 그들을 조직에 묶어보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조선인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무어진 이 반일노동조합을 통하여 합법적 단체인 한성회를 움직이게 하였다. 한성회는 점차 정치적인 경향이 뚜렷해져갔다. 후에 한성회는 원산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돕기 위해 동정금을 모아 원산노동연합회에 보내였고 1930년 여름 조선에서 있은 수재때에는 여러 조선인단체들과 협동하여 구제회를 뭇고 수재민들을 위해서 의연금을 수집하였으며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한몫 단단히 하였다.

길림과 교하 일대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영향밑에 있던 청년단체들을 혁명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매우 유익한 경험들을 축적하였다.

혁명가의 생명은 군중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되며 군중을 떠날 때 끝이 난다고 할 수 있다.

≪ㅌ·ㄷ≫를 뭇던 화성의숙시절이 나의 청년학생운동의 시작이었다면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고 확대해나가던 길림육문중학교시절은 학생의 테두리를 벗어나 노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군중속에 깊이 침투되어 도처에 혁명의 씨앗을 부려가던 나의 청년운동의 전성기였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 새 세대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활동과 그 영향력을 사람들은 ≪길림바람≫이라고 하였다.

5. 단결의 시위



혁명영화
≪조선의 별≫

조직이 꾸려지고 늘어나는데 따라 우리는 실천투쟁에 들어갔다.

그 서막으로 된 것이 1928년 여름에 있은 길림육문중학교동맹휴학이였다.

그때까지 육문중학교에서는 식당과 재정 관리, 도서관운영에 이르기까지 학교관리운영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진보적인 교원들과 학생들의 민주주의적 의사에 따라 순조롭게 풀어나가고 있었다. 교내에서의 우리의 활동도 큰 구속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되였다. 이것은 육문중학교 학생들이 학교교무위원회와의 협동밑에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열매였다.

그런데 군벌들의 조종을 받고 있던 반동교원들은 교직원, 학생들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정착된 이 민주주의적 질서를 조금도 달가와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이 질서를 파괴하고 학교운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들의 의사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였다.

교육청이 파견한 육문중학교 교원들가운데는 후각이 예민한 군벌의 앞잡이들이 있었다. 교무주임, 훈육주임, 체육주임과 같은 반동교원들은 모두 적의 특무기관에 매수된 자들이였다. 그들은 군벌정권을 추종하는 지주, 관료 출신의 보수적인 학생

들과 불량청년들을 내세워 학생들의 사상동향과 혁명조직들의 움직임을 무시로 내탐하였다.

1928년 여름에 우리는 교내에서 일제의 강도적인 제2차 산동출병과 제남에서의 학살만행을 규탄하는 대중적인 항의운동을 매일과 같이 벌이었다.

산동출병은 다나까의 대중국외교의 시금석으로 불리우고 있은 주요한 사건이다.

일본이 산동지방에 처음으로 출병한 것은 1927년 5월 다나까 기이찌내각이 성립된 직후였다. 그때 장개석의 국민혁명군은 장작림의 봉천군을 추격하여 산동반도일대에 진출하고 있었다. 다나까내각은 북벌군의 진격으로부터 자기들의 손때를 묻혀가며 길들인 장작림군벌을 옹호하기 위하여 일본인의 생명, 재산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여순주둔군 2,000명을 청도에 파견하였으며 그 후 다시 본토에서 2,000명의 증원군을 뽑아 산동지방에 파병하였다.

1차 출병으로 북벌이 정지되고 장개석이 산동지방 일본거류민들의 생명재산의 안전을 담보했기 때문에 일본군은 그 해 가을에 산동에서 철병하였다.

그러나 1928년 봄에 북벌혁명이 재개되자 파쑈적인 다나까내각은 2차로 출병을 결정하고 천진주둔군과 본토의 구마모도사단 5,000명을 동원하여 산동반도의 철도연선들을 차지하고 청도와 제남을 점령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장개석의 국민혁명군도 제남에 입성하였다. 두 나라 군대사이에는 무력충돌이 일어났다.

일본점령군은 제남에서 수많은 중국인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3차에 걸치는 일제의 파렴치한 산동출병은 조중인민들속에서 배일감정을 폭발적으로 야기시키였다. 일본국내에서도 강력한 반대운동이 일어났으며 다나까외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일본이 산동에 군대를 파견한 최종적인 목적은 만주와 화북 지방을 중국에서 떼내여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데 있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탱점이 필요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장작림이었다. 장작림을 잘 길들이고 후원하면 만주를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일본사람들의 타산이었다. 제남에서 울린 총소리는 후날 중국땅에서 수천수만 명의 인명을 앗아가게 될 야수적인 대도살을 예고하는 위험신호였다. 일제가 출병의 구실을 얻기 위해 자기들의 거류민까지 서슴없이 학살할 때 중화민족은 그들이 장차 자기들에게 어떤 재난을 강요하리라는 것을 예감하였다.

우리는 일제의 침략정책과 국민당의 반역행위를 폭로하는 강연회, 웅변대회, 성토대회를 연이어 열고 학생들의 기세를 돋구었다.

반동교원들은 그것을 공산주의선전이라고 하면서 탄압의 구실로 삼았다. 그들은 도서관을 불의에 습격하여 진보적인 도서들을 회수해가지고 가서는 마치 큰 단서라도 잡아쥔 것처럼 조선학생들을 다 퇴학시키라고 이광한교장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조선학생들은 공산주의주동분자가 아니면 ≪일본간첩≫들이고 중국교원들을 적대시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두고서는 소란스러워 수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우파계열의 학생들은 이에 장단을 맞추어 학교에 세워진 민주주의적 질서를 제멋대로 위반하면서 진보적 학생들을 모욕하고 교장과 선진적인 교원들을 비방중상하였다.

상월선생도 그자들의 첫째가는 공격대상이 되었다.

반동교원들과 그들의 조종을 받는 학생들의 무례한 행위를 그대로 내버려두고서는 학문연구도 청년운동도 마음놓고 할 수 없었다. 우리는 조직된 역량으로 반동교원들을 몰아내고 교내에 세워진 민주주의적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공청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발동하여 동맹휴학을 단행하였다.

우리가 내놓은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첫째, 학생들에 대한 대우를 개선할 것.

둘째,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과목들에 대한 수업을 보장할 것.

셋째, 진보적 교원들과 교장에게 압력을 가하지 말 것.

진보적인 교원들도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사회적 힘을 개입시키겠다고 성공서에 압력을 가하였다. 반동교원들을 쫓아내라는 삐라와 격문들이 시내도처에 나붙었다. 그런 선전물들은 반동교원들의 숙고와 성공서에도 날아들었다.


哈爾賓學生團體
吉會線反對高潮
九日警官隊와衝突
百四十八名負傷

길회선철도부설 반대투쟁에 대한 당시 동아일보의 보도

육문중학교안에서 동맹휴학이 고조되자 시내의 다른 학교들에서도 이에 호응할 태세를 보이며 성공서에 압력을 가하였다.

성공서에서는 동맹휴학이 온 시내에 파급될 기미가 보이자 하는 수 없이 훈육주임을 비롯한 반동교원들을 파면시키고 우리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었다.

이것은 우리가 대중투쟁에서 얻은 첫 승리였다.

이 과정에 우리는 과녁을 똑바로 정하고 군중을 잘 조직동원하면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얻었다.

동맹휴학에서 첫 승리를 얻고나니 경험도 생기도 단련도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년학생들이 우리를 더욱 믿고 따르게 되었다.

우리는 동맹휴학에서 얻은 성과를 총화하고 앙양된 청년학생들의 기세를 보다 큰 규모의 적극적인 반일투쟁에로 조직동원할 준비를 하였다.

오래전부터 만주침략의 준비를 서두르던 일제의 책동은 이시기에 와서 더욱 노골화되었다.

1928년 5월 일본관동군 사령관 무라오까는 중국관내에서의 정세변화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혼성 제40여단을 봉천(오늘의 심양)에 진출시키고 자기네 군사령부를 그곳에 옮길 것을 획책하였다. 연이어 베이징으로부터 봉천으로 돌아오는 장작림을 봉천입구의 남만철도와 경봉철도가 교차되는 철교에서 열차폭파사건을 조작하여 살해하였다. 이것은 다 만주침공의 구실을 얻기 위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예비작업이었다.

일제가 만주를 먹게 되면 중국 동북지방을 투쟁무대로 삼고 있은 우리의 활동에는 커다란 장애가 조성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만주가 중국땅이기 때문에 일제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운동자들을 마음대로 어쩌지 못하였지만 만주가 강점되는 날에는 문제가 달랐다.

세 차례에 걸치는 산동출병으로 장개석을 제압하고 중국대륙에 촉수를 깊숙이 뻗친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만주침략을 위한 군사적 준비를 착착 진척시키는 한편 그 준비작업의 한 고리로서 오래전부터 추진시켜온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완공하려고 서둘렀다. 길회선이란 만주의 성소재지 길림과 조선의 북부국경도시 회령사이를 연결하는 철도를 말한다.

일본이 길림-회영사이에 철도를 강제로라도 부설하여야겠다는 야심을 품은 것은 명치시대부터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 철도에 거대한 전략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었다.

다나까내각은 이른바 ≪동방회의≫라는 것을 한 다음 천황에게 낸 ≪상주서≫에서 길회선철도부설을 비롯한 만몽철도의 의의를 두고 일본의 대륙정책의 열쇠라고 지적하였다.

구라파에서 처음으로 세계제패론을 고창한 히틀러의 ≪나의 투쟁≫과 같이 세계제패의 야욕과 망상으로 일관된 악명높은 이 ≪상주서≫에서 제기된 일차적인 국책이 만몽을 침략하는 것이며 이 침략을 보장하는 선결적인 공간이 다름아닌 길회선철도를 포함한 만몽5철도부설에 있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은 사실이다.

이 ≪상주서≫에서 다나까는 만약 길림-회령철도를 비롯한 만몽5철도가 완성된다면 전만주와 조선을 연결하는 대우회선을 얻게 되고 북만주로 통하는 직통선을 얻게 되므로 병력과 필요한 전략물자들을 아무데나 다 보낼 수 있고 조선의 민족해방운동까지도 탄압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일본의 영악한 두뇌들은 길회선이 완공되어 군대와 화물을 쯔루가-청진-회령-길림으로 수송하게 되면 노정도 줄일 수 있고 군대와 물자의 기동시간도 훨씬 단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일제가 길회선철도건설을 국책으로 선포하고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도 무려 26년이라는 막대한 시간을 들여 그것을 끝끝내 완공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중국의 광범한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부패무능한 청조말기의 관리들과 맺은 부당한 조약을 구실로 삼아 만주땅에서 철도부설권을 제멋대로 행사하는 것을 중화민족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이였으며 외자차입에 의한 철도부설협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면서 그것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대중적으로 궐기하였다.

그러나 반동군벌들은 인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일대신 돈도선건설을 강행하려고 책동하는 한편 1928년 11월 1일로 예정된 길돈선철도개통식을 성대히 하여 국민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다.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실력투쟁이 필요하였다. 이런 투쟁은 적들에게는 조중인민이 만주강점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종으로 될 것이며 광범한 대중에게는 일제의 만주침공을 반대하는 항쟁의 신호로 될 것이었다.

우리는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는 대중적인 반일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 1928년 10월상순 북산공원의 약왕묘지하실에서 공청과 반제청년동맹 조직책임자들의 회의를 하였다.

그 회의에서는 투쟁과정에 내들어야 할 구호와 투쟁방법, 행동방향을 토의하고 구체적인 분공조직도 하였다.

시위에 들고나갈 플랭카드와 성토문, 삐라에 담을 내용도 상세하게 토론하였다.

우리는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반드시 조중인민의 공동투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부터 삐라, 성토문, 플랭카드를 비롯한 모든 선전물들을 조선글로도 쓰고 중국글로도 쓰기로 하였다. 거리에서 하는 선동연설도 두 나라 말로 하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투쟁기간 시내 각 학교들에 조직되어있는 학생자치회와 유길학우회, 소년회와 같은 합법적 조직들을 많이 발동시키고 공청이나 반제청년동맹과 같은 비합법적 조직들은 될수록 표면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북산에서 회의를 한 후 우리는 시위준비를 위해 밤잠을 잊고 뛰어다니었다.

그때 선전대에 있은 한영애가 수고를 많이 하였다.

한영애는 유길학우회 성원으로 있을 때 연예공연과 독서발표모임을 통해 우리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공청원으로 성장한 길림여자중학교 학생이었다. 온순하고 말수더구가 적어 보통때에는 어디에 있는지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처녀였다.

하지만 한영애는 혁명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면 천한 일, 어려운 일을 가리지 않았다. 연예공연때에는 남들이 담당하기 싫어하는 역을 자진하여 맡아나섰고 독서회

에서 교재가 필요할 때에는 수백페이지나 되는 책을 자발적으로 등사하여 동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한영애는 시위투쟁준비를 위하여 밤잠을 거의 자지 않았다. 그는 남의 집 허청간에 등사기를 옮겨다놓고 몇 명의 소년회원들과 함께 격문과 삐라를 수만매나 찍어냈다. 가두에서는 수백 명의 청중들을앞에 놓고 조선말과 중국말로 열화같은 연설을 하여 여성웅변가로 유명해졌다.

내가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책임자로서 중국의 청년학생들한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은 것은 우리가 길림에서 일찌부터 공산주의운동의 기치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공산주의운동을 시작하던 그때로 말하면 중국공산당 만주성위원회조차 생기지 않았을 때였으며 길림시내에 공청원이 얼마 없을 때였다.

나는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사업을 하면서 중국계통으로도 공청사업을 하였다. 공청조직에서 우리가 책임적인 역할을 하다나니 많은 중국청년들이 우리를 따랐다. 길림사범학교 공청소조책임자였던 조아범이나 돈화지구에서 공청사업을 맡아하던 진한장도 우리와의 연계밑에 공청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었다.

시위준비를 다그치던 우리는 철도당국자들이 1928년 11월 1일 길돈선철도개통식을 하기로 하였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시위시작날자를 본래 계획했던 것보다 며칠 앞당기었다. 그것은 길회선철도부설반대의 봉화를 올리면서 동시에 길돈선철도개통식도 파탄시키자는 것이었다.

1928년 10월 26일 새벽 선전대는 날이 새기 전에 길림의 거리들에 삐라를 뿌리고 격문을 붙이었다. 2-3명으로 무어진 소년회의 감시조들도 날이 밝자 지정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날 아침 각 학교의 학생들은 약속된 시간에 일제히 교정에서 모임을 가지고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성토문을 발표한 다음 가두시위에 들어갔다. 거리는 삽시간에 수천 명의 학생들로 차고넘치였다. 그들은 ≪일제침략자들을 타도하자!≫,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공사를 반대하여 투쟁하자!≫는 조선글로된 플랭카드와 ≪타도 일제≫, ≪타도 매국노≫, ≪회수길회선≫이라고 중국글로 쓴 플랭카드들을 들고 거리를 누비면서 신개문밖에 있는 성의회마당으로 모여들었다.

수백 명의 군대와 경찰이 대열의 앞길을 가로막아나섰다.

군경들과 맞다든 대열은 구호만 웨치면서 우리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든지 시위대열을 앞으로 전진시켜야 했다.

우리는 시위군중을 보위하기 위하여 노동자들과 시주변의 농민들, 학생들로 조직된 규찰대를 발동시키었다.

대열은 규찰대를 선두로 어깨를 겯고 군경들의 총검을 헤치면서 앞으로 나갔다. 성의회마당에서는 군중대회가 진행되었다. 나는 광장에 모인 수천 명 군중들에게 조중청년학생들은 단결하여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우자고 호소하였다.

모임을 끝낸 군중은 더욱 기세충천하여 일본영사관이 자리잡고 있은 신시가쪽으로 행진해갔다. 평시에는 영사관경찰의 행패가 심해서 좀처럼 발길을 돌리지 않던 곳이었다. 일본영사관앞에서 반일구호를 힘있게 부르며 기세를 올린 시위군중은 대마로, 북경로, 중경로, 상의가 등 길림의 여러 거리를 뒤덮으며 시위를 계속하였다.

길림의 시위투쟁에서 타격을 받은 일제의 철도회사는 길돈선철도개통식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일본장사꾼들은 상점을 버리고 자기들의 영사관으로 도망쳐들어갔다. 남만철도회사에서 운영하는 동양병원의 유리창도 박살났다.

시위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고조되었다.

학생들은 여러 개 조로 나뉘여 시내 십여 개소에 연단을 설치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가두연설을 하였다.

길림에서 시작된 반일투쟁은 만주전지역에 번져갔다. 장춘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은 우리의 투쟁에 호응하여 타도제국주의와 6대철도반대 구호를 들고 치열한 투쟁을 벌이었다. 그들은 길장철도국장의 집도 습격하였다.

하얼빈과 천진에서도 수많은 희생자를 내면서 결사적인 연대투쟁을 벌이었다.

연길지방 조선동포들도 떨쳐나섰다. 국내의 신문들도 우리의 투쟁을 연일 보도하였다.



吉敦線延長其他로
吉林排日險惡化
天津排日도 逐日深刻

당시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보도한
출판물자료

시위가 점점 더 큰 규모로 확대되었을 때 우리는 일본상품배척투쟁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군중은 일본인상점들에서 일본상표가 붙은 상품들을 거리에 끌어내다가 모조리 불태워버리었다. 어떤 상품들은 송화강에 무데기로 쓸어넣었다.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투쟁이 일본상품배척투쟁과 결합되어 전면적인 반일투쟁에로 점점 더 크게 번져가는데 당황한 일제는 반동군벌을 사촉하여 시위군중에게 총을 마구 쏘아대는 야수적 만행을 감행하게 하였다.

그때까지 우리는 반동군벌들을 견제하는 입장에 서있었다. 그러나 군벌당국이 일제의 편을 들어 우리를 탄압해나서는 만큼 우리도 그들을 견제하는 입장에만 서있을 수 없었다. 우리는 ≪일제와 결탁한 반동군벌타도≫의 구호를 들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장례식과 결합된 보다 대규모적인 시위로 넘어갔다. 이 날의 시위는 많은 시민들까지 합세하여 최대의 규모를 이루었다.

투쟁은 무려 40여일동안이나 계속되었다.

일제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봉천에 체류중이던 장작상을 다급히 불러들이었으나 길림독군서의 회유무마책으로써는 대중의 고조된 투쟁기세를 꺾을 수 없었다.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으로 하여 일제가 받은 타격은 컸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놀라게 한 것은 조중인민이 단결하여 일제의 만주강점에 항거해나선 것이었다.

민족주의자들과 일제의 침략에 겁을 먹고 도망칠 궁리만하던 사람들도 길회선철도부설을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그때까지 민족주의자들은 우리 청년학생들을 대수롭지 않게 보아왔었다. 그런데 10대, 20대의 청년학생들이 자기들로써는 엄두도 낼 수 없는 큰일을 해제끼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들은 민족해방투쟁무대에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 세대의 참신한 세력이 등장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소홀히 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을 통하여 대중의 힘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되었으며 대중을 옳게 조직하면 그 어떤 총칼로도 꺾을 수 없는 무서운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대중의 힘에 대한 나의 신념은 더욱 확고해졌다. 대중에 대한 우리의 영도방법도 이 투쟁을 통해 더욱 세련되었다. 실천투쟁속에서 나도 단련되고 조직도 성장하였다.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1927년 2월 길림의 교포사회는 전례없는 환영일색으로 들끓었다. 상해임시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독립운동의 원로 안창호선생이 베이징을 거쳐 길림에 도착하였던 것이다.

길림의 교포들은 안창호를 국가수반 못지 않게 성대히 영접하였다. 우리도 ≪거국가≫를 부르며 그를 진심으로 환영하였다. ≪거국가≫란 안창호가 외국으로 망명할 때 조국을 하직하면서 지은 노래이다. ≪간다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라는 구절로 시작되어 ≪나 간다고 설워말아 나의 사랑 한반도야≫라는 구절로 끝나는 이 ≪거국가≫는 ≪한일합병≫후 청년학생들속에서 특별히 애창되였다. 망명가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라고 하여 한때는 ≪망명자의 노래≫라고도 하였다.

조선사람들은 ≪거국가≫를 사랑하듯이 ≪거국가≫의 창작가인 안창호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하고 숭배하였다. 안창호의 인품과 실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대통령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표현은 크게 과장된 것이 아니였다. 임시정부를 시답지 않게 보는 독립군단체의 지도자들까지도 안창호 개인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의 선배≫라고 하면서 떠받들었다.

안창호의 금새를 잘 알고 있은 이등박문이 한때 그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일본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조건부로 도산(안창호의 호)내각을 세워주겠다는 흥정까지 했다는 사실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평안남도의 강서땅이 지금은 천리마의 발원지로, 대안의 사업체계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낳은 고장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지만 왜정시대에는 도산 안창호와 같은 독립운동자들을 배출한 고장으로 유명하였다. 안창호가 강서태생이였기때문에 서선지방사람들은 대체로 그를 자기네 동향인이라고 자랑하였다.

안창호는 우리 나라가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운 것은 민족의 자질이 낮은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립협회, 신민회, 청년학우회, 대한인국민총회, 흥사단과 같은 독립운동단체들도 조직하고 점진학교, 대성학교, 태극서관과 같은 교육문화기관들도 설립하였으며 ≪독립신문≫을 발간하여 민족의 계몽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안창호

독립운동의 원로들속에 남강 이승훈이라는 이름난 교육자가 있다. 이승훈이라고 하면 누구나 오산학교부터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이승훈은 후대교육에 바친 공적으로 하여 융희황제의 접견까지 받은 인물이다. 400년동안 서선지방의 평민들 중에서 황제를 알현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이승훈이 그 전례를 깨뜨리고 처음으로 왕을 만나보았으니 그의 명망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고명하고 인망높은 사람으로 알려졌던 이승훈도 한때는 돈벌이를 해볼 야심을 품고 장돌뱅이가 되어 유기장사를 하였는데 나중에는 50만원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거부가 되였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평양에 왔다가 교육을 통한 실력배양이 독립구국의 기초로 된다는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는 거기에 감탄하여 상투를 자르고 고향에 돌아와 교육운동을 시작하였다. 애국애족의 일념에 넘치는 안창호의 웅변술이 대무역상의 인생관에 새로운 돛을 달아준 것이다.

이것은 민족운동의 선구자로서의 안창호의 영향력과 감화력을 증시해주는 하나의 실례로 된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국의 신문들은 안창호의 길림도착소식을 대서특필하였다.

청년학생들은 그가 머무르고 있은 삼풍여관에 찾아가서 길림의 교포학생들을 위해 강연을 해줄 것을 간청하였다. 독립운동자들도 그의 숙소에 연줄연줄 나타나 강연에 출연해달라고 초청하였다.

안창호는 그 제의를 쾌히 받아들이였다.

독립운동자들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아무날 어디에서 안창호의 시국대강연을 한다는 소문을 돌리고 상부가, 차루가, 통천가, 하남가, 북대가, 우마항가를 비롯한 시내 여러 거리들에 광고도 큼직큼직하게 써붙이였다.

그 광고를 본 길림의 교포들은 모두 들뜨고 흥분되어 서로 만나기만 하면 ≪도산선생이 오셨다지요?≫하는 말로 인사를 나누기까지 하였다.


이승훈

강연전날밤에는 나도 오동진과 함께 안창호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냈다.

이역의 하늘밑에서 장장 17년만에 대성학교시절의 은사를 만난 송암 오동진의 감회는 참으로 유다르고 절절한 것이였다. 오동진은 대성학교 사범과에 입학할 때 안창호가 인물심사를 어떻게 하였고 입학 후에는 자기를 어떻게 사랑해주었는가에 대하여 추억하였다. 나중에는 도산선생이 지은 청년학도가까지 부르며 그가 후대들의 독립정신을 계발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회고하였다. 그는 특히 안창호의 웅변술을 두고 실감있는 회억을 많이 하

였다.

안창호의 웅변술에 대해서는 우리 아버지도 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였다. 나는 만경대에 있을 때 벌써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안창호의 독립운동이 웅변으로부터 시작되였고 웅변을 떠나서는 그의 명성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안창호가 연설을 하면 여염집아낙네들까지도 그 유창한 웅변술과 이상향론에 교화되어 가락지와 비녀를 뽑아 헌금을 한다는데 그게 과연 사실일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연설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가? 안창호와 같은 큰 인물이 미주나 상해가 아니라 여기 길림에 노상 와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나라가 독립된 다음 나에게 대통령을 선거할 권리를 준다면 나는 그 첫 번째로 안창호선생을 추대할 것이다.≫

이것은 그날밤 오동진이 나에게 한 말이다.

이 말은 안창호의 시국대강연에 대한 나의 기대와 호기심에 부채질을 해주었다.

안창호는 조양문밖에 있는 대동공창에서 의사 나석주의 추도회를 열고 겸하여 강연도 하였다.

추도회에 참가하려고 모여온 3부의 대표들과 시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자들, 유지들, 청년학생들은 거의 다 강연회장에 모이었다. 바닥자리는 다 차고 모자라 대부분의 청중은 바람벽앞에 서서 강연을 듣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날 안창호는 ≪조선민족운동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는데 소문처럼 연설을 잘하였다. 그의 유창한 언변은 처음부터 군중의 찬탄을 자아냈다. 안창호가 동서고금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섞어가며 조선민족의 출로에 대한 주장을 역설할 때 장내에서는 요란한 박수소리가 연방 터져올랐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문제였다.

안창호는 강연에서 ≪민족인격완성론≫과 이상향론을 풀어나갔다. 그의 ≪민족인격완성론≫은 ≪자아인격혁신론≫과 ≪민족경제확립운동론≫의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있었다.

≪자아인격혁신론≫이란 우리 민족이 후진국으로서 왜놈들의 식민지가 된 것은 인격과 수양이 낮은데 원인이 있는 것만큼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서로 화목해지도록 각자가 자기인격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안창호의 주장에는 어딘가 ≪자아완성론≫에서 표현된 똘스또이의 사고방식이나 자기자신을 개조하고 단련하지 않는 한 인간은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본 간디의 견해와 비슷한 데가 있었다.

당시로 말하면 세계적인 대경제공황의 징조가 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던 때였다. 극도로 파쑈화된 제국주의가 대두하여 인간의 자주성을 총칼과 올가미로 참혹하게 교살하고 있었다.


오산학교

소부르조아지식인들은 철갑으로 무장한 제국주의의 위력앞에서 전율하였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속에서 그들이 찾아낸 정신적도피처가 바로 무저항주의였다. 무저항주의는 혁명적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제국주의의 공세앞에서 겁을 집어먹고 찾아가는 마지막안식처였다. 반혁명에 맞설 힘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 결국은 무저항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무저항주의가 개량주의로 표현되었다. 민족운동의 일부 지도자들은 3.1인민봉기

후 적극적인 항쟁의 방법으로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청산하려는 혁명적인 입장으로부터 이탈하여 교육진흥운동과 민족산업진흥운동을 민족운동의 최대의 기치로 삼고 우리 인민의 정신적 자질과 경제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족실력양성운동을 맹렬하게 벌이였다. 민족운동의 중심지도층을 이루고 있던 근대지식인들은 토산품애용과 민족기업의 육성으로 민족을 경제적 파멸로부터 구출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내 살림은 내 것으로!≫라는 구호를 내걸고 경제적인 자급자족의 길을 타개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물산장려운동을 벌이였다.





물산장려운동 계몽행렬과 포스터

이 운동의 지도자인 조만식은 토산애용의 상징으로 한평생 무명으로 지은 조선바지저고지와 조선식두루마기를 입고 지냈다. 그는 명함장도 국산한지로 만든 것을 사용하였으며 신발도 외국것을 신지 않고 조선것을 신고 다니었다.

민족개량주의를 유포시키는데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이 많은 작용을 하였다. 이 논문을 읽으면 개량주의의 본질을 알 수 있고 그 위험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쉽사리 판단할 수 있다.

내가 ≪민족개조론≫을 읽고 제일 불쾌하게 생각한 것은 이광수가 조선민족을 열등한 민족처럼 여기고 있은 점이었다. 나는 우리 나라가 후진국이라는 생각은 해봤지만 조선민족을 열등한 민족이라고 여긴 적은 한번도 없었다.

조선민족은 세계최초의 철갑선과 금속활자를 창조한 문명하고 슬기로운 민족이며 동방문화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민족이다. 우리 조상들은 일본문화의 개척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외적의 침해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강건한 자위정신은 일찍이 아세아만방에 맹위를 떨치었고 백지장처럼 깨끗한 우리 인민의 도덕은 세계의 찬탄을 자아냈다.

우리 인민의 인습이나 풍속 가운데는 물론 부족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고 부차적인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였다. 그 부차적인 것을 가지고 민족성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에서 마치 조선사람들이 ≪열악한 민족성≫ 때문에 망한 것처럼 말하였는데 조선이 망한 것은 낙후한 민족성 때문이 아니라 통치배들의 부패무능 때문이였다.

조선민족이 ≪열등≫하다고 개탄하는 이광수의 논조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논조와 일맥상통하였다. 일본사람들은 입만 벌이면 우리 민족을 ≪열등한 민족≫이라고 비방하였다. ≪열등≫하기 때문에 일본이 ≪보호≫, ≪지도≫, ≪통제≫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민족개조론≫을 일본제국주의강점자들에게 보내는 이광수의 공개전향문이나 다름없었다. 이 전향문을 쓴 대가로 그는 지난날 독립운동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총독부코앞에서 뻐젓이 올방자를 틀고앉아 연애소설들을 써내고 있었다.

소설가로서의 이광수는 초기에 독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 대중이 그를 사랑한 것은 그가 독자들의 구미에 맞는 진보적인 작품을 써왔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나라 현대소설의 개척자라고 불리울만큼 새로운 양상의 소설을 많이 써냈다.

그러나 ≪민족개조론≫으로 하여 이광수에 대한 대중의 애정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소설작품들에서 엿보이던 개량주의적 요소가 완전한 자기의 형체를 가지고 이 논문에 등장한 것이다.

민족운동을 개량주의의 방향으로 유도한 근대지식인들은 심지어 국채보상운동을 통하여 모은 돈으로 조선사람이 주관하는 민립대학까지 설립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총독부는 독립인재양성의 온상으로 될 수 있는 민립대학의 설립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민립대학기성회
창립사진

비폭력적인 물산장려운동도 역시 일제의 저항에 부딪히었다. 조선사람이 일본이 내려먹이는 상품을 쓰지 않고 국산제만 사용하는데 대하여 총독부가 눈을 감아줄 리는 만무한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운동을 일화배척의 목적을 가진 반일운동으로 부고 독을 품고 방해하였다.

실력양성의 간판밑에 진행된 개량주의운동은 이념상에서는 애국애족을 표방하였으나 방법상에서는 비폭력을 전제로 하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저항운동이었다. 총독부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민족의 경제력을 육성하여 일본제국주의의 경제적 침략에 대항하려는 그들의 지향은 사실 망상이나 다름없었다. 일본이 자기를 매장할 민족산업의 발달을 용허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초보의 초보에 속하는 상식인데 기업을 창설하고 국산품을 애용하면 민족의 살길이 열린다고 생각하였으니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는가.


총독부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실력양성으로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 대항하려는 개량주의운동의 지향은 사실 망상이나 다름없었다.
사진은 일제의 식민지아성 ≪조선총독부≫

개량주의길로 타락한 민족운동자들은 제국주의속성을 옳게 보지 못하였거나 외면하였다. 그들이 무력항쟁으로부터 방향을 바꾸어 평화적인 문화운동으로 이행한 것은 투쟁방법상에서의 후퇴를 의미하였다. 그것은 식민주의자들과의 평화적 공존이나 타협을 전제로 하는 운동이였다. 평화적 공존이나 타협속에서는 어차피 변질현상이 생기기 마련이다. 실지로 개량주의자들가운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후날 민족운동대열에서 도피하든가, 전향하여 일제의 앞잡이가 되였다.

자강론의 변형인 안창호의 실력양성론(준비론이라고도 함)은 민족개량주의자들이 의거하고 있던 이론적 지탱점이였다.

그는 조선민족을 세계에서 정신적 수양이 가장 낮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만큼 때벗이를 해야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였다.

강연장의 분위기를 보니 대부분의 군중이 그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은 것 같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연설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기까지 하였다. 물론 그의 강연내용은 일구일언이 다 애국의 정신으로 관통되어 있었다.



안창호와 흥사단

그러나 나는 그의 발언에서 민중의 투쟁의욕을 거세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실망하였다. 총체적으로 볼 때 그의 주장에는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점들이 있었다.

각자가 자기를 수양하고 인격을 높이며 그에 토대하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안창호의 주장에는 나도 동감이였다. 하지만 우리 민족을 세계적으로 정신적 자질이 가장 낮은 민족이라고 한 그의 견해와 실력양성을 위한 개량주의적 방법론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었다. 실력양성은 어디까지나 독립투쟁을 추진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되어야지 그 자체가 혁명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안창호는 독립투쟁을 실력양성으로 대신하려고 하였다. 실력이 양성된다고 하여 독립투쟁이 저절로 진척되는 것은 아닌데 그는 민족의 역량을 어떻게 조직하고 그것을 종국적인 승리의 길로 어떻게 동원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민족해방투쟁의 기본형태로 되어야 할 폭력투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다.

만주에서 독립의 기초로 될 수 있는 산업을 진흥시킨다는 것도 역시 문제가 있었다. 국권을 잃은 민족에게 발전소를 건설하라고 차관을 줄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는가. 온 강토가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갔는데 설사 열강들이 차관을 준다 하여도 이국땅에서 어떻게 발전소를 세우고 벼농사를 착실하게 할 수 있겠는가. 또 일제가 조선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만 내버려두겠는가.

나는 강연을 듣다못해 더 참지 못하고 안창호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종이에 써서 들이대였다.

– 산업과 교육을 진흥시켜 조선민족의 실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했는데 나라를 일제놈들에게 통채로 빼앗긴 조건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 우리 민족을 정신수양이 낮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그러한가?
– 연사가 말하는 열강이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들인데 과연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야 하는가? 또 우리가 그들의 ≪원조≫에 의해서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가?

질문쪽지는 앞에 앉은 학생들과 사회자를 거쳐 안창호에게 전달되었다. 반발심에 못이겨 단호하게 서면질문을 들이대기는 하였으나 막상 사회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학생들이 앉아있는 쪽을 주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사실 그때의 내 심정은 복잡하였다. 그 질문 때문에 강연 중에 있는 연사가 불쾌한 자극을 받게 된다면 안창호를 숭배하고 있은 독립운동자들과 수백 명의 청중들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되지 않을가 하는 우려도 생기였다. 안창호의 강연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그의 강연을 위해 남다른 성의를 보인 오동진도 서면질문의 장본인인 나를 고깝게 생각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런 결과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안창호에게 서면질문을 들이댄 것은 그가 우리의 질문을 받고 잠간만이라도 자기의 주장을 검토하여 민족의 자존심과 자주정신에 배치되는 유해로운 사상을 그 이상 더 먹이지 말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독립운동의 대선배로 존경받는 안창호에게서 그가 청중에게 채 말하지 않은 독립운동의 새로운 지침이나 방략을 듣고싶은 욕망을 억누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태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크게 번지였다.

안창호는 쪽지의 글을 한참동안 내려다보고나서 사회자에게 무엇인가 몇 마디 물었다. 후날 손정도에게서 말을 들으니 그날 안창호는 사회자에게 질문쪽지에 김성주라는 서명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아는가고 물었다고 한다.

그처럼 도도한 기상을 가지고 장내를 쥐락펴락하던 안창호의 연설이 그만 김이 빠져버리었다. 안창호는 조금전까지 일사천리로 펼쳐나가던 강연을 성급하게 마무리짓고 연탁앞에서 황황히 물러섰다.

연사는 매우 심각하게 질문을 받아들인 것 같았다. 좀 자극이나 받으라고 그런 질문을 했는데 안창호자신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고 강연을 중도에서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었다.

실망한 청중은 도산선생이 왜 갑자기 저렇게 주접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출입문쪽으로 밀려나갔다.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길림독군서에서 수백 명의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강연회장에 불시에 달려들어 30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체포했던 것이다. 연사인 안창호는 물론, 현묵관, 김리대, 이관린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자들이 한꺼번에 무리로 붙잡혀 경찰청에 구금되었다.

이 대검거사건을 조종한 것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구니도모였다. 안창호의 길림도착과 때를 같이하여 봉천에 나타난 구니도모는 중국헌병사


百餘名 講演會場包圍
百餘名 各處住宅搜索
安昌浩氏外二百名同胞 檢擧

도산 안창호의 강연회 참가자 체포사건을 소개한 동아일보

령관 양우정에게 수백 명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길림에 모였으니 이를 체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양우정의 명령에 따라 길림독군서의 경찰들과 헌병들은 구니도모의 조종밑에 조선사람들의 가택을 수색하는 한편 대동공창에 달려들어 유례없는 대검거작전을 벌이었다.

우리는 안창호가 비록 강연은 잘하지 못했지만 적들이 그도 포함하여 수백 명의 조선사람들을 붙들어간데 대해서는 치솟는 격분을 누를 수 없었다. 더구나 서면질문끝에 강연이 중단되고 강연이 중단되는 동시에 안창호가 체포되어가니 나로서는 이런 연쇄반응의 책임이 마치 서면질문에라도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들어 괴로운 생각을 털어버릴 수가 없었다.


안창호

중국 동북지방을 통치하고 있던 장작림군벌은 ≪미쯔야협정≫으로 일본과 손을 잡고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반일독립운동자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었다. 이 협정은 만주지방에서 조선민족해방투쟁의 근원을 없애기 위한 악질적인 협정이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조선인애국자들을 체포하는 졸개들에게는 상금까지 주었다. 중국의 일부 반동관헌들은 상금을 타먹으려고 허위밀고까지 하였다.

대동공창에서 벌어진 집단적인 검거소동도 역시 장작림군벌이 일제의 사촉을 받아서 감행한 반동적인 폭압행위였다.

우리는 즉시에 ≪ㅌ · ㄷ≫성원들의 회의를 열고 붙잡힌 사람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대책을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그 결음으로 독립운동자들을 찾아가 그들과도 체포된 사람들을 빼내올 방법을 의논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넋을 잃고 앉아있을 뿐 속수무책이었다.

우리는 모두 단결하여 길림독군서에 압력을 가하면 안창호선생은 물론, 체포된 사람들을 다 빼내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군중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 제일 위력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독립운동자들은 맨주먹밖에 없는 자네네가 무슨 재간으로 그 무지막지한 독군서놈들을 굴복시키겠는가, 군중이 나서서 떠드는 것보다는 돈이나 뇌물이 더 맥을 추지 않겠느냐고 하였다. 대중의 힘을 잘 믿지 않는 타성이 그때에도 나타났다.

나는 돈으로 통하지 않는 것도 군중의 단결된 힘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그들을 꾸준하게 설복하였다. 그런 다음 손정도가 운영하는 길림예배당에서 시내의 독립운동자들과 조선인유지들,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한 군중집회를 가졌다. 우리는 집회참가자들에게 독군서가 왜놈들과 한 짝이 되어 조선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동포들을 무리로 붙잡아갔다는 것을 설명한 다음 그들이 이제 몇 푼의 돈을 받아먹는 대가로 체포해간 사람들을 일본경찰에 모조리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였다. 조선의 애국자들이 왜놈들 손에 넘어가는 날이면 무자비한 처형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겨레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조선사람들은 한마음한뜻으로 단결하여 애국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중적 석방운동에 떨쳐나서자고 호소도 하였다.

우리가 안창호에 대한 석방운동을 벌이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고개를 기웃거리었다.

민족주의자들은 물론,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과 지어는 우리의 영향을 받고 있은 청년학생들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안창호의 이론에 대하여 서면질문까지 들이댄 사람들이 왜 이번에는 그를 구원하지 못해 그렇게 애를 쓰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안창호의 사상을 문제시하는 것이지 안창호란 인간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안창호도 조선사람이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애국지사인데 어떻게 그를 구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고 설복하였다. 나는 그때 수난당한 조선민족은 어려운 때를 당하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에 내세웠다.

내가 안창호의 강연을 반박한 것은 그들이 사대주의적이고 민족허무주의적이며 개량주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조국을 광복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더 적극적으로 투신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였다. 우리가 민족주의자들과 사상투쟁을 한 것은 그들을 타도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깨우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반일의 기치아래 묶어세우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의 안창호

안창호석방을 위한 군중집회가 있은 다음 길림의 담벽과 전주대들에는 ≪중국경찰이 근거없이 조선동포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놓고 박해한다.≫, ≪중국관헌은 일제의 간계에 속지 말라!≫, ≪감옥에 갇힌 조선동포들을 하루빨리 석방하라!≫는 내용의 삐라와 격문들이 나붙었다.

우리는 중국의 각 신문사들에도 글을 써보내어 사회여론을 환기시켰다. 길림시내의 청소년들과 독군서에 몰려가 감금된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웨쳤다. 어떤 날에는 독군서앞에서 시위도 벌이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중국의 반동군벌이 체포해간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을 일제의 손에 넘겨주지 못하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하였다.

독군서는 군중의 압력에 못이겨 20여 일만에 안창호를 비롯한 구속자전원을 석방하였다. 긴장된 투쟁끝에 얻어진 안창호의 석방은 나를 몹시 기쁘게 하였다. 우리는 자유로운 몸이 되어 동료들의 곁으로 돌아온 안창호를 만나려고 독립운동자들을 찾아갔다. 나는 그가 질문에 담겨진 우리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를 은근히 기대하였다.

그러나 안창호는 감옥에서 나오자 바람으로 총총히 길림땅을 떠나가버렸다. 그가 어떤 심정으로 상해에 돌아갔는지 똑똑히 알 수 없지만 나는 그가 정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기분으로 길림을 떠났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애국자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모든 시련을 감당해낸 그 후의 그의 생활이 그것을 증명해주었다.

안창호가 길림을 떠난 후 나는 한 번도 그를 만나지 못하였다.

10여 년이 지난 후 우리가 백두산쪽에서 무장투쟁을 할 때 안창호는 일제놈들에게 체포되어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최후를 마쳤다.

나는 그때 그 소식을 듣고 평생을 민족의 계몽과 단합에 바쳐온 안창호가 독립의 날을 보지 못하고 일찍이 떠나간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별스럽게 맺어졌던 안창호와의 인연이 그것으로 완전히 끊어져버린 것은 아니였다. 안창호는 갔지만 그의 여동생 안신호가 해방 후 조선민주여성동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였다.

해방 후 조국에 개선한 나는 국내에서 활동하던 애국지사들을 통하여 안창호의 누이동생이 남포방면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당시 남포지구에서는 김경석동무가 파견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안신호를 찾을 데 대한 과업을 주었다. 며칠 후 남포에서 안신호를 찾았다는 통보가 올라왔다. 김경석동무에게 전화로 그 여자의 경향이 어떤가고 물으니 그는 밤낮 성경책만 끼고 다니는 여자인데 독실한 신자 같다고만 대답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남북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에 참가한 김구선생을 만나주시었다

나는 안신호가 이름난 애국열사의 동생이기 때문에 종교를 믿어도 애국심만은 있을 것이니 당적 영향을 주면서 잘 이끌어보라고 김경석동무에게 말하였다.

김경석동무는 알겠다고 대답하면서도 별로 시답지 않아하였다. 신자들이라면 덮어놓고 색안경을 끼고보는 때여서 우리가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을 경원시하는 폐단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

몇 달 후 김경석동무는 나에게 안신호가 입당하였다는 것과 그가 성경책속에 당증을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새 조선 건설에 헌신분투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안창호의 애국혼은 결코 지하에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안신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독립인사로서의 안창호의 파란많은 일생을 생각했고 생전에 그가 민족을 위해 바친 노고를 더듬어보며 감개무량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일생을 반공으로 살아온 김구는 남북연석회의 때 북반부에 들어와 안신호를 만나보고 놀랐다. 공산주의자들이 상해임시정부 거물의 누이동생을 중앙녀맹부위원장으로 등용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모양이다. 안신호는 그의 젊은 시절의 애인이며 약혼녀였다.

안신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곧 안창호에 대한 믿음이었다. 그것은 또한 이념이나 신앙을 초월하여 민족이라는 하나의 울타리속에서 애국애족의 유대에 의해 혈연적으로 연결되어있는 독립운동의 모든 선배들에 대한 우리의 예절이며 인사이기도 하였다.

7. 3부통합

1920년대는 총적으로 볼 때 반일애국역량의 단일전선에로의 통합촉성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민족의 전도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선각자들과 애국지사들은 독립의 기초가 반일역량의 통일단결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러시아에서의 사회주의10월혁명과 3.1인민봉기의 영향밑에서 새 사조의 보급과 함께 급속히 태어난 여러 개의 노동운동단체들은 1920년대 중기에 와서 조선노농총동맹으로 통합되었다. 반일애국세력을 한데 묶어세우기 위한 작업은 민족주의진영에서도 진행되었다.

1927년에는 민족단일당조직의 기운이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공산주의진영과 민족주의진영의 공동전선기관으로 신간회가 창립되어 그 산하에 수만 명의 회원들을 집결시키기 시작하였다.

반일애국역량의 통합을 위한 운동은 독립운동의 책원지로 전환된 만주지방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한일합병≫직후부터 만주지방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군소독립운동단체들은 무수한 리합집산과정을 거쳐 1925년경까지는 대체로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의 3부로 나뉘여져 각각 독자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자기 단체의 관할구역에 금을 그어놓고 다른 단체와의 협동적 연계도 없이 중세기의 소공국들처럼 서로 등을 지고 할거하던 3부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거듭되는 공세앞에서 각개격파당할 위험에 처하여있었다. 훈춘사건과 홍경사건, 고마영사건을 비롯한 일본군의 연속되는 대학살작전과 ≪미쯔야협정≫으로 만주지방의 독립군단체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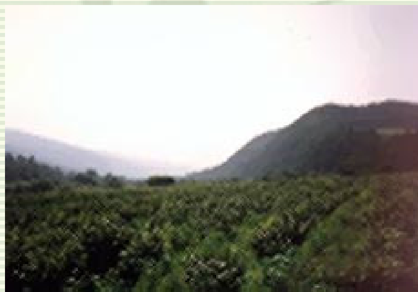
봉오골전투와 청산리전투에서 대참패를 당한 후부터 일본군은 독립군의 무장활동을 견제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병력을 증강하였고 일본군 한 명이 죽으면 조선사람 열명을 죽이는 간악한 심리살륙전으로 성장기에 있던 독립군을 피동에 몰아넣었다.

이러한 사태하에서 패권다툼에 열을 올리던 각 부의 지도자들은 군앞에 조성된 난국을 해소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3부가 태어난 초시기부터 독립운동의 선각자들은 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였다.

그 당시 3부는 관할구역을 넓히기 위한 경쟁에 쓸데없는 정력을 소모하면서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는 상태에 놓여있었다. 3부의 패권싸움은 이따금 가슴아픈 충돌과 유혈도 빚어냈다.

나는 1925년 여름에 이미 3부의 지도자들이 무송에 모여 아버지가 사회하는 큰 규모의 회의를 열고 통합실현의 방도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김좌진의 청산리전투지역

회의는 무송과 말리허, 양지촌 세 곳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열흘동안이나 진행되었다. 이 회의의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민족단체연합촉진회였다.

민족단체연합촉진회에 망라된 인사들은 민족단일당결성을 위한 준비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각파 지도자들과의 끊임없는 연계밑에 재만조선동포의 자치문제와 혁명전선의 통합을 위한 회의를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장소를 바꿔가며 회의를 거듭하는 과정에 ≪왕바사건≫이라는 소설 같은 사건도 생기였다.

그 당시 김동삼, 최동오, 현묵관, 심룡준, 임병무, 김돈, 이연, 송상하를 비롯한 3부의 지도자들은 신안툰에 모여 통합회의를 하고 있었다. 신안툰은 길장철도에서 서남쪽으로 30리쯤되는 곳에 자리잡고 있은 동네인데 길림, 홍경, 화전과 더불어 만주에서 몇 개 안되는 정치운동의 책원지였다.

3부합작회의의 기밀을 내탐한 일본영사관경찰에서는 평민으로 가장한 다섯 명의 밀정들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밀정들은 신안툰근처의 동향수구부락까지 와서 자라잡이를 하는척하면서 3부합작회의과정을 탐지하였다. 그러다가 마을청년들에게 정체가 탄로되어 모조리 처단되었다. 청년들은 밀정들을 한 끈에 묶어 송화강에 수장하였다.


신간회 회의장면

길림주재 일본영사관경찰에서는 중국 경무청에 이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조선사람들이 일본량민을 살해하였다는 이유하에 사건현장과 신안툰에 대한 공동수사를 강요하였다. 이 사실이 경무청에 통역으로 근무하고 있던 오인화라는 사람에 의해 3부합작회의 대표들에게 통보되었다. 대표들은 일단 휴회를 선언하고 신안툰을 떠났다.

이것을 세칭 ≪왕바사건≫이라고 한다. 왕바란 중국의 속어로 자라라는 뜻이다.

독립운동단체들의 통합을 위한 3부의 회의는 무수한 난관과 우여곡절을 동반하였다. 3부합작을 두려워하는 일제의 집요한 미행과 파괴책동이 첫 번째 난관이라면 그보다 더 큰 난관은 각 단체 내부에 생긴 파벌들의 대립이었다. 정의부는 촉성회파와 협의회파로 분열되어있었고 신민부는 군정파와 민정파로 대립되어있었으며 참의부는 촉성회지지파와 협의회지지파로 갈라져 옥신각신하였다. 김동삼, 이청천, 이종건을 비롯한 촉성회측은 정의부에서 탈퇴하였고 김좌진, 황학수를 우두머리로 한 군정파도 신민부와 결별하였다.

3부통합회의가 제일 자주 소집된 곳은 길림이었다.

길림의 상의가에는 조선사람이 경영하는 복흥태라는 정미소가 있었다. 길림에 있는 독립운동자들은 그 정미소사무실을 침실과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었다. 남만과 북만, 동만에서 오가는 독립운동자들까지도 그곳을 단골방으로 자주 이용하였기 때문에 복흥태는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바로 여기서 3부통합회의가 해를 넘기며 열리고 있었다.

복흥태정미소가 육문중학교로 오가는 길목에 있었으므로 나는 회의에 참가한 대표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였다.

그 정미소의 주인은 공산주의를 동경하는 민족주의자로서 남의 쌀을 찧어주고 도정료를 받아서 밥술이나 먹고 살아가는 소기업가였다.

어느 날 그 정미소에 들리니 내가 아는 영감들이 김형직선생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를 김좌진, 김동삼, 심룡준을 비롯한 3부통합회의 대표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었다. 그렇게 소개해놓고는 농담삼아 ≪이 사람은 우리하고 사상이 달라.≫하고 꼭지를 달아놓았다.

나는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선생님들도 조선독립을 하자는 것이고 저도 조선독립을 하자는 것인데 사상이 다를 리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내가 그런 말을 하자 그들은 자네들이 사회주의운동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다고 하였다.

공산주의선전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나는 그들에게 ≪지금 청년들이 공산주의운동을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적 추세이고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청년들인데 남들이 다하는 공산주의를 왜 조선청년들이라고 안하겠습니까. 우리가 새것을 보지 않고 계속 낡은 것에만 매여달린다면 조선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생님들은 선생님들이고 또 우리는 세대가 다른데 선생님들이 청년들의 심정을 무시하면 곤란합니다.≫하고 들이대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영감들은 ≪자네가 아무 것을 하든 우린 상관하지 않겠네. 설마하니 자네들이 우리야 타도하겠나.≫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고 우리 청년들이 선생님들을 타도하리라고 생각하는가고 점잖게 말하였다.

이와 비슷한 일은 그 후에도 몇 번 있었다.

가며오며 이따금씩 들려봐도 3부가 통합했다는 소식은 들을 수 없었다. 독립군의 지도자들은 짜증이 날 지경으로 회의를 질질 끌고 있었다.

나는 3부의 지도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 그들의 생활내막을 알게 되었는데 그 생활이라는 것이 고루하고 따분하기 그지없었다.

길림성밖 조양문근처에 삼풍잔이라는 간판을 단 여관이 있었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한 바가 있다. 3부통합회의가 휴회로 들어갈 때마다 독립군의 지도간부들은 이 여관에 모여 다른 파를 견제하기 위한 모의를 하였다.

그 여관 가까이에는 우리가 대중교양장소로 이용하고 있던 손정도의 예배당이 있었다. 그러다나니 나도 자연히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 때면 이 삼풍잔에 모인 독립군상층의 생활을 엿볼 수가 있었다.

그들이 정해놓고 쓰는 방에는 손때가 올라 반질반질한 장기판이 늘 놓여있었다. 독립군들이 심심해한다고 여관주인이 특별히 만들어온 장기판이였다.

독립군영감들은 그 방에서 진종일 입씨름을 하든가 장훈이야 멍훈이야 하면서 세월을 보냈다.

삼풍여관 주인들은 독립군거두들을 섬기느라고 뽕이 빠질 지경이었다. 그들을 치를 때는 태풍합정미소에서 찧어내는 쌀가운데서 제일 좋은 쌀을 골라 밥을 해먹이군 하였으며 고기나 두부나 물고기 같은 반찬도 떨구지 않았다.

독립군지휘관들은 매일 장기놀이로 밤을 밝히면서도 주인들한테서 밤참으로 메밀국수를 꼭꼭 대접받군 하였다.

그 집 딸이 하는 말이 그것도 다 공짜라는 것이었다. 그는 밤마다 담배심부름, 술심부름을 하느라고 잠조차 제대로 잘 수 없다고 하였다. 그가 한번은 자기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가 이 모양으로 저 사람들을 섬기다가는 석 달도 못가서 거지가 되겠어요.≫라고 하였더니 그의 어머니는 오히려 그를 꾸짖으면서 ≪나라를 찾자고 싸우는 분들인데 무엇을 아끼겠니. 이제 준비가 되면 싸우러 떠날게다. 다시는 그런 말을 입밖에 내지 말아라.≫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독립군의 지휘관들은 싸우러 떠나기는커녕 무기를 모아다 창고에 감추고 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가면 장부책 같은 것을 펴놓고 무슨 일을 하는 척하였다. 젊은이들한테 건달군처럼 보이기는 싫어서 눈치놀

음을 하는 것이었다.

어떤 날은 그들이 주먹이나 목침으로 책상을 꽝꽝 내리치며 서로 입에 담지 못할 상욕들을 퍼붓기도 하였다. 3부가 통합을 한 다음 어느 파가 실권을 쥐겠는가 하는 것이 기본문제였다. 그들은 자기 파가 활동연한도 더 오래고 업적도 더 크다거니, 자기 파가 관할하는 구역이 더 넓고 군중도 더 많다느니 하면서 제가끔 자기 파를 내세우고 다른 파를 깎아내리었다. 그러다가도 저녁이 되면 술을 마시고 밤새껏 주정질을 하다가 다음날 한낮때가 되어서야 일어나군 하였다.

어느 일요일 우리는 태풍합정미소에 갔다가 거기서 상해임시정부 재정부장이라는 사람과 논쟁을 하였다.



길림시
상의가에 있는
복흥태정미소

그는 자기네 동료 몇 사람을 데리고 길림에 와서 몇 달째 3부통합회의에 참가하고 있었다. 그가 청년들과 어울려 장난도 잘하고 진보적인 냄새가 풍기는 말도 자주 하므로 우리도 그를 만나면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속에 있는 소리를 꺼리낌없이 터놓군 하였다.

그날 우리는 그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상해임시정부를 좀 비판하였다. 당신네들은 나라도 민족도 안중에 없이 백성이야 어떻게 돼가든 외국에 쫓겨와서까지 제가끔 한자리 해먹겠다고 싸움질만 하며 돌아가는데 그러고도 애국에 대해서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 벼슬을 한대야 촌에 나가서 농사하는 집 몇 집을 상대로 군자금을 거두며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인데 그런 권력다툼은 해서 뭘하겠는가고 우리 청년들 몇이 둘러앉아 막 공격을 들이댔다.

재정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의 정당한 충고에 말문이 막혀 쩔쩔매다가 자기를 모욕한다고 노발대발해서 우리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너희들이 나를 반대해? 그래, 옳다. 너희들만 잘나고 우리는 못났다. 그럴 바에는 나나 너희들이나 다같이 실컷 망신을 당해보자.≫

그는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 옷을 와락와락 벗어내치었다. 벌거벗고 거리바닥에 나가 뛰어다니면서 조선사람망신을 시키겠다는 것이였다. 자기가 모욕을 당했으니 그 대신 민족을 망신시키는 것으로 앙갚음을 하겠다는 것이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그런 사람은 난생 처음 보았다. 간판은 임시정부부장인데 소행을 보면 무뢰한이고 망나니였다. 그가 정미소담장밖으로 나가는 날이면 야단이였다. 재정부장의 망신이자 우리의 망신이고 조선사람의 망신이였다. 그래서 그를 겨우 진정시켜 옷을 주어입혔다.

우리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는 그런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자고 하였다. 자기네를 비판하였다고 알몸뚱이바람으로 거리바닥에 뛰어나가려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는가. 배꼽을 드러내놓고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몰라도 나살이나 먹은 사람이 그 꼴이니 그게 무슨 정치인인가.

이 사람이 상해임시정부 망신을 다 시키었다. 그 당시 만주지방에는 상해임시정부를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파쟁을 한다고 곱지 않게 보았고 구걸외교에 매달린다고 곱지 않게 보았으며 군자금을 탕진하며 무위도식한다고 곱지 않게 보았다. 임시정부는 인두세와 구국의무금으로도 모자라 나중에는 공채까지 발행하고 돈냥이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무개는 어느 도의 관찰사, 아무개는 어느 군의 군수, 아무개는 어느 면의 면장으로 임명한다는 ≪사령장≫이라는 것을 주고 그 직함에 따라 해당한 금품을 받아들이는 매관매직까지 하였다.

민족주의자들이 통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파벌싸움을 계속하고 있은 사이에 일제는 그들속에 주구들을 박아넣어 반일독립운동자들을 손쉽게 붙잡아갔다. 가장 가슴아픈 손실은 오동진이 체포된 것이였다. 일제경찰은 주구 김종원을 시켜 조선의 큰 금광주 최창학이 장춘에 와있으니 그와 교섭하면 막대한 독립운동자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오동진을 유인해내여 장춘부근 흥륭산역에서 체포하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도 분하고 원통하여 얼마동안 밥맛을 잃어버리다 싶이 하였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후 오동진의 아들 오경천이 길림영화관에 구경을 갔다가 화재사고로 죽었다. 내가 불속에 뛰어들어가서 업어내오기는 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목숨을 건지지 못하였다. 남편이 감옥에 잡혀가고 아들까지 잘못된 후 오동진의 부인은 고민끝에 정신이상에 걸리고 말았다. 우리가 가서 위로도하고 병구완도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결국 부인은 애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오동진이 죽음을 각오하고 법정투쟁을 한창 벌이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3부통합을 한다고 매일같이 모여앉아 술추렴이나 하면서 세력다툼으로 시간을 보내니 그것을 보는 우리의 심정이 좋을 수가 없었다.

오동진의 체포에서 맛을 들인 일제경찰은 더 많은 반일운동자들을 붙들어가기 위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돌아쳤다.

그래도 3부의 지도자들은 정신을 못차리고 말공부질만 계속하였다.

하루는 그 사람들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바지가랭이에 모래를 넣고 정미소울타리안을 왔다갔다하면서 달리기훈련을 하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보게 된 나는 답답한 생각을 금할 수 없었다. 일제의 만주침략이 눈앞에 박두하고 조국의 운명도 날을 따라 더 암담해만 가는데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참다못해 우리는 오동진사령의 체포를 통해 선생님들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왜놈들은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이름있는 반일운동자들을 하나하나 체포하여 처형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은 아직도 여기에 모여앉아 회의만 하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우리 청년학생들은 남만과 북만, 동만에 있는 모든 독립운동자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조선사람모두가 단결을 이룩하도록 하루속히 3부통합을 성사시켜주기 바랍니다 하고 절절하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3부의 지도자들은 그 후에도 계속 싸움질과 공리공담으로 세월을 보냈다.

그때의 조바심과 안타까움이란 실로 형언할 수 없었다.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도 파벌싸움에만 미쳐돌아가고 있는데 그나마 얼마간의 무장력을 쥐고 있은 민족주의자들마저 그런 형편이니 참으로 답답하였다.

우리는 생각다 못해 그들에게 좀더 큰 자극을 줄 목적으로 민족주의자들의 권력싸움을 풍자한 연극을 만들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은 ≪3인1당≫이다.

준비가 다 된 후 내가 가서 3부의 지도자들을 초대하였다. 회의를 하느라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우리들이 연극을 하나 만들었는데 피곤도 푸실겸 한번 와보라고 하니 그들은 다들 좋아하면서 손정도네 예배당으로 찾아왔다.

노래와 춤을 비롯한 몇 가지 종목들이 끝난 다음 맨 마지막으로 연극을 무대에 올렸다.



신민부 한족총연합회 본부건물

처음에는 그 영감들이 연극이 재미난다고 하면서 대단히 좋아하였다. 그러다가 세사람이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연극의 내용이 자기네들을 풍자한 것임을 알아채고는 얼굴들이 시뻘개서 ≪나쁜놈들, 우리를 감히 모욕해? 저 성주가 아주 못쓰게 됐다.≫고 하면서 달아나버리었다.

나는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들한테 찾아가서 시치미를 떼고 물었다.

≪어제저녁에 선생님들은 왜 공연도중에 가시었습니까? 연극을 마지막까지 보셔야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영감들은 노발대발하면서 너희들이 어제저녁 우리를 뭐라고 욕했는가고 나에게 대들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의 진심을 이야기하였다.

≪선생님들, 무엇이 그렇게 노엽습니까? 선생님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기에 우리도 너무 답답해서 연극을 만들었습니다. 어제저녁 연극은 청년들의 의사를 대변한 것인데 청년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대중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선생님들도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리정연한 말에 자극을 받은 그들은 이제는 저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 만들어야겠다고 하였다.

그 후 3부는 형식상으로나마 국민부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그것은 정의부의 잔류파와 신민부의 민정파, 참의부의 심룡준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절반짜리 통합이었다.

정의부의 탈퇴파와 참의부 촉성회지지파, 신민부의 군정파는 따로 임시혁신의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국민부와 병립하였다.

각파의 지도자들은 국민부의 지붕밑에 들어와서도 서로 등을 돌려대고앉아 딴꿈을 꾸었다.

민족주의진영의 보수세력은 이처럼 새 사조를 배척하면서 파벌싸움을 하다가 종말을 고 하였다. 그들이 전장에 나가서 일제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파쟁과 입씨름으로 세월을 보낸 것은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광복시킬 확고부동한 결심이 없었기 때문이였다.

역사는 바야흐로 민족해방투쟁에서의 세대교체를 미룰 수 없는 과업으로 제기하였다. 우리는 청년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이 세대교체를 감당할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하였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 혁명연극 ≪3인1당≫

8. 차광수가 찾은 길


청년공산주의자
차광수

길림시절을 회상할 때면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 수없이 떠오르군한다. 그 얼굴들의 전렬에는 항상 차광수가 서있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1927년 봄이였다.

나에게 차광수를 처음으로 소개해준 사람은 최창걸이다. 최창걸은 화성의숙이 페교된 다음 정의부본거지의 하나였던 유하현의 삼원포에서 독립군생활을 하였다.

하루는 그의 연락원이 쪽지를 가지고 갑자기 나를 찾아왔다. 그 쪽지에는 이제 차광수란 사람이 길림에 가니 만나보라는 것과 자기도 인차 길림에 한번 오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며칠후 내가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강연을 마치고 나올 때였다. 목이 한쪽으로 약간 기울사한 안경잽이청년이 불쑥 내앞에 나타나 밑도 끝도 없이 최창걸이란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다. 내가 안다고 대답하자 그는 무작정 손부터 내밀었다. 그가 바로 차광수였다.

그날 차광수는 될수록 자기는 말을 적게 하면서 나한테 말을 많이 시켰다. 그러다보니 그는 묻고 나는 대답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그는 몹시 무뚝뚝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훌쩍 사라졌다.

얼마후 최창걸이 약속대로 길림에 왔다. 길림에는 정의부의 지도부가 있었고 그들을 호위하는 중앙호위대가 신개문밖에 막사를 정하고 있었다. 최창걸은 자기네 중대에서 중앙호위대에 연락할 일이 생기자 그것을 핑계로 길림에 찾아온 것이다.

나는 최창걸에게 차광수와의 담화내용도 이야기해주고 그에게서 받은 첫인상도 실토하면서 그가 아직 속을 주는 것 같지 않더라는 말도 하였다.

최창걸은 자기가 처음 그를 만날 때에도 역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지내놓고 보면 사람은 진국이라고 하였다.

하루는 최창걸이 속해있는 독립군중대장한테 류수하자학교에 공산주의선전을 하는 교원이 있다는 사실이 통보되었다.

중대장은 그를 당장 체포해오라고 하였다.

최창걸은 공산주의라면 덮어놓고 이단시하는 독립군한테 차광수가 혹시 행패라도 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자기의 영향하에 있는 대원들에게 단단히 과업을 주어 보냈다.

최창걸의 과업을 받은 독립군대원들은 차광수가 하숙하고 있는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그들이 받은 저녁상이 몹시 초라했던 모양이다. 강조밥 한 숟가락을

물에 마니 죽은 좀벌레와 쌀껍데기가 둥둥 떠올랐다고 한다.

돌아다니면서 대접을 받는데 습관된 독립군대원들은 이것도 밥인가, 독립군을 대하는 본때가 덜돼먹었다고 을렀다뗐다.

그때 차광수가 집주인을 두둔해나섰다.

≪이 집 주인들은 며칠째 낟알구경도 못하고 푸성귀로 끼니를 에우고 있소. 독립군어른들이 왔다고 그래도 성의를 다하느라 지주집에 가서 쌀을 꾸어다 밥을 지었단 말이요. 잘못을 따지면 나쁜 쌀을 준 지주한테 있지 정성껏 밥을 지어 대접한 주인한테야 무슨 죄가 있겠소.≫

얼굴을 붉히며 호통을 치던 독립군대원들도 차광수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다. 이치에 맞는 말이어서 트집을 잡을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독립군도 몰라본다고 우둘렁거리던 그들이 나중에는 차광수의 인품에 끌리며 체포는커녕 빈손으로 돌아가서 중대장에게 차광수란 사람은 공산당은 아니고 대단한 애국자라고 보고하였다.

최창걸자신도 차광수를 만나보았는데 과연 사귈만하더라는 것이였다. 원래 최창걸은 자기가 일단 좋다고 본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지하고 지극하였다.

나는 최창걸의 눈에 좋게 보였으면 차광수가 좋은 사람일 것이라고 믿었다.

최창걸이 돌아간 다음 한 주일쯤 있다가 불쑥 차광수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한동안 길림바람을 좀 쐬였노라고 하면서 아닌밤중에 홍두깨라는 식으로 나에게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고 물었다.

장개석이 중국공산당을 배신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는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가 격렬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진정한 공산주의자와 기회주의자를 가르는 하나의 시금석처럼 되어있었다. 그래서 차광수도 만나자 바람으로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물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장개석의 변절로 중국혁명에서는 복잡한 사태가 조성되었다.

장개석이 배신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중국혁명이 눈부신 앙양기에 있었다.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합작은 혁명을 추동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었다.

1920년대 후반기부터 중국혁명은 혁명전쟁의 방법으로 전국의 반동통치를 전복하는데로 나아갔다. 제국주의타도, 군벌타도, 봉건세력숙청이라는 구호밑에 1926년 여름부터 북벌을 개시한 국민혁명군은 호남, 호북, 강서, 복건 등 여러 성들을 장악하고 양자강유역의 주요도시들을 연이어 점령하면서 일제의 조종밑에 화북지방까지 차지하고 있던 장작림반동군벌들에게 드센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상해의 노동계급은 세 차례에 걸치는 영웅적 봉기로 도시를 장악하였으며 무한과 구강의 인민들은 북벌혁명의 승리에 고무되어 영제국주의자들로부터 조계지를 탈환하였다. 노동자들은 총파업으로 북벌군의 진공에 호응하였고 농민들은 노동자들과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대중적으로 북벌전쟁에 참전하였다.

이런 때에 장개석은 국공합작을 파괴하고 혁명을 배신하는 길에 들어섰다. 그는 혁명의 지도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음모적인 방법으로 국민당지도부와 정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였으며 제국주의열강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막후교섭을 맹렬하게 벌이었다.

장개석이 이런 배신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중국혁명이 보다 멀리앞으로 전진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도 지금처럼 날카롭게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차광수는 몹시 분해하였다.

광동혁명근거지가 공고화되고 북벌혁명이 일정에 오르자 장개석은 곧 군사독재를 수립하고 공산당을 반대하는 파시스트적인 테러전에로 이행하였다. 그는 1926

년 3월에 중산함사건을 조작한 후 그것을 계기로 황포군관학교와 국민혁명군 1군에서 주은래를 비롯한 모든 공산당원들을 몰아냈고 1927년 3월에는 손중산의 3대 정책을 지지하는 국민당 남창시당부와 구강시당부를 무력으로 해산하였으며 3월 31일에는 중경에서 군중대회장을 습격하여 수많은 시민들을 학살하였다.

1927년 4월 12일 상해에서 혁명군중에 대한 야수적인 학살을 감행하였다. 이 피비린내나는 대도살은 지방에까지 파급되었다.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하여 중국혁명은 일시적인 퇴조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국제공산주의운동내부에서는 중국혁명의 이러한 실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일부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가 아마 차광수에게 자극을 준 모양이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민족주의자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ㅌ·ㄷ≫를 무을 때부터 내세운 입장이었다.

그날 나는 차광수에게 조선의 일부 타락한 민족주의자들이 일제에게 굴복하여 ≪자치≫와 민족개량주의를 설교하고 있지만 양심적인 민족주의자들과 지식인들은 국내와 해외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조선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일제의 야만적 식민지통치를 체험하고 있은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반일정신이 강하다, 그러므로 그런 민족주의자, 민족자본가들과는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민족주의자들과의 동맹문제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민족주의에 대한 우리 식의 독자적인 해석에 그 기초를 두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는 민족주의를 민족해방투쟁무대에 맨처음으로 등장한 하나의 애국적인 사조로 보았다.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발생하였다.

몰락의 비탈길을 굴러내려가고 있던 왕조정치의 심연속에서 내우외환이 거듭되고 외세의 강요에 의한 개국의 진통으로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하였을 때 개화의 등불을 들고 ≪자주독립≫, ≪보국안민≫, ≪척양척왜≫를 부르짖으며 역사무대에 태어난 것이 바로 민족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 민족의 자주권이 외부세력에 의해 참혹하게 짓밟히고 국토가 리권쟁탈을 위한 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변하고 있을 때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조가 등장하여 대중의 지도사상으로 된 것은 역사발전법칙에 부합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신흥부르조아지들이 민족주의기치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다고 하여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계급의 사상이였다고 보는 것은 공정한 견해라고 볼 수 없다.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조아민족운동시기에는 인민대중의 이익과 신흥부르조아지의 이익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민족공동의 이익을 반영하였다.

그 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조아지가 반동적 지배계급으로 되면서 민족주의는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상적 도구로 되었다. 그러므로 민족의 이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상적 도구로서의 부르조아민족주의는 항상 구별해보아야 한다. 이것을 동일시하게되면 혁명실천상에서 엄중한 과오를 범하게 된다.

우리는 부르조아민족주의는 반대하고 경계하지만 참다운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환영한다. 왜냐하면 참다운 민족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사상감정이 애국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애국심은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다같이 소유하고 있은 공통적인 사상감정이며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을 위한 하나의 궤도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는 최대공약수이다.

애국애족은 공산주의를 참다운 민족주의와 연결시켜주는 대동맥이며 참다운 민족주의를 연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다.

지난날 참다운 민족주의자들은 이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나라를 근대화하고 외적에게 침탈당한 국토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서 적지 않은 공적을 쌓아올리였다.

오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와 사상이 존재하는 분단상황하에서도 우리가 조국을 통일할 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완강하게 투쟁하는 것은 바로 공산주의자들과 참다운 민족주의자들이 다같이 소유하고 있은 애국애족에서 민족화합의 대업을 이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원천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단일민족국가인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주의가 곧 애국주의로 된다는 것은 움직일수 없는 하나의 원리이다. 이런 원리로 보면 나는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청년학생운동을 하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평생 견지해온 견해이고 입장이다.

나는 차광수를 만난 그날도 참다운 민족주의와 부르조아민족주의는 구별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차광수는 말을 다 듣고나서 나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격한 목소리로 ≪성주≫하고 내 이름을 불렀다.

내가 이론이 월등해서 그를 납득시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를 조선의 구체적 현실에 기초하여 판단하며 공리공담이 아니라 혁명실천을 중시하는 나의 입장과 사고방식이 차광수한테 공명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다.

그때부터 차광수는 자기의 속을 터놓기 시작하였다.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순간에 변하였다. 지금까지 내가 주로 말을 하고 그는 질문을 하며 듣기만 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묻지 않아도 그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였다.

속을 터놓고 사귀어보니 차광수는 대단한 멋쟁이였다. 나이는 나보다 일곱 살이나 우였는데 일본에 건너가 대학공부까지 한 사람이였다. 그는 글도 잘 쓰고 연설도 잘했지만 마음씨가 무한정 좋아서 청년들을 많이 끌었으며 맑스주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때면 서로 더 잘 안다고 지지 않으려고 하였다.

화요파의 두령 김찬은 차광수한테 맞다들기만 하면 쩔쩔매군 하였다. 김찬은 맑스주의에 대한 논쟁에서 차광수한테 견디지 못하였다. 김찬을 공산당거물이라고 그렇게도 신비스럽게 생각하던 차광수가 그를 몇 번 만나보고 난 다음부터는 중학생다루듯 하였다. 차광수와 서상파인물 신일용을 논쟁시켜본 일이 있는데 그도 차광수한테는 어쩌지 못하였다.

차광수의 특징은 목을 왼쪽으로 약간 기울이고 다니는 것이였다. 어렸을 때 목에 종처가 나서 고개를 삐뚜름하고 다닌 것이 버릇이 되어 그렇게 되었다고 한다.

차광수는 평안북도사람이였다. 어려서부터 동네사람들한테서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어오던 그는 10대의



혁명영화 ≪조선의 별≫

나이에 일본에 건너가서 고학을 하였다. 그가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읽고 공산주의를 동경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였다.

차광수가 새 사조를 섭취하며 힘겨운 고학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일본에서는 공산주의운동이 하강기에 들어서고 있었다. 창건된 지 얼마 안되는 일본공산당은 1923년 6월에 있은 당지도핵심들에 대한 1차검거와 간또대지진시기의 백색테러로 하여 몹시 약화되었으며 그 후 지도부에 잠입한 기회주의분자들의 책동으로 인하여 해산되고 말았다. 공산주의운동이 퇴조기를 걷고 있은 일본땅에 앉아 무슨 운동을 모색하며 맑스의 책이나 뒤적거린다는 것은 싱거운 일이였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

차광수는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에 돌아와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런데 같은 맑스-레닌주의를 한다면서 무슨 파가 그리 많고 무슨 갈래가 그리도 복잡한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차광수는 어느 파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고 자기가 갈길을 찾기 위해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역사와 그 계보, 파벌관계를 품을 놓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미궁을 헤매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3인1당, 5인1파 식으로 파와 갈래는 수두룩하였다. 각파는 서로 날카롭게 대립되어있었지만 실제상 사상적 입장이나 정치적 견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차광수는 자기가 국내에 있을 때 종파분자들의 책동가운데서 제일 너절하게 생각한 것은 낙양관사건이였다고 하였다. 낙양관사건이란 화요계, 북풍회계 인물들이 낙양관이라는 료리점에서 회합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두파의 결탁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서울파사람들이 회합장소를 습격하고 폭행을 가하여 몇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중상을 입은 사람들은 서울파의 가해자를 걸어 일제의 재판기관에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런 사건이 있은지 며칠 안되어 북풍회파사람들이 서울파인물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울파에서 중상을 입은 사람이 일제의 재판기관에 찾아가 북풍회파의 가해자를 걸어 형사소송을 하였다.

이런 파벌싸움이 발전하여 마지막에는 저마끔씩 테러단들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파와 대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까지 험하게 타락할 수 있을가 하고 주야장탄하던 차광수는 생각끝에 서울을 떠나 만주로 들어왔다. 만주는 쏘련과 가까운 곳이니 거기에 가면 국제공산당의 연줄도 잡을 수 있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새 길도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한줄기의 희망때문이였다는 것이다.

만주에서 그는 정우회선언에 맞다들었다.

종파분자들은 정우회선언에서 조선공산주의운동을 분파투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서로 중상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였으며 이론투쟁을 전

개하여 대중에게 진정한 진로를 가리켜줘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정우회선언의 주장대로 공개적인 논쟁을 하게 되면 덕을 볼 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이 아니라 일제의 고등계형사들이였다.

조선공산당이 창건된 후 화요파는 서울파와 대립되어 파쟁을 하면서 자파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들이 준비하고 있던 민중운동자대회준비위원 72명의 명단을 신문에 공개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영도권쟁탈에 피눈이 된 종파분자들이 공산당간부들의 명단을 일제에게 송두리채 넘겨준 공개밀고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이 명단을 가지고 일제는 공산당간부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였다. 검거선풍에 의하여 화요파의 인물들은 거의 다 감옥에 잡혀가고 말았다.

이 교훈을 망각하고 종파분자들의 주장대로 이제 다시 공개적인 논쟁을 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리라는 것은 명백하였다.

일본의 물정에 밝은 차광수는 정우회선언이 일본공산주의운동내부에 나타난 기회주의사상조류인 ≪후꾸모도주의≫의 재판이라고 규탄하였다.

후꾸모도는 당을 재건하기 위하여서는 ≪이론투쟁≫을 통해 순수한 혁명의식을 가진자와 불순한 사상을 가진 자들을 갈라낸 다음 순수한 요소들만 결합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는데 그의 주장은 분열주의적이고 분파주의적인 것으로서 일본노동운동에 커다란 해독을 끼치었다.

차광수는 후꾸모도의 이론을 통채로 삼키다 못해 문장까지 그대로 본딴 정우회선언에 침을 뱉고 돌아섰다.

종파분자들의 범죄행위에 환멸을 느낀 그는 유하로 갔다. 시골훈장이 되어 아이들의 머리에 민족의 정기나 넣어주며 조용히 살아가려고 결심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최창걸을 만났고 그의 소개로 길림에 나타나게 되었다.

이국땅에서 찬비를 맞으며 걸어갈 때 차광수는 자기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올바른 투쟁노선과 지도자를 목마르게 기다렸노라고 고백하였다.

그는 자기의 경력을 다 소개하고나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성주, 우리 서로 믿음과 사랑속에 공산주의운동을 할 수 없을가? 분파와 헤게모니싸움이 없이 말이요!≫

차광수의 그 부르짖음은 혁명의 길을 찾아 만리타향을 헤매던 끝에 그가 찾은 인생총화이며 교훈이기도 하였다.

나도 그의 손을 잡고 우리 새 세대들은 종파분자들처럼 분열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혁명의 곧바른 길을 가자고 격해서 말하였다.

차광수는 최창걸을 통해 나를 소개받았을 때의 솔직한 심정도 털어놓았다. 우리가 길림에서 학생운동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중학생이 맑스-레닌주의를 알면 얼마나 알며 공산주의운동을 하면 얼마나 잘하랴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한번 줴떠보려는 마음도 먹었다고 숨김없이 고백하였다. 그러니 푸접좋고 털렁광창인 그를 나는 처음에 뚝바우로 알 수밖에 없었다.

차광수는 그 후 인차 우리의 ≪ㅌ·ㄷ≫성원이 되었다.

그 해 여름에 나는 차광수를 신안툰에 보냈다. 신안툰은 길장연도에서 서쪽으로 얼마 안되는 곳에 있는 자그마한 동네로서 조선의 애국지사들이 이상향으로 개척해놓은 마을이었다. 만주의 조선인거주지역들 중에서도 몇 개 안되는 정치운동의 책원지였다. 이 마을을 혁명화하면 농민대중속으로 들어가는 첫통로를 개척할 수 있었다. 나는 차광수에게 그 과업을 맡기고 싶었다.

내가 신안툰마을에 내려가 사업하라고 하자 차광수는 의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시골에 있다가 운동선을 찾아 모처럼 올라온 사람을 왜 도로 시골로 보내는가고 농담절반, 진담절반으로 물었다. 남들은 서울이야, 동경이야, 상해야 하고 큰

도회지에서 돌아치며 운동을 하는 것도 성차지 않아 국제당에까지 찾아다니며 바람을 일구는데 손바닥만한 시골에 내려가서야 무슨 일을 치르겠는가고 하는 것이었다. 그는 낡은 운동방식을 반대하면서도 기성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차광수한테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큰 도시 같은데 틀고앉아 혁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우리는 도시건 시골이건 인민이 있는 곳이면 가리지 말고 가야 한다. 우리 나라 인구의 절대다수는 농민이다. 만주지방의 조선사람들도 대부분 농촌에서 살고 있다. 농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조국광복위업에 인민을 동원시킬 수 없으며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운동의 승리에 대하여서도 생각할 수 없다. 나도 학교를 마치면 농촌에 가서 사업하려고 한다. 국제당 같은데나 들락날락해야 공산주의자의 명분이 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옳지 못한 사고방식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국제당을 존중하는 것은 노동계급의 위업이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며 노동계급의 국제적으로 단합되어야 국제적으로 결합된 자본의 철쇄를 부실 수 있기 때문이다. 오직 자기앞에 부과된 민족적 의무와 국제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실히 투쟁한다면 국제당의 승인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목마르게 바라는 조국광복의 날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

지금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은 모두 우로만 올라가고 있다. 시골에서 고을로, 고을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국제당으로, … 우로 올라가야 축에도 들고 그 무슨 인정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산대중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자, 아래에 내려가 노동자, 농민들속으로 들어가자.

≪우로 올라갈것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자.≫

차광수는 이 말을 혼자소리로 심각하게 되뇌이고나서 한참동안 생각에 잠겨있더니 책상을 주먹으로 쾅 하고 내리치면서 ≪그것 참 신통한 발견이요!≫하고 부르짖었다.

차광수의 출현으로 하여 ≪ㅌ·ㄷ≫의 핵심역량은 새롭게 보강되었다. 우리의 운동권에는 조선공산당 상층부의 거물들과도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쟁쟁한 이론가가 등장한 셈이었다.

그때부터 차광수는 3년유여의 세월 우리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하였다. 그는 청년학생운동을 개척하고 대중의 혁명화를 다그치며 항일무장투쟁의 기초를 축성하는데서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신안툰, 강동, 교하, 고유수, 카륜, 오가자, 유하지방의 혁명화는 그의 이름과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

차광수는 처음에 길림주변 조선인부락들을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참가하였고 그 후에는 길림을 축으로 하는 남만의 유하와 카륜, 고유수, 오가자를 비롯한 중부만주의 조선인거주지들에서 김원우, 계영춘, 장울화, 박근원, 이종락, 박차석 등과 함께 청년들을 집결시키는 사업에 참가하였으며 마지막무렵에는 안도일대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창

건하는 사업에 참가하였다.

그는 어느고장에 가나 사람들과 쉽게 친숙해졌다. 군중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성미가 덜렁덜렁하고 지식이 해박하며 말주변이 좋은 그를 무척 따르고 존경하였다. 차광수가 가르치던 사회과학과목의 교수는 삼광학교(고유수) 학생들이 제일 큰 기대와 흥미를 가지고 기다리군하던 인기시간의 하나였다. 그는 청년학생들과 농민들을 위해서 강연도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보급하였다.

백신한의 추도식에서 한 그의 추도사가 아주 유명하였다.

차광수가 제일 자주 다닌 곳은 신안툰이었다. 그는 한동안 신안툰의 길흥학교 교원으로 있으면서 이 학교 학감네 집에 거처를 정하고 이 마을 농민들과 청년들, 부녀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였으며 그들을 반제청년동맹, 농민동맹, 부녀회, 소년회 조직에 묶어세워 마을을 혁명화하였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

신안툰은 민족주의자들과 종파분자들의 영향을 받고 있던 곳이었다. 종파분자들이 이따금씩 가며오며 들려서는 ≪무산계급혁명론≫이요, 무슨 론이요 하고 허황한 소리만 하기 때문에 봉건유습이 강한 이 마을 노인들과 어른들은 사회주의자라면 덮어놓고 머리부터 흔들었다.

그런 고장이어서 차광수도 처음에는 발을 붙이기 힘들어했다. 그는 남의 집 웃방을 얻어 도배도 잘 해놓고 마실방을 꾸려놓은 다음 유식한 늙은이를 한 둬 사람 골라가지고 노인들속에서 선전사업을 하게 하였다.

노인들은 밤마다 대통을 등에 꽂고 차광수가 꾸려놓은 방에 마을돌이를 오군 하였다. 그러면 차광수가 준비시킨 노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구수하게 하다가 ≪지금 세상은 나쁜 세상이야. 이런 세상을 개변하려면 지주놈부터 없애야 해.≫하는 식으로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몇 마디씩 하고 헤어졌다.

이렇게 늙은이들부터 교양한 다음 야학도 내오고 강연도 하고 사람들속에 어울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마을을 흥성거리게 만들어놓았다. 마을사람들은 차광수선생이 하는 것과 같은 사회주의라면 자기들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혁명사업에 발벗고나섰다.

나는 차광수가 신안툰에 자리잡은 다음 토요일이면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한테 찾아가군했다.

그때 우리는 적들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길림교외의 수수밭이나 강냉이밭속에 들어가 학생복을 농민복으로 갈아입군 하였다.

신안툰에 가서 차광수의 사업경험도 듣고 그의 일손도 도와주었다.

그 과정에 나는 차광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그도 나를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우리가 차광수를 통해 신안툰마을을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던 어느날이었다. 차광수가 길림에 나타나 나를 북산공원으로 잡아끌었다. 공원의 나무그늘밑에 자리를 잡았을 때 그는 허률이라는 주목할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허률은 용정에 있는 동흥중학교에 다닐 때부터 혁명사업에 관계했는데 법정대학에 다

니려고 얼마 전에 길림으로 왔다가 학비곤란으로 포기했다고 하였다.

차광수가 허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배경 때문이었다. 그가 하는 말이 허률을 길림에 파견한 사람은 김찬이라는 것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차광수는 김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다.

김찬으로 말하면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거물급이었다. 그는 1차공산당 때 선전부 책임자로 일하였고 2차공산당을 결성할 때에도 주도적 역할을 놀았다. 그 후 체포의 위험이 닥치자 상해로 가서 조선공산당 상해부를 조직하였다. 김찬은 화요파의 대표적 인물로서 조선공산당≪만주총국≫의 실질적인 조직자였다.

그가 자기의 영향밑에 있는 청년을 길림에 파견한 것은 우리에게 눈독을 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길림에서 우리가 공산주의기발을 들고 청년학생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사방에 퍼져가자 그도 우리에게 주목을 돌리게 된 것이다. 우리의 세력이 확대되니 똑똑한 사람들을 보내여 자기네 물을 먹여보려는 것이었다.

김찬자신도 길림에 와서 청년학생들과 많이 접촉하였다. 그는 강연도 여러 번 하였다. 나도 김찬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다. ≪맑스주의대가≫가 강연을 한다고 해서 차광수와 함께 그가 숙소로 이용하고 있던 대동문밖 이금천의 집으로 갔는데 혁명실천에 해를 주는 무식한 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고 말았다.

김찬은 그날 자기네 파가 조선혁명의 ≪정통파≫라고 하면서 다른 파들을 헐뜯었다. 지어 그는 조선혁명이 무산혁명이기 때문에 오직 노동자와 빈고농만 혁명의 동력으로 될 수 있고 다른 모든 비프롤레타리아적 요소들은 혁명의 동력으로 될 수 없다는 당치 않은 주장까지 하였다.

나는 그때 김찬의 연설을 들으면서 그의 주장이 인민대중에게 혼란을 주고 혁명실천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는 위험한 궤변이며 그런 궤변과 투쟁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올바른 공산주의운동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았다.

차광수는 같은 심정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런 줄도 모르고 김찬을 숭배해왔다고 하였다.

그 당시 종파분자들은 자기 파의 세력을 늘이려고 도처에서 청년들에게 손을 뻗치었다.

그때 엠엘파의 안광천이라는 사람도 흰 두루마기를 입고 길림에 나타나 공산주의운동의 ≪수령≫으로 행세하면서 자기 세력을 뻗치려고 했다. 그는 한때 엠엘계 공산당의 책임비서를 한 일도 있어 자존심이 이만저만 높지 않았다. 길림에는 그를 ≪맑스주의대가≫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안광천이 이름난 이론가라고 차광수가 말하기에 나도 우리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얻어들을 수 있을가 하여 두어 번 그를 만나보았다. 만나고보니 그도 김찬이처럼 연설을 멋들어지게 하였다.

처음에는 그의 연설을 들으면서 다들 감탄하였다. 그런데 그 인상이 얼마 가지 못하고 인차 뒤집혀졌다. 안광천은 대중운동을 무시하는 망발을 했다. 그는 국제당이나 큰 나라의 힘을 빌면 대중투쟁이 없이도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선과 같이 작은 나라는 대중투쟁을 하느라고 헛되게 피를 흘릴 것이 아니라 큰 나라의 덕으로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참으로 사상누각을 지으려는 것과 같은 황당한 궤변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도 역시 김찬과 같은 공리공담쟁이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에게 선생님의 말씀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들이대였다.

선생님은 대중투쟁을 얕보면서 공산당은 왜 조직했고 공산주의운동은 왜 하는가, 이 길림에 와서 사람들에게 혁명에 궐기하라고 부르짖는 것은 또 무엇때문인가

고 반문하였다. 그리고 대중을 각성시키고 묶어세워 투쟁에로 부르지 않는다면 몇 사람 안되는 공산당지도부를 가지고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과 자기 인민을 믿지 않고 남의 덕에 독립을 이룩해보려는 것은 망상이라고 논박하였다.

안광천은 우리가 너무 수준이 어려서 말할 상대가 안된다는 듯한 태도로 그런걸 이해하려면 쓴맛단맛을 다 보아야 하는 거야 하고는 너털웃음을 웃으면서 가버리었다.

그 후부터 우리는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종파분자들은 그때 ≪조선혁명은 프롤레타리아혁명≫이라느니, ≪만주의 조선인거주지역에서 먼저 사회주의를 건설해보자.≫느니 하는 따위의 좌경기회주의이론을 들고나오는가 하면 ≪조선혁명은 부르조아민주주의혁명이며 민족해방이 당면한 목적인 것만큼 혁명에서 영도권을 민족부르조아지가 장악해야 한다.≫는 우경기회주의적 이론도 들고나왔다.

종파분자들가운데는 조선과 같이 정치적 조건이 불리한 특수한 환경에서는 사상운동은 할 수 있을지언정 정치운동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독립이 선차이고 혁명은 후차≫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세계무산혁명을 완수하자.≫는 초혁명적인 구호로 대중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와 차광수는 신일용 같은 사람들과도 이론투쟁을 하였다.

많은 종파분자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은 예외없이 공명주의와 소부르조아영웅주의에 물젖은 행세군들이었고 고질적인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이었다.

이날 나는 차광수에게 김찬이 아무리 소문난 인물이라고 하여도 종파에 이골이 난 사람인 것만큼 환상을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는 누구든지 사람들을 대할 때 그의 명성과 경력, 지위를 보기에 앞서 그의 사상과 혁명에 대한 입장, 인민에 대한 관점부터 먼저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차광수는 공산주의운동에 첫발을 들여놓은데 지나지 않는 우리가 김찬과 같은 거물과 등을 지기보다는 손을 잡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 그랬다고 하면서 허률과 당장 인연을 끊겠다고 하였다.

그가 이렇게 태도를 달리하는 바람에 나는 심중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허률이 종파에 때묻은 사람이라면 지체없이 모든 관계를 끊어버려야 하겠지만 잠시 길을 잘못든 사람이라면 교양하여 같이 손잡고나가야 했다. 우리는 허률을 직접 만나보기로 마음먹었다.

어느 날 나는 차광수의 안내를 받아 허률이 있는 강동마을로 갔다. 길림에서 송화강다리를 건너 돈화쪽으로 얼마쯤 가면 용담산이란 산이 보이는데 그 산밑에 있는 마을이 강동이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반제청년동맹조직을 내오고 군중을 교양하여 장차 신안툰과 같이 혁명화된 농촌으로 꾸릴 결심이었다.

허률을 만나보니 사람이 착실하고 진지했다. 어느 모로 보든지 종파의 구렁텅이에 빠지라고 내버려두기에는 아까운 동무였다.

나는 차광수를 붙여 그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한편 나자신도 강동마을에 자주 가서 여러 모로 도와주었다.

허률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종파의 줄을 박으려고 왔던 그가 나중에는 종파를 반대하여 김찬과 등을 돌려대게 되었다. 우리는 마침내 강동마을에 혁명조직들을 내오고 그에 기초하여 온 마을을 혁명화할 수 있었으며 허률을 ≪ㅌ·ㄷ≫의 핵심성원으로, 후에는 반제청년동맹과 공청의 지도성원으로 키울 수 있었다.

9. 왕청문의 교훈

1929년 가을에 국민부는 흥경현 왕청문에서 동만청총과 남만청총을 통합하기 위한 대회를 소집하였다. 이 대회를 남만청총대회라고 하였다.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3부의 합작이 실현된 객관적 조건에 맞게 청년운동에서도 분산성을 퇴치하고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두 청년단체의 통합대회소집을 발기하고 대회기간에 조선청년동맹이라는 단일조직을 내오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대회를 통하여 청년조직들에 스며들어온 새 사조의 영향을 막고 만주일대에 있는 모든 조선청년단체들을 저들의 손아귀에 거머쥐려고 하였다.

우리는 동만청총과 남만청총과 같은 청년조직들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대회를 국민부사람들에게만 맡겨둘수는 없었다. 남만청총과 동만청총에는 종파분자들의 영향까지 적지 않게 미쳐 그 내부가 복잡하였다. 자칫하다가는 대회를 계기로 오히려 청년운동이 더 분열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나는 도착하자바람으로 현묵관을 찾아갔다.

현묵관은 국민부가 나온 후부터 길림에 있지 않고 왕청문에 와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국민부본부가 성주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으니 이번 대회에서 한 몫 단단히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다른데 숙소를 정하지 말고 자기 집에 있으면서 청년운동의 장래에 대하여 토론해보자고 하였다.

나는 현묵관의 성의를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그 청을 사양하고 나와 외가켠으로 먼 친척이 되는 강홍락이네 집에 숙소를 정하였다. 대회준비성원들이 들락날락하는 현묵관의 집은 내가 있을 형편이 못되었다.

강홍락은 민족주의좌파에 속하는 지식인으로 화흥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화흥중학교는 동만의 대성중학교처럼 독립군들이 민족주의사상교양을 하는 학교였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민족주의교양을 해도 나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뿐이었다. 간판은 민족주의인데 내용은 공산주의였다.

강홍락의 처는 오신애라고 부르는 용모가 아름다운 현대풍의 여성이었다. 노래를 잘 불러 남만지방의 조직들에서는 이름대신 ≪꾀꼴새≫하는 별명으로 통하였다.

국민부는 대회에 앞서 각 지역에서 온 청년조직대표들로 예비회의를 열고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선출하였다. 그 위원회에 최봉을 비롯한 우리 동무들이 여러명 들어갔다. 우리는 화성의숙에 다닐 때부터 그와 낯을 익히었다.

남만청총에서 간부로 활동하던 최봉은 그때 조선인거주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많이 하였다. 그가 화성의숙에 와서도 강연을 하여 인기를 끌었다. 이론수준도

있고 일욕심도 있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 후 그는 우리와 가깝게 지내면서 공산주의편으로 기울어졌다.

나도 준비위원으로 뽑히었다. 준비위원회성원들은 진지하게 토의하여 누구에게나 다 접수될 수 있는 대회결의안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밖의 다른 문건들도 우리의 의도대로 준비하였다.

나는 왕청문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청년대표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그 첫 사업으로 화흥중학교 마당에서 청년들의 모임을 조직하였다. 여러 청년조직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기회에 낯도 익히고 그들에게 영향도 주자는 것이였다. 미리 말을 해두지 않으면 그들이 국민부지도자들에게 사상적으로 농락될 수 있었다. 나는 이 모임에서 조선청년운동이 진정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면 사상의지적으로 단결해야 하며 이 단결은 새로운 선진사상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그 연설내용이 인차 국민부지도자들에게 알려진 모양이다. 나는 김리갑을 통하여 그들이 신경을 도사리고 나의 행동을 주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하를 떠날 때 차광수가 걱정한 것이 공연한 일이 아니였다.

≪ㅌ·ㄷ≫의 첫 성원중의 한 사람인 김리갑은 화성의숙이 페교된 후 왕청문에서 얼마쯤 떨어져있는 전경숙이란 약혼녀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그 일대를 혁명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전개력도 있고 담이 큰 사람이어서 일을 통이 크게 잘하였다. ≪반공≫을 기발처럼 휘두르고 있은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바람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였다.

김리갑은 대회에 방청으로 참가하려고 왕청문에 와있었다. 내가 화흥중학교에서 연설을 한 다음날 그는 나를 찾아와서 전경숙의 집에 저녁을 차려놓았으니 같이 가서 회포나 나누자고 하였다. 그가 나를 초청한 것은 국민부의 동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였다.

김리갑은 국민부사람들이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다 체포할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나더러 국민부가 손을 쓰기 전에 빨리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형편을 보고 정 곤란하면 그날밤중으로 왕청문을 떠나겠다고 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현묵관이 국민부간부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성주도 우리와는 사상이 다른 것만큼 결판을 지어야겠다고 선포했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나는 미리부터 몸을 피할 생각은 없었다. 내가 국민부에 해를 끼친 것도 없는데 그들이 감히 나를 잡아가겠는가 하는 배심이 있었던 것이다. 공산주의선전을 한다고 현묵관이 나를 문제시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다. 내가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것은 길림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 물론 현묵관도 얼마간 한 지붕아래서 같이 살았으니 이것을 짐작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체포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가. 우리는 국민부를 타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새 사상에 기초해서 모든 조선청년들이 단결하자고 호소했는데 그것이 박해의 이유로 될 수 있겠는가.

나는 필요한 경우 국민부의 간부들과 담판이라도 할 배짱이었다. 내가 강홍락의 집에 돌아오니 오신애가 어데 나갔다 들어와서 불길한 소식을 또 전해주었다. 국민부군대들이 최봉을 비롯한 몇 명의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벌써 체포해갔다는 것이었다. 오신애는 나도 그들이 찾고 있은 대상들가운데 한 사람이니 빨리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격분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는 왕청문에 온 첫날부터 남만청총대회를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을 성사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만들려고 여간 애를 쓰지 않았다. 대회의 결의안도 그런 방향에서 만들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부의 상층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테러로써 대답하려는 것이었다.

나는 국민부에서 청년사업을 책임진 고이허를 찾아가 담판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차광수도 국민부의 비행에 대한 소식을 얻어듣고 몇 명의 반제청년동맹원들과 함께 강홍락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국민부의 습격대상인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이 우선 왕청문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차광수

그러나 신변이 위태롭다고 해서 몸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들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된 지금 남은 방법은 국민부의 테러분자들과 담판을 하여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민족주의자들과의 합작을 이룩하자면 언제든지 한번은 속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야 하였다. 비록 분위기는 살벌하였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었다. 체포된 동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들을 꼭 만나야 하였다. 그것도 내가 가야 했다.

나는 동무들을 설복한 다음 차광수에게 뒤일을 부탁하고 고이허를 찾아갔다.

고이허는 국민부의 보수파가운데서도 가장 경향이 나쁜 사람이었다. 민족주의진영에서는 ≪이론가≫로 소문난 인간이었다. 내가 방에 들어서자 그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였다. 내가 자기를 찾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나는 고이허에게 최봉을 비롯한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왜 체포하였는가고 직방 들이댔다. 고이허는 자기들도 지금 그들의 행처를 찾는 중이라고 시치미를 뗐다.

나는 앞뒤가 다른 고이허의 태도에 더욱 분격을 금할 수 없었지만 될수록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를 설복하려고 하였다.

국민부는 청년운동을 통일한다고 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에서 청년들의 토론을 들어보기도전에 결의안초안을 보고 질겁하여 대표들을 체포했으니 이것은 너무 조급하고 독선적인 행동이다, 대회문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말해달라, 초안인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치자, 당신들이 대회주최자인 것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대목이 있으면 청년들을 불러서 의논을 해야 옳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가면 어떻게 마음놓고 새 사조를 섭취할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견결한 반일투사로 자라날수 있겠는가고 들이댔다.

고이허는 청년들이 지나치게 나가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했을 뿐 체포에 대해서는 정말 알지 못한다고 또 거짓말을 하였다.

나는 고이허에게 당신도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한 일이 있고 일경들의 체포를 피해 쏘련으로 가려던 사람이니 공산주의가 어떤 사조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혁명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치고 공산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자신만 해도 그렇다, 나로 말하면 독립운동자들이 설립한 화성의숙에 다니였고 길림에 와서도 독립군지도자들의 집에서 3년을 보냈다, 이런 나도 민족주의운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공

산주의운동을 하게 되었다. 우리 청년들이 새 사조를 신봉하는 것은 공산주의이념을 따르는 길이 조국의 광복을 앞당기는 길이고 우리 민족의 장래에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당신들도 조국의 독립을 위한 싸움에 나선 사람들인데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뛰어다니는 청년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체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고 항변하였다.

그리고는 고이허에게 새 사조를 따르는 청년들을 박해할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했다.

사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청년들을 제껴놓으면 남만청총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다.

고이허는 코웃음을 치면서 국민부는 남만청총을 내던지면 내던졌지 공산당의 손에 넘겨줄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그 이유를 물으니 그는 반석현에서 엠엘계의 종파분자들이 몽치단이라는 테러단을 무어가지고 민족주의자들을 습격한 사실을 실례로 들면서 이런 자들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는가고 빈정거렸다.

우리도 1929년 여름에 엠엘파의 몇몇 인물들이 삼원포일대에서 민족주의자들을 타도하려고 국민당군벌의 경찰에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이 반란을 기도한다는 허위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최창걸

그들은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을 주장하는 우리들까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몽치단을 동원하여 반제청년동맹간부들을 습격하는 망동까지 부리었다. 유하일대의 반제청년동맹원들이 최창걸이 지도하는 무장소조의 호위를 받아가면서 활동하게 된 것도 이 몽치단의 폭행 때문이었다.

나는 고이허에게 우리는 그런 종파쟁이들과는 전혀 다른 청년들이라고 다시 설복하였다. 그들은 민족주의자들과 싸울 뿐 아니라 우리와도 싸우고 자기들 호상간에도 파벌을 형성해가지고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은 추물들인데 그런 자들과 우리를 한 저울에 올려놓으면 안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고이허는 나의 성의있는 설복을 끝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만일 당신들이 끝끝내 청년들의 기세를 꺾으려든다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역사에 남기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 비록 몇 명의 육체는 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대중의 사상은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좋다. 당신네가 나를 죽이겠으면 죽이라. 나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만큼 말했으면 좀 자극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점점 더 완고한 대결자세를 취하면서 그날밤 왕청문에 주둔하고 있은 독립군무력에 비상소집령을 내리고 우리에 대한 체포소동을 벌이었다.

나는 유혈을 막기 위하여 차광수를 급히 삼원포로 돌려보냈다. 국민부의 우두머리들이 유하현의 우리 동무들한테까지 손을 뻗칠 수 있었다. 남만청총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여온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도 그 밤으로 왕청문에서 떠나게 하였다. 나는 동무들에게 국민부가 남만청총대회를 소집해놓고 진보적인 청년들을 모해하고 있으니 대회에서 탈퇴하고 그들의 테러행위에 대해서는 성토문을 써서 발표하는 방법으로 만천하에 고발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남만청총대회는 유산되고 말았다.

나도 왕청문에서 떠나려고 결심하였다.

동무들은 최창걸이 활동하고 있은 유하현 삼원포에 가서 성토문을 작성하여 만주각지에 보내고 우리끼리 대회를 해보자고 제의하였다. 그런데 독립군세력이 강한 삼원포에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나는 삼원포에 갈가, 능가라는 곳으로 갈가 하고 망설이던 끝에 능가에 가서 차후의 활동방향을 결정짓기로 하였다. 능가에서 숨을 좀 돌리고 길림에 들렸다가 거기도 있을 재미가 없으면 무송으로 가서 국민부의 테러선풍이 잦아들 때까지 대중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나는 그날저녁으로 강흥락의 집에 돌아와서 ≪내가 여기서 자다가는 잡힐 것 같습니다. 능가에 가겠으니 노자나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강홍락은 그 말을 듣자 한숨을 쉬며 걱정하였다.

≪자네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뛰겠는가?≫

≪큰길로 냅다뛰어서 80리만 가면 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능가에 가면 문광중학교 출신의 조직원이 있으니 얼마동안은 견디여낼 수 있다고 말했더니 강홍락부부는 그제서야 안도감을 느끼는 듯 도중식사와 판대기엿 몇 개를 보자기에 싸주었다.


안신영

문광중학교 출신의 조직원이란 신영근을 말한다. 신영근은 능가의 한흥학교에서 교장으로 사업하고 있었다.

나는 이튿날 점심때가 다되어서야 능가에 도착하였다.

한흥학교 고등과의 녀학생들은 나에게 있는 성의를 다했다. 강동에서 반제청년동맹성원으로 활동하다가 한흥학교에 온 신영근의 애인 안신영이 동무들과 함께 녹두묵과 시원한 랭국을 만들어 푸짐하게 점심상을 차려주었다. 그 점심밥을 얼마나 달게 먹었던지 지금까지도 인상에 깊이 남아있다.

나는 식사를 한 다음 피곤을 무릅쓰고 한흥학교의 운영정형을 이것저것 알아보았다. 그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리었다. 밤새 80리를 걸어오느라고 녹초가 되었던 것이다. 그날 신영근은 내 잠을 깨울가봐 상학종도 울리지 못하고 밖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을 한아이한아이 손짓으로 불러들여 수업을 했다고 한다.

나는 능가에 머물러있을 때 국민부사람들이 체포한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끝끝내 처형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자들은 최봉, 이태희, 지운산, 이몽렬, 이광선, 조희연 등 스물한두 살밖에 안되는 6명의 전도양양한 청년들을 왕청문 괴모지구 산골짜기에서 학살하였다.

최봉을 비롯한 6명의 청년들은 최후의 순간에 ≪우리는 노력자대중의 입장에서 자신의 희생을 이미 각오한 바 있다. 그러나 너희들의 손에 죽기는 너무 원통하다.≫는 말로 국민부의 죄행을 절규하면서 ≪혁명가≫를 부르고 ≪혁명승리 만세!≫를 웨치였다.

국민부의 테러분자들은 그 후 학살당한 6명의 가족들까지 모조리 붙잡아다가 없애치우려고 책동하였다. 고이허는 나에게 자기들의 살인흉계를 알려준 오신애까지 끌어내다가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우리는 능가에서 피눈물을 머금고 국민부지도부의 죄행을 온 세상에 고발하는 성토문을 썼다. 그 성토문을 최창걸이 활동하고 있은 삼원포에서 등사하여 발표하

게 하고 각지의 혁명조직들에도 보내여 성토대회를 열게 하였다.

우리는 청년대중의 전위투사들을 공산청년이라고 하여 학살한 소위 국민부란 반혁명분자 몇 개인의 영리장이며 살인음모소이며 중국의 노동자, 농민을 학살한 장개석의 졸도와 다름없는 역적들의 집단이라고 규탄하였다.

이 성토문을 낸 후부터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과 국민부사이에는 정면대립이 조성되었다. 국민부의 테러분자들은 우리 계열의 청년들을 만나기만 하면 덮어놓고 ≪토벌≫하였다. 그자들의 손에 그때 끌끌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되어 우리의 가슴에 국민부에 대한 원한이 단단히 맺히었다.

왕청문사건이 있은 다음 나는 가슴이 아파 며칠밤 잠을 자지 못하였다. 나라를 찾아보자고 혁명의 길에 뛰어들었는데 같은 민족한테 피해를 당하는 것이 분하고 억울하였다.

우리는 ≪ㅌ · ㄷ≫를 결성한 첫날부터 항상 민족주의자들과의 공동투쟁을 모색해왔다. 안창호의 사상이 개량주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그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도 그가 붙잡혔을 때에는 주저없이 그를 감옥에서 석방하기 위해 투쟁했다. 3부통합회의가 권력다툼으로 시간을 질질 끌 때에는 애국역량의 단합을 바라는 우리의 진정을 담아 예술의 힘으로 민족주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며 독립운동단체들이 국민부로 통합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였다.

그러나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그 성의를 외면하고 야수적인 살륙으로 우리를 대하였다.

나는 그때 능가에서 ≪조선사람은 비록 세 사람이 모여도 단결하여 일제와 싸워야 한다.≫고 하던 차천리노인의 말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상기하였다.

독립운동자들가운데도 단결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다. 대중은 모든 애국자들이 다 주의나 단체나 신앙에 관계없이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쳐 반일항쟁에 떨쳐나설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민부의 테러분자들은 민중의 이 기대를 여지없이 짓밟아버리었다.

지금도 왕청문의 참사를 회고할 때면 당시의 분노가 온몸에 그대로 되살아나군 한다. 나는 그 비극을 돌이켜볼 때마다 우리 민족내부에서 그처럼 참혹하고 무의미한 살륙이 더는 재연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군 한다. 고이허나 현묵관도 세상에 살아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와 인정적으로 그처럼 가까우면서도 이념상의 차이로 같은 길을 걷지 못했던 현묵관은 그 후 장사에서 테러분자들에게 살해되었다. 결국 그자신도 테러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그의 딸 현숙자가 해방 후 상해임시정부인사들을 따라 조국에 돌아와 서울 반도호텔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지금 당역사연구소에 보관되어있을 것이다.

그가 낳은 자식들은 분열된 조국의 북쪽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조선의 민족해방투쟁역사는 공산주의자들이 가는 길이야말로 애국애족의 길이며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참되고 견실한 애국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오늘 국토가 분열되어있고 외세의 간섭이 심한 조건에서 민족단합이 첫째가는 생명이라는 것을 절감할 때마다 나는 왕청문의 비극을 생각하군 한다.

10. 철창속에서


길림감옥

≪길림바람≫이 만주의 여러 지역을 휩쓸게 되자 일제와 중국의 반동군벌은 점차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게 되었다. 길림에서 세차게 일어난 청년학생운동과 중동철도사건, 남만청총대회사건으로 하여 우리에 대한 소문이 여러곳에 퍼지게 되면서부터 적들은 길림의 공기를 소란스럽게 하는 장본인이 청년학생들이라는 것을 간파하고 우리의 뒤를 캐기 시작하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은 만주를 침략하기 위하여 도처에 정탐군들을 박아넣고 조선사람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감시하는 한편 중국의 반동군벌을 부추겨 공산주의자들과 반일독립운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투옥하였다. 길림의 형세는 매우 삼엄해졌으며 우리의 앞길에는 어려운 고비가 닥쳐오게 되었다.

사태가 험악해지자 길림시내에 들어와 박혀있던 종파분자들은 용정, 반석, 돈화와 같은 곳으로 달아나고 독립운동자들은 국적을 중국국적으로 바꾸어가지고 관내로 들어가거나 왕청문과 같은 곳으로 피신해버리었다. 1929년 가을의 길림은 벌써 반일운동자들이 와글거리던 조선의 해외정치운동의 중심지가 아니였다.

이런 때 길림제5중학교 학생들이 독서회에서 쓸 데 없이 떠들어댄 것이 실마리가 되어 우리 동무들이 체포되기 시작하였다. 방금 왕청문에서 돌아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뛰어다니던 나도 반동군벌당국에 걸려들었다. 5중학교의 학생들이 육문중학교의 공청조직도 다 불었던 것이다.

경찰들은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을 일망타진하였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무지막지한 고문을 들이댔다. 그때까지 우리가 벌려온 투쟁내용과 길림시내에 거미줄처럼 늘여져있던 조직망을 들춰내고 그 배후세력을 알아내자는 것이였다.

우리는 좌익서적을 읽었다는 것 이외에 다른 말은 입밖에 내지 않기로 하였다. 학생이 책을 읽은 것이 무슨 잘못이냐, 우리는 책방에서 파는 책을 읽었다, 죄를 따지려면 책을 출판하고 팔도록 허가한 당국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심문을 들이대는 형리들에게 이런 항변을 하면서 끝까지 뻗대였다.

내가 손가락 비트는 고문을 당하고 있던 어느 날 화성의숙 숙장을 하던 최동오선생이 심문실 한쪽에 세워놓은 간막이뒤에서 나를 피뜩 내다보다가 사라졌다. 너무도 예상치 않았던 일이어서 처음에는 혹시 무슨 착각이라도 하지 않았는가 하고 자기눈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화성의숙시절의 숙장 최동오선생이 틀림없었다. 적들이 화성의숙시절의 스승까지 심문실에 데려온 것을 보면 나의 뒤를 어지간히 깊이 캔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최동오선생의 출현은 나의 생각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때 최동오선생은 중국말도 잘하고 외교사업에도 능하여 국민부의 외교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선생은 국민당반동군벌당국과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주

로 길림에 있으면서 청년학생들과도 일정하게 연계를 가지였다.

만일 그가 우리의 정체에 대하여 사실대로 반동군벌당국에 노출시키는 날에는 사건을 최소한도로 축소시키려던 우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다. 더구나 중동철도사건 때 우리가 쏘련을 옹호하여 투쟁한 전적이 조금이라도 드러나게 된다면 도저히 무사할 수 없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촉과 조종하에 중국국민당정부와 봉계군벌은 1920년대 말에 이르러 배신적인 반쏘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었다. 장개석정부는 광주인민봉기가 실패로 돌아간 후 광주주재 쏘련영사를 총살하고 쏘련과 국교를 단절하였다. 반쏘는 제국주의열강들에게 아첨하여 그 보호와 지지를 받아보려는 장개석의 주패장이었다.

군벌들의 입에서는 ≪적색제국주의를 반대한다.≫는 구호가 자주 울려나왔다. 그들은 중국인민의 민족감정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진상을 은폐하였으며 반쏘사상을 집요하게 고취하였다.

군벌들의 선전에 기만당한 대학생들과 청년인텔리들까지도 ≪우랄산을 점령하고 바이깔호를 차지하자!≫, ≪바이깔호에서 말물을 먹이자!≫는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폭언을 마구 해대면서 쏘련땅을 넘겨다보았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군벌은 반쏘도발의 첫 순서로 중동철도를 공격하였다. 중쏘 양국은 협정에 따라 재산과 설비를 절반씩 차지하고 이사회라는 관리기구를 통하여 이 철도를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었다. 군벌은 무력을 동원하여 무선전신국과 관리국을 점령하고 철도를 완전히 탈취하였으며 쏘련측의 주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었다. 중동철도를 장악한 다음에는 곧 국경을 넘어 세 개 방향으로 쏘련을 침공하였다. 이렇게 되어 쏘련군대와 중국반동군벌군대사이에는 무장충돌이 일어났다.

그때 풍용대학과 동북대학의 일부 우익계 학생들은 반동들의 사촉을 받아 무장까지 하고 쏘련을 반대하여 나섰다.

우리는 국민당정부와 반동군벌의 반쏘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을 투쟁에 궐기시키고 사회주의나라인 쏘련을 옹호하여 나섰다.

각성되지 못한 중국의 일부 청년들은 우리를 중화민족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들을 돕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멀리 하였다. 참으로 딱한 일이었다.

우리는 시내 여러 곳에 군벌의 반쏘책동의 본질을 발가놓는 삐라도 뿌리고 중국사람들속에 들어가 선전사업도 벌려 군벌군대가 중동철도를 탈취하고 쏘련을 침공한 것은 10월혁명후 중국과 체결한 일체 불평등조약을 폐기하고 중국에 물심양면의 원조를 준 쏘련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배신행위이며 제국주의자들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한 밑천을 얻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폭로하였다.

국민당반동들과 군벌들의 선전에 속아서 쏘련을 적대시하던 사람들도 우리의 선전을 듣고나서는 반쏘련침공의 위험성과 본질을 비로소 깨닫고 그것을 반대하는데로 태도와 입장을 바꾸었다.

우리는 중국의 진보적인 청년들과 함께 무장을 들고 쏘련을 공격하겠다고 날치는 풍용대학 학생들에게도 된타격을 주었다.

중동철도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진행한 투쟁은 쏘련을 정치적으로 옹호하기 위한 국제주의적 투쟁이었다. 우리는 그때 지구상에 처음으로 수립된 사회주의제도를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옹호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을 공산주의자들앞에 부과된 성스러운 국제주의적 의무로 간수하였다.

중동철도사건을 둘러싸고 우리가 진행한 투쟁을 통하여 중국인민은 군벌의 진면모를 똑똑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벌의 배후에서 그들을 반쏘행동에로 끊임없이 부추기는 제국주의자들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조중인민은 중

동철도사건을 계기로 크게 각성되었다.

당시 국민당군벌은 쏘련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최동오선생이 왔다간 다음에도 심문자들은 나를 여전히 독서회사건의 주모자로만 취급하였다. 군벌당국은 최동오선생을 데려다가 나의 신분을 확인하기도 하고 내가 쏘련과 연계가 있는지, 어떤 운동을 했는지 알아본 것 같았다. 그러나 최동오선생이 나한테 해될 말은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우리는 얼마후 길림감옥으로 넘어갔다. 길림감옥은 간수가 가운데 앉아있으면서 사방을 감시할 수 있게 동서남북으로 복도를 내고 그 복도의 량 옆에 감방들이 붙어있는 십자형건물이였다.

내가 갇혀있던 감방은 북쪽복도의 오른쪽으로부터 두 번째 칸이였다. 북향이여서 일년 내내 해볕이 들지 않아 곰팡이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겨울이면 벽에 성에가 하얗게 돋아 녹을줄 몰랐다. 우리가 감옥으로 이송되였 때는 가을이었는데 감방안이 겨울처럼 찼다.

군벌당국은 죄수들을 다루는데서 심한 민족적 차별을 두었다. 간수들은 ≪조선놈≫이니, ≪조선망국노≫니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며 무거운 쇠덩어리가 매달린 족쇄를 조선학생들의 발목에 채웠다.

군벌당국은 식사조건과 감옥안의 보잘 것 없는 의료시설을 이용하는데서도 중국인정치범들과 차별을 두었다.

나는 옥중에서도 투쟁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혁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옥은 하나의 투쟁무대라고 할 수 있다. 감옥을 단순히 죄인들을 가두어두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피동에 빠져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감옥을 세계의 한 부분이라고 여기게 되면 그 비좁은 공간속에서도 혁명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투쟁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외부와의 연계를 취하여 파괴된 조직들을 한시바삐 수습하고 움직이게 하리라고 마음먹었다. 또한 군벌당국과 싸워 출옥날자를 앞당기리라고 결심하였다.

옥중에서 투쟁을 벌이자니 외부와 연계를 취하는 것이 문제였다. 그것을 해결하자면 간수들을 교양하여 우리의 동정자로 만들어야 했다.

간수를 쟁취하려는 나의 의도는 예상외로 쉽게 이루어졌다. 그때 감옥당국에서는 감방들을 수리하면서 얼마동안 우리들을 잡범들과 같이 있게 하였다. 감옥당국의 이런 조치는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어느 날 나와 한 감방에서 생활하던 중국인죄수가 갑자기 독감에 걸려 자리에 드러누웠다. 그는 부자집을 털다가 잡혀들어온 사람이였는데 행동거지가 매우 조폭하였다.

내각 잡범들의 방에 옮겨간 날 ≪깡퉅≫이라고 불리우는 그 죄수는 상좌에 올방자를 틀고앉아서 우리더러 돈도 좋고 먹을 것도 좋으니 한턱 내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였다. 자기네 감방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법도를 지키게 되어있으니 너희들도 그 법도를 지켜야 하지 않는가고 하면서 호통질을 하였다. 아주 감때사납고 무지막지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 죄수에게 며칠동안 취조실에서 단련을 받다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은 어디에서 나며 먹을 것은 어데서 생기겠는가, 턱으로 말하면 감방생활을 오래 한 당신들이 내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고 오금을 박았다.



십자형감옥외경

말문이 막힌 ≪깡툴≫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서 나를 쏘아보기만 하였다.

평소에 이처럼 폭군과 같이 전횡을 부리던 죄수이기 때문에 그가 고열에 시달리며 밥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였지만 감방사람들은 모두 강건너 불보듯하면서 그를 따뜻하게 간호해주지 않았다.

나는 감옥에 들어올 때 손정도목사네 집에서 보내준 이불을 그에게 덮어주고 간수를 불러 감옥병원에서 약을 가져달라고 요구하였다.

행동이 거칠고 붙임성이 없는 그 죄수를 평시부터 아니꼽게 보아오던 이가성을 가진 이 간수는 조선사람이 중국사람을 살붙이처럼 돌봐주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였다. 우리의 성의있는 간호로 앓던 죄수는 인차 병석에서 일어났다. 그 후부터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는 변화가 생기였다. 간수들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해 쩔쩔매는 괴벽하고 포악한 잡범이 중학생인 내앞에서 갑자기 고분고분한 사람으로 변하자 이간수는 자못 신기하게 생각하며 나를 어렵게 대하기 시작했다.

그는 길림감옥의 간수들가운데서 비교적 온순하고 민족성이 있은 사람이였다. 밖에 있는 조직성원들은 이간수의 출신이 비천하다는 것과 그가 밥을 벌어먹기 위해서 간수가 된 사람이라고 통보해주었다. 나는 이모저모로 이간수를 요해하던 끝에 그를 쟁취하기로 결심하고 그와 말할 기회를 많이 만들었다. 그 과정에 그가 동생의 약혼식을 앞두고 예장감을 장만하지 못해 안타까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우리 동무들이 감옥으로 면회를 온 기회에 이간수가 안타까와하는 문제를 상정시키고 조직을 발동해서 그의 애로를 풀어주도록 대책을 세워주었다.

며칠 후 이간수가 나를 찾아와 예장감을 장만해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감옥당국이 당신을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인가고 물었다.

내가 공산주의자라고 대답하자 그는 모를 일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모두 ≪비적≫이라고 하는데 아무려면 당신같이 선량한 사람들이 남의 것을 빼앗겠는가, 당신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이 틀림없다면 공산주의자들에게 ≪비적≫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열을 내여 말했다.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자들은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 사는 사회를 세우기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조선땅에서 일제를 몰아내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이다, 돈많고 권세있는 놈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비적≫이라고 하면서 욕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지주, 자본가나 토호, 매국노들이 판을 치는 썩어빠진 세상을 뒤집어엎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차근차근 말해주었다.

이간수는 머리를 끄덕이면서 우리가 무식하다나니 지금까지 당국의 거짓선전에 넘어갔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말을 곧이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 후부터 이간수는 근무교대를 하고 돌아갈 때마다 나를 찾아왔는데 내가 다른 감방에 무슨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선선히 들어주었다. 얼마 후부터는 그를 통하여 외부와의 연계까지 취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나의 감옥생활은 비교적 자유로와졌다.

그러나 모든 간수들이 다 이간수와 같이 선의를 가지고 우리를 대해준 것은 아니었다. 간수들 중에는 문구멍으로 감방안을 엿보면서 수인들을 못살게 구는 뱀같은 간수장이 한 명 있었다.

길림감옥에 있는 감수장이 모두 세 명이었는데 그 간수장에 대한 평이 제일 나빴다. 그가 당번을 서는 시간에는 수인들이 감방에서 하품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다.

어느 날 그 간수장의 버릇을 떼여주기로 결심한 우리는 이 일을 누구에게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옥중에서 그 적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토의를 하였다. 그때

길림제5중학교 3학년에 다니다가 붙잡혀 들어온 황수전이라는 중국학생이 이일을 자기가 맡아서 해보겠다고 자청해나섰다. 독서회사건으로 감옥에 끌려온 학생들 중 조선학생은 모두 2명뿐이였고 나머지는 중국학생들이였다.

우리는 그에게 간수장을 혼내워주면 독감방에 갇히워 적어도 다섯 달은 더 고생하겠는데 그래도 일없겠는가고 물었다. 황수전은 동무들을 위해 희생할 셈치고 어떻게 하든지 그놈을 혼내주어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묘한 방법으로 간수장의 버릇을 뚝 떼주겠는데 너희들은 옆에서 구경이나 하라고 하였다. 그는 참대저가락끝을 뾰족하게 깎아두었다가 간수장이 감시구로 감방안을 들여다볼 때 눈을 찔렀다. 간수장의 눈에서는 피와 함께 먹물이 흘러나왔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감방안에 갇힌 학생들은 그때 황수전을 보고 모두 영웅이라고 추어주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황수전자신은 추운 겨울날 불도 때지 않은 독감방에 갇히워 한동안 죽을 고생을 하였다.

학생들은 간수들에게 황수전을 독감방에서 내놓지 않으면 네놈들의 눈을 다 찔러놓겠다고 을러메면서 그를 빨리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

감옥당국은 학생들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그 후부터 우리는 감방에서 하고싶은 것을 다하였다. 모임을 하고싶으면 모임을 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감방들에도 마음대로 다니었다. 내가 어느 감방에 가겠다고 하면 간수들은 어서 가보라고 하면서 문까지 열어주었다.

나는 감옥생활을 할 때 손정도목사한테서 많은 방조를 받았다.

손정도목사는 내가 길림에서 혁명활동을 한 전기간 나를 친혈육에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후원해준 사람이었다. 그는 국내에 있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와 두터운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다. 같은 학교(숭실중학교) 출신이라는 관념도 작용하였지만 그보다는 사상과 이념의 공통성이 아버지와 손정도를 뜨거운 우정으로 결합시키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는 생전에 손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손정도는 3.1운동직후 중국에 망명하여 상해임시정부에서 한동안 의정원 의장직을 맡아보았다. 한때는 상해에서 김구, 조상섭, 이유필, 윤기섭 등과 함께 무력항쟁을 담당할 군사인재양성의 사명을 띤 노병회를 조직하고 그 단체의 노동부장으로도 활약하였다.

그러나 노병회가 해체되고 임시정부내부에서 파벌투쟁이 심해지자 그에 환멸을 느끼고 길림으로 자리를 옮기였다.

길림에 와서는 예배당을 하나 꾸려놓고 독립운동을 하였다. 우리가 대중교양장소로 널리 이용하고 있던 예배당이 바로 그 예배당이었다. 원래 손목사는 신앙심이 깊은 독실한 기독교신자였다. 그는 길림의 기독교신자들과 독립운동자들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우리 나라의 기독교신자들속에는 손정도처럼 일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훌륭한 애국자들이 많았다. 그들은 기도를 드려도 조선을 위한 기도를 드리었고 ≪하느님≫에게 하소연을 하여도 망국의 불행을 덜어달라는 하소연을 하였다. 그들의 순결한 신앙심은 항상 애국심과 연결되어있었으며 평화롭고 화목하고 자유로운 낙원을 건설하려는 그들의 염원은 시종일관 나라의 광복을 위한 애국투쟁에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았다.

천도교와 불교계 신자들의 절대다수도 애국자들이었다.

손정도가 유길학우회 고문이었으므로 나는 그와 자주 상종하였다. 그는 나를 만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도 젊은 나이에 일찍 세상을 떠나신 것이 분하고 애석

하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 독립운동의 선봉에 서서 민족을 위해 투신하라고 격려하군 하였다.

내가 길림에 와서 육문중학교에서 3년동안이나 공부할 수 있은 것은 손정도와 같은 아버지의 친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였다.

손정도목사는 어머니의 삯빨래와 삯바느질로 겨우 유지되어가는 우리 집의 구차한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나에게 학비를 여러 번 보태주었다. 목사의 부인도 나를 몹시 사랑해주었다. 명절때면 그 부인이 나를 청해다가 조선식으로 맛있는 음식도 해주었다. 그 집에 가서 먹던 토끼고기를 넣은 두부지지개와 쫀드기떡이 참말로 별맛이였다. 쫀드기라는 풀은 잎에 보드라운 털이 난 것이였는데 냄새도 없고 독도 없었다. 손목사의 집에서는 평양에 있을 때부터 그 풀로 떡을 해먹었다고 하였다. 그날 내가 목사의 집에서 먹은 떡은 북산공원에 가서 뜯어온 쫀드기로 만든 것이였다.

손정도에게는 아들 둘에 딸 셋이 있었다. 길림에서 우리의 운동에 관여한 것은 둘째 아들 손원태와 막내딸 손인실이였다.

손인실은 그때 황귀헌, 윤선호, 김병숙, 윤옥채 등과 함께 조선인길림소년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내가 청년학생운동을 할 때와 감옥에서 고초를 겪고 있을 때 나의 심부름을 많이 들어주었다.

하루는 간수가 새 수인 한 사람을 우리 감방에 던져넣고 갔다. 어찌나 심한 고문을 받았던지 형체도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는 여신청년회 조직부장 강명근이였다. 1929년 봄에 군벌당국에 갑자기 체포되어 생사를 알길 없던 그를 감옥에서 만나게 되니 놀랍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였다. 그가 체포된 것은 종파분자들의 허위밀고 때문이였다. 강명근은 주중청총사건 때문에 종파분자들의 보복을 받은 것이다.

종파분자들은 여신청년회대표들이 지창자에서 열린 주중청총모임에서 탈퇴하여 자기들의 무모한 행동을 폭로하는 성토문을 낸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모해하던 끝에 교하에서 한 청년이 병으로 죽게 되자 강명근네가 그 청년을 독살한 것처럼 군벌당국에 밀고하였다.

나는 애매하게 처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눈물을 흘리는 강명근에게 혁명을 하겠다고 큰뜻을 품고나선 청년이 그쯤한 일에 의기를 꺾이워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사람이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으니 군벌당국과 끝까지 싸워서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고무해주었다.

강명근은 그 후 재판정에서 우리가 말해준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견결하게 싸웠다.

그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전기간 깨끗하게 살다가 해방된 다음 조국에 돌아와 우리 당의 과업을 받고 우당과의 사업을 성실하게 하였다.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야 나는 강명근이 살아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만나자는 약속을 하였다.

이 기별이 강명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것 같다. 그는 나와의 상봉을 앞두고 안타깝게도 뇌출혈을 하였다.

그때 그가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길림시절을 두고 뜨거운 회포를 나누었을 것이다.

나는 감방에서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이 남긴 경험과 교훈도 분석해보고 다른 나라의 혁명운동경험도 더듬어보았다.

우리 민족은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시


감옥복도

위투쟁도 해보고 파업투쟁도 해보고 의병투쟁도 해보았으며 독립군운동도 해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투쟁은 실패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운동도 많이 하고 피도 많이 흘렸는데 왜 투쟁은 승리하지 못하고 매번 주저앉기만 하였는가?

우리 나라 반일투쟁대열안에는 파벌이 형성되어 민족해방투쟁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

반일항쟁의 첫 봉화를 들고 8도강산을 주름잡던 의병의 대오는 상하일치를 이룩하지 못하고 분열되어있었다. 왕조정치의 회복을 바라는 유생출신의 의병장들과 기성질서의 개혁을 부르짖는 평민출신의병들사이에는 심각한 이념상의 대립과 모순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의병의 전투력을 높일 수 없게 하였다.

구제도의 복구를 절대이념으로 삼고 있던 일부 의병장들은 정부로부터 관직을 받기 위해 전공을 다투는 싸움까지 하여 대오를 분열시켰다.

평민출신의 의병장들은 유생출신의 의병장들과 연합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은 의병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빚어냈다.

독립군의 실태도 이와 별로 다른 것이 없었다. 독립군은 조직자체에서부터 분산성과 산만성을 드러냈다.

만주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던 여러 개의 독립운동단체들이 3부로 통합된 다음에도 파쟁은 계속되었다.

3부의 통합으로 국민부가 나오기는 하였으나 그 상층은 국민부파와 반국민부파로 갈라져 권력싸움을 그치지 않았다.

민족주의자들은 이렇게 여러 파로 갈라져 큰 나라들을 쳐다보면서 쓸데없는 말싸움만 하였다.

독립운동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인물들 가운데는 중국을 등에 업고 조선의 독립을 이룩해 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쏘련의 힘을 빌어 일본을 타승해 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미국이 조선독립을 ≪선사≫해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민족주의자들이 사대주의를 하게 된 것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은데 있었다. 민족주의운동은 인민대중을 떠나 상층운동에 머물러있였기 때문에 튼튼한 지반을 가질 수 없었으며 인민들의 지지도 받을 수 없었다.

인민들과 이탈되어 상층의 몇몇 사람들끼리만 모여앉아 말공부와 권력다툼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불러일으키지 않은 본질적 약점은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속에서도 나타났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결속하며 투쟁에 동원할 대신 인민들과 동떨어져 말공부나 하고 ≪영도권≫쟁탈을 위한 권력싸움만 하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운동내에 발생한 종파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 종파분자들이란 민족주의계열의 부르조아지나 소부르조아인텔리들과 몰락한 봉건귀족, 양반출신 인텔리들로서 사회주의10월혁명 이후 노동운동이 급속히 앙양되고 맑스-레닌주의가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은 시대적 추세에 편승하여 맑스주의간판을 들고 혁명의 조류속에 휩쓸려 들어온 사람들이였다.

그들은 처음부터 파벌을 형성하고 ≪영도권≫쟁탈을 위한 권력싸움을 벌였다.

종파분자들의 분파책동으로 하여 결국 조선공산당은 자기대열의 통일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일제의 탄압을 이겨낼 수 없었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은 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자체로 당을 꾸리고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파가 ≪정통파≫라고 하면서 감자도장까지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의 승인을 받으러 돌아다니였다.

나는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이러한 실태를 분석하여 보고 혁명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심각히 느끼게 되였다.

이로부터 나는 자기 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여야 승리할 수 있으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였다. 이것이 지금 말하는 주체사상의 출발점으로 되였다.

나는 감방에서 앞으로 조선혁명을 어떻게 이끌고나갈 것인가 하는데 대하여서도 여러 모로 생각해보았다.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자면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싸워야 하며 반일역량을 어떻게 하나로 결속하여야 하겠는가, 혁명의 영도기관으로서의 당은 어떻게 창건하여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고심을 하였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면 무슨 사업부터 착수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도 생각하였다.

그때 나는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과 사회계급적 제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조선혁명의 성격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으로 규정하고 무장한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을 광복하자면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하며 노동자, 농민, 민족자본가, 종교인을 비롯한 모든 반일애국역량을 반일의 기치하에 묶어세워 투쟁에 불러일으키고 파쟁이 없는 새로운 혁명적 당을 창건하여야 한다는 투쟁방침을 확정하였다.

조선혁명을 수행해나가는데서 우리가 견지하여야 할 입장과 관점이 명백해지고 노선과 방침도 뚜렷하게 머리속에 그려볼 수 있게 되니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가야겠다는 충동을 억제하기 어려웠다. 나는 출옥날자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벌이기로 하였다.

우리는 ≪학생사건≫으로 감옥에 들어온 동무들과 함께 출옥투쟁을 위한 준비를 하나하나 짜고들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한 투쟁방법은 단식이였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비장한 결심을 하고 투쟁에 들어섰다.

단식투쟁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잡범들까지 망라된 이번 투쟁에서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단식이 시작되자 매 감방에서 음식이 그대로 되돌아나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그릇의 음식을 놓고 싸우던 잡범들까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학생사건≫으로 들어온 우리 동무들이 소리없이 교양사업을 해온 보람이 컸다.

감옥밖에 있는 동무들도 우리의 출옥투쟁을 적극적으로 방조해주었다. 우리 동무들은 옥중투쟁에 호응하여 길림감옥의 비인간적인 처사를 폭로하면서 사회적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군벌당국은 굳게 단결된 우리의 투쟁앞에 굴복하고야 말았다.

나는 1930년 5월초에 길림감옥을 나섰다. 궁륭식으로 된 감옥문을 나서는 나의 가슴은 신념과 열정으로 차고넘치었다.

나는 감옥에서 초기공산주의운동과 민족주의운동을 총화하였고 그 교훈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의 앞길을 설계하였다.

돌이켜보면 나의 아버지는 평양감옥에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모색을 하였고 나는 이렇게 길림감옥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조선혁명의 앞길을 구상하였다.

불행한 망국노의 아들들이어서 아버지도 나도 감옥안에서 나라와 민족의 전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